耘谷文學

耘谷元天錫研究資料集

耘谷文學研究會

耘谷文學 - 耘谷元天錫 研究資料集 (非賣品)

1994. 7. 15 인쇄
1994. 7. 25 발행
발행 : 운곡문학연구회
양 근 열
주간 : 홍 성 준
편집 : 양 시 영
출판 : 안 홍 사

본지는 제작비 일부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기금에서 지원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차 례

題 字 半 江 金 鎬 吉
表紙畵 无爲堂 張 壹 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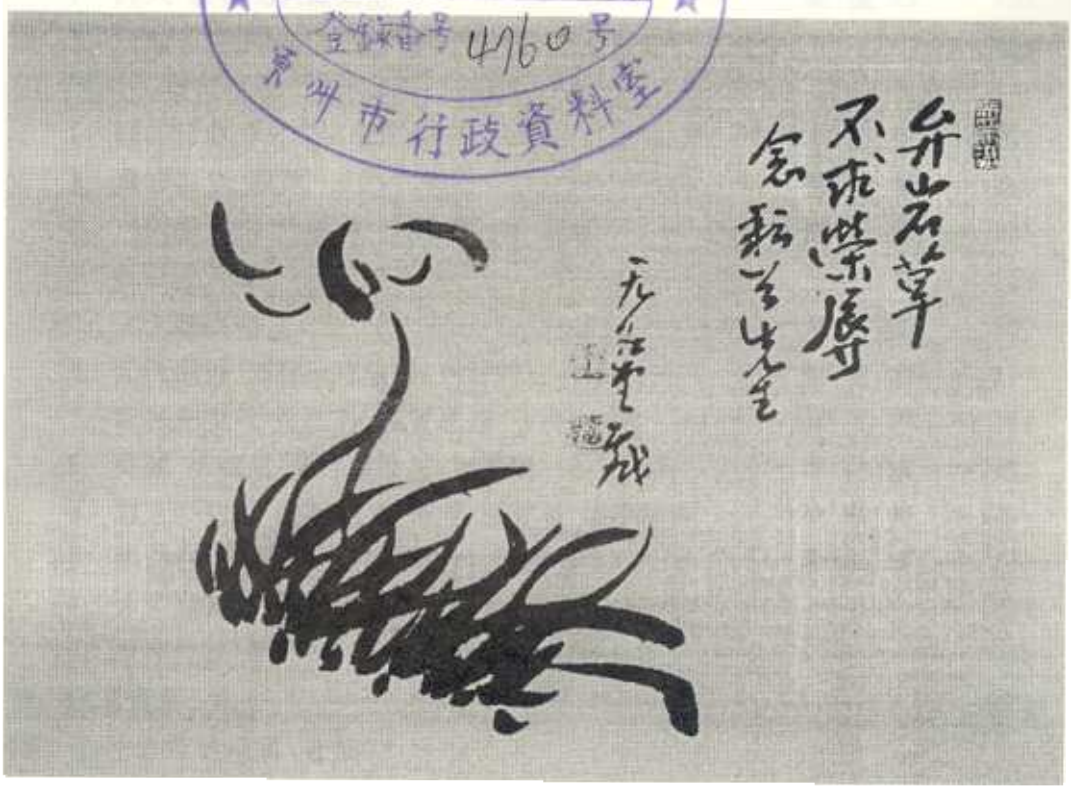
I. 머리말
1. 책머리에---------- 1
2. 운곡원천석 문학연구회 발족 ---------- 2
II. 문학부문
1. 운곡원천석선생연구 ---------- 金 鎬 吉 --- 7
2. 운곡원천석선생과 치악산 ---------- 박 경 용 --- 35
3. 운곡원천석의 시조가 연시조의 효시다 ---------- 李 相 鉉--- 49
4. 耘谷元天錫詩史硏究 ---------- 이 영 주 -- 51
5. 耘谷文學이 갖는 鄕土敎材로서의 효용성 -------- 梁 槿 烈 --- 68
6. 운곡원천석의 시조와 한시에 대하여 ---------- 梁 槿 烈 --- 83
7. 詩人 耘谷元天錫先生 ---------- 梁 槿 烈 --- 102
8. 치악을 바라보며 ---------- 곽 진 --- 104
III. 역사·철학부문
1. 耘谷詩史에서 본 元天錫 ---------- 李 在 崑 --- 107
2. 華海師全 解題 ---------- 柳 正 基 --- 116
3. 나의學問的 立場과 華海師全의 解題 ---------- 柳 正 基 --- 127
4. 耘谷元天錫 ---------- 全 石 萬 --- 134
5. 元天錫硏究 ---------- 柳 柱 姬 --- 157
6. 元天錫의 三敎一理論에 대하여 ---------- 梁 銀 容 --- 177
7. 耘谷先生의 生涯와 現實思想 ---------- 林 英 根 --- 184
8. 高麗 李朝의 易姓革命과 元天錫 ---------- 李 佑 成 --- 190
9. 麗末鮮初의 政治的 變革과 耘谷의 道學精神 ----- 池 敎 憲 --- 202
10. 無爲自然처럼 사셨던 耘谷元天錫先生 ---------- 李 弘 宰 --- 227
11. 大東金石書 解題중에서 ---------- 232
12. 原州邑誌 중에서 ---------- 233
※. 參考資料 ---------- 234
IV. 운곡문학연구회 활동
1. 고 장일순 선생 추모시 〃 그날에 〃---------- 梁 槿 烈 --- 238
2. 운곡문학연구회 연혁 ---------- 239
3. 拓本展 제1회 제2회 ---------- 240
4. 휘호대회, 시조백일장 입상작품 및 입상자 명단 ---------- 256
5. 회원명단 ---------- 285

구입( )기증(○)
등록 제 4760 호
19 . 1998. 7. 07 ,

耘谷文學

耘谷元天錫研究資料集

圖書·資料
接受日字 1998年 7. 月 7日
登錄番号 4760号
光州市行政資料室



耘谷文學研究會

Ⅰ.
머릿말

책 머 리 에

예로부터 치악산 밑이 살만한 곳이라 일컬어 왔다. 치악산 하면 元天錫을 연상하게 된다.

우리 모임에서는 원천석의 시조와 한시, 그리고 그의 사상을 연구, 보급할 목적으로 그의 호를 따서 耘谷文學硏究會라 칭했다.

'耘谷元天錫詩史'를 入手한지 15년, 운곡문학연구회가 창립된 지 5년만에 硏究資料集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운곡 원천석 遺蹟 拓本展을 원주와 횡성에서 두 차례 열었고, 운곡원천석선생 追慕 揮毫大會를 3회를 개최했다. 서예 부문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던 張壹淳先生님께서 1994년 5월 22일 별세하셨다. 이 자료집을 영전에 바치게 됨을 못내 가슴 아파 한다. 時調白日場을 2회, 硏究發表會 3회를 가져 왔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국문예진흥원의 지원, 강원도문예진흥원의 도움, 원주 횡성 각급 학교 학생들의 참여, 원주원씨운곡종회, 언론기관의 홍보, 이 고장 뜻 있는 이들이 항상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 硏究發表會를 세 차례 가졌으나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못했고 資料 不足으로 實效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회원들이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그 동안 틈틈이 모아 두었던 자료를 엮어 보았다. 처음에는 회원만이라도 한 권씩 소지하자고 기획하였는데 마침 한국문예진흥원 기금을 받아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하게 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순수문학으로서의 운곡문학을 한국문학의 뿌리로 정립하는 일과 儒佛仙 三敎一理에 대한 사상적 접근 등 심도 있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華海師全'에 대한 번역, 연구가 활발하므로 '운곡원천석시사'와 대비하여 史學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그리고, 휘호대회와 시조 백일장은 가능한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자료집이 연구에 보탬이 되고 학생 지도에 많이 활용되기 바란다.

우리 모임의 지도 교수이신 蘆江 朴魯春교수님, 주간과 편집을 맡은 회원, 안홍사 姜文圭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1994. 7. 15

회 장 梁 權 烈

'耘谷 元天錫 文學硏究會' 發足

梁 權 烈

1990년 2월 24일 치악산 산자락에 자리한 耘谷先生의 묘소-석경사 경내 慕耘齋에서 원주·서울에 거주하는 교수, 교사, 일반인 십여 명이 모여 耘谷文學硏究會 創立총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결성하기까지의 경위, 목적, 회원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982년 고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게재된 元天錫 지음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석양에 지니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라는 시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耘谷元天錫詩史'(1977년 1월 15일 발행)를 입수하게 되었다. 원주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치악산에서 은거하였다고 지은이 소개를 자세히 하였더니 당시 원주여고 1학년 元吉順(현재 상지여중 영어교사)학생이 자기 집에 耘谷의 책이 있다고 했다. 책을 빌어 그 해 여름방학 동안 耘谷詩史를 탐독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순수문학이요, 작자의 사물에 대한 洞察力에 감동했다. 그의 作品世界에 매료되어 다음과 같은 行事를 가졌었다.

○ 1982. 9. 29 耘谷先生追慕詩畵展(원주여고 제37회 개교기념)을 열다.

○ 1984. 12. '耘谷 元天錫先生의 발자취를 따라'(기행문)발표. 원주고 방통고교지 '燈盞' 2號

○ 1985. 10. 10 耘谷元天錫先生 遺蹟拓本展을 열다.(전국체전 기간)

○ 1985. 11. 1 詩人 耘谷 元天錫先生 '원주신협'지 '85 가을호 향토문화'란에 게재함.

○ 1989. 9. 22 耘谷元天錫先生遺蹟拓本展 (제2회)을 횡성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다. (태풍문화제 기간)

○ 1990. 2. 24 耘谷文學硏究會 創立

○ 1990. 8. 16 제1회 耘谷文學硏究發表會를 열다. 主題 : 耘谷文學이 갖는 鄕土敎材로서의 效用性, 발표자 : 梁權烈

이상의 行事는 경희대 국문학과 朴魯春 교수의 지도와 김성찬(85년도 단국대

사학과 4년)의 탁본기술에 크게 힘입었다.

본회의 목적은 耘谷 元天錫先生의 文學과 思想에 대한 연구와 보급에 있다.

「開穿石井常澆渴 收拾山蔬且慰貧」

'돌샘을 뚫어서 항상 갈증을 풀고 산나물을 캐어 가난을 위로하네'

위의 詩句는 치악산 弁岩 석벽에 새겨진 것으로 耘谷先生의 삶의 단면을 짐작하게 한다.

작품 '말(斗)'은 순수문학으로서의 耘谷文學의 좋은 보기가 된다.

말 (斗)

古聖當年像物成	옛 성인 그 당시 모양 따서 만들기를
中虛外實四週平	속은 비고 바깥 튼튼하고 네 귀가 평평해
概量米粟功惟重	곡식을 셈하는 그 공로 가장 많고
較定公私用不輕	공사(公私)를 교정함에 쓰임새 많아
大小得中欺詐絶	크거나 작거나 가운데를 얻어 속임수 없고
古今無別準繩明	옛이나 지금이나 구별 없이 표준이 분명하도다.
要知制度從何處	이 제도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上表宸居下地形	위로는 하늘 아래엔 땅 형상인 줄 알겠네.

작가의 우주관이 이 작품에 집약되었고, 사물을 관조하는 안목이 높고 넓다. 운곡선생은 儒佛仙 三敎를 섭렵하여 그의 사상이 작품 속에 녹아 있으므로 독자로 하여금 동양적 철학에 젖게도 한다.

耘谷文學의 보급으로 운곡작품 추모 서예전, 시화전을 구상하고 있다. 글씨 쓰고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작품을 읽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리라는 기대에서다. 서예, 시화전을 가지므로 관심을 갖게 하고 독자층을 넓혀 가자는 것이다. 어느 시인이 성경 시편과 잠언을 읽고 자기 시작품이 너무 초라하여 붓을 꺾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문학의 뿌리를 외면하고 어떻게 세계문학의 대열에 설 수 있겠는가?

耘谷에 대한 자료가 詩史 이외 다른 것이 거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華海師全 (中華와 東海에 師傳의 全集)"이 發見이 되어 국문학자 柳正基교수가 번역하다가 중단한 바 있으며 원주향토사연구위원 全石萬, 金敎熙선생이 번역에 착수하여 耘谷先生에 대한 일면이 드러나리라고 기대한다.

회원은 김호길(원주 대성고 교사) 박노춘(경희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 본회 지도교수), 박태기(정선여중 교감), 양근열(고한여고교사 ·본회 회장), 양시영(현대자동차 회사원), 이영주(서울 영일고 교사), 이홍재(서원중 교사), 홍성준(원주여고 교사)선생, 강영구(원주 설촌서예학원 원장) 등이며 우리 모임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새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90학년도 겨울방학 기간에 耘谷先生追慕書藝展을 기획하고 있으며, 때를 같이 하여 김호길회원의 耘谷先生의 思想에 관한 硏究發表會(제2회)를 가질 예정이다.

언론계에서도 耘谷의 遺蹟과 文學은 敎育現場에서 활용가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활용하고 보급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이 고장 사람들이 해야만 한다.

85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했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로 모여 들었다. 市道를 대표한 선수, 임원, 관광객들이 모여든 것이다. 강원도에서 가장 값진 것이 耘谷文學이라 판단하고 강원도를 찾은 손님 대접, 환영하는 의미에서 耘谷元天錫先生遺蹟拓本展을 원주에서 가졌다. 그러나 他市道 선수, 임원, 관광객 중 한 사람도 전시장에 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승패의 기로에 놓여 있는 판국에 곁눈을 팔 겨를이 있겠는가? 다만 원주, 횡성의 뜻있는 분들이 많이 관람하시고 격려를 하여 주셨다.

필자도 20여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는 차제에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그 고을 사람들의 성정에 맞는 문화가 형성되리라 믿는다. 어느 고을은 끈기, 어느 고을은 순후함-원주 횡성지역은 耘谷 元天錫先生의 정신을 재현하여 어떤 不義도 용납하지 않는 지역 풍토를 조성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耘谷을 평생 동안 옳음만을 추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제간의 살육을 거침없이 자행한 太宗(이방원)의 非人道的 人間性에 대한 은둔적 저항정신으로 보고 耘谷을 학생들 앞에 부각시키는 것을 꺼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좁다란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다.

耘谷의 漢詩를 題材別로 自我省察, 自然의 理致, 佛敎에 대한 接近, 기독교와 접맥할 수 있는 生活, 山中 隱居하면서도 속세와 絶緣하지 않는 交友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그 밖에 세시풍속, 가정일상사, 이웃과의 來往 - 인간 살아가는 이야기를 모두 詩化하였다. 앞으로 耘谷의 旅程에 따른 작품을 분석하여 耘谷의 行蹟을 밝히는 일과 사상적 배경을 심층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 모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耘谷文學에 접근하여 先代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요즈음과 같이 價値觀이 흔들리고 外來文物의 混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삶의 준거를 설정하지 못 할 뿐더러 정신적 지주가 없는 실정이다. 온갖 부조리가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학생들 앞에 제시되는 사회에서는 "누구처럼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와 같이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한다. 원주·횡성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강원도에서는 耘谷 元天錫先生처럼 사는 것이 아름답고 값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고장에 그의·유적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문학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耘谷先生은 항상 옳음을 추구했고, 치악산의 맑은 물소리와 같은 생활을 漢詩 1144수에 실었다. 이 耘谷文學이야말로 이 고장의 精神的 寶庫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정신적 支柱가 되리라 믿는다. 거듭 말하거니와 작품이 하나같이 모두 순수문학이며 작품 속에 東洋思想이 溶解되어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보급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을,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초 · 중 · 고교 학생별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耘谷元天錫詩史'를 재편집해서 향토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뿌리를 찾고 그 기반위에 보다 나은 우리 문학을 건설하는 것이 耘谷文學硏究會 會員 모두의 소망이요, 이와 같은 노력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이 고장은 정신적으로 보다 윤택해지리라 믿는다.

<『江原敎育』 통권 제 134호, 1990년 12월 30일, 강원도 교육위원회 발행>

II.

문 학 부 문

운곡 元天錫 선생연구

김 호 길
(대성고등학교 교사)

1. 고려시대, 과거 후 벼슬길 버리고 산골농부로

운곡 원천석 선생을 꺼려하던 고려나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이 민족의 치하를 넘기고, 분단된 조국의 현 상황에서 의인이 보고 싶고, 불굴의 대절이 한 없이 아쉬운 때 이 시대의 시각에서 운곡의 역사적 재평가가 요구되는 시기로 보고, 우선 운곡의 대절을 조심스럽게 기록한 문헌을 중심으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첫째가 「운공행록시사서」로 만력 계묘년에 쓴 강원도 관찰사 박동량의 서문과 「운곡선생문집서」인 정장경의 서문이 있고, 또 다른 「운곡선생문집서」로 자헌대부 형조판서 겸 지경연 춘추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오위도총부 총관, 금성 정범조의 서문이고 「칠봉서원의 사적」과 「춘추제향의 축문」과 「사액제문」과 추모시로 「오숙의 시」「윤지복의 시」, 「황경중의 시」, 「이식의 시」, 「이원진의 시」, 「정희기의 시」, 「정홍익의 해동악부사」 지은이가 미상인 「언행록」으로 볼 수도 있고 「행정초」같기도 한 글과 현재 묘소앞에 세워진 묘갈에 양천 허미수목이 쓴 「고려국자진사 운곡선생 묘갈문」과 한강 정구의 「제문」과 김창흠의 「제문」과 「계시년 중춘에 선생의 묘를 수축하고」 지은 홍희조, 권수, 김낙수, 정홍경, 이치진, 허염, 정악선, 이규재, 심동익, 정홍순, 심계우, 홍희승, 한치긍 제공의 시와 「위인제문」과 홍희조의 「산신제문」과 관찰사 한익상의 「묘표를 세우고」의 글과 정량흠의 「운곡선생사적록후어」와 운곡선생 16대손 원은경의 「운곡선생시적록 후어」가 있고 「태종대사적」으로 김치호의 글이 있고 「태종대 각자」「변암굴서」,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과 「운곡 원천석시사」와 최근 발견된 「화해사전」이 있고 치악산을 중심으로 「운곡유적」이 있으니 지금으로부터 660년 전 서기 1330년 고려 충숙왕 17년 7월 8일에 나시어 고려는 공양왕 3

년인 서기 1392년에 망하였으니, 운곡선생은 고려에 61년을 사시고 다시 조선조 때 30년을 사신 것으로 추정되어 90상수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으나, 별세하신 날짜가 불분명하다고 「운곡원천석시사간행사」에서 원용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기록된 문헌 중심으로 운곡선생에 관한 조심스런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조심스러운 기록이라고 하였는가하면 운곡선생은 고려시대인 그때도 조정이나 치자들에겐 「거북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에 운곡선생이 교유하였거나 심허한 당시의 인물들, 아니면 운곡이 직접 교유치 아니하였더라도 후일 조선개국 상황에서 희생된 인물들의 면면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운곡선생은 고려의 충신으로 조선개국에 충신 불사이군의 시각에서 조선왕조를 거부한 절의 높은 인물로 추앙하고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갑이 넘도록 왜 고려에서 선비의 정도인 과거 후 벼슬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당시에는 노동이 천시되고 글 읽는 선비의 노동천시 내지는 금기처럼 된 손수 농사짓는 산골농부로 왜 고려에서 숨었는가가 조선개국 후 태종대왕이 치악산에 몸소 찾았어도 피한 일보다 더 중요한 시각으로 보아야만, 바른 역사적 「운곡관」을 정립할 수가 있다고 본다.

즉, 이것은 운곡의 정의의 항쟁으로 삶을 통하여 생활화된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환언하면 운곡선생은 고려가 망하였기에 생긴 고려충신이 아니고 이미 고려가 건재하였던 그 시대에 항거하였던 정의의 신비인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운곡은 60여년을 고려에 살고 30년은 조선에 산 90평생을 60대 30이란 산술적인 수치보다 그만한 학문과 실력으로 60이 넘도록 치악산 깊은 골에 농사지어 부모공양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조야에 삶으로 항쟁한 이 점이 재조명되어야 하겠다.

2.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여 임금이 찾아왔어도 피한 것은 웬일인가 그렇다면 세상을 피한 「피세의 선비」다."

운곡 원천석 선생이 사셨던 당시의 국내의 환경을 살펴 봄으로써 운곡 선생의 생애나 사상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역대 왕조에서 이민족이나 타국과의 정략결혼이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아예 상국의 공주를 세자나 왕의 비로 삼아서까지 왕비라고도 아니하고 끝내 공주로 불렀던 시대는 고려의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과 공민왕이 모두 그런 왕이요, 이들은 고려의 왕이라기 보다는 원나라의 사위로 있었다.

충숙왕은 17년간 왕위에 있었으나 원나라 조정의 비위에 맞지 아니하니 충혜왕이 왕이 되어 고려로 들어오고, 충숙왕은 폐왕이 되어 불려 들어가고, 충혜왕도 삼 년도 못 채우고 다시 폐왕이 되었는가 하면 충숙왕이 복위되어 다시 나오고 복위된 지 팔년만에 다시 폐위되고, 충혜왕이 복위되는 이러한 때 운곡 선생은 탄생하시었으니 정확히는 첫 충혜왕 17년인 서기 1330년 경오년이니 지금으로부터 660년으로 올해가 운곡 선생님 11번째 회갑이시라. 올해 7월 8일에 「운곡 선생 탄신 11 회갑기념 학술 강연회」가 열릴만도 한 시점이다.

각설하고 충혜왕 때 태어난 운곡 선생 이전인 忠字가 쓰여진 고려 임금은 또 있다. 원중 이후로 충렬왕, 충선왕도 모두 원나라의 「사위」다. 「사위」라고 데릴 사위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겐 속담이 있다. 「봄보리씨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한다」라던 시대가 고려다. 이 때 개인이 아닌 나라가 그 제왕인 임금, 황제가 상국에 아이 때부터 처가 아니면 외가에서 훈련받고 짝지워졌으니 사위요, 외손으로서 임금에 올려져서 하는 왕노릇이니 왕인들 왕이냐?

이를 기화로 오랑캐의 왕녀가 왕후가 되고도 세 나라 공주로 군림하여 정치를 좌우하는 세상을 운곡 선생이 탐탁하게 여겼을리가 없다.

더구나 삼별초의 난 이후 전국이 황폐화되고 오랑캐의 말발굽에 아니 밟힌 곳이 없었으니 불의의 조정이 싫은 게 아니고 불의로운 세상이 싫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뿐이냐? 홍건적의 침입은 운곡선생 30대 초반의 국난이었다. 문익점 선생이 사신으로 갔다가 그 길로 북변호지로 귀양간 것이 이 무렵이었으니 세상에 사신을 귀양 보낸 처사가 고금에 한 둘이 아니지만 이는 전시에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닉」하다. 이러한 모멸어린 가운데 이후 우리는 솜옷 입고 명바지, 저고리 입고 명두루마기 입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최영 장군은 왜구들을 정벌하고 대륙의 새 질서에 뼈에 사무친 민족의 서린 한을 안고 드디어 북의 진군 나팔을 울렸으니 이 아니 장

한가. 이때 운곡의 「시사」엔 어찌 기록되었을까? 연구 과제다.

그러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천년에 한번 오는 겨레의 웅비 기회는 가고 말았다. 만일 이때 대륙을 다시 찾고 차라리 이 기회에 조선개국이 왔다면 그 얼마나 장엄하였겠는가?

운곡은 이 때도 발만 갈고 침묵하였나? 운곡의 기록은 안타깝게도 아직 「시사」 뿐이었지만 기록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화해사전」이다.

그러면 「시사」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시사」는 온전한 것인가? 「시사」도 삭제되었거나 아니면 인멸되고 남은 것 뿐인가? 이도 잘 고찰하면 밝힐 수 있는 자료는 된다.

그러므로 한 시골농부 운곡이나 조정정파 권력싸움이 싫어서 숨은 선비 운곡인가? 왜 반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곡, 운곡 하는지를 조명해 보자. 운곡은 당시 고려사회가 싫어서 세상을 피한 선비인가? 단순히 권력자를 피한, 사람을 피한 선비인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여 임금이 찾아왔어도 피한 것은 웬일인가? 그렇다면 세상을 피한 「피세의 선비」이다.

3. 더러운 세상살이 버리고 논과 밭 일구어 깨끗한 세상 살려는 운곡의 마음

운곡 원천석 선생의 유작인 「운곡 원천석 시사」를 대본으로 하여 연대별로 시작품을 통하여 운곡선생의 전 생애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안타까운 것은 과문한 탓이지 운곡 년보 하나가 없는 실정이다. 갖추어진 행장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연대별로 작성된 시사를 통하여 그 생애와 사상을 나아가서는 그 인간적인 면모를 더듬어 찾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현대인들에게 참 삶을 사는 참된 길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시사는 「신묘 3월」에 「금강산을 가는 길에 횡천에 이르러」라는 칠언 절구가 「운곡 원천석 시사」의 운곡 행록 권지일」의 첫 시다. 여기서 「시사」니 「행록」이니 하는 표현은 바로 「시로써 쓴 역사」요 「자기 행동의 기록」이라고 보고 싶다.

그렇다면 따로이 년보다 행장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냐? 이러한 시각과 관

점에서 원문「신묘삼월 향금강산도횡천」이라는 시제에서 우선「신묘라는 간지」는 서기 1351년으로 22세 때의 간지다.

운곡 선생 22세 춘삼월 금강산을 향하여 떠나 횡천에 이르렀다는 시제로, 횡천은 지금의 횡성의 옛 이름이다. 운곡 시 내용은「초연화홍천리춘, 수편신마출성곤, 행행점근화전경, 빈향초소문우인」으로「갓 돋은 연한 풀 붉은 꽃 핀 천리길에, 말 채찍 세워 쥐고 성문을 나섬에 가고 가니 꽃발 머리, 자주 자주 나무꾼에 벗 소식 물었다오」하는 이 칠언절구가 유작 중 운곡 선생의 가장 초기 작품이다.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를 지나치면 우리는 운곡을 오해하고 말게 된다.

시로 쓴 역사요 자기 행장의 첫 머리에 춘삼월 금강산, 횡천 나무꾼, 꽃발머리, 벗 소식, 22세 필자는 여기서 붓을 놓고 싶다.

지난 2회로 그 시대 국내외의 형편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난세에 선비가 취할 길이 무엇일까 스물 두살의 헌헌 장부가 경세의 웅리를 품고 청운의 꿈을 펼 당시의 서울인 개경길이 아니고 천 년 사직이 망할 때 태자의 몸으로 입산하던 마의태자 찾든 금강산 봄 나들이가 웬말일까? 봄 소풍인가? 봄 수학 여행인가? 호연지기를 기를 자연에의 접합인가? 다음 시를 보자. 역시 칠언절구로 제물은「갈풍역을 지나며」로「책마유유과갈풍, 산천셩세고금동, 인희결정강변로, 척촉천층영수홍」으로「말채치 유유롭게 칡 말 앞 지나노니, 산천은 옛 오늘이 다름이 없건마는, 인적은 드물고나 쓸쓸한 강변 길, 천길 벼랑, 철쭉꽃만 강물속에 붉었네」여기서 우리는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자연에 도취된 22세의 청년 운곡을 생각하여 보자.

급한 길 없는 유유한 봄 나들이 천지사방 산천구경 둘러보며 인적 드믄 강변길에 철쭉꽃 구경에 도취된 청년 신비 운곡에게서 필자는 차라리 울고 싶다. 요즘말로 대학입시 앞둔 청소년의 가출에 비기면 망발일까?

일지춘심을 누를 길 없어 천하명산 금강산 구경길에 봄 소풍산아, 수학여행처럼 떠났다면 적어도 시의 어느 귀절에라도 냄새가 나야 하잖을까?

젊은 스물 두살의 청년시는 아니다. 왜 그리 숙성하고 노티가 나느냐 말이다. 내 꿈이나, 포부나 경세의 웅지가 엿보이지 아니하냐는 얘기다. 이 노성한 이 아름답기만 한 시 속에서 우리는 운곡의 인생관, 운곡의 자연관 운곡의 세계관을 살필 수가 있다.

역설적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답답하여 곰팡내 나는 경서를 내팽개

치고 훨훨 날아가듯 모두 다 떨쳐버리고 명리에 얽매인 권좌 입문격언 과거시험 준비 일찍 하고 한 평생 밭이나 갈아 부모·처자 단란하게 초야의 선비로 맑고 깨끗하게 지조를 지키면서 진세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자유인의 인간선언인 벗과 꽃의 여행의 길손시가 아닐까?

4. 가혹한 징수를 시로 직필 떠난이의 몫까지 떠맡기는 나라의 세금포탈

신묘년 중 시에서는 결국 중도에서 계획이 변경된 듯 금강산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해에 「나라의 금주령이 내린중 제호조의 소리를 듣다」라는 시에 칠언절구로 「이교원량위다객, 무부고양회극도, 산보주지방국령, 격림시복권제호」라는 시를 남겼다.

술 좋아하는 도·처사는 차나 들게 되고 고향에 술꾼들 모일 수 없는데 속모르는 산새는 숲속에서 술마시라고 성화 부린다는 이 시는 당시의 금주령이 내려 답답한 심사를 술로 달래는 처지를 차로 대신 하게 되고 박주일 배로 모이던 벗들도 날을 잃었는데 제호로의 우는 소리를 술 들과는 성화로 표현한 애주가의 애를 저미는 간절한 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은 갑오 시월로 껑충뛰었다. 「회양을 향하는 길에 횡천에 이르러 판상운에 차운하여」라는 시로 이때는 운곡선생 25세 때로 서기 1354년 10월이다. 이 시 외에 「횡천을 떠나면」「홍천의 판상운에 차 운함」,「말흘 마을에 자면서」,「마노역」,「인제」,「시화」,「도중」,「초 9일 장양을 떠나 천마령에 올라서 금강산을 바라보라」 이 시에는 「만이천봉반입운, 시간서기옹천문, 갱장무의귀의념, 계수자비법기존」이라고 하였는데 「일만 이천 금강산 봉우리는 구름속에 반을 가리우고, 천문을 옹위한 시기를 바라보니, 귀의 할 말 두번 다시 고칠 말 없어 자비로운 불법인엔 높여 사뢰오이라」 이 시에서 낙발입산하는 시로 볼 수 밖에 없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운곡 선생이 많은 승려들과 왕래하고 시로 창화한 내용을 보면 재가승으로까지 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 다음 시는 시 제목이 원시보다 아주 길다. 옮겨 보면 「15일 빙산을 떠나 양구에 이르니 군내에 이속이나 민가들이 쓸어져 가고 더러는 땅에 얼어져 있고 밥 짓는 연기없는 마을에서 지나는 이에게 물으니 이 읍은 본래 낭천군의 소속인데 옛부터 땅은 비좁고 척박하여 만물이 모두 보잘것이 없는데 이제와서는 권문세가에서 천지를 빼앗아 인문들은 소요하게 되고 조세는 너무 높아 가난하기 발 뻗고 송곳 꽂을 땅 한뼘 없이 매년 겨울만 되면 세금 독촉하는 가렴주주의 무리들이 날마다 문이 터지도록 드나들고 만에 하나라도 명을 어기면 손발을 높이 매달고 매를 때려 살과 뼈가 헤지고 부러지니 죽지 못해 사방으로 유리 방황하여 이렇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오언 여덟 구를 지어 쇠망의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긴 시의 제목을 필자는 운곡 선생의 시사에서만 발견하였다. 제목처럼 「오언 팔구」 도시어 형식에서 오언 4행의 오언절구, 오언 8행의 오언월시가 아니고 「오언팔구」라는 표현도 특이하다.

즉 「파욱조상호, 민도이역무, 매년가폐막, 하일득환오, 전속권호택, 문연포학도, 자유수가석, 신고경하고」로 「무너진 집에서 새들은 우짖고, 백성은 도망치니 이속도 없구나. 해마다 폐해만 더하니 어느날 즐거움 되찾을 고 논 밭은 권세가것, 문앞에 포악한 무리뿐 그대들 남은 무리 애석하니 이 고생의 탓 누구의 허물인고?」 이 시는 제목의 이례적인 장문의 내용과 시격을 파결으로한 오언팔구로 월시의 격을 깨고 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음미하면 치자의 무능과 권력가의 횡포로 마을이 폐허화 되어 남은이나 떠난이의 유리걸식과 세금포탈로 떠난이의 몫까지 떠맡기는 가혹한 징수를 한탄한 청년 운곡의 직필이고 보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을 실감하게 되어 세금의 무서움이 고금에 변함없는, 「저승까지 따라오는 것이 세금」이라는 속담으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전혀 동감임을 서기 1354년 25세의 청년 운곡이 이 산하를 떠돌며 노래한 이 뜻을 치악의 정의의 노래로 승화시켜야 도리일 것이다.

5. 평생을 학문길에 전념하고 마음은 항상 요진에 있길 원했는데…

시사에 간지는 을미년으로 좀 긴 이름의 제목이 보인다. 「을미년 7월 어느날

춘성의 김·안 두 서생이 공부를 끝내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여러 서생들이 추운으로 시를 지어 송별하다」라는 이 시로 미루어 26세때 각림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작별하는 시의 내용에서도 과거공부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26세 때는 「이름 및 비」, 「활」, 「가형이 보내준 시에 차운함」, 「말」, 「솔」, 「물가의 정자」들의 시가 보이는데 형님의 시에서는 운곡선생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용부들로부터 비방받은 일로 인한 불편한 심사를 형제간에 주고 받은 내용으로 점잖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참으로 돋보인 시 들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시가 보인다. 「내가 소시때부터 선비에 뜻을 두고 있은지 오래였는데 이름이 군적에 올리어 졌으니 시를 지어 스스로를 달래다」이 제목으로 지은 시 내용은 「생래지학면여신, 방촌상회거요진, 재업미동제주개, 성명이속연병인, 행단풍월혼공단, 유새연진몽이빈, 자고행장개유분, 단장천명어제린」으로 「평생을 학문길에 전념하고 마음은 항상 요진에 있길 원했는데 재능이 제주한이와 같질 못했나? 이름이 군적에 옮아 버리니 학당의 풍월꿈은 헛되이 끊기고 변방의 화약내 속 꿈길에나 번지롭겠네. 자고로 행세나 숨는 것이 타고난 분수라는데 앞으론 이웃들과 팔자나 논하겠네」이 시에서 보면 당시는 과거에 오르지 못한 선비는 자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보장이 박탈되고 변방에 수자리 살러 가야하는 형편을 알 수 있고 또는 변방으로 가지 아니하면 지방영문에 군졸이 되어야하고 이러한 군역은 임기가 없으며 이러한 신분으로 몰락하면 자손에게도 세습적이고 온갖 잡역에 다 종사하여야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발생으로 운곡선생은 참으로 괴로운 심정을 스스로 위로하였고 이 해에 홍건적이 난을 일으킨 내용의 시가 「즉사 홍란시기」로 기술되었다.

해를 바꾸어 「경자 정월 19일에 딸을 낳았는데 매우 영리하고 특이하였으며 5월 17일에 죽으니 붓을 들어 곡하다」이는 운곡의 31세때가 된다.

대여섯해 동안의 공백이 보인다. 군적에 입적된 후 절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절필을 끝내게 된 계기가 예쁜 딸을 잃고 죽은 딸을 곡하는 시로 「증지번뇌본무근, 종자생종은애문, 측측아회유가완, 애애모곡불감문, 수유편멸시진어, 욕여구망위망언만종여상무처설, 제영상기완주흔으로 「일찌기 번뇌란 뿌리가 없음을 알았는데, 종자는 은애에서 나는것, 측은한 내맘이야 누를 길 있지만 구슬피우는 어미의 곡소리는 참아 못 듣겠다. 어차피 잠깐인 인생 실로 진실인데 자식따라 죽는 것도 망녕의 일, 만가지 아픈시름 호소무처요 흐르는 눈물로 슬

픈 자취 삭이네」 일년도 못 되는 다섯달만에 죽어간 딸 앞에 흐느끼는 사대부의 신분마저 박탈당하고 군적에 입적된 서른 한 살의 청년 운곡의 이 슬픈 마음 앞에는 중단된 시작생활이 다시 엿보인다.

「조감목을 곡함」, 「자영」, 「옛 친구 생각」, 「초충」, 「칠석」, 「송목백에게」, 「송목백에게 화답」, 「도경선사의 시문에차운」, 「신사루를 곡함」, 「유곡 굉대사 상원사 주사굴 서쪽봉에 암자를 새로 짓고 무주암이라 하였다기 시한수를 올림」이라 하였으니 이 시는 유곡굉 대사의 높은 경지를 읊조렸으니 끝귀에 「상인연좌관무주, 무주심종심생처」 대사는 높이 앉아 머무름 없음을 관하는데 그 머무름 없는 무주심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고? 기막힌 경지다.

온 곳이 있어야 갈 곳이 있고 가고 오는 가운데 머무름도 있는데 과연 온 곳이 어디인고?

6. 道

삼봉 정도전 선생이 경자년 12월 17일 (서기 1360년 공민왕 9년) 운곡 선생을 찾아온 기록이 있다.

이 때 삼봉선생은 이런 시를 지어 보였다. 「동년원군재원주, 행로불평산곡심, 객자원래이하마삭풍소소서일침, 일소혼연유유의 준주역부론시심, 아창고가군치무영욕자아기란심」, 「동년인 원군이 원주에 있우나 행로가 험하고 산이 깊어도 길손을 멀리서 와 이미 말을 나렸오. 삭풍은 쓸쓸하고 해는 이미 졌는데 혼연한 웃음속에 은근한 정 스몄오. 술통앞에 다시 깊은 마음속 얘길 논하며 나는 노래 높여 부르고 그대는 둥실둥실 춤을 추니 세상의 영욕일랑 이미 잊었오」 이 시에 차운하여 운곡 선생은 「여군동방여격신 교도불부론천심 각이사견재양지 봉인세문부여침 금조해후천유사 사개준치세론심 공호공호막최비 차의자중성지심」「그대와 더불어 함께 방에 들었던 일도 해를 지났오 도리로 사귄정 얕거니 깊거니 말을 맙시다. 각기 일에 매여 양쪽에 있지만 인편에 자세한 사정 물어 봤다오. 오늘 아침 이 만남 하늘의 시킴인가? 술통 열고 기쁨속에 맘속 얘기 털어놓세. 여보! 여보! 말고삐 재촉마오 자중하여 이 내뜻 정녕 믿어야 하오」 위의 시에서 정삼봉 선생과 원운곡 선생간에 교환한 시를 보면서 태종대왕

자서시정포은 선생과 교환한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해를 누리리라」에 깃들인 그저 한 세상 영화롭게 살고 가면 되는 것 아니오. 새 나라 세워서 큰 벼슬자리 하나 줄테니 참여하란 「하여가」시에 포은 선생은 「단심가」로 심회를 읊어서 자기뜻을 명백하게 하였으니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야 변할 줄이 있으랴」이 얼마나 명백한 「아니오」란 대답이냐? 이러한 명백한 심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봉선생이 원주까지 찾아나서 「일소혼연유유의, 준주역부론시심」하였으니 의니 신이니 다 일소에 부치고 깊고 은밀한 내 애기 혼연이 받아 주오. 술통열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이 싯귀에 운곡 선생은 「봉인세문부여침금조해후천유사, 개준차회세론심공호공호막최비, 차의자중성지심」으로 차운한 시로 심정을 토로 하였으니 「그대 소식은 알만한 사람이면 붙들고 자세히 물어봤오. 부침의 사연들, 오늘 아침의 만남은 천운이라 보겠오. 술통열고 다시 더 기쁜 마음으로 자세한 속마음 논해 봅시다. 여보시오 그대는 바삐가는 일에만 재촉하지 마시오. 제발 이내뜻 자중하지 마시오. 제발 이내뜻 자중하시어 믿어주기 바라오」라고 시의를 전달하였다. 여기서 삼봉선생은 동년이라 하였고 운곡은 삼봉을 동방이라 하였으니 요즘마로 동년은 같은나이요 동방은 고시합격을 같이한 합격동기라는 표현이니 우리는 운곡 선생이 이 무렵엔 선비가 군적에 올라 더 공부할 수 없음을 알고 애써 과거 공부후에 합격하여 백두를 면하고 진사가 되었으니 이때는 군영의 병졸이 아니고 어엿한 원진사임을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은 후일에 조선개국 공신이요, 더 후일엔 왕자의 난으로 참혹하게 죽은 삼봉, 정도전 선생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운곡선생이 왜 그만한 학문의 소유자로 더구나 동방인 삼봉선생이 찾아와서 심중의 말까지 하고서도 출사하지 아니하고 치악산속에서 발갈고 농사지으며 시 짓고 자연속에서 은거하였는지를 미루어 알만하다.

옛말에 도가 행하는 세상이면 나가서 일하고 도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는 세상엔 숨어서 도를 자신만이라도 지킨다는 말은 운곡선생을 천수대로 사시다 고종명하게 한 교훈이다.

7. 따뜻한 인간미의 선비

- 야심의 30대에 은둔과 참여의 기로에서 고뇌

운곡 선생은 삼봉 정도전 선생의 방문 이후 함께 과거에 오른 동방들로부터 서신을 받은 기록이 보인다. 그 서신은 시로써 그때마다 차운하여 보냈고 그 보낸 시를 음미하여 보면 운곡의 인간적인 고뇌를 읽을 수 있다.

받은 서신이나 시의 내용은 알 수 없고 차운하여 보낸 시중심으로 살펴보면 31세의 운곡선생은 우선 김비 선생에게 「유의하궁근십년, 상협안계정관천, 금조홀우현동방, 분외건곤정활년, 암곡서지도기년, 해계팽활용중천, 일준주외무영욕, 수분생애독쾌연」으로 「궁벽진 이 생활에 뜻을 둔 지 겨우 10년 우물속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가 싫었는데, 홀연히 동방인 그대의 글 만나니 분수밖 넓은 천지 알겠네. 바위가에 살아온 지 몇몇해 해계를 삼으면서 독속하늘 가르네. 한잔술 외는 영욕도 없고, 분수따라 살아가니 즐거울 뿐이오」 이 시로 미루어 본다면 운곡은 조금도 후회없이 자기의 소신대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동방인 안중온 선생이 보낸 시에 차운한 내용을 깊이 음미할 시다. 「우능이간첩문재, 회시군문수측회, 원향공거번일천, 신림역유제시재, 책장심유척피강, 안전춘색총신장, 십분방의무대자, 차문하방주석양, 주홍리수강수조, 촉군삼고공명려, 자림기결지란복, 막렴산정방아지 즉 「뛰어나고 능한재주 글솜씨, 임금앞에 칙서 받들 그대, 원컨대 한번 천거해 주오. 산림에도 경세의 선비 숨어 있다오. 지팡이 의지하여 언덕에 오르니, 안전춘색은 모두 새단장, 십분이 뜻 남은 날도 많지 아니한데 다시 묻겠오 강태공의 낚시는 주후가 한번 걷고 촉주는 공명을 세번이나 찾았다오. 가시숲엔들 어찌 난초 없겠오. 산길 싫다 말고 내 사는곳 한번 찾아주오」 운곡 선생의 이 시는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여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물론 시란 자자구구에 자의와 어의대로 보는 쪽에서 본다면 이 시는 운곡자신이 너무도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벼슬길에 나가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경륜을 펴고 싶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면 정삼봉과의 대화에서는 호위 시국관과 경견, 정책의 이견을 못 좁힌 결과요 안중온선생과의 서신이나 시에서는 견해의 일치와 경륜과 포부를 필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되면 강태공처럼, 제갈공명처럼 고려를 위하여 한번 장부의 뜻을 펴보겠다고 너무도 솔직하게 표현한 점으로 볼 때 운곡선생은 애당초 참여거부의 의사는 아니다.

당시의 국내외의 정세가 자신의 뜻과는 너무도 다르기에 애당초 과거마저 포기하였지만 군적으로 인한 그 이상으로 적극참여하여 혼신의 정력을 쏟고 싶어하였다. 하지만 안중온선생의 다음번 시에 차운한 시는 너무도 쓸쓸하다. 제목은 「차안동년회우시」다. 내용은 「탁조연요새, 화풍읍세진, 임리고유흡, 회울가운신, 송경생창선, 화당장백빈, 수지지산객, 파옥낙청빈」이라고 하였다. 즉 「가뭄을 씻어주고 가는 먼지 적셔재우고, 기름진 젓줄되어주고, 벼싹 무러무럭 키워주고, 솔밭길 마른이끼 살려내니 연못속에 부평초 띠운 이 좋은비 헌 지붕에 비 새니 우산쓰고 앉은 신세 이 청빈 이가난 뉘라서 알꼬?」 아마도 운곡선생 일생일대에 이 시기가 가장 괴롭고 고뇌에 찬 방황기라고 할 수 있겠다.

야심만만한 30대 초기에 년부력강한 두려움 없을 시기, 더구나 동년동방간에 활발한 왕래가 있을 때 참여냐? 은둔이냐? 기로에서 괴로워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러한 고뇌와 방황속에서 괴로워한 운곡이기에 칼로 무우자르듯한 결연한 선비보다 따뜻하고 눈물겨워하는 이 인간미 때문에 후학들은 받든건 아닌지 모르겠다.

8. 홍건적을 토벌한 영웅들을 기리고 삼한의 무궁한 번영을 노래한 애국충정을 청년 운곡에게서 느낄 수 있다.

신축 11월 기록으로 이 때는 서기 1361년 운곡선생 32세로 「병중서회」를 썼다. 「두문장좌사하여, 한적환동야납거, 나중매봉시속소, 병다심한고인소, 분감천석심무외, 낙기단표홍유여, 일침청풍일헌월, 영가군덕와간서」로 즉 「문닫고 들어앉아 세상모르니, 한적한 야승처럼 일없어, 게으르기 한없다고 웃음감되고, 잦은병에 친구들도 멀어져 한스러운데, 단샘물 밥없는 바위가 좋아 표주박에 밥 한덩이면 남는 여유라. 벼개머리 바람한자락 추녀끝에 달하나, 군덕올 기리면서 책이나 읽네」 이쯤에도 외형상 태평성세는 구가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신축 11월 홍두적병이 왕경에 돌입하여 국가는 파천하여 대가가 남천하여 복주에 머물러 평장사 정세운을 총명관으로, 평장사 안우를 상원수로 정당문학

김득배, 찬성사 이방실동지밀직 민환, 밀직부사 김림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여러 장수가 양계, 육도, 마병, 보병 10만으로 임인년 정월 18일에 경도 직도하여 사면 합공으로 소탕하여 삼한왕업을 부흥하여 절구 두수로 태평을 축하하다」라는 긴 제목의 시가있다.

즉, 「북구간모미족웅, 동한성업갱무궁, 성단인극풍진정, 사해민안일일공, 수충분의가영웅, 진여경사계막경, 소진원흉소탕일, 각수정극경론공」으로 「북쪽오랑캐 간사한꾀 미족한 것, 동한왕업 다시 무궁하여라. 피비린내 창과 칼바람 잠재우고, 사해의 백성편안 하루공일세, 충성의기 영웅은 몇몇인고, 도성에 전술전략 무궁하니 원흉들 쓸어 없애고 평정한 날, 칼과 창을 걷우고 논농행상 바빠라」 이 시에서 홍건적을 토평한 영웅들을 기리고 삼한의 무궁한 번영을 노래한 애국충정을 청년 운곡에게서 느낄 수 있다.

다음 해 운곡선생이 33세 되던 해 운곡 일생일대의 경사기록이 보인다. 즉 목사인 김목백에 올린 시와 인으로 「영친연」에 사례하는 시다. 인을 겸하였는데 내용은 「외괄스럽게도 방에 올라 분수밖의 은혜를 입어 당음에 나가 받은 사랑 남보다 더하니 이 기쁨 황송함 어이하리까?」

삼가 목백께서는 위로 성상을 받드는 드문 보필로 삼도의 꿈을 깨시고 오과의 노래를 들으셨네 세세한 민정을 살펴 옥사가 없고 세운이도 아전들은 청렴과 위풍에 떨어 송아지를 남긴 시묘가 아니면 고기를 달아 맨 양속이라 천하에 짝이 없고, 흉내 벌이 없는데 행차 머무는 곳 천리강산이 기뻐하고 여염마을 태평연월 가난한 민가에도 깊으니 영총은 이미 재상의 위에 다가 섰네. 백성을 생각하고 연락을 피하고 한나절 반나절도 연락을 말았는데 저를 위한 갖은 연석은 하루해 마련 주셨네. 천금의 화각에 노부모 모시게 하고 비단휘장 높은 자리 허용하시니 옥잔 금잔 잔치상에 백발노인 주름살속에 웃음꽃 피어나네. 백희가 연속되고 신선유희 부절하니 팔음이 어우러져 맑은 소리 가득하다.

가성고처 배반낭지, 즐거운 소시절 즐거운 일 옛부터 자랑인데 성대한 이 자리 견줄레 없어라. 대단찮은 학문과 우둔한 재주인데 동곽에 피리불던 이재주, 진번의 탑앞에 앉으니 보고 듣는 것 다 다시 만나기 어려운일 기쁘고 성대한 이 자리 어지 일신의 기쁨뿐이리요. 흔한 세간사 아니고 보니 꿈인가 싶소. 열말술 천리에 주향이요 새 단장 훈향 돌아드네 이취할 광간이라 하면 어떠리, 영광, 은혜 끝이 없고, 감격 가슴벅차라… 이 글은 운곡선생이 군적에 들어 학

문길이 막혀 부득이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이 되고 방에 든 합격자를 고을사또가 그 부모에게 베푼 향연에 감격하여 인을 짓고 시를 지은 전반부로 아마도 운곡선생 일생에 이보다 기쁜일이 또 있었을까?

9. 운곡선생의 절망은 세상이 버려진 것을 슬퍼한 마음

운곡선생은 삼형제로 위로는 천상, 아래로 천우 그리고 아들은 지, 형이 있고 형의 아들로 식이 있는데 식은 고을의 원이되어 숙부에게 시를 보냈고, 운곡선생은 차운하여 보냈는데 이 시는 운곡의 사상을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즉, 「임민기이홀, 민시천생민요수여소욕, 무사다간신, 화불시혜애, 시여행로인, 이금위부모, 보지여자신, 산야금구의, 의사이순순, 공도합인사, 덕망출우륜, 이차치군민, 시위봉아신, 오형기사세, 우금십구춘, 고분고수척, 회기응자신, 명명간소렴, 해시천금진, 아금행류체, 축니장경륜, 십년운곡구, 궁경효자진, 낙유석시낙, 빈심거년빈, 내시의전후, 독지여음순, 시시수거몽, 원요동명빈, 소창양현격, 음문난빈빈, 연연송서신, 가유의 문친」으로 「백성을 어찌 소홀히 하랴? 백성은 하늘이 낸 백성으로 함께하고 하고자 하는대로 신고는 주어서는 아니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길가는 사람처럼 보일 것,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 보호하길 자식같이, 흩어진 지 오래이나 마땅히 용서하고 순순해야지 공도는 인사에 합치하고 덕망은 인륜에서 나오고, 이것이 임금과 백성에게 이르러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내 할일이라. 형님세상 버리신지 지금부터 19년 외로운 나직한 무덤, 기쁨 새로운 옹감 저승에서도 바람이란 어찌 천금의 보배일까? 나 지금 이렇게 살아서 네 경륜을 빌어본다. 10년을 골어귀풀매면서 자진을 본받아 몸소 밭을 갈았건만, 즐거움은 옛날과 같건만 가난은 지난해보다 심하네. 시의가 돈독하여 다시 읽고 읽으면 취한 듯 때때로 너따라 찾는 꿈 동해가를 맴도는데 그래 이쪽 저쪽 멀기만 하고, 소식 자주듣긴 어려워 자주 자주 소식보내네.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어머님게시니」 이 시에서 백성은 하늘이 낸 백성이고, 공도로 인사에 접합됨과 애절한 혈육의 간절한 정을 노래하였다.

이때는 형과 사별한 지 19년으로 형님 대신 순순하게 조카에게 이르고 어루만짐이 친자식에게처럼 훈훈하다. 반면 가난은 해마다 더하여 실의와 겹쳤으니 「운노음」이란 시가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운노평생가련, 심무회지식, 유시반취고음, 십리계산동색, 운노부중랑출, 심신여세소활, 추사상고순풍, 독좌서공돌

돌운노쇠지병다, 소소양수상발, 대산신세유유, 한롱백운명월, 운노증리일형, 구원미각중작, 혈연수여급란, 사마우우붙박, 운노금년농업, 불경일묘수전, 유래아복공동, 무물가용가전, 운노불운화곡난묘낭수황무, 황천불경인물, 화속현량전무, 운노생애곽락, 년년사백공어, 지유춘풍추월, ○○무결무여, 운노하남득소, 소용불입우시, 오오휴휴우심, 임종세소인사, 운노전망세리, 도도차혹효효준성낙천하감, 차차지유단표, 운노요장관성, 발생십분광홍, 관성일노차언, 재이일생진중」이「운노음」에서「운노 평생 가련하라 마음은 꾸밈없고, 때로는 취하여 높이 읊으면 십리강산이 따라 읊는다. 운노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니 몸이나 마음은 세상과 멀고, 마음은 옛날 풍속을 그리워하니, 책앞에서 공연히 혀끝만 차네. 운노는 쇠진하여 병이 깊어 수염과 머리에 서리내리고, 산속에 사는 신세 유유자적, 백운 명월을 한가롭게 즐기네, 운노는 일찌기 한 형을 잃으니 주천에선들 또다시 만날수 있나? 급할 때 그 뉘와 함께할고, 사마우 그 걱정 곧 나일세. 운노 금년농사는 논한이랑도 갈지 않았네. 내 배는 원래 빌배 채울것도 보전할 것도 없구나, 운노의 농사는 김 안매는 농사, 어지러히 잡초만 얽혀 있다. 황천은 사활을 경계찮으면 화속할 어진이 끊어졌구나…」 운곡은 자신의 절망보다는 하늘이 버린 세상으로 세상을 절망하며 아프게 노래하였다.

10. 운곡은 붓을 쥐면 미친듯이 흥을 돋구는데…

하늘이 버려 현량의 인재를 주시지 아니하여 세상을 구제할 수 없다고 슬퍼한 운노음의 노래는「운노하남득소, 소용불입우시, 오오휴휴우심, 임종세소인사, 운노전망세리, 도도차혹효효, 준성락천하감, 차차지유단표, 운노료장관성, 발생십분광홍, 관성차소차언, 재이일생진중」으로 즉「운곡은 하남에 자리를 얻었지만, 재주없어 시대와 맡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쉬려는 마음만 심하니, 세상이 웃고 속인 들 어이하리. 운곡은 전혀 세상명리는 잊었는데, 도도하다가 혹 들날리다 본성을 따르고, 천성을 즐기다 슬프다 다만 표루박하나 운곡은 붓을 쥐면 미친듯 흥을 돋우는데 붓은 웃어 말하길 괴이하오. 일생동안 티끌속에 묻힌 것」 여기서 방황, 좌절실의, 절망 드리하다가도 분연하게 떨치고 일어서곤 하는 운곡선생의 생활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하기까지 한 운곡의 심리가 일생을 통하여 모진 불의에

꺽일 듯 꺽일 듯하는 마치 바람앞에 흔들리는 등불같은 느낌을 보게된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때 그때마다 이런 노래로 스스로를 달랬다. 「눈맞아 휘어진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굽을절이면 눈속에 굽을소냐?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노래는 아마도 운곡선생이 자신이 자신의 슬픈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어느때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것으로 비칠지도 모르는, 아니면 받은 오해속에 솔직하고도 정직한 심정을 「눈 맞아 휘어진대로」 읊었을 것이다.

여기서 삶속에 굽힌 의인들의 사랑스런 「휘인대」를 우리는 직시하고 바르게 평가하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간지로 갑자년 기록이니 운곡선생 35세때가 되는데, 이때의 시사에는 정월눈을 노래하고, 도경산재의 노래 도경대선사 장실에 보면 노래 도경선사의 시에 차운한 노래 이 노래에서 「도경진선경, 송음만원수, 다헌연○○, 약포우사사, 일동관평곡, 삼청황홀이, 노요진속절, 임근야수비, 단가안서식, 하위랑주치, 수청사셍이, 산호회신미, 일여운구정, 인겸정취기, 필수모후회, 이과재전기, 미경다수처, 환유요급시, 차여본소라, 도자학우치, 심탄무량책, 공참헌졸시, 의장심승지, 한미석증지」라고 읊었다. 즉 「도경은 선의 경계에 들었네. 솔그늘 가득한 뜰차향기 집안에 가득하고, 약밭에 이슬비 나리고, 넓은 골짜기 그윽하고, 삼청이 세계 예 아닌가?

세속길 멀어 인연은 끊어지고 가까운 숲 새소리 슬피운다. 단지 편히 쉴만한 곳 부질없이 다닐 일도 없구나, 물 맑아 귀 씻을만하고 산 좋으니 이마 주름살 펴서 기뻐해야지. 구름, 달 다 고요하고 사람, 경계 모두 신기해 지난 언약 어겼으니 앞으로의 언약이나 하여야 겠오. 좋은 경치 많으니 즐길때 놓칠세라 슬프나 본래 게을러 속절없이 배운 것은 어리석음뿐 아무런 계책없음이 한탄스러워 옹졸한 시뿐으로 앞으로 명승지나 찾고파, 그래 한가한 멋만은 일찌기 알았으니」 이 시로서 운곡선생의 30대 중반의 삶의 모습은 익히 알 수 있다.

고려말의 망국현상이 깊어감에 선계에 들어간 형안앞에 말기적인 모습이 어찌 간과 되겠는가? 이때마다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더욱 더 전국 사람에 시를 통한 구국적 차원의 뜻을 보내고 받았으니 고려말 선비세계의 일면을 운곡시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좋은 예가 동년 동방인 허중원이 보낸 칠언절구 28자를 운자로 쪽개어 28운을 삼아서 오언, 칠언, 절구, 월시, 배율, 장단구의 시형을 빌려 형자를 시작으

로 걸림없이 구사한 문장력과 시상속에 담은 인생사 일화와 소식과 관련사를 상대의 시 한 편의 글자를 쪼개어 쓴 이 시는 단연 우리 한시사에 백미다.

11. 운곡 元天錫 선생

운곡선생은 나옹대사의 운산도에 화제를 쓴 기록과 시가 보인다. 즉「제나옹화상운산도」로 내용은「청산운영백운중, 원근기관일일궁, 반폭화전심만리, 방지묘필즉신통」으로 즉「청산은 백운에 가려 비치고, 원근 기이한 경치 하나 하나 다 보이니, 반폭화전에 만리심을 실었네. 신통한 묘필을 선화속에 운곡선생의 이 시는 이미 선경에 든 경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 시는 을사년간에 지은 시다. 또 시는 병오년 늦은 봄을 노래하고 있으니 즉 모춘병오로「우과앵제활청산, 벽사위, 수음연초경, 유영엄시비, 준주의다변, 원화공란비수성중점복, 오여무우귀」라 하였으니「비 지나가니 꾀꼬리소리 더욱 간들어지고, 청산은 더욱 푸르러 나무그늘 풀길까지 드리우고 버들그림자 사립문을 덮었네. 술들 기회 늘 있건만, 정원에 핀꽃 홀날릴까 두렵구나 그 누가 중점의 옷을 이뤄주랴 나도 더불어 무우에 놀다 오구 싶구나」이해에 하운이란 시엔「변상천상안전횡, 갱작기봉세불평, 시우가뢰번복빈, 루성장월권서행으로 즉「천가지 모양으로 변화무쌍타, 또다시 가로 비낀 다른 봉우리 비를 뿌리고 우뢰를 싣고 무쌍도 하다. 별을 뿌리고 달을 싣고, 펴고 말다 가는 것」이 시는 여름 구름의 그 무쌍한 변화를 칠언절구로 노래한 것으로서 노래라기보다는 유달리 파란 여름하늘이 유달리 하얀 여름구름이 펼치는 천변만화의 재주로 온갖모양을 이루고 지워가는 과정과 비도 되고 우뢰도 치면서 사이 사이로 밤엔 별을 흘리기도 하고 달을 감추기도 하는 그러면서 가다 머물다, 다시 가는 천공 무애의 자유를 그린 그림같은 노래로 운곡선생은 천진한 노인이 되어 세상사 모두 잊어버리고 물감을 풀어 재미있게 무아지경에 들어서 골돌한 모습이 몰아의 경에 든 이 시경은 자유인의 한 단면이다.

또 같은 해 벼루라는 시는「십재형창반여지, 단거가중백금여, 누경묵치휴신양, 기목호두학고서, 적로연시경숙조, 화빙세처동잠어빙거약취평생업, 사득공은가지재로 즉「형창의 십년세월 너와 짝하였네, 단정이 거한값은 백금보다 많고

야 쌓인 세월 먹에 갈려 이즈러진 새 모습 몇 번을 씻고 붓머리 스쳐 옛글을 익혔으니 이슬방울 털어갈 땐 자던 새도 놀라깨고, 얼음개고 벼루씰 땐 잠긴 고기 놀랬으니, 너로인해 내 사업 성취될 땐 네공을 쓴글이 수레에 넘치것다」 어느날 공부방에 벼루를 보고 많은 세월속에 닳고 갈려 모양조차 이즈러진 그 모양 묵묵히 앉아 짝하여준 값을 백금보다 소중하게 놓고 세월따라 먹에 갈려 변하는 가운데 붓을찍어 쓰고 또 쓸 때 때로는 이슬을 털어 먹을 갈 때 숲속의 새가 자다 놀라 달아나는 깊은방, 꽝꽝언 어름을 깨고 벼루를 씻을 때의 손시린 엄동과 고락을 함께한 그 공을 기린 글을 쓴다면 한수레도 넘겠다는 이 고마워하는 마음은 사람끼리의 감사함이 아닌 무생물까지도 자기주변의 돌덩이 벼루의 은공까지 기리는 고마워하는 운곡선생의 이 경지가 바로 호연지기로 천지만물에 꽉찬 마음인 것이다.

이 싯귀중 평생사업이 이룩된다고 하는 대목이 서러운 귀절이다. 이 귀절이 끝에 수수께끼인 대목이다. 운곡선생의 평생업이 무엇이고 왜 그토록 옛것을 자는 새를 놀래키고 숨은 고기를 쫓으면서 밤낮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익혔는가? 지금까지의 시를 통하여 보면 자기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한것은 결코 아니고 일가족의 평안만을 도모한 것도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요즘의 지역감정까지 일으킨 일부지역 개발 우선만을 부르짖은것도 물론 아닐 때 그 보다는 넓고 큰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선비는 수신하고 제[illegible]라고 나랏일하고, 세상을 평화롭고 화목하게 함이 목표고 책임량이다. 이를 한낱 출세욕이나 정권욕의 차원에서 할 말이 아닌 봉사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타애요 그리고 공인의 자세요 지순지고한 최고의 이상이요 설계일 때 운곡선생의 이꿈은 당신만의 꿈은 절대 아닌 내용으로 이만큼 이뤄놓고 달려가신 지점에서 넘겨받는 바톤처럼 후생이 받들 부분이다.

12. 지난 해에는 아들을, 올해는 부인 잃어

운곡시사를 볼 때 편지의 주대로 중간부분 삽입한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즉 이런 경우이다. 병오년간의 「조총랑견화누졸재시부용전운정」에서도 「종교세월거당당, 장득청안아소망, 통도조희당이백, 봉후불원한장량, 세련담사추운영, 야흥융여람주향, 신이노래봉성대, 만회강장한무방」으로 「세월은 유유롭게 가는 것으로 따라 배웠고, 길이 청한을 소망하였네, 도통한이 일찍이 드물더니 이태백이 있었고, 한나라 장량은 제후를 거절했고, 세상인연 담담히 가을구름 같아 야인흉은 세주익는 향과 어울려 몸은 이미 늙었고 때마침 성대이니, 되돌이킬 젊음 아니니 한스럽구려」물론 시에서는 과장법을 쓸 때 늙음을 청노할 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운곡선생께서 병오년이니 전후 시의로 미루어 시사 편찬시 오류인것 같다.

더욱 자료발굴이 되고 년보가 소상스럽게 작성되어야 되겠다. 「을사」, 「병오」년간에 운곡선생은 아들을 잃고 부인을 잃었다. 세상에 이러한 불행을 당하는 이가 한둘이 아니겠지만 운곡선생의 경우는 또 다른 상처가 있다. 물론 세상을 잃고 사는 큰 선비였기 때문이다.

도경선사의 편지내용부터 살펴 보자 「도경대선옹, 기서운, 선생불행, 거년곡자, 금우실, 주부, 비애상계, 통심무극, 여구기상아, 추인과철언, 위시이봉증 서란사이서해야, 시활, 일물원터절상명괴연성질탁미생, 홀래조지비금시하용애애일손정, 우왈, 은애수비결호련, 사생리박호싱견, 달인독보청허외, 처세환여탈태선, 시어절간김어, 여심차운 봉정 사수」하고 「세간성색총허명, 인사수능정사생, 만종비애연부절, 수년무일불할정, 도장무실가형명, 매견쇠망배감생, 진중오사개비밀, 발명인과시친정, 동지해로야무련, 배아선부업소견, 이각망인휴쇄투불감아곡사루선, 섬사다겁종량련탈각진로세사견, 응렴야부라고뇌임형야사구추선」이라 하

였다. 이를 해역하여 보면 「도경대선옹께서 보내신 글에 선생은 불행하게도 지난해에는 아들을 올해는 또 부인을 잃었으니 슬픔이 연이어 아프고 서러움이 끝없을 것이 걱정되고 그 상심할것이 두려워 인과를 미루어 말을 엮어 시를 만들어 올리니 얽힌 생각 슬픔을 시로 하였으니 본래 만물은 형상도 이름도 없음이요, 덩이 이루어 바탕이 되는 것도 작은 생명에 의탁함, 홀연이 왔다가 부질없이 가는 것은 지금뿐은 아니오. 날마다 슬퍼하여 애 끊는 듯 무엇하오? 또 시에 사랑이란 본래 좋은 연은 아니라오. 삶과 죽음이란 연끈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것, 그래서 달인은 청허의 밤을 홀로 걷는다오. 허물 벗은 매미처럼 세상을 살지요. 이 시어가 너무도 간절하여 내 마음을 차운하여 비수를 올렸다. 즉 세상성색이 다 헛된 이름뿐, 인간사 나고 죽는것 누가 정했나? 만가지 슬픔 끊일날 없고, 요 몇해 정겨운날 하루도 없었오. 모두가 실없는 허상 허명뿐 매냉쇠하고 없어지는 것 볼적마다 백가지 생각뿐, 진중한 내스승 비밀 좀 열어보오, 인과를 바로 밝혀 친정을 보이셨오. 같이 살며 늙을 인연 아예없기에 날등지고 먼저간 부인 도두업에 끌린 것 말고도 허망한 인연에 눈물 뿌리니 아이들 어미 찾아 우는데 견딜길 없다오 대사는 다집에 좋은 인연 심으셨오. 그러기 진세인연 벌써 벗었죠. 고뇌에 빠져사는 이 촌부 구시월 마미처럼 마른 인생 부탁하오」 그동안 사이사이 운곡선생의 아픔을 이야기 하였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로 가정이 가정다운 가운데 우주와 세상사를 노래할 수 있었는데, 속담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그 자식을 잃고 이제 고생만 시키든 아내를 잃는 그 슬픔의 향후 50여년을 재혼하지 않은 뜻의 삶이 아니었을까?

13. 「유인원씨」에게 당호를 올리자

정미년 6월을 전후해서 음정, 소 까치, 석죽화등의 시가 보인다. 이때부터 시가 더욱 애절하고 세상사와는 인연이 멀어지면서 시가 맑고 고와서 진세의 탁한 냄새는 없어진 선시 같아져 감을 읽을 수 있다. 더구나 「십이월 이십칠일 퇴가인총」이란 시에 「운옹산애람설심 백양풍긴사용음아래삼뢰고분상, 불각잠연루만금」으로 즉 「십이월 이십칠일 아내의 무덤에 술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구름은 산애를 안았고, 설달눈 나려 깊었는데, 사시나무바람에 떨고, 바람소리

마치 용울음 같구려 내왔오. 석잔술 따랐오. 외로운 무덤된 당신, 소매젖어 울도록 나도 몰랐오」 여기서 운곡선생의 애를 끊는 아내생각을 단순한 지어미를 여읜 홀아비의 설움으로 읽기엔 미흡하다. 한시대 한나라 한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선비의 경륜을 바로잡으려는 선비의 경륜을 펴지 못하고 손수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내로 찢어지는 가난속에 살다간 동지를 슬퍼하는 생각이고 울음이다. 더구나 정말 농사꾼의 아내노릇을 하였다면 나무하고 땅파고 농사지어 등뜨시고 배부르게 촌부로 물길으며 잘살수 있었든 아내가 책상물림 선비의 아내로 벼슬길 마다한 청빈의 가난속에 30대 후반에 잃은 아내가 얼마나 가엾고 슬펐는지는 운곡선생만의 느낌이고 아픔으로 알 일이다. 이후 채취하지 아니하고 후반생 40년 이상을 아내 생각하며 세상을 마친 운곡선생의 사랑의 일생은 보기 드문 일로 두고두고 기리는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수절과 정절은 여인만의 길이고 사대부는 정처 측실 소실 첩 정인을 의당두고 살든 시절에 40전에 홀로 되어 일생을 속현하지 아니한 그 지고한 사랑은 인간간의 신의요. 동지간의 신의요. 더구나 조강지처에 대한 죄책감을 실현한 사랑의 표현실천이라고 한다면 과할것인가? 여기서 미수 허목선생이 지으신 「고려국자진사 운곡선생묘갈」에 보면 「전략…… 유인원씨 종부령 광명지녀, 비일원족씨 이위 원유 양원시야」라고 되어 있으니 즉 「유인원씨는 종부령 광명의 따님이시다. 한원씨는 아니다. 원주 원주씨가 바로 둘이란 말은 이것이다」라고 되었으니 지금도 원주 원씨가 운곡계가 있고 원성백계가 있고 충숙공계가 있고 관관계가 모두 계대할 수 없어 동성동본이면서 이성이본 처럼 결혼도하고 나려왔으나 근래는 석경사 부근에 사적비를 세우고 고구려때의 「경」자 하시는 분을 시조로 합보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그 비문에도 계대는 없이 선계미상으로 후세통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유인이라함은 벼슬없는 선비의 아내로 옛날엔 남편의 직절에 따라서 유인위로는 공인 숙인 숙부인, 정부인, 정숙부인까지 높여지니 살아생전은 실직이고 사후에는 증직으로 유공자나 자손이 잘 되면 추존되어 높일 수 있으니 운곡선생은 수백년간 사람의 추앙을 한 몸에 받아 왔고 앞으로도 드물지 아니한 높은 선비로 혼탁한 세상의 사표로 추앙될 때 운곡은 선생이시니 「유인원씨」에게도 당호라도 하나 올리고 「○○ 당」이라거나 「○○당 원씨」라고 하면 운곡선생의 부인으로서나 치악산 자락속에 사는 이지역 여인들의 사표로나 더구나 핵가족과 여권신장속에 오는 새로운 남녀상 정립이나 새로운 부부상 새로

운 모자상 새로운 여인상정립에 역사적인 창조적 인간상 형성을 위한 계기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강호제현과 사계에 관심있으신 유지제위께 차제에 제언하는 바로 심사숙고하여 범도대로 일이 진행되어 향토사 재조명이 한낱 한가로운 필객의 도로에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약대가 되었으면 한다. 「유인원씨」에게 당호를 올리자.

14. 치악이 낸 운곡선생의 선비정신 오늘로 이어져 청년 운곡들이 자라고 있으리라.

운곡선생 39세는 서기 1368년으로 고려는 공민왕 17년이고, 단기 3701년이다. 원나라가 드디어 망하고 명나라가 건국한 해다. 대륙에 새 질서가 형성되어 명나라는 홍무 1년으로 연호를 쓰니 지금까지도 산야에 산재한 조선시대의 비석 첫줄 첫머리에 「유명조선국…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감회는 마냥 새롭기만 하다. 더구나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마지막 연호인 숭정 후 몇 갑자를 부쳐서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시대까지도 사용한 것은 참으로 기구한 기록이다. 이제는 우리의 금석문에서 외국의 연호가 사라졌다.

그러나 「서기」와 「단기」의 연호문제는 국제사회의 편리성에 치우친 감이 짙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역시 연호의 독립성 및 주체성엔 아직도 미흡하다. 운곡선생의 불혹의 40을 당하면서 서곡 장상서의 부음을 도경선사의 시를 통하여 안후 만사 두수를 지은 후 「수상부구영이회, 초당유시주인비, 팔순행락공진적, 유유황량월조비, 광가취무여수동, 대주선당억아공, 점검존망일회수, 청산의구백운중, 비가장송백운중, 초장무인재회동, 요득년년장단처일강송월기처풍, 궤종황석수병서, 좌한공병수병동, 고골이위천하토한심오배모유풍」이라고 차운하였다.

즉, 「물위에 뜬 거품처럼 이미 그림자로 사라져, 초당 주인은 옛주인 아니라네, 팔순행락은 빈 자취뿐, 오직 황량한 달빛 사립문 비추네, 미친듯 노래하고 술취해 춤을 출때 뉘와 함께 할고, 술보면 생각나고, 더욱 그리워 죽고 산 친구 손꼽아 생각하니 청산은 예대로 구름속에 있구나. 구슬픈 장송의노래 구름속에 묻히고 슬프다 다시 만날 인연 없음이 해마다 그리는 단장의 아픔 한뫼 송월간

에 쓸쓸한 바람만 이는구나! 황석공의 맹서 꿇어 받은 후 한나라 위한 공과 함께 같다 하랴만, 이미 뼈는 황천의 흙되었으니 한 깊구나 우리들 남긴 품도 그린다」 이 시에서도 운곡은 단순한 시의 짜임만은 아닌 깊은 한을 노래하면서 40고개턱을 오르는 장년의 모습을 알게된다.

이해 2월 「서교로 나가다」라는 「이월 이십팔일 효 청도 서교」시가 보이고 「밤비」즉 「야우」가 보이는데 「단몽초경기, 광풍동수림, 일등삼야우, 고객십년심, 역역청무염, 유유한의심, 천군나개사, 독자강애음」이다. 즉 「꿈꾸다 놀라 깨니, 광풍이 숲을 흔든다. 삼경에 등밝히고 십년한 곱씹는 사람 역역한 들리는 소리 싫키야 할까마는 깊어가는 한 깊이 친구들은 무얼 할꼬? 나홀로 깨무는 슬픈 노래뿐!」 한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서나 아니면 한시의 특수성 때문에 운곡선생의 심경은 더욱 읽기 쉽다.

불혹의 연세에 드시면서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고려의 말기적 정치현실과 대대륙에서의 새왕조 교체에서 예견된 국내상황 전개를 통찰할대 치악산 깊은 골짜기에 은둔처사를 아파하는 고뇌의 선비상을 읽고, 이해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아픔도 시공을 뛰어 넘어 서로 어루만지는 차원이 이세상에 생을 갖은 이와 갖고있는 이와 앞으로 갖을 이들 서로간의 역사공동체요, 사상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연면이 이어가는 삶의 끈과 고리가 되어 전통과 문화는 꽃피고 그 향기 청사에 스미는것 아닐까?

우리의 속언에 「삼대 정승한 집에서 처사 하나 난 집안에 청혼 감히 못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한 집안에 정승, 판서 셋 난집 한 둘이 아니요 역대 제왕낸 왕가보다도 산림처사 하나 낸 그 가문과 그 지역과 그 산이 끊임없이 일컬어지는 까닭이 있다. 인걸은 지령이라고 하였다. 치악이 낸 운곡선생의 선비정신은 오늘도 이어져 청년 운곡들이 자라고 있으리라.

15. 불교에 관한 운곡선생의 깊은 이해와 불교를 통한 경지를 볼 수 있다.

무신년 30세 봄으로 추정되는 「송조계참학윤주유영남시」「맹서」로 즉 「조계참학 윤주스님의 영남길에 주는 신의 서문」으로 그 내용에서 운곡선생의 불교

에 관한 깊은 이해와 불교에 통한 경지를 볼 수 있었다.

즉「불지 적재호, 세주의, 기유이존자 불지언야, 언지저자위경, 익이성자위론, 기도개본호효경적 이중덕귀어 무위이, 부연교계전어 세간자, 이위이문일왈선, 일왈교, 교즉전소위, 경론시야, 선즉 49년 300여회취후 영산회상 점화이 시음광미소자 자이강 서진 47 동진 이삼조 조상전 용지부진 수기웅변 묘용 종횡 이리자타자시야, 금유상인 조유심어 선도기적우 조계유어 인각대선용지문하 주야복습 수이행지 이식덕 본월금년 정월 부 담선회우 경사 보제사 파회이 환근어 자당불원천리 이래 차기본호, 효경자 여약연즉 장일심귀부위도, 필무의의, 홀일일내수기장 견기상이 과여왈 아금욕 향청남 청자일구 이위행로 파적지자내시 동포선자 인비소증 절구시일수 복완둔심의, 어장구간 무소용심하감당야, 연관기행청기언, 성유감어 심자유예이 불감양언, 차기운작이절, 이신행어기 섭강 등산모상무량 처창초홀지제 이기소우지경, 음간, 행심행심, 지점전두도유청, 효청유곡답계성, 담연세초춘풍로, 죽장청산청야정, 무공적중취고조, 몰현금상통신성, 행행호양연라거, 일편한훈불세정」여기서 시 두수에 앞서 지은「서」를 살펴 보자「부처의 자취가 있다. 세상에 오래되었다. 그 머물러 있는 부처의 말이 있다 말을 저술한 것이 경이 되고 그것을 더하여 이룩한 것이 논이다. 그 도는 대가 근본을 효와 경을 무리의 덕으로 쌓아서 무위에 귀결함이다. 펴 가르치고 경계함을 세상에 전한것이 둘이다. 그 하나는 선이요. 다른 하나는 교다. 교인 즉 경과 논을 일컫는 것이다.

선인 즉 49년간 300여의 법회를 갖고 영산회상에서 점화이시할 때 미소가 선이다. 부처이후 서린의 47조사와 동진의 23조사가 있으며 이 조사가 서로 전하여 용지부전하고 수기웅변의 모용종횡이 사타의 이로 이것이 불도다. 지금 상인이 일찌기 선에 뜻을 두고 선도를 닦아 계조에서 인각 대 선웅의 문하에서 주야로 복습 수행하여 덕의 근본을 심었다.

금년 정월에 서울 보계사 담선회에 갔다가 끝내고 귀환하는 길에 자당을 뵈오려고 불원천리 하고 왔으니 이것이 바로 근본임이다. 효 · 경이라고 하는것이 이와 같아 장차 한마음으로 무위의 자리에 이르러 귀일할 것이다. 반드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득 하루는 지팡이 손에 들고 어깨에 상자매고 지나다 나에게 말하길 내가 이번에 영남을 가고자 하는데 선생님의 한귀 시를 얻어 가는길에 파적지자로 삼겠다며 함께 선하는 인비의 지은 시를 보여주었다. 나

는 원래 재주가 없다. 글짓는데는 마음씀도 없어 감당할수가 없다. 그러나 스님의 행적이나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느끼는 바 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예도 감히 사양할 수 없어 절귀 두수를 지어 여행중 물건느고 산을 넘을때 느끼고 볼때 처창하거나 초연할때 읊어진다면 다행 다행이겠다.

즉「점검하여 머리위 그많은 골자기, 새벽 심곡 물소리, 아지랑이 갓돋는 풀, 봄 바람길에 대막대 회색바람 야인정경답구려, 구멍없는 피리로 옛노래 부르고 줄 없는 거문고 새노래 희롱하면 가고 가는 덤불길 한조각 떠도는 구름 세속이 아니겠오」 찾아왔든 윤주스님께 불도를 효와 경의 쌓은 대중의 덕이 근본임을 설파한 것은 요즘 불자들에게 울리는 경종이기도 한것이니 여기서 고려의 호국불교와 생활불교의 진수를 보는것 같다.

16. 치악산 깊은골에 운곡선생은 자연이 되어 가고 있었다.

무신년 2월중으로 추정되는「문임상서탄금시」를 통하여 운곡선생의 음악을 보는 견해와 음악을 이해하고 그 높은 경지와 음악세계를 한자락 엿볼 수 있다.

즉「여속성비야 어금슬간 중불용심 수부지 조롱음을 기광협방원지제도 고저긴완지득중 역가고이상야 차기도연명 소위단취 금중의 하로 현상성지의여금유붕선호군임공 증위악부지수령관 어기팔음 각진기묘 기비자종선계래강 인세화완은이, 귀우 한아자야 월 20일 도우향이 야좌초연색금이 탄지 기음연연보의 가이해오온 음득장 구사은 일수시제동석, 차정동 어중이형어언자야」라고 하였다.

여기서 도연명의「소위단추금중의하로 현상성지의여」인「소위 다만 거문고속의 뜻을 둘 것인가?」여기서 줄없는 거문고 구멍없는 피리의 뜻을 엿볼수 있지 아니할까? 또한「인세화환은이 귀우 한아자야」로「인간세상의 완악함을 여유있고 아름다운 심성으로 들리는」음악의 정서순화론을 피력하였다.

또한「금이탄지 기음연연보의 가이해오온」으로「거문고를 탐에 그 음이 어여뿌고 어여뿌니 참으로 내 성나고 괴로운 마음을 풀어주니…」이 부분이 바로 마음을 교요한 호수처럼 조용한 경지로 순화하는 대목을 표현한 것이다. 음악

이 완은한 인간세계를 한아한 세계로 하고 번민하고 노한 심정을 풀어서 평화롭고 조용한 세계로 이끌어 사람의 평온함을 찾는 계기와 평정을 회복하는 수단임을 밝혔다.

일찌기 공자님께서 학문은 예약으로 성취한다는 내용과 인간의 심성이 음악으로 평온을 회복한다고 볼 때 동서고금의 음악의 흐름이 오늘을 흐를때 격정과 폭발적인 음율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조용하고 여유있는 한아한 정서를 취할 수 있을까? 공자님은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음악을 들어 보면 그나라 백성들의 심성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례악이 있고, 궁중아악이 있고, 대중의 속악이 있을 때, 때와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으니 우리는 내 고장에서만의 고유음악, 전통음악을 묻했으면 발굴하고 끊어 졌으면 이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다음을 살펴보자 「아금수 불해음성, 단호사동랑득명, 한통청계가오곡, 홍심명월야삼경, 일탄완전진회정, 재고표령고의생, 기이연연득진위, 현현아운불수평」으로 즉 「내 비롯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 하나, 거문고 좋아하는 것은 이름이 났오 한가롭게 청계에서 오곡을 다루니 홍이 깊어 명월삼경 이르렀오. 한번타면 티끌세상 회포가 고요하고, 두번 타면 옛 뜻이 살아난. 이미 아름다운 진수를 얻었거늘 줄줄이 아운을 무엇 평하리까?」 참으로 시를 위한 시가 아니고, 음악을 위한 음악을 평한 것이 아니다. 음악과 생활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속에 음악이, 음악속에 생활이 젖어 들어 나이가 천지 자연과 합자연할 때 줄없이 나는 솔 숲속의 바람소리가 거문고 소리로 되고, 계곡을 흐르는 개울물소리도 옥퉁소 소리로 들릴 때 한자락 떠도는 흰구름 자락이 천상세계 군선들의 옷자락이 아닐까? 비단이 따로 있음이 아니고 봄비에 새로돋는 푸른 벌판 언덕이 바로 비단이고 음악이 따로있음이 아니고 천지자연의 소리가 다 음악이요 가락이며 춤이 따로 있을 리 없다. 우쭐대며 흐르는 물결도 춤이요. 너울너울 흐르는 물결도 춤이요. 너울너울 흔들리는 나무가지도 춤사위다. 봄가을 오가는 기러기 날개짓도 춤이고 산속을 거니는 암사슴의 짓거리도 춤의 자태다.

이렇게 해서 치악산 깊은 골에 운곡선생은 자연이 되어 가고 있었다. 합자연이다. 신선이다 성불이 따로 있을리 없다. 부처가 보면 부처다. 바람이 일면 바람이듯이…….

17. 운곡은 시객이 되어 국토순례를 하면서 정부의 깊은 뜻을 다듬었다.

서기 1368년 무신년 3월 20일에 운곡선생은 「3월 20일 향춘루발행」을 시작으로 횡천갈풍, 창봉, 사물, 홍천, 원양, 춘주, 청평사, 이령(배티) 원통사를 들리면서 다음해인 기유년을 맞는데 이때 운곡은 연세가 마흔이 된다.

여기서 필자는 운곡선생 80평생을 전40, 후40으로 구분하여 40세까지만을 이번 기회에 다루고 40세이후 40여년은 기약없는 후일로 미루려고 한다. 지면이 허락하는대로 살펴 보겠다. 「춘주발행」에서는 「세마경장출군성, 구심원지석양정, 만반춘경견유목, 차거수비적막행」으로 「작은말에 대충행장 꾸려 성문을 나와, 마음은 멀리 해질녘 하로길 헤아리니 만반의 봄경치 눈을 끄니 이번 길을 그렇게 적막치는 않구나」 산자수명의 강원도 산수를 마냥 즐기며 적막한 마음을 달랠수 있는 봄경치를 읊으면서 「숙횡천」이란 시로 연결된다.

즉 「여관요요일야요, 몽십봉도도운교, 각래홀견동창백, 반파빙륜패수소」라고 읊었다. 즉 「조용한 경관 하루밤도 길고나, 꿈속에 봉래섬 찾아 구름다리 건넜는데 문득 깨어 보니 동창이 밝았구나, 지다만 그믐날은 나무가지에 걸려 있고」 불혹에 드는 운곡은 전전반측하며 잠 못 들다 깜박 늦잠에 눈을 뜨고 보니 동창이 밝았고 3월 스무낭께의 지다만 달을 통한 자신의 쓸쓸한 심리를 피력한 것이다. 「반파빙륜」이란 시어가 참으로 좋다.

「반쯤깨진 어름바퀴」는 지다만 그믐달도 나무가지에 걸려 있다고 표현했다. 필자는 과문한 탓인지 「낮에 나온 반달」을 「반파빙륜」이라고 한 시어는 처음 대하나 낯선감은 없다. 조선 명종때의 명기 황진이가 반달을 형산의 옥을 깍아 직녀의 얼기빗을 만들었는데 견우와 이별후에 벽공에 던진 것이라는 비유가 매우 멋스런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반파빙륜」은 더욱 품위있고 격조 높은 표현이라고 하였다.

「과갈풍역」이란 시는 「과진장교수루회, 만회춘사호관재, 수변세초비황접, 수수한화격안개」라고 하였으나 즉 「긴다리다 건느도록 누차 되돌아보니 가슴가득한 춘흥 어찌할 수 없구나, 물가 세초에 노랑나비 춤추고 나무마다 핀꽃은 언덕에 가득하구나」. 「창봉역」이란 시에는 「정외삼삼고목촌 뇌유인 농난운여분

천면초사인 암화금란 간수벽 벽라신 습습 풍취메료감약로진」으로 「골짜기 깊은 곳에 봄경치 좋구나, 나그네 뇌리에 깊이 새겨져 따뜻한 구름은 가루 뿌린듯 잘 자란 풀밭은 솜같이 보드라워 바위에 꽃들은 비단같이 찬란하네 맑은 물 푸르기는 더욱 푸른데 옷소매 간지르는 봄바람 속에 그까짓 길에 이는 먼지쯤 견딜만하네」 또는 「과홍천」으로 「수변상자양삼가, 호사도화영리화, 채궐하인래벽동, 격계한방일성가」로 「물가에 뽕둘창봉창취창운빈, 계류징징개경면, 산기애애횡연혼, 잠괴방황불인지, 격림제조유감문, 우민보도일이측, 차부상마공치분」 으로 즉 「정자박 숲속에 고목은 우뚝한데 창봉 푸르봉에 푸른빛이 감돌고 푸른구름 자락 날리네 시냇물 맑고 맑아 거울같이 맑구나. 신기운 연기 가로 두른듯, 잠시 쉬며 못 떠나고 서성일 때 저 숲속 우는 새들 듣기 어렵네, 파바은 기운 해를 일러 주니 다시 말에 올라 부질없이 달리네」 다시 「사물동중」이란 시에는 「동심춘경무 소견린 두서너집 복사꽃 오야꽃 곱게 비치고 고사리 꺽으리 온 이 누군가? 시내 건너 한가로운 노래소리 들리네」위의 시에서 운곡은 불혹의 40대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봄을 기다림이 아니고 봄을 찾아 나선 시객이 되어 마을마다 골골마다 꽃피고 새우는 금수강산을 노래하는 시객이 되어 훨훨나는 새처럼 유람하면서 자연을 노래하고 국토순례를 하면서 장부의 깊은 뜻을 다듬었다.

<「원주신문」 1990년 3월 16일 ~ 7월 6일 연재>

운곡 원천석선생과 치악산

박 경 용
(시조시인)

1. 유혹을 뿌리친 만고 충신

원주에서 동쪽으로 약 56km 밖, 치악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부곡리(釜谷里-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일대.

치악산이라면 경치가 빼어난 그 만큼 험준하기로 이름난 산이요, 갖가지 설화로써 응어리진 산이다. 또한, 송강의 '관동별곡'에도 노래되어 있는 산인 데다 특히 우리 나라 신소설의 하나인 국초 이인직(菊初 李仁稙)의 치악산으로 그 유명함을 더욱 떨치는 산이다.

그러나, 고려말의 충신인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선생과의 얽힌 사연으로 보다 더 사람들의 기억에 뚜렷이 아로새겨져 있는 산이 치악산임을 아는 이는 다 알고 있다.

도립공원으로 정해져 오늘날에는 관광지대로 사람들의 잦은 발길을 이끌게 되었지만, 그러나 일찌기 운곡 선생이 끼친 인연의 자취가 서린 곳은 아직도 거의 문명의 손길을 타지 않은 채 원시 그대로인 상태, 도립공원으로 잘 닦이운 방향과는 정반대 편의 후미진 기슭을 따라 운곡선생의 부곡리로 향하는 길은 굽이굽이 산의 아랫도리를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이었다.

두꺼운 잔설위에, 간밤에 내린 함박눈을 뒤집어 쓴 푸짐한 눈더미의 설봉(雪峰)들, 웅장하기보다는 눈부신 신기로움의 기분을 자아내는 울멍줄멍한 설봉들을 쳐다보며, 나는 치악의 정기를 색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악」(岳)이라는 글자가 끼어들어 있는 산은 대개 남성답다고 했것다? 설악산·북악산·관악산… 그래서 치악산도 저렇듯 남성답거늘! 그 정기를 타고 나서 한평생 그 정기를 씌며 사셨으니 운곡선생이 그토록 빼어난 기개를 살찌울 수 있지 않았으랴!'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그의 저 유명한 시조 한수를 나직이 웅얼거렸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 겨워 하노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차례가 있나니 과연 고려의 왕궁 터인 만월대?(고려의 서울인 송도=개성에 있었음)에도 가을 꽃만이 우거졌구나!/ 오백년 동안이나 지녀온 나라일이 이제는 오직 목동의 피리소리에만 날아있는듯하니, /저녁노을속에서 옛날을 더듬으며 지나가는 나그네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겠구나!」

고등학생 정도이면 누구나 다 웰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시조이다. 고려말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충신인 야은 길재선생의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라는 작품과 더불어 이른바 '회고가'(懷古歌=옛 시절을 돌이켜 부른 노래)의 쌍벽을 이루는 '충절의 노래'이다. 옛 시조집을 펼치노라면 불과 몇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 맨 앞머리 부분에 의례껏 나란히 실려 있는 그 두 편의 시조!

나의 이 경험은 중학교 1학년 시절로 거슬러 오른다. 국민학교 4학년 때에 시조놀이('가투놀이'라 했었다)를 하면서 옛시조 가락에 익히 길들여지으로써 그 맛을 깨우치기 비롯했던 것인데, 중학생이 되자 그것에 미치다시피하여 고등학생인 가형의 책꽂이에서 두 권의 옛시조집-한 권은 명작 옛시만을 골라 해설과 작자 소개를 곁들인 것이었고, 다른 한권은 해설이 없이 옛시조만을 거의 집대성한 두툼한 부피의 것이었다-을 빼내 와, 틈날 때마다 그걸 줄줄이 외었던 것이다.

그럴 때면, 나란히 실린 그 두 수의 '회고가'를 마치 한 사람의 작품인양 착각하여 읊조렸던 것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작자 소개란을 유심히 읽던 나머지, 나는 새로운 사실 하나에 눈을 떴다.

그 옛시조집의 앞대목에 실린 많지 않은 작품들이 모두가 고려 말기에 낳아진 것이었고, 또한 그것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 충신들이 읊은 시조라는 점이었다. 우뚝한 최영장군, 만고 충신 정몽주, 포은(圃隱) 정몽주와 더불어 '고려의 삼은(三隱)'이라고 역사에서 배운 야은(冶隱) 길재와 목은(牧隱) 이색 등….

그 시절만 해도, 나중에 태종대왕이 된 이방원과 정몽주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했다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하여가'(何如歌=어찌할 거냐고 묻는 노래)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의 '단심가'(丹心歌=변

하지 않을 충성의 노래)에 묻어서 전해져 오는 얘기까지를 나는 귀동냥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정작 그런 사실이 아니었다. 그 모두가 그 무렵의 나에게조차 차라리 대수로울 것이 없었으나, 작자 소개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오게 된 것은 원천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눈여겨 살펴본 결과였었다.

"야! 이런 놀라운 인물도 있었구나, 포은도 말할 것도 없지만, 고려말에 야은도 목은도 다 벼슬살이를 했는데, 태종임금의 어릴 적 스승인 원천석이라는 인물만은 벼슬살이는 고사하고, 태종이 멀리 치악산까지 몸소 찾아가 만나자고 하는데도 끝끝내 사양을 했었다니!" 어린 나는 감탄을 연발했었다.

남들은 고려 왕조에서 벼슬살이를 했으니, 그 왕조가 망할 때 지조(충절)을 지킨 것은 어느 모로 당연한 노릇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운곡, 원천석은 그 왕조 아래에서 기껏 '진사'라는 보잘 것 없는 낮은 명예직 하나를 코에 걸고 있었을 뿐인데, 새로 들어선 왕조(이씨조선)의 임금, 더우기 자기의 제자였던 임금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기꺼이 마다할 수 있었단 말인가.

왕조를 지키려다 죽임을 당한 만고 충신이 포은이라면 살아 남아서 유혹을 이겨낸 인격자다운 만고 충신은 운곡이라 생각되었다.

그 때부터 운곡선생은 크낙한 감동을 심어준 위대한 인물로 내 가슴속에 진작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2. 찾기 어려운 바윗 글

운곡선생과 어린 시절의 나 사이에 얽혀진 그 일종의 '사건'에 가까운 사연을 되씹어 떠올리며 서둘러 조바심을 일으키건만, 좁다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의 걸음걸이는 더디기만 하다. 눈길을 달리느라 조금은 덜 털털거리는 잇점 대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 수 없이 거듭되는 오르막 내리막 길이 간을 졸이게 했다. 이 지대의 산악지대로서는 꽤 넓은 분지에 다다라서야 버스는 50분 가량 연착 끝에 종점을 알렸다. 대개 2시간 반 남짓 걸리는 거리를 4시간이 가깝게 걸렸다며 운전수는 투덜대는 것이었다.

원주에서 종점인 이곳 부곡리 사이를 오고가는 차편은 통털어 하루에 두번밖에 없는 형편인지라 되돌아가자면 마음이 지레 다급할 밖엔 없다. 더우기 아침 8시에 몸을 실은 그 차가 닿자마자 곧장 떠나버리니 원주로 되돌아갈 길이

막연하게 생겼다. 거기서 3km가량을 걸어나와 하루 일곱 번씩 왕복한다는 강림이라는 마을에서 버스를 얻어 걸려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까짓것! 그런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는 각오를 앞세우고 운곡선생의 체취를 더듬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밟는다. 눈 개인 정오께라 산천을 바라보기도, 눈길을 굽어보기에도 누이 부시다. 그 위에 산바람이 이따금 거센 눈보라를 일으켜 시야를 어지럽힌다.

물어 물어서, 왼쪽에 산기슭, 오른쪽에 개천을 끼고 강림마을쪽으로 거슬러 내려오기를 약 2.5km, 부곡리와 강림을 갈라놓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춘다. 좀 느슨한 계곡에서 흘러내려 길을 가르는 개여울이 앞 개천을 향해 내리닫는 길목, 옛날엔 외나무다리라도 놓였음직한 그 길목에서 나는 잠시 생각에 뜸을 들인다.

'그 유서깊은 횡지암(橫指岩)이 여기 어디 쯤이 아닐까? 저게 태종대라면…'

내 지레짐작이 영낙없으리라 여겨진다. 그 길목에서 아래녘(강림쪽 방향)으로 빤히 바라다 뵈는, 깍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 위에 정자를 앉혀둔 그 곳이 태종대임은 물어보나마나라는 확신이 든다.

일단 미심쩍은 채 아래녘으로 발길을 옮긴다. 거기에서 불과 150m거리 밖의 길가에 우뚝하니 버티어 선 거대한 바위, 그건 틀림없는 태종대였다.

길에서 오르기는 전혀 가파르지 않다. 예닐곱 마디 쯤되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그러나 손쉽게 막상 오르고 보니 사정은 달랐다. 그 너머를 굽어보자 눈앞이 어질어질할 정도였다. 아득한 벼랑 아래로 한 개 강이라 할 개천과 눈에 덮인 모래밭(?)이 멀미를 일으키는 것이다. 부곡리 종점에서 내가 사뭇 옆구리에 끼고 온 개울과, 횡지암일 거라고 추측한 좀 아까의 두 마을을 갈라 놓는 계곡의 개여울이 하나로 겹쳐져 이루어 놓은 작은 강, 그것이 가파른 벼랑 아래로 굽어 뵈는 탓이다.

고개를 돌려 횡지암 쪽으로 향하니, 우람한 산봉우리가 선뜻 이마에 와 닿는다. 치악산의 높디높은 시루봉, 해발 1,228m의 높이인, '비로봉'이라고 일컫는 어마어마한 으뜸 산봉우리가 나를 압도(짓누름)하는 것이다.

'저 고지의 동쪽에 운곡선생이 숨어 살던 변암이 있다고 했겠다. 마땅히 더듬어 찾는 것이 도리이겠는데, 어떡한다지?'

안내역을 맡겠다고 나서 친지(梁權烈·원주고교 교사)를 애써 떨쳐버리고 온

일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사실, 한번도 밟아보지 않은 낯설고 험한 산의 눈쌓인 계곡을 더듬어 올라 그 곳 '변암(弁岩)'을 찾는다는 일은 어려운 노릇,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나무 위에서 고기를 낚겠다는 일처럼 어리석은 노릇이라 헤아려지는 것이었다. 나중에사 확인한 것이지만, 그러한 나의 판단은 옳았었다. 운곡선생의 문집인 (운곡원천석시사(詩史)) (1977년 간행)의 머리말(원씨 문중의 대표가 쓴)에도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변암을 찾아갈 때에 한 차례는 서울에서 일찌감치 떠나 치악산의 초입(들머리)에까지 가다가 험준하여 지방 인사의 만류로 돌아왔고, 두번째는 청년층을 동원하여 등산장비로 변암을 찾아 올라가다가 드디어는 중턱에서 길을 잃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왔으며, 세 번째는 단단한 결심을 먹고 9명의 청년층 팀에……미리 이틀분의 식량과……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첫날은 우선 중턱에 있는 입석대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이른아침에 변암에 도착할 계획을 짜고 떠났다. 드디어 세 번째만에 성공하여 변암을 발견하고 보니 놀라지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6백년 전의 그 옛날에 이 험악한 고산 준령에 잠 잘 곳을 찾아서 지내셨던가…….

이 기록을 보더라도, 그 곳 변암을 찾는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노릇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다. 하물며 통털어 이틀 예정으로 서울을 떠나와, 그나마도 날씨 탓으로 하루를 헛되이 흘려 보내고는 당일치기로 끝장내려 했으니, 이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의 어리석음이 아닐까보냐.

그런데도 태종대를 내려와 그 시루봉으로 향한 계곡을 연신 올려다보며 오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강림 마을로 가서 한차례 사람들의 의견이나 물어보고 결정하리라는 속셈으로 끝내 미련을 못 떨친 채 내려왔던 것이다.

그 곳에서 마악 벗어나, 한길과 개천 사이의 내리막 오솔길을 걸어오다가 스무 발짝 쯤 옮겨놓은 데서 우체부 한 사람과 마주쳤다. 나의 무모한 속셈을 듣자, 그는 대뜸 도리질을 하는 것이었다.

"반나절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길잡이가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못 잡아도 이틀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궁금한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며, 바로 아래켠의 '노구소'(老嫗沼)를 손가락질해 가리키는 것이었다.

"아, 듣고 있어요, 그래 맞았어, 노구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려, 그냥 무심코 지나칠 뻔했으니."

정말 그랬을 뻔했다. 문헌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그 노구소는 꽤나 버젓한 모습을 띠고 눈길을 끌 법한 것이다. 세 칸짜리 초가집이 물가의 바위 곁에 세워져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초가집은 자취마저 없고, 태종대 바위의 절반 쯤 되는 키의 바위와, 그 바위의 키와 엇비슷한 돌담이 잇대어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누구에게라도 들으라는 듯이….

"그 노파(할머니)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뜻있는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 갸륵한 풍속이 끊어지고 만 것인가. 아아, 끝내 가엾은 혼이 된 할머니!"

3. 산나물 캐어 시장기 달래다

'노구소', '태종대', '횡지암'- 이 셋은 한 줄기에 달린 호박돌과 꼭 같다. 한개 기막힌 이야기를 엮는 줄거리, 그 줄거리에 나붙은 한토막이기도 하고, 그 전체의 몫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그것 가운데의 어느 하나만 잡아 끌어도 호박덩굴에 호박덩이 굴러오듯 잇달아 달려나오게 마련인 것이다.

문헌의 기록들과 원씨 문중 사람들의 얘기를 아울러서 그 엄청난 스토리를 간략하게 엮어 보기로 한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운곡선생의 일대기(一代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운곡은 고려 때의 충숙왕 17년(1330년)에 태어나, 고려 왕조가 쓰러진 공양왕 3년(1392년)까지 고려 사람으로 살았었다. 그러니까, 그가 환갑을 맞은 다음 해에 고려가 망한 것이다. 그가 고려의 백성으로 산 60년동안은 그 왕조가 가장 엉망으로 혼란한 때 였었다. 충숙→충혜→충목→충정으로 잇기 까지의 4대왕실은 중국 원나라의 지배에 묶여 주체성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원나라에 빌붙은 간신배 무리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판이라 나라의 앞날이 먹장구름에 휘싸여 있었다.

다행히 충정왕의 뒤를 이은 공민왕은 영특한 임금이어서 한때나마 잃어진 국운을 돌이키는가 했는가 했으나, 왕위에 있은지 13년만에 어처구니 없이도 내시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렇듯 나라안이 어수선하던 물렵에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이 왕위를 잇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이성계한테로 넘어 가 있었다. 여진족과 왜구를 자주 무찔러 백성들로부터 명성을 얻은 장군 이성계가 오랜 혼란의 틈을 이용, 넌즈시 조정의 실권을 손아귀에 움켜쥔 것이었다.

그러한 이성계가 드디어 우왕 14년에 저 유명한 이른바 '위화도 회군'을 감행한다. 중국 땅에서 새로 일어난 세력인 명나라를 쳐부순다고 군사를 몰고 갔다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되돌려 세워 조정으로 창칼을 들이댄 것이다.

이성계는 곧장 우왕을 왕자리에서 몰아 내고 그 대신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앉혔다. 그랬다가는 오래지 않아서 창왕마저 내몰고 말았다.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간사스런 중(스님)이 신돈의 아들이요, 따라서 창왕은 신돈의 손자라는 것이 그 핑계였다.

그런 다음, 꼭두각시 공양왕을 세워 제멋대로 나라를 주무르던 이성계는 마침내 3년만에 공양왕마저 몰아내고 새 왕조, 곧 이씨조선을 세운다.

그렇듯 곤두박질치는 시대를 살았었으니, 운곡인들 어려서부터 환갑을 맞기까지의 세월동안 큰 뜻을 펼 엄두를 내지 못 했을 것은 당연하다. 아니, 다른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벼슬길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드높은 정신과 깨끗하기 이를 데 없는 인품 탓에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방원이 어렸을 적에 그는 글을 가르쳐 준 일도 있었지만, 그 때만 해도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뒤엎으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 했을 것이었다.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성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고려 왕조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주리라는 기대를 걸었을 것이었다.

아무려나, 하루 아침에 고려 왕조가 쓰러지자, 운곡은 '72현(賢)두문불출'(고려 왕조에 끝까지 충성할 뜻을 다짐한 72명의 어진 선비들이 두문동으로 숨어 들어가 나오지 않음)과 때를 같이하여 고향이던 원주를 떠나 치악산 그늘로 깊숙이 몸을 숨긴다. 그 때까지 손수 화전을 일구어 농사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들을 기르던 - 그는 36살에 아내를 잃고 90평생을 독신으로 지낸다-생활마저 팽개치고, 앞장에서 말한 '변암'의 바윗국을 새 삶의 터전으로 삼은 것이다. 변암은 마치 고깔을 얹어 놓은 듯한 생김새여서 '큰갓바위'라고도 부른다. 굴을 중심으로 바윗살이 저절로 처마를 짓고 있는데다 넓기도 해서 수십 명이 들어 앉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그 굴안에 온돌을 만들고, 고사리와 나무 뿌리며 열매로 끼니를 때웠다. 그리고는 바위를 뚫어 샘을 만들었는데, 마른 사람이 옆걸음질쳐야 겨우 빠져나갈만한 바위 사이를 기어들면 꽤 넓은 암반(판판한 바위 등)에 지금도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변암에서 산 중턱께를 향해 비스듬히 서쪽으로 1.5km가량 내려온 지점에 '갓바위'가 있다고 한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들어 산 흔적이 발견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하는데,

"운곡 어른께서 아마도 낮에는 변암에 즐겨 머무르시고 밤에는 그 초막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하고, 문중의 어느 사람이 그 나름의 어림짐작을 귀띔해 주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변암의 굴안 바윗벽에는 언제, 누가 새겼는지도 모를 퍽 오래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이끼를 기르며 생생히 살아 있다고 한다. 물론 한문으로 수놓인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암반에 우물을 파서 갈증을 씻고 산나물을 거두어 시장기를 달랬다'

이로써 미루어 보더라도, 운곡선생 그는 흔히 입에 올리는 저 유명한 중국의 백이·숙제보다도 더 깨끗한 삶을 누린 것이었다. 주(周)나라 무왕이 은(殷)나라를 치려 하자, 신하로서 임금에게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하늘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한사코 말리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매 수양산으로 들어가 "우리는 죽어도 은나라의 밥은 머지 않겠다"고 하고는, 고사리를 캐어 먹고 살다가 끝내 굶어서 죽은 백이와 숙제, 그러나 그 중국땅 은나라의 충신인 그들은 워낙이 은나라 왕족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었으나 그러한 최후의 길을 택할 만도 했다.

그런데, 우리의 운곡선생은 어떠한가. 그는 전혀 고려왕조와 특별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았으며, 더우기 그 당시의 조정에 몸을 담고 있는 벼슬아치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가 불의에 의해 무참히 꺾이우는 어긋난 하늘의 도리를 눈뜨고는 용서할 수 없었던 그였었다.

이러한 그를 '충신'의 대명사로 삼고 있는 그까짓 백이·숙제 따위에다 애당초 견줄 수 조차 없지 않은가.

철 모르는 어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에 우연히 옛시조집을 통해 만난 이래, 내 가슴 속에 한결같이 '위인상'으로 살아 오던 그를 때늦게 이번 기회에야 더

욱 확실히 만나본 기쁨! 그 기쁨 다음에 가슴팍을 옥죄어드는 죄책감!

'이런 마음의 꼬락서니로 문학을 한답시고 잔뜩 호기나 부려 왔었느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숨막힐 정도로 한층 더 한심한 일은 정작 따로 있으니…. 잠깐, 숨찬 고비를 눌러 쉬었다가 계속하기로 하자.

4. 찾아 온 임금도 만나지 않고

운곡선생의 비길 데 없이 드높은 정신과 그러한 정신을 낳게 된 시대의 배경 등을 설명하느라 이야기가 그만 엇길로 나가고 말았다.

드디어 그의 옛 제자이던 이방원이 임금자리에 오른다. 이가 곧 태종 임금이다.

태종은 임금이 되자마자 스승인 운곡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만날 길이 없어 오랫동안 속을 끓이다가 수소문 끝에 치악산으로 행차한다.

마침 태종이 치악산 기슭 아래에 닿던 날, 운곡은 나들이를 나갔다가 예사롭지 않은 낌새를 알아 챈다.

강림켠에서 변암 쪽으로 허겁지겁 올라 오다가, 그는 개울에서 빨래하고 있는 노파를 만난다. "이봐요, 할멈!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찾을 텐데, 내가 있는 곳을 묻거든 저 길목의 오른쪽을 가리키지 말고 왼켠을 가리켜 드리게, 알겠지? 만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톡톡이 경칠 테니 그리 알게나, 약조하렸다?"

평소부터 마음 속으로 운곡을 하늘처럼 우러러 모시던 노파는 영문을 몰라 쩔쩔매는 시늉으로 대꾸했다.

"아무려믄요, 분부하신대로 이행하고 말굽쇼. 네, 네…아무렴, 아무려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운곡은 변암이 있는 곳과는 반대편 기슭에 묻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운곡의 뒷모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으리으리한 행차가 나타났다. 할멈은 소스라쳐 놀랐다. 무언가 짚히는 게 있었으나 설마한들 싶었다. 운곡의 거처를 물어오자 노파는 그와의 철석같은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얼결에 그가 시킨대로 대답하고 만다.

길을 오르던 행차는 갈라지는 계곡의 길목을 앞에 두고 길가의 높다란 바위 앞에서 멈추어 선다. 그리고는 편편한 바위에 올라 머물 채비를 차린다.

"여봐라!"

"네이-"

"운곡께오서 저 왼켠 산중에 계시다고 방금 노파가 가리켰겠다?"

"네에, 그러하옵니다. 상감마마."

"지체말고 군사를 풀어 저 산봉우리까지 샅샅이 뒤지렸다! 만나 뵙거든 놀라게 해드리지 말고 짐의 뜻을 소상히 말씀 드린 뒤에 업어서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네이, 냉큼 거행하오리다!"

좀 떨어진 냇가에서 그 모양을 시종 곁눈질해서 살피던 노파는 가슴이 설렁 내려앉고 간이 콩알만 해졌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며 핏기 가신 입술을 달싹거렸다. 아무리 무지한 노파인들 임금의 거동쯤을 왜 모를까.

"이럴수가!……나랏님의 행차이신 걸, 이를 어쩐담!……금방 날벼락이 떨어지겠네. 어휴 맙소사!" 노파는 빨래고 뭐고 내팽개치고 아래녘 마을로 똥싸 뭉개듯하며 벌벌 기어서 내려가고 말았다.

이러나 저러나, 임금인 태종의 체통이 말이 아니었다. 왼 산을 긁어내듯 샅샅이 뒤져 보아도 운곡은 커녕 그 그림자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허허, 낭패로고! 장차 이 노릇을 어찌 할꼬!"

태종의 입에서는 잇달아 한탄이 새어 나왔으나,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자그마치 이렛동안을 그 바위 안에서 머물며 신하들을 닦달했지만 헛일이었다. 임금의 실망과 초조로운 기색을 달래어 드리고자, 어느 신하가 나아가 조심스레 아뢰었다.

"상감마마, 황공한 말씀이오나…일이 이쯤 되었사온즉, 산에다 불을 놓아봄이 어떠하올는지요?" 순간, 태종의 눈이 충혈되었다. 번쩍 빛을 뿜었으나 이내 사그라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찌 그럴 수가…. 차라리 뵙지 못하고 가는 한이 있어도…그럴수는 없어."

질근질근 입술을 깨물다가 지그시 감은 눈을 뜨고 후우- 한숨을 몰아쉬다가, 그는 문득 자리를 벅차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행차를 돌이킬지어다!"

호령하듯 외치는 그의 두 눈에 반짝 이슬이 맺혔다.

이리하여 수레에 싣고 온 예물은 마을 사람에게 맡겨 운곡에게 전하라 이르

고, 운곡의 아들에게는 특별히 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린다고 알린 뒤, 태종은 서울로 걸음을 돌이키고 마는 것이었다.

태종이 그 곳을 벗어나며 스승이 있는 쪽을 향해 무릎 꿇고 절을 올렸다고 해서 '배향산'(拜向山)이라는 산이 있는가 하면, 원통한 생각으로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원통재', 도중에 고갯마루의 소나무에 곤룡포(임금의 옷)을 걸었다고 해서 '대왕재'등 치악산 일대는 태종의 그 한바탕 행차로 말미암아 곳곳에 지워지지 않은 자국으로 얼룩져 내려 온다.

노파가 임금의 물음에 빗나가게(횡=橫) 손가락질해(지=指) 가리킨바위(암=岩)라 해서 그 갈림길 왼쪽켠에 자리한 바위께를 '횡지암'이라 했다.

그리고 태종이 이렛동안 머물러 있던 한길 가의 그 바위를 '태종대'라 하는데, 워낙은 임금이 머물던 자리라 하여 '주필대'(駐蹕臺)라 했었다. 지금도 태종대 바위 기슭에 그 글자가 새겨져 있을 뿐더러 정자안에도 그 당시의 사연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한편, 운곡과의 약속을 지켜 태종에게 거짓으로 가리켜 준 늙은 할미는 임금을 속인 죄값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 결국은 빨래하던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 물 속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는다. 아마 태종이 그 곳을 떠난 직후였을 것이다. 늙은(老)할미(媼)가 빠져 죽은 물(소=沼)이라 해서 '노구소', 또는 '소'대신 '연못 연(淵)'자를 써서 '노구연'이라고도 부르며, 수째 '노'자를 떼어내고 그냥 '구연'으로 일컫기도 한다. 그러하매, 그 '태종대', '횡지암', '노구소'의 셋은 운곡의 일화(숨은얘기)에 얽힌 요소로써 한 운명의 끈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모질게 찾아온 제자를 떨쳐버린 운곡도 일흔이 넘은 나이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모양이다. 아들인 세종에게 임금자리를 넘겨주고 뒷전으로 물러난 태종이 특명을 내려 운곡을 부르자, 그는 그 간곡한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서울길에 오른다. 대궐에 다다라 그는 수문장에게 일렀다.

"상왕(현재 임금의 앞서 임금)계오서 날 부르셔서 찾아왔네. 원천석이 찾아왔다고 여쭙게."

하도 초라한 행색이라 수문장은 그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연신 고추 먹은 소리를 내뱉았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다시 일렀다.

"상왕께 아뢰기를, '스승의 예로써 맞겠거든 나와서 맞아들일 일이요, 신하로서 만나고 싶거든 나를 불러들이라'한다고 여쭈어라."

마침내 태종이 이 전갈을 받고는 달려나와 버선발로 허둥지둥 그를 맞아들였다.

쌓인 회포를 푼 끝에, 태종은 자기의 손자(왕손)들을 스승에게 인사드리게 했다. 그 자리에서 운곡이 유독 한 왕손을 가까이 불러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타이르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용케로 네 할아버지(태종)를 쏙 빼닮았구나! 앞으로 특히 형제 사이의 우애를 두터이 길러나가도록 힘쓰거라. 내 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그 왕손이 누구인가. 수양대군이다. 훗날, 자기 조카인 어린 임금(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세조가 바로 그다.

할아버지(태종)가 형제간의 잔인한 싸움을 치른 피의 값으로 임금이 되었듯이, 수양대군도 그 전철(앞서간 수레바퀴 자국=앞 사람이 걸은 길을 뒷사람이 따라서 걷는다는 뜻)을 밟을 우려가 있음을, 운곡은 일찌감치 꿰뚫어본 것이었다. 부질없는 충고일 줄 뻔히 알면서도 짐짓 타일러 본 것이었을까.

5. '회고가'는 연시조의 효시

물론 마지막 목적지인 변암에 오르고 싶은 욕심을 마지 못해 사린 뒤, 죽지 꺽인 새처럼, 아니, 운곡선생을 못 만나고 돌아선 그 옛날 태종의 처량한 신세처럼 되돌려 세운 걸음을 곧장 옮겨 놓았다. 그것도 종종걸음치다시피 했다.

사진 자료가 문제였다. 한시바삐 달려가 원씨 문종의 사람을 만나서 통사정을 해야 할 판이었다.

한낱 그 사정 뿐만이 아니라, 불현듯 미심쩍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알기로 비록 어리석은 후예들에 의해 불태워 없어지기는 했지만, 훌륭한 '야사(野史)'를 6권이나 썼었고 운곡 시사라는 두터운 부피의 큰 시집(오늘의 문중 후손들이 엮은 것이기는 하지만)을 가질만큼 수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에다 당시의 문장가로 손꼽히는 운곡선생이 어찌해서 시조만은 단 한수를 남겼을까 하는 의문에 따른 그것이었다.

그런 의문이 떠오르자,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또 한 수의 그의 시조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자꾸만 기억을 충동질해 가느라니, 어느 새 그 '여겨지던'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번지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걸 확인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강림 마을에서 원주행 3시 버스에 급히 몸을 싣고 오면서도 둘레의 설경들을 건성으로 둘러보며 나는 오로지 생각을 한 곬으로 몰아부치고 있었다. '그게 뭐드라, 그게…' 입속말로 뇌까리며.

6시경에 원주에 도착, 막바로 소개 받아두었던 문중의 원영우(元永禹·운곡의 20대손)씨를 찾아 그의 '미도복장'으로 달려갔다.

"혼자 그 멀고 험한 길을 다녀오시다뇨?…문중 사무실, 아니, 족보 만들고 있는 방으로 가십시다. 이십 년만에 족보를 재정리하려고 지금 임시로 빌어쓰고 있는 방이 있어요."

같은 중부시장 안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족보의 산실'은 있었다. 50대의 중늙은이들을 비롯, 대여섯명의 원씨 문중 사람들이 웅기종기 둘러서 있었다. 나는 다급한 김에 다자고짜 운곡시사부터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 시집을 받아 서둘러 펼치는 나의 손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사진들로 장식된 몇 장의 매끈한 화보란 맨 뒷페이지에 주먹만한 글자로 아로새겨진 시조 세수가 금방 눈에 잡혀 들어 왔다.

'아, 역시! 햐, 세 수씩이나…'

너무도 놀라운 나머지, 나는 손등으로 눈을 씻었다. 다시 눈여겨 보아도 틀림없는 세 수였다.

세 수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은 예의 그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였다.

둘째 수로 급히 눈을 옮기다가, 나는 속으로 감탄의 소리를 부르짖었다. '맞아, 바로 이것이야, 이것!'

머리를 툭 치며 나는 그것을 소리 죽여 읊조렸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굽을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高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

(눈을 맞아 휘어진 대를 그 누가 좁다고 말하는가./ 마디었어 '절'이라 했지 굽어진다고 '절'이라 했다면 어찌 대나무가 눈속에서 굽을 것인가 말이다. / 아마도 추운 계절(겨울)에 높은 절개를 지닌것은 대야. 바로 너 뿐이 아닌가 한다.)

전혀 낯설지 않은 그것, 어느 대륙(귀절) 하나만 떠올렸더라도 외일 뻔한 먼

기억 속의 한 수 시조였다.

세째 수로 눈을 옮겼다.

부춘산(富春山) 엄자릉(嚴子陵)이 간의대부(諫議大夫)마다 하고

소정(小艇)에 낚대 싣고 칠리탄(七里灘) 돌아드니

아마도 물외한객(物外閑客)은 너뿐인가 하노라.

(부춘산에 사는 엄자릉이라는 사람이 간의 대부(임금에게 그릇됨을 아뢰어 바로잡게 하는 임무를 띤 벼슬아치의 높임말)라는 벼슬을 마다하고 / 작은 배에 낚싯대를 싣고 7리나 되는 긴 여울을 돌아드는 것을 보느라니 / 낚싯군이던 엄자릉이며, 아마도 세상 사람은 너뿐인가 생각된다.)

부춘산은 중국의 산이름, 엄자릉은 전한(前漢)이 망하자 후한(後漢)왕조를 섬기지 않고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낸 인물, 이러한 고사(故事)와 더불어 그 시조 또한 전혀 낯선 게 아니라, 작자미상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에 남은 작품이었다.

두 번째 시조의 내용은 운곡 그 자신의 곧은 절개를 대에 비유해서 노래했다고 한다면, 세번째 시조는 온갖 세상의 잡스런 일을 떠나 깊은 산속에 묻혀 삶을 꾸려나가는 스스로의 생활을 엄자릉의 옛적 일에 빗대어 읊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이 세 번째 시조의 배경이야말로 에누리 없는 치악산기슭의 부곡리이다. 부춘산은 곧 치악산이요. 7리나 되는 여울은 부곡리를 감돌아 흐르는 그 개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저런 생각을 굴리느라 미처 제목을 놓치고 있다가 '회고가'라는 제목을 때늦게 확인하는 순간, 나의 눈은 휘둥그렇게 되었다.

'어어? 이거 연시조가 아닌가, 맞아, 확실해! 어김없는 연시조인걸!'

심중일 따름이지만, 그건 단순한 선입감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러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 제목 아래 가즈런히 놓인 세수는 하나의 시상(詩想) 아래에서 핏줄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겨주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식면에 있어서도 잘 짜인 질서의 정리된 태깔을 지녀 있기 때문이었다. 안 그런가.

<월간『아동문예』1994년 4월호>

운곡 원천석의 시조가 연시조의 효시다

시조시인 朴敬用씨 "고려말부터 시작"

元天錫「懷古歌」3수 門中 자료서 발굴

李 相 鉉
(조선일보 기자)

오늘의 현대 時調에 큰 틀을 이루고 있는 連時調가 육당 최남선(崔南善)에 의해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미 6백여년 전인 高麗末 元天錫이 지은 懷古歌에서 부터 이 형식이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문단과 국문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시조란 한 가지 주제와 素材로 쓰여진 2首 이상의 連作 時調형식, '흥망이 유수하니 秋草로다. / 오백년 王業이 牧笛에 부쳐시니 / 석양에 지니는 客이 눈물 겨워 하노라.」 원천석이 이「懷古歌」는 보통 1音 내지 2音 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시조시인 朴敬用씨가 최근 元天錫의 門中에서 간행한「耘谷詩史」와 그의 20대孫 元永禹씨(강원도 원주시 미도복장 주인)의 증언 그리고 원주시 근교 원천석 묘소에 있는 2首의 시조 현판 자료를 종합 문단과 학계의 公認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懷古歌」중 첫 首인「흥망이 유수하니……」이외 朴씨가 원천석이 작품으로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2수는 다음과 같다.「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구불 節이면 눈 속에 굽을소냐 / 아마도 歲寒高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富春山嚴子陵이 諫議大夫마다 하고/小艇에 낙대 싣고천리 돌아드니 / 아마도 物外閑客은 너뿐인가 하노라.」 朴씨가 이를 元天錫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첫째, 문중에서 지난 77년 한글판으로 간행한 문집에 현재까지 작자 미상으로 돼 있던 終首가 나란히 함께 수록돼 있다는 점이다. 또「이 문집에 실린 시조작품이 문중에 보존중인 한문원곡의「耘谷 詩史」 및 대대로 가문에 전승된 선조들의 증언에 의한것.」이라는 후손 원영우씨의 말을 토대로 한 것이다. 둘째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선 당시 골 충신 元天錫이 첫 수에서 고려의 패망에 대한 슬픔을 2수에서는 자

신의 충절을, 3수에서는 자신의 은둔생활을 작품에 반영 한 가지 주제에 통일된 흐름을 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朴씨는 현장탐방 취재로 월간 「아동문예」에 「우리 문학의 뿌리를 찾아서」를 연재 중인데 이번 4월호에 이를 공개한 것이다. 발굴경위와 작품 내용을 검토한 원로 시조시인 李泰極씨는 「우리의 連時調는 선조때 朴仁老의 「立岩」 윤선도의 夢天謠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연구 견해를 전개 「이때를 起點으로 한다하더라도 「夢古歌」는 시대적으로 2백여년을 앞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씨는 또 「懷古歌」가 「3수로 자연스럽게 연결 회고의 뜻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연시조의 진화과정에서 첫 싹을 보인 작품이 아닌가 보고 있다. 시조시인 許壹씨도 「작자 미상편의 작품 주인을 찾아 낸 것만으로도 큰 발굴」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984. 4. 10>

『耘谷 元天錫詩史』研究[1)]

이 영 주

(서울 영일고교사)

1. 序　論
  1. 研究 目的
  2. 研究 對象
2. 本　論
  1. 元天錫 生涯
  2. 『耘谷詩史』
    1) 年代 分類
    2) 形式 分類
    3) 內容 分類
  3. 價値性
3. 結　論
4. 參考文獻

1. 序

耘谷 元天錫은 『回顧歌』라는 시조[2)]로 유명하지만 그에게 1,000여편이 넘는 漢詩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연구도 아주 미비하다.[3)] 근래에 와서 원천석에 대한 연구가 한 편 나왔으나 그것은 문학에 관한

1) 원천석 문학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므로 본고는 참고자료이외 다른 논문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지 않는다.
2) 청구영언에 시조 두 수가 전한다.
3) 『대동야승』에 몇편 나오나 같은 내용이 많다.
李堅 ; 「松窩雜設」『국역 대동야승』 제 56권 p. 130 ~ 133. 민족문화추진회
申欽 ; 「象村雜錄」『국역 대동야승』 제 25권 p. 252 ~ 254. 민족문화추진회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 사회적 측면을 다룬 것[4]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원천석에 대한 간략한 생애와, 그가 남긴 『耘谷元天錫詩史』를 형식, 내용, 연대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과 詩史의 價値를 論하고자 하는 것이다.

1. 硏究의 目的

원천석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疎外된 文學家[5]의 한 사람인 원천석에 대한 문학적 연구와 그가 쓴 『詩史』의 價値를 論하는 데 있다.

漢詩는 1,000수가 넘은 방대한 양이지만 그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문선』이나 『속동문선』에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6] 원천석이 죽은 후에도 그 자손들이 詩의 내용 중에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에 관하여 당시의 사실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감춰두고 지내다가 약 370년후인 16代孫에 이르러 책으로 간행하려 비로소 공개되었다.[7]

원천석시사에 관한 연구는 조선조 중엽에 이기의 「송와잡설」 신흠의 「상촌담록」에 단편적으로 보이고, 별다른 실적이 없다. 필자는 국역 「운곡원천석시사」[8]를 중심으로 원천석의 문학과 문학관 그리고 「원천석시사」를 연대 · 형식 · 내용으로 분류하여 그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려고 한다.

2. 硏究 대상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의 대상은 원천석의 간략한 생애와 그가 남긴 『운곡 원천석 시사』를 대상으로 한다.

생애의 연구는 문학의 비본질적 연구가 될 수도 있으나 원천석의 생애는 그가 남긴 詩史를 연구하는데 불가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략하나마 다루려한다. 그 자료는 『大東野乘』에 실려있는 「송와잡설」 「상촌잡록」 등과 「연려실기

---

4) 이우성, 고려 · 이조의 易姓革命과 원천석 『한국의 역사상』 p.198 창작과 비평사 1982.
5) 필자의 표현이다. 흔히 원천석을 처사문학가. 방외인문학가라고도 한다.
6) 원천석의 생전이나 死後이나에 그의 詩가 알려졌었더라면, 상당수가 동문선에 실릴 수 있었겠지만 그가 죽은지 370년 후에 공개되었다.
7) 『耘谷行錄詩史』 5眷 2冊. 목판본 1797.
8) 『耘谷元天錫詩史』 5권 1책. 原州元氏花樹會 1984.

술」에서 발췌했다.[9]

『운곡 원천석시사』는 그가 22세가 되던 1351 辛戊年까지 44년간 쓴 詩를 모은 책이다.

漢詩의 국역이 미흡하여 문제가 적지 않지만[10] 필자의 짧은 실력과 시간에 쫓기는 이 시점에서 아쉬운 대로 분류를 하고 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으로 다시 하나하나 연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2. 本　論

본고에서는 『연려실기술』과 『대동야승』에 실려있는 내용을 주로 하여 살펴본다.

1. 원천석의 生涯

1) 원천석은 자는 子正이며 호는 耘谷이요 本貫은 原州이다. 고려 충숙왕 17년(1330) 7월 8일에 출생하였는데 그 죽은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90세를 넘었다고 전한다.[11]

문장이 富贍하고 학문이 詩博하였는데 고려말의 亂政을 보고 雉岳山 아래에 은거하면서 이름을 감추고 몸소 농사지어 어버이를 봉양하다가 이름이 軍籍에 등록됨을 보고 부득이 과거를 보러 가서 단번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벼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서 향리에 돌아와 이색 등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게 자주 시를 지어 貝筥[12]하면서 시국을 개탄하였다. 太宗[13]이 微時[14]에 일찌기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그가 즉위하여 여러번 불렀지만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태종이 동쪽지방에 나갔다가 그 집을 방문하니 공은 피하고 보지 아니하였다.[15]

---

9) 『대동야승』과 『연려실기술』은 민족문화추진회 편을 인용
10) 『대동야승』이나 『연려실기술』에 국역된 내용(민족문화추진회편)과 『운곡 원천석 시사(이진영 역)』와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
11) 『운곡 원천석시사』 간행사에 나와 있다.
12) 선사풍을 주고 받음
13) 조선3대 임금 방원
14) 임금이 되기전
15 『연려실기술』 제1권 태조조 고사본말 p90~91. 고려에 절개를 지킨 여러신하 : 원문 후첨

2) 공이 일찌기 野史를 지어서 상자에 봉하고 자물쇠를 굳게 채워두었다가 운명할 때 유언하기를 "마땅히 家廟에다 감추어 놓고 조심조심 지키라"하고 그 상자 곁에 글을 써서 말하기를 <내 자손이 만일 나와 같지 않으면 열어보지 말라>[16]하였다. 그 집에서는 이와 같이하여 아들과 손자 代에는 자물쇠를 열지 아니하다가 증손에 이르러 명절 제사를 지낼 때 종족이 모여 서로 의존하여 말하길 "선조께서 비록 유언이 있었으나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니 반드시 혐의될 바가 없다 열어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하고 드디어 열어 보니 그것은 여말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사실대로 直書하여 꺼리어 감춘 것이 없었으므로 내용이 대부분 국사와 같지 않았다.

이에 모두 놀라서 말하길, "이것은 곧 우리 종족을 멸하는 물건이니 이미 이것을 본 이상은 소문나지 않기가 어렵다" 하고 드디어 이것을 태워 버렸다.[17]

3) 운곡공은 학문이 깊고 몸가짐이 곧았다. 젊은 나이에 아내 喪을 당했으나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後娶를 하지 않고 妾도 두지 않았다. 21년을 홀로 살면서 아이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려 婚嫁를 마쳤다. 도를 지키고 궁함을 견디는 군자가 아니면 능히 못할 일이었다.[18]

4) 고려의 禑·昌 부자[19]를 王氏라고 결정지어 말한 것은 관동의 높은 선비 원천석이 지은 野史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20]

5) 우와 창의 일은 마땅히 원천석이 기록한 것을 信史로 삼아야 할 것이니 최영이 죽자 고려에 사람이 없었으며 정도전이 들어가자 고려에 역적이 생겼으니 이른바 한 사람으로 해서 <나라가 흥하고 한 사람으로 해서 망하는 것이로다>>[21]

6) 원공 천석은 원주사람으로 문장에 능하고 절조가 있었다. 세상의 어지러운 때를 만나 숨어 살면서 벼슬하지 않고 글을 지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었다……다만 그가 禑 · 昌의 일을 기록하기를 "전왕의 父子를 辛旽의 자손이라고 하였다…<以前王父子爲辛旽子孫>"이라고 하였다. 지금 追後하여 생각하니 '라고 하였다(以爲)'라는 두 글자가 말 밖의 깊은 뜻이 있었다.[22]

---

16) 어떤 기록에는 <성인이 아니면 열지말라>고 되어 있다.
17) 『연려실기술』 제1권. 재조조 고사본말, p.91~92.
18) 『대동야승』 제 56권 p.195. 「송와잡설, 이기」 원문 후첨.
19) 고려의 禑王 · 昌王. 당시에 두 임금을 辛旽의 자손이라 하여 내쳤다.
20) 『대동야승』 제71권 p.350 「송고기이. 이덕형」 원문 후첨.
21) ————제 25권. p.270 「상촌잡록, 신흠」 원문 추첨.

7) 공의 遺稿두 권 중에 당시 사적을 후세에서 잘 알 수 없는 것을 直筆한 것이 있는데 신 우를 공민왕 아들이라고 한 것이 그 직필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다.[23]

위에서 단편적인 것으로 일곱 편을 인용하였다. 이외에도 짧은 내용이 약간 더 있으나 대부분 위에 적은 것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실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천석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였던 고려 말엽에서 조선 초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흔히 그를 고려에 忠節을 지켜 조선 건국에 저항한 사람으로 보고[24] 있지만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는 고려조에서도 벼슬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선이 건국되기 훨씬 이전에 치악산 아래로 隱居하였다. 1)의 내용으로 보면 그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다만 어지러운 때에 이름이 軍籍에 오르는 것을 꺼려하여 應試한 것이었고, 進士에 급제하였으나 아무런 벼슬도 하지 않고[25] 그대로 치악산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가 고려에 절개를 지켜 조선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의 鮮明性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태종의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그를 찾았을 때 만나주지 않은 점과 여러 차례 벼슬에 불렀으나 만나주지 낳은 점[26] 그리고 그의 詩에서 禑와 昌이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한 점[27] 최영이 사형을 당했을 때 詩를 지어 弔文한 점[28] 등이다.

2)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가 저술한 野史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크게 기대하는 편이나[29] 필자의 견해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의 詩史를 살펴볼 때 고려조에 대한 일관된 자세로 절개를 지킨 것만은 아니고 조선의 개국에 대해서

---

22) 『대동야승』 제71권 p.367 「자해필담. 김시양」 원문 후첨.
23) 『연려실기술』 제 1권. 재조조 고사 본말, p.92. '고려에 절개를 지킨 여러신하' 원문 후첨
24) 그 후손들이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미화하지만 그의 詩史를 살펴보면 많이 다르다.
25) 진사란 벼슬자리가 아니다.
26) 태종이 상왕이 된 후 비로소 흰 옷을 입고 와 만났다.
27) 당시에는 정몽주, 이색, 길재등도 우와 창이 신돈의 아들이라는데 동조하였다.
28) 그의 詩史 속에 3수가 들어있다.
29) 특히 원천석의 후손들이 그러하다 『운곡 원천석 시사』에 실린 '그의 인물과 문학 (김종무)'에 보면, 詩에서도 많은 부분을 후손들이 抽燬해 버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도 송축하는 詩를 여러 편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조에 관한 사실이 들어 있으리라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30]

3)의 내용에서 그의 인간적 일면을 볼 수 있다. 그가 살던 때는 능력이 있다면 畜妾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시대인데 젊은 나이에 喪妻하고도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後娶를 하지 않고 21년을 홀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 그의 정신은 인간적 측면에서 높이 살 만하다고 할 것이다.[31] 이러한 선비적 정신은 그가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여 일생을 마친 것과 상통한다.

4)5)6)7)에서 보이는 내용은 공통된 것으로 고려 말의 어지러운 역사에 관한 것이다.[32] 그의 시에서 보면 「주상전하(禑王)가 강화도에 옮기고 맏아들 昌이 즉위했다는 것을 듣고 느낌이 있다」하는 제목으로 된 시 두 수에 <성현이 서로 만나 교체되니 천운이 순환함을 이로부터 알겠네 초야에 있는 몸 어찌 우국의 뜻이 없겠나 다시 간절한 충성 다하여 국가 안위 염려한다./ 새 임금은 臨朝하고 옛 임금은 옮겨가니 條한 강화도는 바람 연기 뿐일레라. 하늘의 바른 길을 누가 믿으랴. 하늘이 밝고 밝게 거울되어 앞에 있음 보아라[33], 하는 詩가 있고 이외에 「금월 15일에 이미 정창군[34]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前王 父子는 辛旽의 자손이라고 폐하여 庶人을 만들었다[35]라는 詩아 「나라에서 전왕 부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다.[36]라는 詩가 있는데 그 내용은 특이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論하지 않는다. 위의 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원천석이 고려와 조선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忠이 아니라 王과 王에 대응되는 孝에 가까운 忠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禑王과 昌王에 대하여 공민왕의 아들이라는 점만 분명하게 詩에 적었지 공양왕과 조선 태조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37] 오히려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고 하다」[38] 「새나라」[39]「상

---

30) 조동일은 그의 책 (『한국문학통사 2』 p.251)에서 현전하는 『운곡 시사』에서 없어」진 야사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31) 그 심정을 읊은 시가 한 수 전한다.
32) 조선 개국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못 했는데 조선중기 이후 (퇴계집, 상촌잡록)에 원천석을 讚한 것에 보인다.
33) 민족문화추진회 역 「대동야승」 25권 p.270 「상촌잡록」 원문후첨.
34)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
35) 민족문화추진회 역 「대동야승」 25권 p270 「상촌잡록」 원문 후첨.
36) 민족문화추진회 역 「대동야승」 25권 p.270 「상촌잡록」 원문후첨.
37) 「운곡 원천석 시사」 서두의 「그의 인물과 문학」에서는 조선 개국에 기휘되는 내용은 후손들이 삭제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38) 「운곡 원천석 시사」 권 5 p.485.

가 <全尺을 받든 글>과 <宝錄을 받는 에록>을 읽고 경사롭게 여겨 찬양함」[40] 「鄭二相이 지은 네 곡 노래를 찬함」[41]등에 보면 조선 개국을 동조 또는 찬양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대동야승」에서 보이는 4)5)6)7)의 내용들은 禑王과 昌王에 관계되는 사실 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위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원천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산 사람으로 군역 때문에 부득이 과거에 응시, 진사에 급제했으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교체기에 벼슬하는 것을 꺼려하여 치악산에 은거 일생을 마친 청렴한 선비라고 할 것이다. 그가 생활과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詩는 역사적인 자료로도 크게 평가받고 있다.

원천석은 그가 지은 詩이외에 「華海師全」[42]을 總繼[43]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논거가 밝혀지면[44] 그의 평가도 새롭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耘谷詩史

「耘谷詩史」는 「耘谷行錄」이라고도 하며 원천석이 22세가 되던 1351(辛卯)년부터 65세가 되던 1394(甲戌)년까지 44년간 쓴 시 1146首[45]를 말한다. 원천석이 죽은 후 약 370년이 지나서 그의 16대손에 이르러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46]

본고에서는 1977년에 '원주원씨 화수회'에서 국영한 「운곡 원천석시사」를 가지고 論한다.

---

39) 「운곡 원천석 시사」 권5 p.525.
40) 「운곡 원천석 시사』 권5 p.527.
41) 「운곡 원천석 시사」 권5. p.528.
42) 7권 3책의 목판본 1920년 湖西庇仁縣 栗里社 고려 말엽의 '不諱齊申賢'에 관한 기록인데 우리 역사에 申賢에 대한 기록에 전무한 것으로 보아(이름조차 없다) 爲書가 아닌가 싶다.
43) 書題下에 耘谷 元天錫 總斷伏匡 范世東編輯이라고 씌여있다.
44) 「와해사전」에 대한 기록이 원천석이나 그밖의 사람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책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곳도 있지만 本書 卷之五의 원천석이 지은 '跋尾'을 보면 이 책이 원천석이 지었다는 野史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화해사전」은 아직 국역이 안 돼 있어서 필자의 짧은 실력으로 단 시일내에 해독할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뒤로 미룬다.
45) 「운곡 원천석 시사」 서두에는 1144수라고 나왔지만, 필자가 분류한 바에 의하면 두수가 더 많은 1146이다.
46)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조선 개국에 애해서 기귀되는 내용에 저촉될까 염려했던 것 같다.

1) 年代分類

원천석은 44년 간 詩를 썼는데 그가 남긴 작품이 770편 1146수에 달하니 연평균 26.5수에 이른다. 시를 연대별로 꼬박꼬박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대개 연대별로 알 수 있도록 순서대로 배열해 놓았다. 그 해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신유년 3월이니, 申午年 10월이니 하는 구지가 표시된 것이 많은데 여러 해 사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도 몇군데 보인다. 연대별 분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天支에 따라 그 사이로서 했는데 干支가 표시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 그런 곳은 계절과 날짜의 차이에 따라 推定하였다.

연대별로 쓰여진 작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351(辛卯 22세)년 6수 1352(任辰 23세)년 10수, 1353(癸巳 24세)년 5수, 1354(甲午 25세)년 18수, 1355(乙未 26세)년 6수 1356(丙申 27세)년, 7수, 1357(丁酉 28세)년 無 1358(戊戌 29세) 無 1359(己亥 30세)년 無 1360(庚子 31세)년 無 1361(辛丑 32세)년 31수 1362(壬寅 33세)년 16수, 1363(癸卯 34세)년 1수 1364(甲辰 35세)년 38수 1365(乙巳 36세)년 7수, 1366(丙午 37세)년 10수 1367(丁未 38세)년 15수 1368(戊申 39세)년 35수, 1369(己酉 40세)년 27세, 1370(庚戌 41세)년 31수 1371(辛亥 42세)년 17수, 1372(壬자 43세)년 無 173(癸丑 44세)년 13수 1374(甲寅 45세)년 22수 1375(乙卯 46세)년 8수 1376(丙辰 47세)년 9수 1377(丁巳 48세)년 25수, 1378(戊午 49세)년 2수, 1379(己未 50세)년 無 1380(庚申 51세)년 無 1381(辛酉 52세)년 無 1382(任戌 53세)년 無 1383(癸亥 54세)년 無 1384(甲子 55세) 無 1385(乙丑 56세)년 43수 1386(丙寅 57세)년 43수, 1387(丁卯 58세)년 124수 1388(戊辰 59세)년 54수, 1389(己未 60세)년 71수, 1390(庚午 61세)년 108수 1391(辛未 62세)년 80수 1392(壬申 63세)년 73수, 1393(癸酉 64세)년 120수, 1394(甲戌 65세)년 71수이다.

44년의 기간 중에 한 수도 짓지 않은 해가 11년이나 되는데 1357(丁酉 28세)년에서 1360(庚子 43세)년 그리고 1379(己未 50세)년부터 1384(甲子 55세)년까지 6년 간이 비어 있다. 44년에서 11년을 빼어 버리면 실제로 시작활동을 한 햇수는 33년으로 봐야 된다. 33년 중에서도 한 해에 한 수[47] 두 수[48]가 있는가 하면 124수[49] 120수[50]에 이르는 해도 있다.

---

47) 1363(癸卯 34세)년
48) 1378(戊午 49세)년
49) 1387(丁卯 58세)년

그의 나이에 따라 살펴보면 22세에서 30세까지가 52수 31세에서 40세까지가 180수 41세에서 50세까지가 129수, 51세에서 60세까지가 335수, 61세에서 65세까지가 452수이다.

여기의 분류로 보면 20代에는 아주 작은 분량이고, 30代에는 약 세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40代에 약간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50대에는 4년 간에 265수로 앞의 연대의 평균 작품 수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분량이고 60대에는 6년 간에 523수로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37년 간의 작품 수와 거의 맞먹는 분량이다. 즉 젊어서 보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훨씬 많은 작품을 썼다. 이것은 그가 젊은 나이에는 한가로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그의 「詩史」는 처음에 3권 2책이던 것을 목판으로 간행할 때 5권 3책으로 하였다[51]고 했는데 그 5권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제 1권이 1351(辛卯 22세)년부터 1370(庚戌 41세)년부터 1385(乙丑 56세)년까지 15년 간의 117편 156수 제3권은 1286(丙寅 57세)년부터 1388(戊辰 59세)년까지 3년간의 154편 221수 제4권은 1389(己巳 60세)년부터 1390(庚午 61세)년까지 2년 간의 100편 179수 제5권은 1391(辛未 62세)년 부터 1394(甲戌 65세)년까지 4년 간의 200편 344수로 되어 있다. 여기의 분류에 따라 편의상 제1권을 제1기, 제2권을 제2기, 제3권을 제3기 제4권을 제4기, 제5권을 제5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1기는 그가 첫 작품을 쓰여진 해로부터 무려 19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청년기부터 중년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1년 평균은 약 13수[52]에 이르는데 28세부터 31세까지 4년 간의 공백기가 있다. 이 기간의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그가 한가하게 詩를 쓸 시간이 적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2기는 41세부터 56세까지로 장년기에 해당한다. 이 때의 1년 평균은 9수가 약간 넘는데 이 기간에는 7년간의 공백기가 있다.[53]

제3기의 이후는 57세부터이니 노년기라 볼 수 있는데 이 때부터가 본격적인 詩作활동기로 제3기에는 3년 간에 221수로 1년 평균 77수이고 4기에는 60세부터 2년 간에 179수로 평균 90수 5기에는 62세부터 4년 간에 344수로 평균 86수

---

50) 1393(癸酉 64세)년

51) 1796년 목판본으로 간행한 그의 16대손에 의하면 원고와 膽本이 차이가 있고 3권 2책을 5권 3책으로 엮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였다고 했다.

52) 공백기를 포함한 햇수로 나눈 것이다.

53) 7년은 372(壬子 43세)년과 1379(己未 50세)년부터 1384(甲子 55세)년까지의 6년간이다.

다. 즉 1146수의 시 가운데 60%가 넘는 744수가 제3기에서 제5기에 이르는 9년 사이에 씌여진 것이다. 이것은 1·2기가 35년에 402수인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여준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의 詩作활동기를 詩卷의 분류에 따라 5기로 나누어보면 그의 詩 대부분이 3기 이후, 즉 50代 후반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다.[54] 이것은 젊은 시절엔 한가한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 스스로가 인생의 완숙기에 접어든 후에 많은 詩를 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44년 간의 기간中 세 차례에 걸쳐 보이는 공백기는 그의 행적이 상세하게 알려지기 전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의 제국에 기휘되어 뺐을 가능성[55]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形式分類

형식 분류는 漢詩의 분류방법에 따라 高詩 絶句(5言 7言) 律詩(5言 7言), 排律(長律)은 排律에 포함시킨다)로 나눈다. 이에 따라 1146수를 분류해 보면 고시가 41수 절구가 616수 율시가 442수 배율이 46수, 그리고 기타[56]가 1수이다. 절구와 율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를 다시 5언과 7언으로 나누어보면 5언절구가 45수 7언절구가 571수, 5언율시가 183수, 7언율시가 259수로 5언과 7언에서는 7언 쪽이 훨씬 많다. 배율에서는 5언 배율이 32수 7언배율이 14수로 5언이 더 많다.

위의 분류를 정리해 보면 절구가 616수로 과반수가 넘고 율시도 442수로 절구와 율시가 총 1146수 중 1058수가 되어 전체 분량의 92%가 넘는다.

漢詩라고 하면 흔히 近體詩를 말하는 것인데, 근체시란 절구나 율시를 지칭하는 것이니 漢詩의 古體가 唐나라에 와서 近體詩의 확고한 詩型으로 갖추어진 것이다.[57] 이 近體詩에 있어서의 漢詩는 엄격한 작법 아래서 지어지는데 그 작법이란 韻을 다는 것, 平 法에 맞추는것 起承轉結이 되게 하는 것 對句로 구성하는 것 등이다. 이런 까다로운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진정한 의미의 漢詩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漢詩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원천석이 1058

54) 50세부터 56세까지는 공백기이다.
55) 조선개국을 축하하는 시가 보이고(註 38) 39) 40) 41) 참조) 개국후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휘되면 시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꺼릴 것은 못되고 오히려 자랑할 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판단은 배제해야 한다.
56) 권1에 재 鈴이라는 시가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이 빠져서 분류가 불가능하다.
57) 조두현「漢詩의 이해」p.17. 일지사, 1976.

수나 되는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분량이 많다고 해서 뛰어난 작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詩 한 수 한 수를 모두 형식에 맞는가 분석해 보고 내용 및 의미를 분석하여 문학적 가치를 연구하여야 마땅한 일이지만 아직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므로 본고에서는 외형적인 평가를 위주로 한다.[58]

그러면 좀 더 세분하여 각 권의 형식적 분류를 알아보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제1권 즉 제1기에는 5언절구가 6수, 7언절구가 116수로 절구가 전부 122수이며 율시는 5언이 30수, 7언이 62수로 모두 92수에 이른다. 배율은 5언이 8수 7언이 4수로 모두 12수이고 고시는 19수이다. 여기서 보면 7언절구가 전체시의 50% 가까이 되고 5언절구는 불과 3%정도인에 율시에서는 7언이 5언의 두배 밖에 안되어 절구에서와 같은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59] 배율은 5언이 7언보다 두배나 많고 고시는 19수나 되는데 이 분량은 고시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양이다.

제2권에는 5언절구가 6수 7언절구가 74수로 절구가 모두 80수이며 율시는 5언이 20수, 7언이 31수로 전부 51수이다. 배율은 5언이 8수, 7언이 7수로 전부 15수이고 고시가 10수이다. 절구에서는 7언이 5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율시에서는 7언과 5언의 대비가 1권보다 많이 줄었다. 배율은 여기서도 5언이 7언보다 많다.

권3은 5언절구가 14수, 7언절구가 112수로 절구는 모두 126수이고, 율시는 5언이 28수, 7언이 51수를 전부 79수이다. 배율은 5언이 9수, 7언이 2수이며 고시는 5수이다. 5언과 7언의 대비가 전반적으로 앞의 것들과 비슷한데 배율만이 7언과 5언의 대비에서 4배로 늘어난 점이 약간 다르다.

권4는 5언절구가 16수, 7언절구가 72수로 절구가 모두 88수이며 율시는 5언이 35수, 7언이 49수로 전부 84수에 이르며 배율은 5언 만이 3수 있고 고시는

---

58) 필자의 짧은 실력으로 편측법을 확인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며 시 전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못 되어 남이 국역한 것에 의지하려니까 그 해석이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해석에 따르다보니 댓구가 지켜졌는지도 알 수 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각운만 확인할 수 있는 미흡한 형편이니 훗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59)

4수이다. 절구에서는 5언과 7언의 대비가 앞의 것들보다 눈에 띄게 줄었고, 율시에서도 5언, 7언의 대비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배율에서는 7언이 한 수도 없으며 절구와 율시의 대비에서 그 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5권은 5언절구가 3수 7언절구가 197수로 절구는 모두 200수이며, 율시는 5언이 70수, 7언이 66수로 전부 136수이고, 배율은 5언이 4수, 7언이 1수로 모두 5수 고시는 3수이다. 절구에서 5언과 7언의 격차가 가장 커서 7언이 5언의 66배에 이르고, 율시에서는 5언이 7언보다 오히려 6수가 더 많은 현상을 보인다. 전체 분량에 비해서 배율과 고시가 가장 적은 것도 한 특징이다.

위에서 각 권에 따른 형식의 분류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절구에서는 7언절구 : 5언절구가 571수 : 45수로 7언절구가 5언절구보다 11배가 넘는다. 율시에서는 7언 : 5언이 259수 : 183수로 7언이 많기는 하나, 절구에서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배율에서는 7언 : 5언이 32수 : 14수로 오히려 5언이 7언보다 배나 많은 현상을 보인다. 고시는 1권에서 19수, 2권에서 10수, 3권에서 5수, 4권에서 4수, 5권에서 3수로, 후대로 갈수록 적어지는 특징이 있다. 율시보다는 절구가 174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볼 때 원천석은 율시보다는 절구를 더 많이 지었으며 5언보다는 7언을 더 즐겨 지었다. 고시는 청·장년기에 대부분 지었는데 갈수록 적어지는 것은 시를 짓는 힘이 완숙해지면서 고급한 절구나 율시를 지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배율은 중국에서도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60]고 하는데 46수나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가 아마 시험삼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內容分類

詩史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61] 크게 ① 나라에 관한 것 ② 자연을 읊은 것 ③ 자신에 관계된 것 ④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①이 56수, ②가 407수 ③이 618수 ④가 65수이다. 이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①은 A)왕조 교체기의 혼란과 어지러운 사회의 근심을 읊은 것 B)나라의 경사와 조선의 개국을 노래한 것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A)가 38수. B)가 18수이다. ②는 C)자연의 경치와 절기 중 순수 자연에 가까운 것. D)자연과 시절 속에서 자신의 근심과 어지러운 세상을 읊은 것. E)특정한 물건이나 생명체를 읊은 것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C)가 186수, D)가 178수, E)가 43수이다. ③은 F)자신의 처지 및 신세에 관한

60) 조두현「漢詩의 이해」p.21. 일지사, 1976.
61) 필자의 사견이므로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

것 G)다른 사람의 시, 그림, 책 등을 노래하거나 찬한 것, H)남에 대한 경모, 찬사, 걱정 및 輓詞와 哭 I)친척, 친구에 대한 기쁨과 근심과 걱정스러움을 읊은 것, J시, 물건 등을 받고 사례한 것 등으로 분류되는데[62] F)가 171수 G)가 105수 H)가 181수 I)가 125수, J)가 36수이다. 여기서 100수 이상이 되는 것은 C)D)F)G)H)I) 등이다. 즉 대부분의 시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생활과 관계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원천석을 자연 속의 시인으로 규정짓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내용 분류를 각 권에 따라 상세하게 알아보면, <①나라에 관한 것>에서 A) 왕조 교체기의 혼란과 어지러운 사회의 근심을 읊은 것은 1권 4수, 2권 無 3권 18수 4권 9수 5권 7수를 그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3·4·5권에 많은데 이 때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가장 혼란한 시기였다. 'B)나라의 경사와 조선의 개국을 노래한 것'은 1권에 2수 2권 無 3권 3수 4권 1수 5권 12수인데 권 1.3.4.는 고려와 관계되는 詩[63]이고 권5는 조선의 일이다.[64]

<②자연을 읊은 것>에서 'C)자연의 경치와 절기 등 순수 자연에 가까운 것'[65]은 권1이 77수 권2 28수 권3 20수 권4 5수, 권5 46수로 처음에서 뒤로 갈수록 적어지다가 마지막 5권에서 대폭 늘어나는데 이것은 젊어서 보는 자연과 늙어서 보는 자연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D)자연과 시절 속에서 자신의 근심과 어지러운 세상을 읊은 것'[66]은 권1이 25수, 권2가 26수 권3 38수 권4 29수 권5가 60수로 청년기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가다가 노년기인 권4에서 약간 감소를 보이는데 이것은 권4의 전체분량이 권3이나 권5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7] 권5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의 감정을 객체 속에 투입할 수 있는 힘이 늘기 때문인 것 같다. E)특정한 물건이나 생명체를 읊은 것[68]은 권1이 19수 권2 10수, 권3 1수, 권4 無, 권5 13수인데 청년기와 노년기에 많이 지었다.

---

62) 위와 같은 분류는 좀 애매한 면이 있기도 하나 최대한 자세하게 분류하려고 시도했으며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필자의 견해로 결정했다.
63) 홍건적을 물리친 것. 중국 명나라로부터 조복관제를 받은 것. 토지겸병을 파한 것 등에 관해서 축원한 것들이다.
64) 조선의 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다.
65)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을 노래한 것'이다. 작가의 주관이 내포되지 않은 자연.
66) 순수한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작자의 주관과 감정을 내포하여 읊은 것.
67) 권3 221수. 권4 179수. 권5 344수
68) 弓, 斗, 柳 같은 것들을 말한다.

<③자신에 관계된 것>은 618수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방대한 양인데 F)자신의 처지 및 신세에 관한 것[69]은 권1이 41수 권2 23수 권3 27수 권4 22수 건5 58수인데 처음에 많고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양상이다. 청년기에는 자위 내지 자조에서 많이 지었고, 늙어서는 시들어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서 자주 읊은 것으로 보인다. 'G)다른 사람의 시, 그림, 책등을 노래하거나 찬한 것은 권1에 2수, 권2 14수 권3 33수 권4 39수, 권5 17수인데 앞에서 적게 보이는 것은 젊을 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적은 데서 연유한 것이고 갈수록 늘어간 것은 그의 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권5에서 줄어든 것은 그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 'H)남에 대한 경모, 찬사, 걱정 및 輓詞와 哭[70]은 권1에 27수, 권2에 25수, 권3 32수, 권4 34수, 권5 63수인데 젊은 시기보다는 늙어서가 더 많다. 경모 및 찬사의 대상은 대부분 스니미거나 관찰사 등 관리가 많고 輓詞와 哭은 친구·친지가 많다. I)친척, 친구에 대한 기쁨과 근심 및 걱정을 읊은 것'[71]은 권1에 34수 권2 7수 권3 25수 권4 18수 권5 41수인데 근심과 걱정은 주로 동생과 아들 그리고 그 가족에 관계되는 것이 많으며 기쁨은 친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J)시, 물건 등을 받고 사례한 것'은 권1에 無, 권2 7수 권3 11수, 권4 無 권5 18수인데 받은 물건은 주로 과일이나 채소로 스님들이 보낸 것이 많다.[72]

<④기타>는 위의 분류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로 권1에 15수, 권2에 16수, 권3에 13수, 권4 12수 권5 9수이다.

위에서와 같이 세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 수, 한 수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 내용의 분류에서 원천석의 시국관과 문학관 그리고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추출해야 되는데 많이 미흡하다. 아쉬운 대로 위에서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원천석의 시국관과 생활상을 검토해 본다.

원천석의 시 중에서 나라에 관계되는 시로 보이는 것은 모두 56수로 전체의 5%미만에 불과하다. 나라를 근심한 것이 38수, 경사를 읊은 것이 18수이니 그

---

69)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읊은 것.
70) H)와 I)의 구별이 상당히 애매한데 친구에 관한 것은 I)에 넣었지만 만사와 곡을 모두 H)에 넣었다.
71) 동생이나 자식에 대한 훈계적인 내용도 이에 포함했다.
72) 상원사 중굉대사와 도경선사, 아우 자성등이 자주 보인다.

의 시에서 우국 충정에 관한 것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혼란한 왕조교체기에 살았으면서도 고려와 조선의 교체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고 다만 왕에 대한 충성만을 생각했다고 본다.

자연을 읊은 것은 407수로 약 36%에 이르는데 그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친화했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73] 그는 치악산 여러 절의 스님들과 교유가 많았고 인근의 많은 지방관들과도 끊이지 않는 친분이 두려웠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가 완전한 은거를 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자신의 주변에 관해서 읊은 시가 618수이니 전체의 약 54%이다. 혼란한 사회가 싫어 치악산 골짜기에 은거한 그이지만 그도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자기 주변의 근심과 걱정에는 매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처지 및 신세에 관한 자조와 한탄이 171수나 되고, 이웃 및 지인에 대한 근심, 걱정, 기쁨, 슬픔 등이 306수나 된다. 산에 들어가 밭갈고 논매서 혼자 먹고 살 수는 있다하더라도 인간의 정이야 어찌 마음대로 끊을 수 있겠는가 「청산별곡」에서 '청산에 살으리랐다'[74]하면서도 '이리공 저리공하여 낮으란 지내왔은져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이란 또 어찌하리라'[75]한 고려시대 사람의 이율배반적 삶을 원천석 또한 보여주고 있다.

내용 분류에 따른 원천석의 시국관과 생활상을 대강 살펴 보았다.

내용 및 형식상 특이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 55곳에 있고 序文[76]을 겸한 것이 12수 引[77]을 겸한 것이 2수가 있다.

3. 詩史의 價値

지금까지 원천석의 詩史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대, 형식, 내용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 『운곡 원천석 시사』가 가지는 가치에 관해서 알아본다.

먼저 최초의 '개인시집'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78] 운곡 시사가 최초의 개인

---

73) 그는 '三敎一理'라는 詩에서 유·불·도가 같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자연에 동화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준다.
74) 청산별곡 제연 악장가사
75) 청산별곡 제4연 악장가사
76) 문체의 명칭, 사물의 발단과 끝맺음 적는글
77) 서문과 같은 글체의 하나, 서문이면서도 짝을 맞춘 글.

시집이라고 문학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정에 비춰보면 틀림없이 최초의 개인시집이라고 확신한다. 원천석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문집을 저술하였고 시화집도 여러 편이 나왔지만 한 사람의 시만 모아 책으로 간행한 것은 없었다. 물론 『동문선』이나 『속동문선』같은 전문 시집이 편찬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원천석이 원고를 남기고 또 그 등사분이 있었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석의 詩史가 최초의 개인시집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다. 그의 유고가 1797년에 그의 16대손에 이르러 목판본으로 간행됐는데 이때까지도 개인시집이 출간되었다는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이 목판본이 최초로 간행된 개인시집이라고 여겨진다. 원천석은 1146수나 되는 방대한 분량[79]을 남겼고, 또 최초로 개인시집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회고가와[80] 禑王 · 昌王에 관한 시[81]만 보고서 원천석을 고려 유신이니 충신이니 하는 것[82]도 詩史를 통해서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황과 신흠 등은 詩史가 고려 말의 역사를 알게 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83] 원천석이 죽은 지 600여년 가까이 된 오늘날에는 문학적인 가치만이 살아날 수 있지 그 외의 요소는 모두 재고해야 된다.[84]

「운곡 원천석시사」의 문학적 의의는 최초의 개인시집이라는데 가장 크다고 보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천석 생전에 출간을 못하고 375년이나 지나서 간행됐기 때문에 그 후손이 정리하면서 첨삭이 가해졌고 임의로 권을 분리했다는 점이다.[85]

---

78) 필자의 견해다. 우리 문학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시집을 1923년에 간행된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로 보는데 비해 그 이전의 시집에 관한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詩詩로된 개인시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오경장 이후에나 될 것으로 생각한다.

79) 시의 양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80) 주2) 참조

81) 주33) 35) 36) 참조

82)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83)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84) 詩史 원본을 가지고 정확한 해석 및 형식의 분석을 한 후 문학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역사와 관계되는 사실은 역사일 뿐이지 문학이 아니다.

85) 주 51) 참조

3. 結

운곡 원천석의 생애와 그가 남긴 「운곡 원천석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원천석은 1146수나 되는 방대한 漢詩를 남겼으며 최초의 개인시집을 31은 전문적인 시인이다. 지금까지 원천석에 대한 평가는 회고가를 남긴 고려 유신으로 평가해 왔는데 시사가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전문적인 시인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우리의 문학사에 대한 알찬 저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문학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겠지만 문학 외적인 편견으로 연구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우리의 바른 문학사를 위해서도 원천석에 대한 연구 및 평가가 다시 내려지길 기대한다.

4. 참 고 문 헌

1) 『운곡 원천석시사』 원주원씨화수원, 1984.

2) 『국역 연려실기술』 권1 이긍익, 민족문화추진회편.

3) 『국역 대동야승』 권25, 56, 71, 민족문화추진회 편.

4) 『漢詩의 이해』 조두현, 일지사, 1976.

5) 『韓國文學硏究入門』 황패강 外, 지식산업사, 1982.

6) 『한국문학통사II』 조동일, 지식산업사, 1983.

7) 『한국의 역사상』 이우성, 창작과 비평사, 1982.

耘谷文學이 갖는 鄕土 敎材로서의 效用性

梁 權 烈

(운곡문학연구회 회장. 원주고교사)

차 례

Ⅰ. 序 論

Ⅱ. 本 論

1. 耘谷文學을 硏究하게 된 動機

2. 耘谷先生 遺跡調査와 耘谷文學 普及에 관한 行事 年譜

3. 硏究目的

4. 作品을 통해 본 耘谷의 삶과 思想

1) 生活의 斷面圖인 陋拙齋에서 읊은 律詩六首

2) 純粹文學으로서의 耘谷文學 "말(斗)"을 中心으로

3)스님들과의 사귐

4)감사하는 삶

5)交友와 관련된 作品

작품 1 鄭道傳과의 和答詩

작품 2 送借牧隱卷

Ⅲ. 結 論

Ⅰ. 序　　論

국민교육헌장에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라는 德目이 있다. 古來로 원주 지방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태어나셨고 사시기도 했다. 예를 들면 淵蓋蘇文(고구려 말기), 梁吉(신라), 弓裔(신라 말기), 智光國師(고려), 圓空國師(고려), 眞空國師(신라~고려), 金自知(고려~조선), 元天常(고려 말기), 元天錫(고려~조선), 元冲甲(조선) 〈이후 人物 省略〉 등 50여 文武 儒佛 孝忠信의 師表들을 배출한 고장이 바로 원주이다.

이 가운데 儒佛仙의 이치에 통달하고 평생동안 옳음을 추구한 耘谷 元天錫先生을 擇里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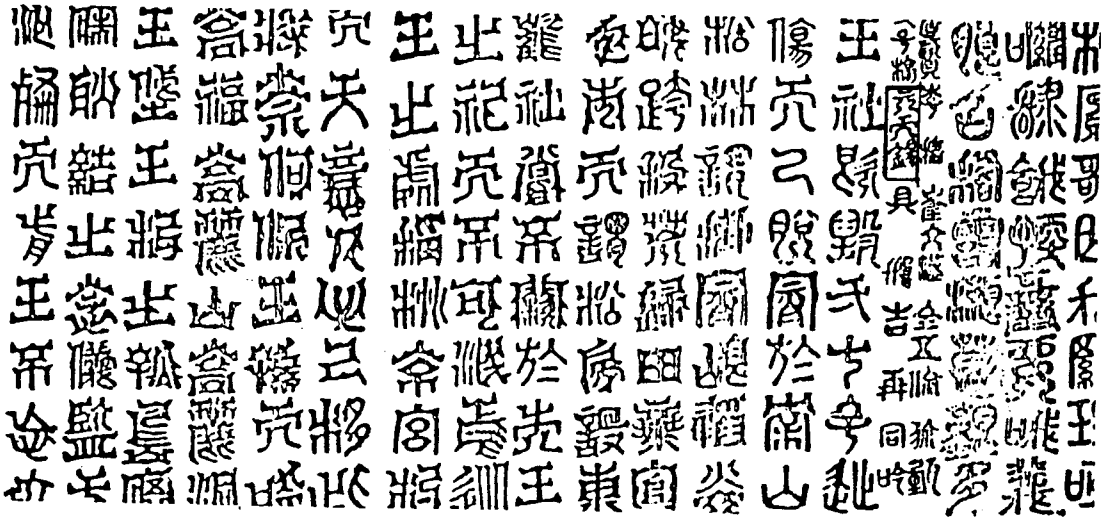
원주(原州)는 영월의 서쪽에 위치하며 감사가 다스리는 곳이다. 서쪽으로 한양과 二백 五〇리 거리에 있고 동쪽은 영과 두메에 가깝고 서쪽은 지평현(砥平縣)과 접경이다. 산의 골짜기 사이에 들판이 전개되어 명쾌하고 수려하며 몹시 험준하지 않다. 경기와 영동 사이에 끼여 있어 동해로 수송하는 생선, 소금, 인삼, 관곽(관곽)과 궁전에 쓰이는 제목들이 모여 하나의 도해가 되었다. 두메와 가까와서 유사시에는 피난이 용이하고 또 서울과도 가까와서 세상이 조용하면 나아갈 수 있는 까닭에 한양의 사대부가 많이 여기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동쪽에 적악산(赤岳山)이 있고, 고려 말기에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이 여기에 숨어살면서 여러 학생들을 교육했다. 우리 공정대왕(恭定大王)이 총각 때 그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 후 학업을 성취하고 돌아와 一八세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태조(太祖)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고 왕위를 물려 받을 징조가 보이자 운곡은 글을 써서 간하였다. 그 후 얼마 있다가 공정대왕이 등극하자 적악산에 행차하여 운곡을 방문하였으나 운곡은 피하여 보지 못하고 다만 옛날의 밥하는 종 할머니만 머물러 있었다. 왕이 선생의 거처를 물으니 할머니가 답하기를 『태백산에 친구를 찾으러 갔읍니다.』라 하였다. 왕은 종 할머니에게 많은 상과 운곡의 아들 기천(沂川)을 현감으로 제수하는 관고(官誥)와 관헌을 남겨 두고 떠났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운곡은 고도(高蹈)함이 엄릉(嚴陵)보다 더하여 환영(桓榮)같은 천박(淺薄)한 사람과는 견줄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주 1) 原州·原城鄕土誌　p. 665~679
原州文化院刊.　1976

○도원가곡(桃源歌曲)

1392年 이성계(李成桂)가 태조(太祖)로 이씨조선(李氏朝鮮)을 개국(開國)하자 고려(高麗)의 충신열사 72인은 불사이군의 충성을 다짐하며 무리를 지어 깊은산중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이때 거칠현동(居七賢洞)에서 은거하며 지내던 일곱분의 충신들이 당시의 쓰라린 고생과 모시던 임금을 사모하고 충절을 맹세하며 같이 읊은 도원가곡을 여기 소개한다.



도원가곡(桃源歌曲)

○도원가곡(桃源歌曲)

我羅理 啞囉肄 餓悽彝要 哦義朗 古稽露 擲慕難多

(아라리 아라이 아라이요 아의랑 고계로 뢰모간다)

「居七賢 七子楊」 李穡, 崔文漢, 全五倫, 徐甄, 元天錫, 具鴻, 吉再, 同吟

(거칠현 칠자탑, 이색, 최문한, 전오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 동음)

도원가곡 풀이

아라리 아라이 아라이요 아의랑 고계로 뢰모간다.

"벙어리 읊조리는 심정을 누가 알리요

배고픔은 떳떳한일, 절의를 잊지말고

천신 만고를 이겨내자"

본 가곡은 이색, 최문한, 전오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등 7인이 거칠현동에서 같이 부른 것이다.

元耘谷先生은 雉岳山에서 은거하였지만 擇里志와 太白山(旌善郡 南面 藥洞里 居七賢洞)에서도 은거한 것으로 본다. 本稿는 元耘谷先生의 遺跡과 耘谷元天錫詩史에 게재된 漢詩 몇 편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을 지도함에 鄕土校材로서의 効用性에 對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耘谷文學을 硏究하게 된 動機

1982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元天錫 지음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1로다/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 겨워하노라」라는 시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耘谷元天錫詩史(1977년 1월 5일 발행)"을 입수하게 되었다.

원주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치악산에서 은거하였다는 耘谷 元天錫에 대한 지은이 소개를 자세히 하였더니 원주여고 1학년 5반 28번 元吉順(현재 상지여중 영어교사) 학생이 자기 집에 耘谷의 책이 있다고 했다. 빌려 달라고 하니까 쾌히 승락을 했다. 그 해 여름방학 동안 耘谷詩史를 탐독하고 作品世界에 매료되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순수문학이요. 작자의 사물에 대한 통찰력에 감동되었었다.

학생들 앞에 耘谷文學을 강하게 부각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1982 가을 耘谷先生追慕詩畫展(원주여고 제37회 개교기념)을 시화로 제작하여 전시한 바 있다.

2. 耘谷先生 遺跡 調査와 耘谷文學 普及에 관한 行事 年譜

1982. 7. 耘谷元天錫詩史 입수

1982. 9. 29～30 耘谷追慕詩畫展(원주여고 제37회 개교기념)을 열다.

1984. 12. "耘谷·元天錫先生의 발자취를 따라 "(기행문) 발표, 원주고부설방송통신고교 교지 '燈盞' 2號'

1985. 10. 10～15 耘谷元天錫先生 遺跡拓本展(제1회)을 열다.

(원주신협 3층, 전국체전 기간 동안)

1985. 11. 1 '詩人 耘谷 元天錫先生' '원주신협'지 '85 가을호 '향토문화소개'란에 게재함.

1985. 11. 25 "운곡 원천석선생의 생애와 문학" 특강 원주고교 새마을어머니회 회원을 대상으로 원주고교 음악실에서)

1987. 6. 12～14 "耘谷의 유적과 문학 및 탁본의 세계" 정선문화원 주최 향토문화교실에서 강의함

1989. 9. 22～23 耘谷元天錫先生遺跡拓本展(제2회)을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다(泰豊文化祭委圓會 후원 태풍문화제 기간 동안) 그때 노강 박노춘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시조로 격려함

耘谷의 生活 思想 弁岩에 새겨 있어.

千秋에 빛내면서 남을 것을 기리면서,

後人이 되새기도록 찍어낸 일 갸륵하네

1990. 2. 24 耘谷文學研究會 創立 석경사 慕耘齋에서

1990. 8. 16 耘谷文學研究發表會(제1회) 예정

3. 硏究目的

耘谷의 문학과 사상을 접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感得하게 할 뿐더러 조상의 얼을 본받아 바람직한 삶의 모형을 설계하게 한다 아울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작품을 통해 본 耘谷의 삶과 思想

1) 生活의 斷面的인 陋拙齋에서 읊은 律詩 六首

지난번 변암(弁岩) 남쪽 봉우리 밑에 새로 초가 한 간을 세우니 지형이 험하고 외진데다가 집 구조마저 아름답지 못하며 또 향배(向背)와 왕복이 다 마땅하지 않고 매우 누추하고도 옹졸한가 하면 그 주인은 몸 가짐이 도(道)에 어긋나고 뜻 세움이 세상에 맞지 않으며, 또 모든 처사가 우활한데다가 거처마저 쓸쓸하여 그 누추하고 옹졸함이 이보다 더한것이 없다. 그 집이 누추하고 옹졸한 것이 주인의 누추하고 옹졸한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집 이름을 누졸재(陋拙齋)라 하고 그리고는, 장구(長句) 여섯 수를 지어 스스로 읊어 본다.

북으로 깊은 시내를 향해 띠 집을 세우고 나의 여생을 거기에서 보내려 하니
처세하는 지모(智謀)도 과연 옹졸하거니와 수신(修身)하는 사업이 옳을 것 없어 부끄러워라.
창문 열고 마주 대하면 푸른 솔 빛이고 땅을 쓸어 사르다 보면 백출(白朮) 향내가 풍기네.
이 경계의 이 사람이라 향배를 어겼으니 길가는 사람도 아마 방향 모른다고 비웃으리.
서리 뒤 산초(山椒)는 푸른빛이 짙어가고 한 그루 젼나무와 두어 그루 소나무라.
천 년을 겪은 너희들은 냉락(冷落)한 지조가 十년 동안 늙어가는 내 얼굴을 대해 줘 사랑스럽군.
멀리는 마을 터의 길고 짧은 피리를 듣고 가까이론 이웃 절의 아침 저녁 종 소리를 듣네.

이 사이에 띠를 벨 생각이 간절하니 일 없는 사람 보고 소식을 전하지 말라.
항상 도(道)있는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기뻐서 이 늙은 몸을 끌고 밝은 창에 기대어
가슴 풀곳 날마다 책을 읽고 때로는 술 항아리 대해 번민을 제거하기도 하며
누워선 조각조각 일어나는 구름을 보고 앉아선 쌍쌍이 우는 새 소리를 듣네.
세상 정과 속된 일을 다 잊었으나 다만 시마(詩魔)가 아직 행복하지 않는군.
자갈밭 초가집 광문(廣文)의 처소인들 그 누추하고 옹졸함이 어찌 운곡(耘谷)의
집과 같으랴.

그래도 몸을 용납하니 마음이 우선 만족하고 지혜의 여유가 없으니 세상을 깔보지
않네.
한 시내의 바람과 달은 정이 끝이 없고 十리의 구름과 연기는 그림도 그릴 수
없구나.
길이 막히고 땅이 외져 늙고 병든 자에겐 마땅하나 다만 찾는 친구들이 드물어
유감스럽네.
어딜 가나 한가한 몸 붙여 살긴 무방한 것 원래 하늘 땅 사이에 한 산민(散民)
이니까.
초라한 초당에 높은 기슭을 의지하고 쓸쓸한 옛 절을 이웃 삼아 지내노라.

돌 샘을 뚫어서 항상 갈증을 풀고 산 나물을 캐와 또 가난을 위로하네.
잘 살건 못 살건 백 년이 그 얼마인가 죽은 사람 산 사람을 한 번 세어 보시라.
붉고 푸른 봉우리 속에 살고 있으니 한 평생 행지(行止)가 증처럼 한가해라.
산 허리에 비낀 해는 몸을 기울여 보내고 집 꼭대기에 나는 구름은 손을 뻗어
잡으며,
허술한 울타리를 보는 대로 수리하고 오래된 글귀를 다시 꺼내 고치기도.
바깥 사람 오지 않고 가시 사립은 고요한데 책을 낀 아이들만 자주 오락가락하네.

陋拙齋 집터에는 耘谷元先生遺址 乙亥年三月 十六代孫 師睦立」이라고 자연석에 刻字하여 세웠다.

耘谷은 現代의 惡條件을 감내하면서 책을 벗삼았다. 마음의 갈등을 빚으면서도 詩·酒·山菜로 安分知足의 삶을 누렸다.

네모 안의 詩句은 弁岩 石壁에 새겨져 있다. 이 詩句야말로 耘谷 은거생활의 단면이다. 弁岩은 치악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300m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내설악의 오세암과 꼭 같은 지형이다. 변암에서 앞을 바라보면 산 첩첩—그야말로 속리(俗離)—속세를 산으로 둘려쌌다. 耘谷이 치악산 弁岩에서 사색하듯 만해 한용운도 내설악 오세암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하고 득도한 것이다.

耘谷의 생활 현장인 누졸재와 사색의 처소인 변암을 찾아 등반하면서 신체 단련은 물론, 정신적 유산을 음미하는 것은 이 고장 학생들에게는 더없는 수련의 장이 될 것이다.

2) 純粹文學으로서의 耘谷文學—"말(斗)"을 中心으로—

古聖當年像物成　　옛 성인 그 당시 모양 따서 만들기를
中虛外實四邊平　　속은 비고 바깥 튼튼하고 네 귀가 평평해
概量米粟功惟重　　곡식을 셈하는 그 공로 가장 많고
較定公私用不輕　　공사(公私)를 교정함에 쓰임새 많아
大小得中欺詐絶　　크거나 작거나 가운데를 얻어 속임수 없고
古今無別準繩明　　옛이나 지금이나 구별 없이 표준이 분명하도다.
要知制度從何處　　이 제도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上表宸居下地形　　위로는 하늘 아래엔 땅 형상인 줄 알겠네.

"말(斗)"을 律詩 한 수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사물에 대한 통찰력(洞察力)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자의 우주관이 집약되었다고나 할까? 대자연의 이치를 비유하여 "말"을 형상화 한 것이다.

이 계열의 작품으로는 활(弓), 솥(鼎), 창(窓), 기와(瓦), 벼루(硯), 붓(中書君), 가을비(秋雨) 등 삼라만상이 詩의 素材이다. 이러한 작품을 학생으로 하여금 감상하게 한 연후에 詩世界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나아가야 한다.

의연중에 학생들의 의식 속에 우리 문학의 뿌리를 심어 주기 위해서 각 학교에 耘谷의 漢詩, 時調를 게시해야 한다.

3) 스님들과의 사귐

幽谷宏師於上院寺朱砂窟之西峯新搆一菴名之曰無住嘉其高絶物一首呈于宏上人

締搆新菴養道情
俯看來往白雲行
眠通上下虛空遠
心豁三千世界平
風定茶軒煙自鎖
夜深禪榻月長明
上人燕坐觀無住
無住心從甚處生

유곡(幽谷) 굉(宏) 대사가 상원사(上院寺)의 주사굴(朱砂窟) 서쪽 봉우리에 암자를 새로 짓고 암자의 이름을 「무주암(無住庵)」이라고 하였는데, 그 높고 뛰어난 경치를 아름답게 여겨 시 한수를 지어서 굉(宏) 대사에게 올림

새 암자 지어 두고 도 닦는 대사
오가는 흰구름 내려보며 다니니
눈은 위 아래의 머나먼 허공을 통하고
마음엔 삼천 대천 세계가 활짝 트이었다.
바람 고요한 다헌(茶軒)엔 연기만 자욱하고
밤 깊은 선탑(禪榻)엔 달이 길이 밝아 오네.
말없이 앉아 무주(無住)를 관하는 대사여
그 무주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 上院寺 幽谷 宏스님과의 사귐 : 운곡의 작품에는 유불선(儒佛仙) 3교(三教 一三教 一理 一와 노장(老莊) 철학이 용해(溶解)되어 있다. 사귐의 상대 역시 유림(儒林), 고승(高僧)이었고, 서신의 주고 받음이 많았다.

4) 감사하는 삶

又謝沈瓜

無人見訪簞瓢巷
有物來從松桂門
甘脆數枚曾細嚼
甜酸一榼又全呑
已痊渴病兼飢病
深感天恩與法恩
擬欲共師同飽炙
宜須淨備掃茶軒

또 유곡(幽谷) 스님으로부터 보내 온 침과(沈瓜)에 대해 사례함

단표(簞瓢)의 이 거리를 찾는 이가 없는데
물건이 송계(松桂)의 문에서 보내 왔네.
달고 연한 것 몇 개를 잘게 씹어 보다가
달콤하고 시큼한 맛 한상자를 또 모두 먹었네.
목마름 병 주림 병이 이미 다 제거됐으니
하늘 은혜와 법의 은혜 길이 감사해.
스님과 함께 그 적(炙)을 한껏 먹으려 하오니
깨끗이 준비해 두고 다헌(茶軒)을 소제하시길.

○ 감사(感謝)하는 삶 : 술, 적, 약, 참외, 오이, 오얏, 밤, 홍시, 살구, 복숭아, 미나리…등의 선물을 받고 사례의 시를 썼다. 누구가 방문함에 대한 고마움도 시화 했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와 맥을 같이 한다.

수파선(水波扇)을 보낸 목백(牧伯)에게 감사함 두 수
얼굴에 뿌리는 가벼운 바람이 잇달아 차가와
손 끝으로 만 겹의 물결을 마구 흔드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서늘한 세계로 변하니
영각(鈴閣)의 그 넓은 은혜 진정 갚기 어려워라.
찬 데서 생긴 냉병(冷病)이고 또 차가운 생활이라
으레 끓는 물결 같은 더위를 겪어야 하거늘
인자한 바람 부는 곳에 맑은 바람이 이르르니
불평을 푸는 공부 그 무엇이 이보다 더하랴.

오얏을 보낸 김 선생에게 감사를 드림
일찍 과일 중에 보배가 오얏이라 들었는데
황색 자색 서로 섞여 기품(氣品)이 새로와라.
한 번 씹으니 산뜻하게 병골(病骨)이 살아나는 듯
이 늙은이를 못내 사랑해 주는 그대에게 감사하네.

참외·부채·오얏의 선물을 받고 사례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詩化했다. 그 외 술, 적, 약, 오이, 밤, 홍시, 살구, 복숭아, 미나리 등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의 방문함에 대한 고마움도 작품으로 남겼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성경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와 맥을 같이 한다.

입학시험 준비에 찌든 우리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자기들을 못 살게 군다고 짜증을 낸다.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하고, 감사의 뜻이 언행으로 표출하도록 운곡의 작품을 통해 행동수정을 가져 오도록 해야 한다. 날씨만 좋아도 상쾌한 아침! 하며 탄성을 발하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한다.

5) 交友와 관련된 作品

작품 1 鄭道傳과의 화답시(和答詩)

십이월 십칠일에 동년(동년)인 정 도전(정 도전)이 나를 찾아와서
『동년인 원군이 원주에 숨었으니 다니는 길 험하고 산골도 깊어라.
멀리서 온 친구 말을 멈추니 겨울 바람 쓸쓸하고 날은 저물었네.
그리더 나머지라 흔연히 웃고 나서 통 술 앞에 다시 마음 털어 내니
노래 부르는 나 춤추는 그대 이 세상의 영욕(榮辱)을 이미 잊었네.』
라고 하는 시를 지어 보이므로 위 시에 차운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대와 동방(同榜)한 지 몇몇 해인고 사귄 도리 새삼 얕다 깊다 할 것 없네.
제각기 일에 끌려 두 곳에 있지만 사람 만나면 상세히 안부 물었는데
오늘의 뜻밖 걸음 하느님의 시킴인가 마시고 또 웃고 세세히 이야기하네.
부디 그대는 돌아갈 길 재촉하지 마시라 우리의 이 뜻 자중하고 어렵게 여겨야 하리.

작품 2 送行借牧隱卷

떠나는 일을 보냄에 있어서 목은(牧隱)의 운을 빌리다
진경(眞經)을 읽지 않고 좌선(坐禪)을 닦지도 않으면서
구름 발자취와 학의 태도로 그 기운이 하늘을 찌르네.
훨훨 날아가는 한 그림자 일천 산 속에
시내 달과 솔 바람의 섬품을 전할 수 있으리.

耘谷은 산중에서 살면서도 경향 각지 동년·동방의 문인과 서신 교환을 했다.

이 밖에도 아는 분이 돌아가면 만사(輓詞)를 많이 썼다.

人生의 生長收藏 과정에서 웃고, 울고, 부대끼는 마음을 作品化한 것이다. 그의 삶의 진지한 태도, 眞率한 충정은 높이 평가된다. 이것들을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거론되는 차제에 耘谷文學을 널리 보급하고 그의 사상을 계승해야 함은 단연한 일이라 주장하는 바이다.

Ⅲ. 結　　論

本論에서 例로 든 작품들은 自我省察, 自然의 理致, 佛教에 대한 理解, 기독교와 접맥되는 감사의 生活, 山中 隱居하면서도 속세와 絶緣하지 않는 交友 등을 題材로 하여 쓴 것들을 살펴 보았다. 그 밖에는 세시풍속, 가정 일상사, 이웃과의 來往－인간 살아가는 이야기를 詩化하였다. 앞으로 여정에 따른 작품들을 분석하여 耘谷의 여정을 밝히는 일, 사상적 배경을 분석하는 일 등은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耘谷文學에 접근하여 先代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겠다. 요즈음과 같이 價値觀이 흔들리고 外來文物의 혼류(混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삶의 준거를 설정하지 못하고 정신적 지주가 없는 실정이다. 온갖 부조리가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학생들 앞에 제시되는 사회에서는 누구처럼 사는 것이 가치있는 삶이다."와 같이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한다. 원주지역사회에서는 耘谷 元天錫先生처럼 사는 것이 아름답고 값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운곡의 작품은 眞率하다. 耘谷은 평생 동안 옳음만을 추구했다고 평가하면서 형제간의 살육을 거침없이 자행한 太宗의 非人道的 人間性에 대한 레지스탕스로 보고 耘谷을 학생들 앞에 부각시키는 것을 꺼린다면 그것은 좁다란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다.

耘谷先生은 항상 옳음을 추구했고, 치악산의 맑은 물소리와 같은 생활을 漢詩(1114首)에 실었다. 이 耘谷文學이야말로 이 고장의 精神的 寶庫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 學生들의 정신적 支柱가 되리라 믿는다. 작품이 하나같이 모두 순수문학이며 작품 속에 東洋思想이 溶解되어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여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을,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초·중·고교 학생별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耘谷元天錫詩史를 재편집해서 향토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뿌리를 찾고 그 기반 위에 보다 나은 우리 문학을 건설하는 것이 국어교사로서의 소망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이 고장은 정신적으로 보다 윤택해지리라 믿는다.

< 운곡문학연구회 제1회 연구발표회, 1990년 8월 16일 >

參考文獻

○ 耘谷 元天錫 詩史 1965. 3. 11

元晶吉 寫 元寅植 所藏 筆寫本

○ 耘谷 元天錫 詩史 1977. 1. 5

原州元氏中央宗親會 發行

○ 耘谷 元天錫 詩史 1984. 12

原州元氏譜所 發行

○ 華海師全

○ 佛教辭典 1961. 5. 22 초판 1987. 3. 20. 16판

동국역경원 발행

○ 新增 東國輿地勝覽 1958. 7

古典刊行會 刊

○ 韓國地名沿革考〈地名變遷辭典〉

權相老 編 1960. 1. 東國文化社 刊

○ 東國地理誌(影印本) 1982. 8. 10

久菴 韓百謙著 一朝閣 발행

○ 土鄕誌 1973. 11. 25

內務部 地方局 行政課 편찬

大韓地方行政協會 발행

○ 韓國觀光資源總覽

1985. 12. 韓國觀光公社 발행

○ 橫城郡誌

1986. 6. 20 횡성군 발행

○ 旌善의의 鄕史ㅡ내 고장 傳統 가꾸기ㅡ

1981. 12. 20 정선군 발행

○ 아동문예

ㅡ운곡 원천석 선생과 치악산ㅡ

1984. 4. 1 박경용작 월간 아동문예간

○ 燈盞 제2, 3호

1985. 2. 3, 1986. 2. 1

원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발행

○ 擇里志 李重煥著 조선 英祖때

운곡원천석의 시조와 한시에대하여

양 근 열
(운곡문학연구회장.원주고교사)

I. 서론

II. 본론

1. 치악산에 산재한 운곡 유적지
2. 운곡의 시조작품
3. 여정에 따른 운곡시에 대한고찰
   ㄱ.북부지방 - 금강산 , 회양
   ㄴ.남부지방 - 영해 , 정선
4. 한시에 나타난 홍건적의 난
5. 스님들과의 사귐
6. 교우(交友)와 관련된 작품
7. 감사하는 삶
8. 순수문학으로서의 운곡문학-"말(斗)을 중심으로
9. 화해사전이 운곡시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III. 결론

참고문헌

Ⅰ. 序 論

국민교육헌장에 "조상에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라는 덕목이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건 슬로건이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이다. 원주지방에 높이 평가되는 사적이 많다.

투철한 애향심을 불어 놓을 사료(史料)가 많다는 것이다. 부론면 손곡리에 손곡 이달의 손곡시비가 있어 하늘의 학을 울리는 가락을 지닌 삼당파(三唐派) 시인의 한 사람을 들 수 있고, 지정면 안창리의 '계축일기(癸丑日記)'도 있다.

현재에도 고시조 모임, 현대시 모임, 한시 모임 — 시, 수필, 소설 장르별로 원주 문인들은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불선의 이치에 통달하고 평생동안 옳음만을 추구한 운곡 원천석의 작품 세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시조 네 수와 『운곡원천석시사』 제1권만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먼저 치악산에 산재해 있는 유적을 통해 운곡의 문학과 사상을 개괄하고 여정에 따라 방대한 한시의 가닥을 정리하면 운곡시(耘谷詩)가 우리 문학의 어느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지 드러나리라 믿는다.

운곡을 택리지(擇里志)[1]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원주는 영월의 서쪽에 위치하여 감사가 다스리는 곳이다. 〔중략〕 동쪽에 적악산(赤岳山 오늘의 雉岳山)이 있고, 고려말기 운곡 원천석이 여기서 숨어 살면서 여러 학생들을 교육했다.
>
> 우리 공정대왕(恭定大王:이방원) 나이 총각 때 그에게 학문을 배웠다.
>
> 그 후 학업을 성취하고 돌아와 18세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왕위를 물려 받을 징조가 보이자, 운곡은 글을 써서 간하였다. 그 후 얼마 있다가 공정대왕이 등극하자 적악산에 행차하여 운곡을 방문하였으나 운곡은 피하여 보지 못하고 다만 옛날의 밥하는 종 할머니만 머물러 있

---

1) 李重煥, 『택리지』, 中堂文庫, 1980.

었다. 왕이 선생의 거처 물으니 할머니가 답하기를

"태백산에 친구를 찾으로 갔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증 할머니에게 많은 상과 운곡의 아들을 기천현감(沂川縣監)으로 제수하는 관고(官誥)[2]와 관헌을 남겨 두고 떠났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곡은 고도(高蹈)[3]함이 엄릉(嚴陵)[4] 보다 더하여 환영(桓榮)[5]같은 천박한 사람과는 견줄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위의 태백산 친구란 정선에 정선 아라리를 같이 읊은 일곱 분이 아닌가 한다. 「도원가곡(桃源歌曲)」의 기록에 "이색. 최문한. 전오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 아라리 동음(同吟)"이라 되어 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고려의 충신열사 72인[6]은 불사이군의 충성을 다짐하며 무리를 지어 깊은 산중에서 숨어 살았으리라.

정선에 은거했던 일곱 분의 충신들이 당시의 쓰라린 고생과 모시던 임금을 사모하고 충절을 맹세하며 같이 읊은 「도원가곡」을 소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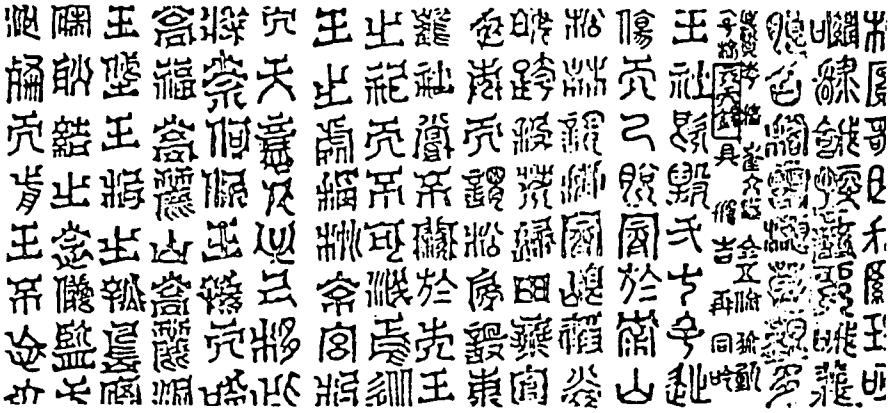
2) 四품 이상의 관리에게 내리는 사령장

3) 숨어서 사는 것

4) 중국 東漢 사람으로 젊었을때 광무황제가 되자.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멀리 떠나 버렸다. 광무 황제가 엄릉을 찾았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고 숨어 살다가 죽었다 한다.

5) 중국 東漢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고 공부를 잘 하여 광무황제가 불러 벼슬을 시켰다. 그랬더니 세상에 자랑하면서 공부한 탓이라고 자만하였다 한다.

6) 경희대 박노춘 명예교수가 밝혀낸 충신 열사는 28인 뿐임.



도원가곡(桃源歌曲)

我羅理 啞囉肆 餓悞彝要 哦義朗 古稽露 懶慕難多

(아라리 아라이 아라이요 아의랑 고계로 뢰모간다)

居七賢 七子榻. 李穡. 崔文漢. 全五倫. 徐甄. 元天錫. 具鴻. 吉再. 同吟

거칠현 칠자탑. 이색. 최문한. 전오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 동음

▶ 도원가곡 풀이

아라리 아라이 아라이요 아의랑 고계로 뢰모간다.

"벙어리 읊조리는 심정을 누가 알리요

배고픔은 떳떳한 일.절의를 잊지 말고

천신 만고를 이겨내자"

본 가곡은 이색. 최문한. 전오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 등 7인이 거칠현동에서 같이 부른 것이다.

운곡 원천석은 치악산에서 은거하면서 많은 시작(詩作) 활동을 했다. 그러나 『택리지』의 기록에 태백산 친구를 찾으러 갔다는 것은 바로 정선의 고려 유신들을 찾아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정선군 고한읍 두문동 마을은 여말에 경기도 개풍군의 두문동에 있던 일곱 충신이 이곳으로 피난 와 살았던 것이 두문동 마을의 유래라는 것이다. 고한읍 갈래마을 동쪽에 '대두문동'과 '소두문동' 마을이 있음

은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7]

본고(本稿)는 치악산에 산재한 원천석의 유적지에 각자(刻字)된 금석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 보기로 한다. 운곡원천석시사에 게재된 한시(漢詩). 시조와 『화해사전(華海師全)』 등을 바탕으로 하여 원천석의 여정(旅程)에 따라 운곡문학의 순수성 측면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Ⅱ. 本 論

1. 치악산에 산재한 운곡 유적지

① 구연(龜淵.一名 老媼所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 운곡이 태종의 행차를 미리 알고 시냇물 가에서 빨래하던 할머니에게 "손님이 나의 간 곳을 묻거든 이 강물을 따라 갔다"고 대답하기를 당부하고 시루봉 300m 아래 변암으로 올라 갔다. 평소 존경하던 운곡선생의 말씀을 따랐다. 횡지암 쪽으로 가셨다고 말한 할머니는 백성으로서 임금님(태종)께 거짓말을 한 자책감으로 투신자살한 곳으로 예나 지금이나 물의 깊이가 같다고들 한다. → ② 태종대(太宗臺. "先生事蹟略記弁岩 太宗臺 太宗大王訪耘谷元先生 自覺 林避入弁岩 上駐蹕于此官 其子而貫其婢 返駕後人因 以名之 崇禎後八十年 癸卯夏刻" → 주필대(「駐蹕臺」.태종대 비각 안의 비석) → ③ 누졸재(陋拙齋. "乙亥三月 耘谷元先生遺址 十六代孫 師睦入". 강림면 부곡리 가래골 안에 있음). '누졸재'는 집이 누추하고 옹졸함이 주인의 누추하고 옹졸함과 걸맞다 하여 운곡선생이 명명한 것이며 이 곳에서 시(詩)를 가장 많이 지었다고 한다. '陋拙齋'라는 당호는 매우 격조(格調)가 높다고들 평하고 있다. → ④ 변암(弁岩. "開穿石井常요渴 收拾山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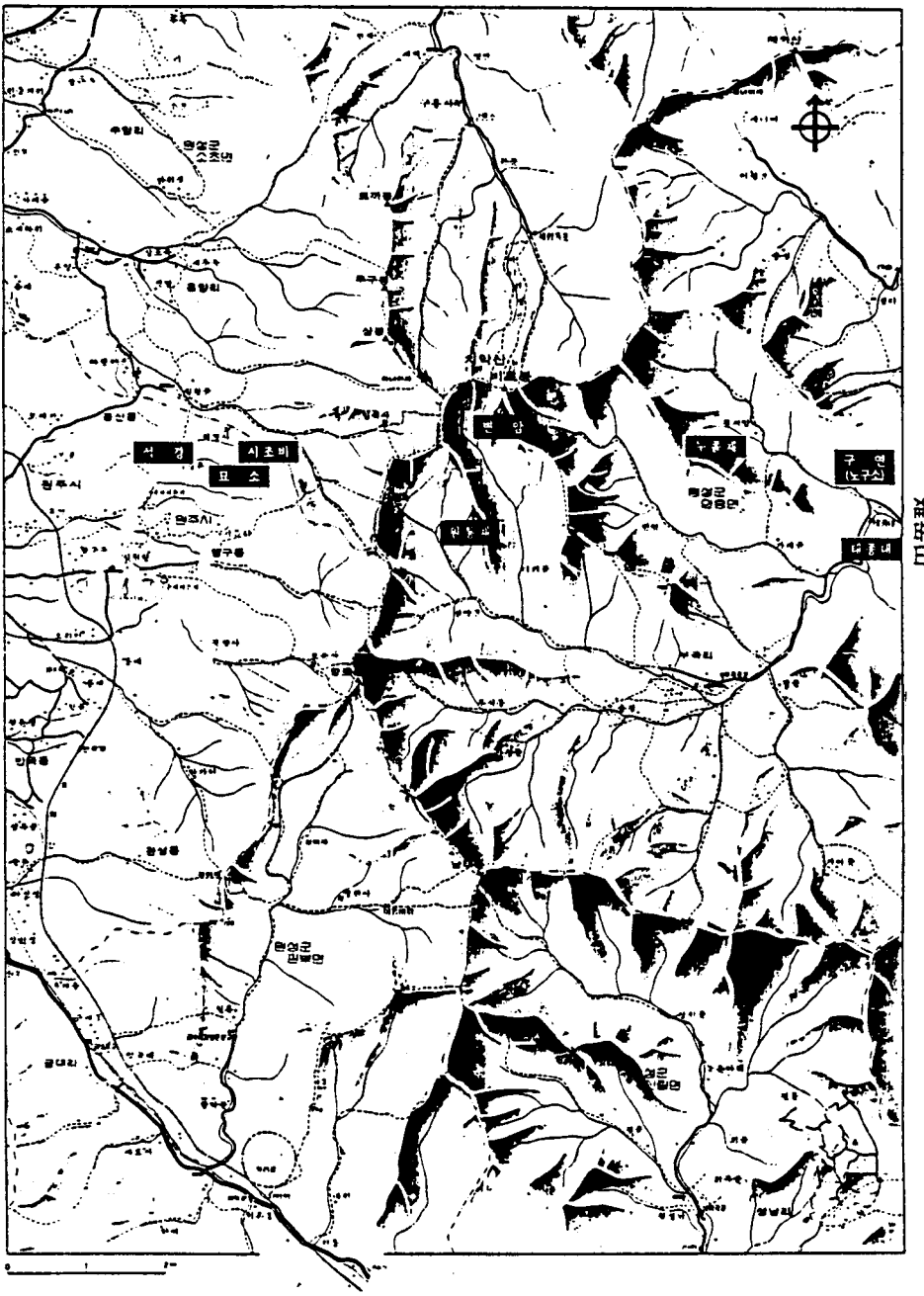
7) 『태백』지. 1991. 8.

具慰貧" 율시 6수 중 한 수의 2구. "右先生居 此所詠" "耘谷元先生諱 天錫 麗末隱居此山下 我太宗以甘盤舊恩[8] 召不至幸其廬先生避入于此 崇禎後八十癸卯後孫尙中識 不起上高其義". 변암이 세 가지 각자(刻字)가 있는데 변암, 한시, 행적이 그것이다. → 입석대(立石臺) → ⑤ 석경(石逕) : 원주시 행구동 석경촌 일명 돌경이, 자연석에 새김. 운곡선생 묘소 참배자를 위한 각자인 듯하다. 이로 말미암아 마을 이름과 석경사라는 사찰 이름이 되었다. → ⑥ 묘소(묘비:"高麗國子進士元天錫之墓") 운곡선생은 고려 국자감 진사 벼슬을 함. 국자감은 고려시대 유학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은 관청으로 성균관의 딴 이름임. 묘갈(墓碣) : 선생의 묘 바로 아래 있으며 이 묘갈을 보면 운곡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짐작할 수 있다. 「前略」 처음 선생의 장서 여섯 권이 있었는데 그 장서(야사)는 망국(亡國)의 고사를 기록한 것이라 선생이 자손들에게 경계하여 함부로 열어 세상이 자손들에게 경계하여 함부로 열어 세상에 전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 해를 지난 뒤에 자손이 열어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여 온 문중이 화를 입겠다고 하고 불살라 버렸으므로 그 책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도 남은 시집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른바 시사이다. 〔中略〕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몸을 욕되게 하지 않으니 가르침을 후세에 세운 것인즉 백이숙제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선생이야말로 백 대의 스승이라 할 것이다. 「先生可謂百代之師者也」 묘갈 머리에 가로로 「高麗國子進士墓碣」라 씌어 있는 글씨는 허미수(許眉수)의 전서임.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하여 그의 전서를 충전(忠篆)이라 부르며 이 서체를 서예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 모운재(慕耘齋) → ⑦ 시조비(時調碑,시조 四首와 "耘谷元天錫先生詩碑" 無爲堂 장일순선생의 글씨임) → 가계비(家系碑)

---

8) 감반구은:중국 은나라 때 武丁이 스승 감반을 發起重用한 일.

▼ 운곡 원천석선생 유적지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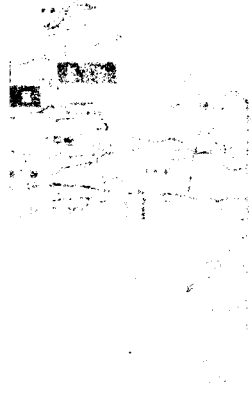


2. 운곡 시조 작품

원주시 행구동 석경사 경내에 운곡 원천석선생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時調 네 首가 새겨 있다.

① 興亡이 有數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부쳤으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②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굽을 節이면 눈 속에 푸르르랴
아마도 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③ 富春山 嚴子陵이 諫議大夫 마다하고
小艇에 낚대 싣고 七里漢住 돌아드니
아마도 物外閒客은 너뿐인가 하노라

④ 靑藜杖 드러지며 石逕을 돌아드니
兩三仙庄이 구름에 잠겼세라
오늘은 麈綠을 다 떨치고 赤松子를 좇으리라

①과 ②는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수록되어 있고 ①.②.③은 『운곡원천석시사(耘谷元天錫詩史)』에 실려 있으나 ④의 출전은 확인하지 못했다.

①은 1968년 3월 1일과 1975년 3월 1일 펴낸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1』 교과서 실려 있던 작품이다. 초장의 시각적 이미지와 중장의 청각적 이미지가 종장의 정서와 잘 어울어져 인구(人口)에 회자되었던 운곡 시조의 대표작이다.

②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절의가(節義歌)』로

서 운곡(耘谷)의 생애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독자의 가슴에 쉽게 젖어 들 수 있으리라.

③은 엄자릉이 은사이므로 작자의 삶과 동일시할 수 있다.

운곡의 시조를 시조시인 박경용(朴敬用)은 연시조(連時調)의 효시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아동문예』(1984년)에 발표한 적이 있다. 이제까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연시조의 첫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①이 고려의 패망에 대한 슬픔을. ②에서는 자신의 충절을. ③에서는 자신의 은둔생활을 작품에 반영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통일된 흐름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시조들이 국문학사적 의의를 가졌을 뿐 아니라. 후대 시조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3. 여정에 따른 운곡시에 대한 고찰

『운곡원천석시사』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본고는 제1권만 여정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횡성군 강림면을 기점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누었다. 북부지방은 1351년(辛卯年. 고려 충정왕 3년) 삼월에 금강산을 목적지로 행장을 꾸려 떠나고 1354년(甲午年. 공민왕 3년) 10월에 회양을 목적지로 출발한다.

남부지방은 1369년(己酉年. 공민왕 18)년 3월에 영해부가 목적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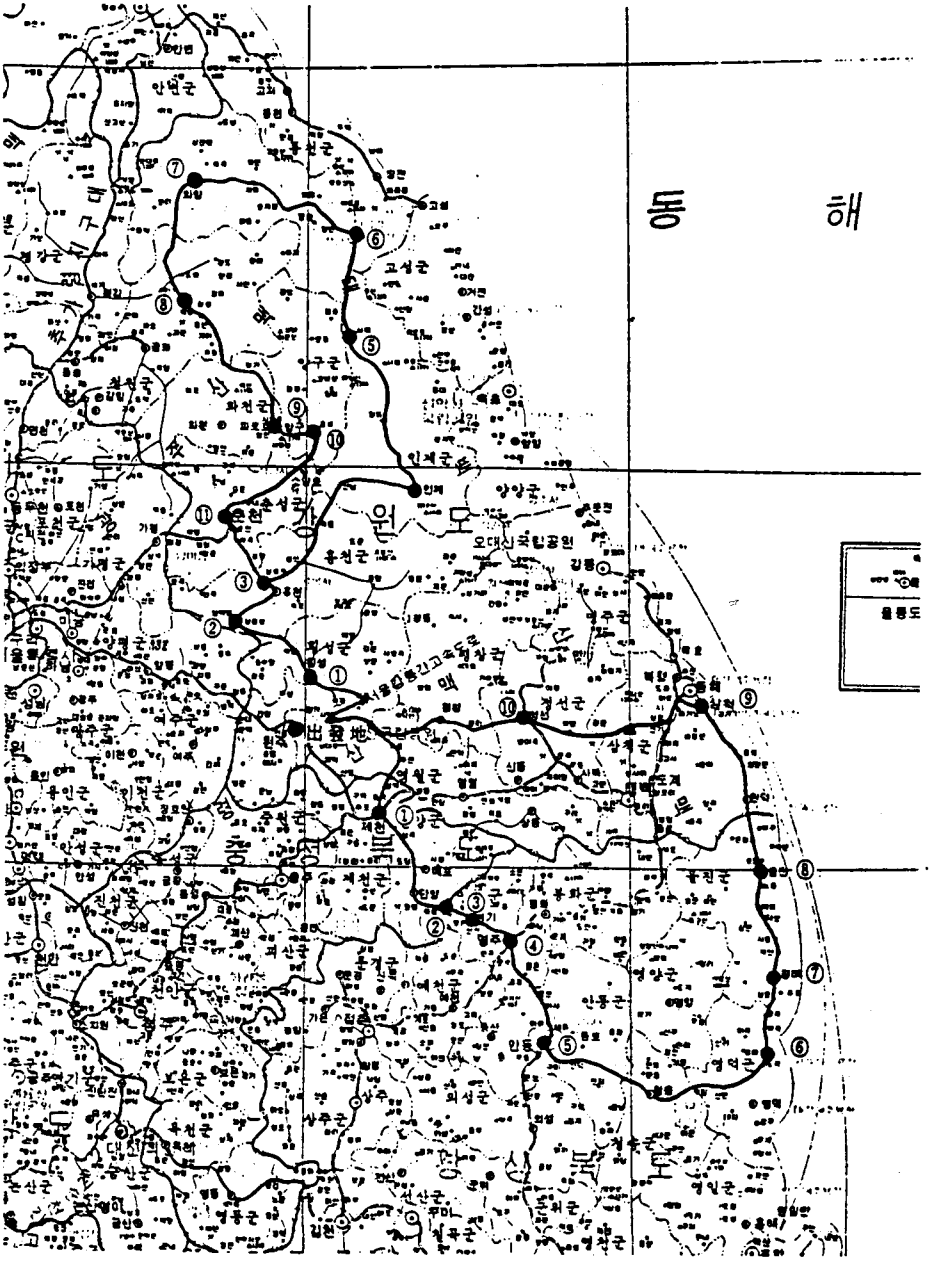
노정은 다음과 같다.

(1)목적지: 금강산. 회양 - 북부지방

● 출발지: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가래골 누졸재(陋拙齋) → ① 횡성 → ②蒼峰 → ③洪川 → ④인제 → ⑤서화 → ⑥금강산 → ⑦회양 → ⑧금성 → ⑨方山 → ⑩楊口 → ⑪춘천

(2)목적지: 영해부. 정선

● 출발지: 강림면 부곡리 → ①제천 → ②죽령 → ③풍기 → ④영주 → ⑤안동 → ⑥영해 → ⑦평해 → ⑧울진 → ⑨삼척 → ⑩정선



① 북부지방 - 목적지: 금강산, 회양

운곡은 강림면을 출발하여 횡성읍내에 도착한다. 벗의 소식을 나무꾼에게 묻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여로에 따라 쓴 시를 읽어 가노라면 머리 속에 파노라마처럼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산, 버들개비, 폭포 등을 감성으로 시화(詩化)했으므로 동적 이미지로 인지되며 느껴진다. 흉년이 들어 금주령이 내렸는데 산새 소리를 술마시라는 권주가로 여긴다. 여관에서 객수에 젖어 아침 일찍 갈 길을 재촉한다.

홍천에 와서 농민의 풍년가와 길쌈 이야기, 인제에서는 수재(水災), 서화에서 묵으면서 을씨년스런 상황을 그리고 있다. 아래 한시 한 편을 소개한다.

:

보라 저 구름 사이의 1만 2천 봉우리
상서로운 기운이 천문(天門)을 옹호하듯 하네.
다시금 둘 없는 귀의(歸依) 할 마음 갖고
자비하신 법기(法起)보살께[9] 머리 숙입니다.

- (「장양(회양 동쪽 30리에 있음)을 떠나 천마령에 올라 금강산(金剛山)을 바라보다」)

萬二千峯半入雲　時看瑞氣擁天門
更將無二歸依念　稽首慈悲法起尊

- (「初九日發長陽登天磨嶺金剛山」)

금강산이 얼마나 빼어났으면 귀의할 마음을 가졌으며 법기보살께 머리를 숙였겠는가?

금강산과 회양을 무슨 목적으로 먼 길을 떠났는지 시 속에 밝혀지

---

9) 법기보살:금강산의 主佛. 화엄경의 일만 이천 불 중에서 가장 주장되는 부처로 說法을 하고 있다 함.

지 않았다. 필시 고려 유신 72인을 만나 보러갔을지도 모른다. 박노춘교수는 개풍동 72인 중 28인들 밖에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전국에 어떻게 흩어져 숨어 살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회양에서 동지(冬至)를 맞이하고 방산을 거쳐 양구에 당도한다. 양구 농민들이 토지를 권세가(權勢家)들에게 빼앗기고 세금 독촉하는 무리들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마을이 텅 비어 연기 나는 데가 없었다는 시를 썼다. 춘천을 지나 귀로에 오른다.

② 남부지방 - 목적지: 영해부, 정선

1369년(己酉年, 공민왕 18년) 3월에 영해부를 향해 길을 떠난다. 시 속에는 혼자 말을 탔다. 제천, 죽령을 지나며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다.

안동에서 벗 권종의(權從義)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영해, 영덕에서 정자에 대한 시를 많이 읊는다.

울진에서 묵고 높은 산에 올라 울릉도에 가고 싶음을 시화(詩化)했다. 삼척에서 자고 정선으로 간다.

산은 높고 높고 골은 깊숙한데
나무 그늘 컴컴한 곳에 새들만 지저귀네.
이따금 떨어진 꽃이 말 머리에 날아 들어
시 읊다가 돌아보며 긴 휘파람 부네.

- (「정선(旌善)을 지나는 길에」)

巖巒崔萃洞幽梁
山木陰陰有啼鳥
落花時向馬頭飛
得句回頭一長嘯

- (「旌善路上」)

정선의 지형이 기구(起句)에 요약되어 있고 정감 어린 서정을 표현함으로써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정선에서 횡성 강림을 향한다.

4. 한시에 나타난 홍건적의 난

북쪽 오랑캐 간교한 꾀 대수롭지 않고
우리나라 융성한 왕업 다시 무궁하여라.
비린내 나는 칼과 창 하루 아침에 고요하니
온 백성 편안한 것 이 한 날의 공이다.
넘친 충성 뛰어난 용기 몇몇 영웅들.
도성에 충병하여 계획이 무궁해
간흉들을 쓸어 없애고 평정한 날에
칼과 창 거둬 두곤 논공(論功)하기 한창이네.
- (「적을 소탕하여 태평을 축하함」)

1361년(辛丑年, 공민왕 10년) 11월에 홍건적이 침입함으로써 임시 도읍을 옮기고 임금이 탄 가마가 안동까지 가게 되었다. 정세운, 안우, 김득배, 이방실, 민환, 김림 등의 장수가 마병, 보병 등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을 사면으로 공격하여 완전히 소탕했다고 했다.

원나라 군대에게 쫓기게 된 홍건적은 퇴로(退路)를 한반도로 잡아 1359년(공민왕 8)에 고려를 침범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장수와 개경을 수복할 때 동북면(東北面)의 상만호(上萬戶)[10]이던 이성계는 휘하의 2천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서 적의 괴수 사유, 관선생 등을 목베는 등 큰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냈다. 이로써 홍건적은 고려에 의

10) 상만호:고려시대의 관직 1300년(충렬왕 26)에 설치되어 금란, 방도(防盜)의 임무를 담당함.

해 전멸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고려도 막대한 타격을 입어 국운의 쇠퇴를 가져 왔다.

운곡은 여러 장수들의 전공으로 홍건적을 소탕하여 기쁜 마음에 시를 지어 왕업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으로 믿고 태평을 축하했지만 이성계가 역사의 주도권을 쥘 줄 어찌 알았으랴.

5. 스님들과의 사귐

새 암자 지어 두고 도 닦는 대사
오가는 흰 구름 내려 보며 다니니
눈은 위 아래의 머나먼 허공을 통하고
마음엔 삼천 대천 세계가 활짝 트이었다.
바람 고요한 다헌(茶軒)엔 연기가 자욱하고
밤 깊은 선탑(禪榻)엔 달이 길이 밝아 오네
말없이 앉아 무주(無住)를 관하는 대사여
그 무주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 (「상원사 유곡 굉대사의 무주암(無住庵)」)

운곡의 작품에는 유불선(儒佛仙) — 삼교일리(三敎一理)와 노장(老莊)철학이 용해(溶解)되어 있다. 사귐의 상대 역시 유림, 고승이었고 서신의 주고 받음이 많았다. 도경(道境)선사가 그 예이다.

6. 교우(交友)와 관련된 작품

동년인 원군이 원주에 숨었으니
다니는 길이 험하고 살골도 깊어라.
멀리서 온 친구 말을 멈추니

겨울 바람 쓸쓸하고 날은 저물었네.
그리던 나머지라 흔연히 웃고 나서
통술 앞에 다시 마음 털어 내니
노래 부르는 나 춤추는 그대
이 세상의 영욕(榮辱)을 이미 잊었네
- (「정도전이 나를 찾아와서」)

라고 하는 시를 지어 보이므로 위 시에 차운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대와 동방(同榜)한 지 몇몇 해인고
사귄 도리 새삼 얕다 깊다 할 것 없네.
제각기 일에 끌려 두 곳에 있지만
사람 만나면 상세히 안부 물었는데
오늘의 뜻밖 걸음 하느님의 시킴인가
마시고 또 웃고 세세히 이야기하네.
부디 그대는 돌아갈 길 재촉하지 마시라
우리의 이 뜻 자중하고 어렵게 여겨야 하리.

앞의 작품은 정도전의 시이고 뒤의 작품은 운곡의 시이다. 정도전과의 화답시(和答詩)인 것이다. 『운곡원천석시사』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도 검토,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교우와 관련된 작품은 과거 급제와 인연을 맺은 전국 여러 곳의 동방, 동년의 벗의 경우가 꽤 있다. 안중온(安仲溫), 김비(金賁), 허중원, 권종의 등이 그 예이다.

운곡은 산중에서 살면서 경향 각지 동년, 동방의 문인과 서신 교환을 했다.

7. 감사하는 삶

일찍 과일 중에 보배가 오얏이라 들었는데
황색 자색 서로 섞여 기품(氣品)이 새로와라
한 번 씹으니 산뜻하게 병골(病骨)이 살아나는 듯
이 늙은이를 못내 사랑해 주는 그대에게 감사하네.
- (「오얏을 보낸 김선생에게 감사를 드림」)

오얏, 참외, 오이, 복숭아, 살구, 술, 약, 밤, 홍시 등의 선물을 받고 사례의 시를 썼다. 그 감사의 마음을 .시화(詩化)한 것이다. 누군가의 방문에 고마움도 작품으로 남겼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성경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하고 감사의 뜻이 언행으로 표출하도록 운곡의 작품을 통해 행동수정을 해 나아가야 한다. 날씨만 좋아도 상쾌한 아침! 하며 탄성을 터뜨리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한다. 기성 세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길은 없을까?

8. 순수문학으로서의 운곡문학 - 「말(斗)」을 중심으로

「말(斗)」은 율시 한 수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사물에 대한 통찰력(洞察力)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자의 우주관이 집약되었다고나 할까?

대자연의 이치를 비유하여 '말'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계열의 작품으로는 활(弓), 솥(鼎), 창(窓), 기와(瓦), 벼루(硯), 칼(刀) 등이 있다. 일상 생활의 도구와 삼라만상이 시의 소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문학의 뿌리가 운곡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아는 분이 저승으로 돌아가면 만사(輓詞)를 많이 썼다.

古聖當年像物成
中虛外實四遇平
概量米栗功惟重
較定公私用不輕
大小得中欺詐絶
古今無別準繩明
要知制度從何處
上表宸居下地形

옛 성인 그 당시 모양 따서 만들기를
속은 비고 바깥 튼튼하고 네 귀가 평평해
곡식을 셈하는 그 공로 가장 많고
공사(公私)를 교정함에 쓰임새 많아
크거나 작거나 가운데를 얻어 속임수 없고
옛이나 지금이나 구별 없이 표준이 분명하도다.
이 제도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위로는 하늘 아래엔 땅 형상인 줄 알겠네.

인생의 생장수장(生長收藏) 과정에서 웃고, 울고, 부대끼는 마음을 작품화한 것이다. 그의 삶의 진지한 태도, 진솔한 충정은 높이 평가된 이것들을 우리는 이 고장에 널리 보급하고 그의 사상을 계승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9. 『화해사전(華海師全)』이 운곡시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화해사전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조선이 막을 내렸을 때다. 이 책이 이조 5백년이나 되는 유구한 연대를 다 지나고서 일정시대에 비로소 출현되었다는 것은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깊다.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원천석은 수다한 야사를 썼는데 3중의 궤

에다 심장하고서 그의 표면에 "我子孫不如我者 則不可開見"이라고 써두고 그의 임종 때 자손에게 가묘(家廟)에다가 비장해서 보관하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그 증손대에 와서 시사(時祀) 때 종족들이 모여서 이제는 세월도 오래 지났으니 내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고서 드디어 열어보니 여말의 사변을 기휘(忌諱)없이 직서해서 국사와 판이하니 모두들 놀라서 이것은 우리를 멸족시킬 서적이다 라고 하고는 바로 소각해 버렸다. 그랬으니 이것만 보아도 이 책이 이조시대에는 결코 출현될 수가 없었음을 가히 알 것이 아닌가.

이 책은 운곡 원천석 총단(總斷)[11] 복애 범세동(伏厓 范世東) 편집한 것이다. 7권 3책의 목활자본으로서 1920년 6월 27일 호서비인현(湖西庇仁縣) 율리사(栗里祠)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책에는 이태조(李太祖)의 일파를 흉도(凶徒), 호군(虎群), 군악(群惡)이라는 등의 명사로 지칭하고 우왕과 창왕을 공민왕의 적자적손이라고 하였으니 이조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역서(逆書)인 것이다.

유정기 교수가 화해사전을 해제를 이 분이 써서 신현(申賢)의 사적, 이 책의 문제점을 논술했다.

전석만(全石萬)선생이 『元耘谷居義』(원주문화원, 1990.12) 『華海師全』 (원주문화원, 1991.12) 두 차례 부분적으로 번역하여 운곡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화해사전』의 발견만으로도 생애와 업적을 재평가하여야 하고, 번역사업으로 재조명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Ⅲ. 結 論

본론에서 운곡의 시조, 『운곡원천석시사』 제1권의 여정에 따른 운

---

11) 총단:현대어로는 감수(監修)에 해당함.

곡시 고찰, 역사의식, 스님과 유림, 벗과의 사귐, 불교에 대한 이해, 기독교와 접맥되는 감사의 생활, 순수문학, 화해사전 해제 등을 살펴 보았다.

현대사회는 가치관이 바뀌고 외래문물의 혼류 속에서 삶의 준거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운곡문학은 진솔하다.

운곡은 평생동안 옳음만을 추구했다.

원주고을에 관련된 문학 작품으로 손곡시집, 계축일기 등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현재 고시조, 현대시, 소설 장르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분위기 속에 운곡 문학을 이 고장 문학의 힘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그 저력을 발휘하여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는다.

치악산의 맑은 물소리와 같은 생활을 한시 1,144수에 실었다. 이 방대한 한시야말로 이 고장의 정신적 보고가 아닐 수 없다.

작품이 하나같이 순수문학이며 작품속에 동양사상이 용해되어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여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 문학의 뿌리를 찾고 그 기반 위에 보다 나은 우리 문학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소망이다.

이 노력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이 고장은 정신적으로 보다 윤택해지리라 확신한다.

치악산 산행을 가끔 하게 된다. 시냇가 소나무는 변함 없이 푸르다. 송곡(松谷)의 맑은 물소리는 하산하는, 우리의 발길을 붙든다. 아무래도 치악에 기대고 섬강에 발 담근 거인이 되는 수 밖에 없는가 보다.

<『원주문학』 창간호, 1993년12월20일>

〈참고문헌〉

- 『耘谷元天錫詩史』, 원주원씨중앙종친회, 1977.
- 『華海師全』, 운곡 원천석 총단 복애법세등 편집
- 이중환, 『擇里志』, 조선 영조때
- 『아동문예』, 1984. 4. 1.
- 정선군 『정선의 향사』, 1981.
- 『신증 동국여지승람』, 1958. 7.
- 『사회과 지리부도』, 1988. 금성출판사

詩人 耘谷元天錫 先生

梁 權 烈
(운곡문학연구회장. 원주고교사)

치악산이 하루 등산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원주 뿐만 아니라 서울의 산악인까지도 하루의 휴식공간으로 안성마춤이다. 이 산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 李人稙이 지은 신소설 「치악산」의 작품무대, 은혜를 갚기 위해 종을 울린 까치와 구렁이의 이야기가 얽힌 上院寺, 아홉 마리의 용과 스님이 싸워 스님이 이겼다는 九龍寺, 太宗이 옛 은혜를 잊지 못해 스승인 耘谷元天錫先生을 찾아 왔다는 이야기 - 골골이 봉봉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주우며 山行을 함은 一石二鳥의 즐거움이 아닐까.

太宗이 어려서 耘谷先生에게 글을 배웠으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여러번 불렀으나 운곡선생은 치악산 태화동(횡성군 안흥면 부곡리 가래골 안)에서 은거하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太宗은 뱃길로 한양을 떠나 여주를 거쳐 섬강까지 와서는 가마로 원주, 횡성으로 행차했던 것이다.

강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는 운곡이 시킨 대로 강물을 따라 갔다고 대답했다. 실은 은거하던 태화동으로 올라 갔던 것인데…. 뒤에야 할머니가 임금님의 행차임을 알고 백성이 임금님께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하여 못에 빠져 죽었다. 이 곳을 일러 嫗淵(일명 老嫗沼)라 하며 예나 지금이나 물의 깊이가 같다고 하니 그 순박한 백성의 마음이 예나 지금까지 같아서 일까.

太宗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7일간 머물렀던 곳이 주필대(駐蹕臺)요, 그 밑의 암벽에 太宗臺라 새기고 선생의 행적을 간략하게 각자(刻字)했다.

제자가 권좌에 앉기 위해 이복형제를 제거하고 포은 정몽주와 같은 충신을 심복인 조영규를 시켜 죽이는 不義를 어찌 학자로서의 양심이 용납하랴. 不遠千里 찾아온 제자요 왕이지만 만나지 않고 옳음만을 추구했던 운곡선생을 이 고장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도 족하다.

태종대에서 가래골까지 2km, 가래골에서 누졸재(陋拙齋)까지 산길 4km를 올

라가면 「耘谷先生遺址」라 쓴 表石이 있다. 누추하고 옹졸함이 집과 그 집 주인이 걸맞다 하여 운곡선생이 명명하였다. 이곳에서 시작(詩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누졸재에서 시루봉을 향해 올라가느라면 弁岩이 있다. 고깔 모양의 생김새이므로 세칭 고깔바위라고도 한다. 변암 석벽에 律詩 二句가 새겨져 있다.

「穿開石井常澆渴
收拾山蔬且慰貧
돌샘을 뚫어 늘 갈증을 풀고
산나물을 캐 가난을 위로하네

율시 여섯 수 가운데 이 二句는 운곡선생 생활의 단면이요. 안분지족의 道이다. 선생은 44년 동안 1144수의 漢詩를 지으셨고 그 작품들이 모두 순수시이다. 치악산의 맑은 물소리와 같은 詩魂을 漢詩에 실었다.

「耘谷元天錫詩史」가 한글로 번역되어 77년에 발간되었고 84년에 중간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華海師全」이 발견되어 학계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때에 「耘谷元天錫遺蹟拓本展」을 원주 신협에서 열도록 전시실을 제공해 주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등산 인구가 점점 늘어 가는 요즈음 운곡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山行을 함은 뜻이 있고 보람도 있으리라 본다.

「한 떨기 국화가 쓸쓸하고 예쁘게 동쪽 산허리에서 아직 가을을 타지 않네.」

지금쯤 운곡선생의 「晩秋」 속의 들국화 향기가 그윽할 게다.

<「원주신협」 1985년, 가을호>

치악을 바라보며

곽 진
(상지대교수)

치악산을 볼 적마다 만감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원주에 발을 딛기 훨씬 전부터 이 산을 알았고 언젠가 한번 그 자락이나마 밟으리라 생각하던 중 본교에 부임, 과분하게도(?) 종일토록 마주하는 인연을 얻게 되었다.

산악이 널려 있는 우리 나라에 명산이 어디 이 곳 뿐일까만 특별히 치악에 대한 情懷가 간절한 까닭은 어째서 일까? 높은 봉우리, 깊은 골, 애틋한 설화가 마음을 끌어서 일까. 산행을 즐길만한 시간과 雅趣를 지니지 못한 나로서는 남북으로 뻗친 치악의 雄壯한 모습 때문도 아니다. 이는 仁者의 格을 간추려 다듬을 능력이 없다는 괴로운 이유도 있겠으나, 치악산만은 滅興的 利己의 視線 아래 두고 싶지 않은 바램이 가슴에 응축되어 서라면 어떨런지. 자연을 보는 눈은 여러가지겠으나, 나는 특별히 唐의 詩人인 劉禹錫의 다음 銘句를 즐겨 쓰고 있다.

山不在高 有仙則名
水不在深 有龍則靈

산이란 높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있는게 아니라 仙人이 그 곳에 있다던 名山일테고 물이란 깊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용이 살아야 신령스럽게 된다는 뜻이다. 자칫 그 높이와 깊이에만 山水의 尺度를 두는 現實에 매우 시사하는 바 큰 글귀라 여겨 아끼고 있다.

자연에 대한 관조란 쉬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이 포용하고 있는 것을 응시하는 눈을 갖기 어려워서 일 게다. 그래서 名山이란 人間에게 가장 친근스럽고도 畏敬스런 곳이지만 동시에 時俗의 완상을 거부하는 곳이기도 하다.

치악산의 오솔길은 耘谷이 거닐던 곳이다. 耘谷이란 麗末亂臟 같은 歷史의 소용돌이 아래서 時代의 良心과 民族의 理性을 지킨 이 고을 출신 元天錫(1330~?)의 号다. 치악산하면 그를 연상할 정도로 이 산 아래서 대부분의 生涯를 보냈으며 그 만큼 많은 일화를 이 산자락에 묻어 둔 인물이다. 그는 麗末의 知性으로 新王朝 朝鮮에의 협조를 거부하고 치악산 속에서 왜곡되어 가던 당대의

事實에 注目, 史筆을 다듬었던 文人·學者였다.

권력의 통제를 피해 直筆을 휘두른 그의 자세는 물론 淸節한 氣風과 精心한 학문연마에서 연유되었고 따라서 그가 남겨준 詩事는 당시의 엄연한 진실을 훌륭히 증언하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榮達을 피할 수 있는 그는 곤궁한 삶을 살았다. 太祖 李成桂는 그의 同門이요. 太宗 李方遠은 弟子로서의 인연을 맺었었다. 지금 치악산 覺林寺 곁에 있는 太宗臺는 바로 그들의 이같은 관계를 일러주는 곳이다. 운곡은 野史의 저술로 有名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그는 만년에 야사를 저술하여 궤짝에 넣어 두고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내 자손 가운데 나와 같은 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책을 보이지 말라고 했다 한다. 이 「비밀의 기록」은 바로 고려말의 역사를 直言하여, 李朝의 내력을 송두리채 혼들어 놓은 기록들이었다.

滅族의 화를 두려워 한 자손들이 이 기록을 불살라 없애버림으로 애석하게도 당시 역사의 面目을 알 기회를 놓쳤지만 그의 인물됨을 파악케 하는 일화다. 운곡의 詩를 특별히 詩史라 하는데 이는 時代現實의 短虛를 詩句로 借用한 결과에서 빚어진 말이다. 退溪는 「운곡의 詩는 史다. 그의 詩가 전해지던 歷史는 있을 것이다」는 말로 그의 詩를 평하기도 하였다.

曲學과 阿附로 권력에 빌붙던 당대에 直筆로 역사의 眞實을 전하려고 애쓴 운곡이야말로 자신의 주체를 지킨 知性이었다. 치악산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운곡의 理性이 이 산을 더욱 名山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라 나는 믿는다. 저 산을 볼 적마다 만감이 교차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III.

---------- 역사·철학부문

耘谷詩史에서 본 元天錫

李 在 崑
(歷史學會會員)

* 書誌 關係

본 耘谷詩史는 고려말의 隱士 耘谷 원천석의 시문집으로서 철종 9년(1858)에 5권 3책으로 간행된 것이며, 판본은 후기 목활자 본이다.

版誌의 형태는 四周 : 單邊, 版心 : 內向一葉 花紋魚尾, 半郭 : 21.5 × 14.4cm, 每半葉 : 10行 20字, 有界, 註 : 雙行, 裝幀 : 30 × 19.6cm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전집의 대부분이 선생의 詩文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史蹟이 卷末에 실려 있다.

본 시사를 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짐작된다. 草溪 鄭莊敬은 서문을 통해서 「선생의 시는 4백여년 동안 秘藏되어 세상에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忌諱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의 13대손 孝達군이 宗中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며 출판에 붙이게 되니

(詩則 藏於巾衍中笥 四百年不行于世 有所諱也 先生十三代孫 孝達甫 謀宗人入劑剞劂)」했으며, 또 觀察使 朴東亮은 序에서 「드디어 抄해 내어 한 권의 책자로 만들고 그 연대의 순서대로 편찬하여 제목을 '詩史'라고 하였으니

(遂抄而爲一冊 編其歲月於其間 而名之曰詩史)」

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朴東亮이 서문을 撰한 연대는 萬曆 癸卯 즉, 1603년에 해당된다. 그러고 보면 선생이 下世하신지 거금 6백여년이 지나서야 겨우 간행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詩史가 간행되기는 또 그로부터 2백여년이 지난 1858년(哲宗 9, 戊午)이고 보면 문집 간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짐작된다.

선생의 시문이 거의가 당시 武力으로 왕권을 찬탈한 조선왕조에 대한 저항의식과 亡國의 恨을 술회하는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禍根이 미칠까 두려워 간

행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간다. 眉叟 許穆은 石逕墓所事蹟 墓碣篆에서 「선생의 저서는 여섯 권이나 되었는데 모두 망국의 고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경계하여 함부로 세상에 내어놓지 말라고 하였다. 그 뒤 어떤 자손 한 사람이 몰래 그 책의 내용을 본 뒤 크게 두려워 하여 '온 문중이 화를 입겠다'하고 모조리 불태워 버렸으므로 그 책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도 遺詩는 다행히 남아 전하니 이것이 이른바 詩史인 것이다

(初先生有藏書六卷 言亡國古事 戒子孫勿妄傳開之 累世存子孫一人 竊開之大懼曰 吾家族
矣 擧而燒之 其書不傳 猷有餘遺詩什 此謂詩史者也)」
했다. 이로보면 당시 麗末과 鮮初의 廢立과 弑逆, 不道와 不倫에 관한 많은 量의 참여시가 저술되었으리라 짐작되나 禍根이 두려워 野史 6권을 焚燒할 때 함께 태워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본 詩史만이라도 전하게 된 것이 큰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 耘谷의 出生과 政治的 背景

운곡은 元天錫의 호이며 자는 子正이고 관향은 原州로 고려 충숙왕 17년(1330) 原城古縣(현 原州)에서 당시 宗簿寺令 允迪의 3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부인은 宗簿令 元廣明의 딸로 泚와 泂을 두었다. 뒤에 泚는 直長同正을 지낸 바 있고 차남인 泂은 基川縣監을 지냈다 한다.
家系를 대략 살펴 보면 시조는 戶長인 克富이고 曾祖는 官職이 倉正인 時俊이며, 精勇別長 元悅은 바로 선생의 조부다.
이처럼 선생의 가계는 당시 고관대작의 지위는 아니라도 누대를 관직에 종사한 청빈한 士家의 가문에서 자라 났으며 淸竹의 정신을 길러왔다.
고려가 落照가 깃들무렵 선생은 당시 進士의 신분에 있었다. 왕은 선생에게 國子進士를 除授했으나 선생은 여러 번 사양했다 한다.
당시 몽고의 成吉思汗은 元帝國을 건국한 뒤 그 세력이 날로 번창하여 세계를 征服할 야망을 갖었다. 고려도 그 지배하에서 오래도록 시달려 왔다. 갖은 약탈과 오만무례한 짓을 자행하던 元帝國도 國運이 다하여 신흥세력인 明나라의 朱

元璋에 의해 당시 수도였던 燕京을 버리고 북쪽으로 敗走하고 있었다. 이때의 고려는 元과 明 양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드디어 국내에서는 親元派, 親明派가 생기게 되었고 이어 宦者 崔萬生, 嬖臣 洪倫등이 恭愍王을 弑害(공민왕 23. 1374)하는 등 國政이 어수선하는 가운데 禑王이 즉위했으나(洪武 8. 1375) 그의 대외정책은 명백하지 않았다. 공민왕은 親明政策으로 외교가 비교적 순조로왔으나 그가 시해되자 다시 親元派의 세력이 고개를 들었다. 이 기회에 明의 徵馬使 蔡斌를 호송하던 金義는 蔡 斌를 죽이고 말 2백필을 몰고 元나라로 달아나는 등 對內, 對外 관계가 복잡 미묘하게 되었다.

한편 明에서는 고려에 대하여 강경한 대책을 강구했다. 즉, 고관대작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하고, 해가 거듭할 수록 貢物을 증가시키고 이에 불응하면 大軍을 몰아 정벌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때 고려는 明나라와 사귀면서도 元과의 國交를 계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명나라는 고려 사신을 받아 들이지 않고 鐵嶺 이북을 요동에 귀속시키겠다고 억지 주장을 내세웠다. 이제 장군 崔瑩은 明나라의 이 부당한 처사에 분개하면서 요동정벌을 결의했다. 李成桂를 右軍都統使로, 조민수를 좌군도통사로 하여 압록강 威化島까지 進軍해 갔으나 드디어 이성계는 회군을 단행하고 당시 수도였던 松都(현 開城)로 돌아와 최영을 제거하고 禑王을 몰아내고 실권자로 등장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지내온 선생은 忠과 逆, 不義와 不倫 등을 직시한 나머지 정치적 失意感을 느끼고 조용히 隱居할 곳을 찾아 竹嶺, 順興, 榮州, 安東, 寧海, 平海, 三陟, 旌善등 주로 동해 중부지방을 두루 徘徊하면서 많은 기행시를 남긴 다음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원주 치악산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란한 정계가 안정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선생은 「鵲」이란 題下에서

사람 마음이란 물건따라 달라지는 것.

숲속으로 날아가는 너 모양 가엽기만 하구나.

만약 나에게 좋은 소식 전해 준다면 서쪽 추녀에서 언제나 자유로이 울게 하리.

大抵人心遂物移　憐渠飛入樹高低

若將喜信傳吾輩　須向西軒自在啼

人跡이 끊긴 깊은 산중이기에 까치에게라도 기쁜 소식 전해 달라는 막연한 기다림이다. '만약 나에게 좋은 소식 전해 준다면'에서 '좋은 소식'이란 필시 나라의 안정일 것이다.

* 저항과 환멸의 시문

오백년 고려 사직이 위기에 처해 있을 무렵 잘못되면 역적의 누명으로 참화를 입지만 어쩌면 개국 공훈으로 일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立身揚名의 기회였다. 그러나, 선생은 도리어 신흥귀족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에게 구토증을 느끼고 비분강개 했다. 그 高節한 인품과 결백한 성격은 끝내 入山하기에 이른 것이다.

장군 崔瑩이 被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선생은 고려의 운명을 개탄하면서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이란 제목 아래

거울이 빛을 잃고 기둥 주추 무너지니
이나라 백성들 모두 다 울부짖네.
혁혁한 그 공로 썩고 말았지만
확고한 그 충성 죽어선들 사라지랴.
입지 기록한 책자 帙로 가득 찼는데,
슬프다 누른 흙은 무덤을 이룩했네.
생각사록 아득해라 지하에서도
눈을 도려낸 東門의 그 분함 풀지 못하리.
조정에 홀로 섰을땐 덤빌 자 없었는데
바로 그 忠義로서 온갖 어려움 겪었었구나.
육도 백성들의 소망대로 따르고
삼한의 사직을 편안케 했었다.
同列의 그 영웅 낯짝 새삼 두텁고
이미 죽은 간사한 무리들 뼈가 이제 서늘하리.
국난을 만난다면 누가 다시 꾀내겠나.
가소롭다 시대사람 간사한 일들
나 이제 부음듣고 애도시 짓지만

公 위한 슬품 아니고 나라 위한 슬픔이라오.
天運을 모르겠다　통하고 막힘을
나라터전 安危를 결정할 수 없구나.
슬퍼한들 무엇하나 칼날이 꺾기었는데
恨 맺힌 이 충성 언제나 지탱할 수 없는 것을.
홀로 山河 대해 이 곡조 읊으니
흰구름 흐르는 물도 모두 함께 슬퍼하네.

水鏡埋光柱石頹 四方民物盡悲哀
赫然功業終歸朽 確爾忠誠死不灰
紀事靑篇曾滿帙 可憐黃壤已成堆
想應杳杳重泉下 抉眼東門憤未開
獨立朝端無敢于 直將忠義試諸難
爲從六道黔黎望 能致三韓社稷安
同烈英雄顔更厚 已亡邪佞骨猶寒
更逢亂日詐爲計 可笑時人用事姦
我今聞訃作哀詩 不爲公悲爲國悲
天運難能知否泰 邦基未可定安危
銛鋒已折嗟何及 忠膽常孤恨不支
獨對山河歌此曲 白雲流水摠嘻嘻

최영장군이 죽고 이어 禑王을 강릉에 유배시켰다가 죽여 버리고 다시 昌王을 세웠다가 강화에 유배시키고 恭讓王을 다시 세운 이성계는 柳珣을 강화에 보내 昌王을 죽였는데 이때 창왕의 나이 10세에 불과했다. 선생은 우왕과 창왕 부자가 賜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國有令以前王父子賜死」라는 題下에

지위가 鍾鼎에 높은 것이 임금의 은혜이거늘
도리어 원수되어 一門을 멸망시키네.
한나라에서 큰 복을 누려야 할텐데
지하에서도 그 원한 씻기 어려워라.
옛 풍속 없어져도 때는 돌아 오는 것

새법이 맑아야 道가 더욱 높아지리
오로지 옥뜰 향해 만세 부르노니
두터운 은혜 산촌까지 미치기를.

位高鍾鼎是君恩 反自含讐已滅門
一國必應流景祚 九原難可雪幽寃
古風淪喪時還肅 新法淸平道益尊
專向玉墀呼萬歲 原施優渥及山村

조용히 치악산 깊숙이 숨어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를 봉양했다. 그러나, 옛날의 知己가 그리워질수록 송도의 悲運이 恨스러웠다.

「奉寄李令公崇仁」이란 題下에

숲과 은하 사이 구름과 진흙이 격했을 뿐
나가고 들어감에야 학과 닭이 다르랴.
빌고 비는 이 마음 龍岫(용수) 북쪽 달리는데
고사리 캐는 이 몸 치악 서쪽 있다오.
여생의 만사 이미 다 잊고
烟霞에 늙어 속세를 끊었지만
사모하는 마음 아직도 남아 있어
흰구름 서북쪽에 꿈길이 빈번하다오.

山林雪漢隔雲泥 出處何殊鶴與鷄
祝壽心歸龍岫北 採薇身在雉峰西
殘生萬事已忘機 空老烟霞絶是非
蹤履相從心尙在 白雲西北夢勞飛

이렇게 陶隱 이숭인에게 자기의 외롭고 괴로운 심회를 吐露하기도 했다.

또 「代民吟」이란 시를 보면

생애는 물처럼 차갑고
부역은 구름처럼 어지러워라.
갑자기 성 쌓는 군가 되었다가
또 쇠 다루는 일꾼 겸하기도 하네.
풍상에 뒤섞여 농사까지 그르치고
누더기 옷으로 눈바람 막네.
밤낮 처자 걱정 잊을 수 없어
마음은 불이 타 끓어 오른다.

生涯寒似水 賦役亂如雲
急抄築城卒 兼抽鍛鐵軍
風霜損禾稼 縷雪幣衣裙
未忘妻努養 心煎火欲焚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했다. 일찌기 선생은 國師로서 太宗을 가르친 일이 있었다. 태종이 등극 후 스승을 찾아 원주의 幽居에 枉顧하였음에도 피신해 버리고 만나지 않았다. 태종은 깊이 탄식하고 행차를 돌렸다 한다.

선생은 36세(1366)의 한창 나이에 喪配를 당한 뒤 끝내 면혼을 하지 않았으며, 부모를 섬기기에 정성을 다했다.

「端午拜先塋」이란 제하에

석잔 술에 정성담아 두번 절하니
용두의 그림자 슬픔 불러 일으키네.
황천엔 소식 전할 수 없고
답답한 이 회포 길고 길어라.
해마다 세번 씩 선영을 찾지만
오늘의 이 시름 옛날부다 더한 것을
입신양명 못하고 머리털 희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불효했기 때문이다.

묘 봉우리엔 흙만이 많이 쌓여
눈앞에 가득한 무덤들이 모두가 수심이어라.
사람은 누누나 저 하나의 무덤으로 끝나는데
백년사이 세간의 일 부질없이 길기만 하네.

三酹虔心拜隴頭 隴頭雲影喚悲愁
黃泉未可達音信 鬱鬱情懷何謬悠
年年三到此岡頭 今日愁加昔日愁
未得立揚成白首 考無終始我心悠
峯頭多積土饅頭 滿眼纍纍摠是愁
旣信人人呑一箇 百年間事謾悠悠

나라의 충성심에 대한 선생의 시문은 先塋에까지도 나타났다. 타고난 天命을 끊을 수 없어 길고 지루한 나날을 한탄하기도 했다.

* 詩史와 元天錫

본 시사에 수록된 원천석의 시는 모두 1,144首에 해당하며 그의 詩作은 충정왕 3년(1351) 선생이 약관 22세 때 시작하여 이태조 3년(1394)까지 계속된 전후 44년간의 詩史다. 사실 이 밖에도 麗末鮮初의 王朝鼎革에 대하여, 당시 趙英珪가 정포은을 推殺한데 대하여,또 王子의 亂에 대하여도 述懷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野史 여섯 권을 그의 증손되는 사람이 화가 두려워 소각시킬 때 함께 태웠으리라 짐작된다.

草溪 鄭莊敬은 백이의 노래도 주나라에서 기휘하지 않았거늘 선생의 시가 무엇 때문에 조선에서 기휘할 것인가 하여 마침내 이 시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고려 오백년의 역사에 빛이 있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선생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고

(伯夷之歌 不諱於周邦則 先生之詩 亦何諱於朝鮮耶 詩出於世 而高麗五百年 統緖爲有竊光爲先生幸也)

또, 무릇 시란 것은 사람의 性情에서 나오는 것인데 선생은 하늘 땅의 정대한 기운을 품부 받아 그 성정을 삼았기 때문에 읊은 시가 풍부하고도 고상하여 詩, 書의 典雅한 법칙을 겸하였으니 참으로 천고의 시가 중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夫詩者 出於性情 先生稟二氣之正大以爲性情故 發於吟哦者 颯颯灝灝兼 詩書典雅之則 千古詩歌中一人)고 한 것을 보면 선생의 시는 가식이 없는 그대로의 詩史다.

일찌기 退溪, 寒崗 양선생은 원주에 信史가 있다(退溪寒崗兩先生 所謂原城有信史者 是也)고 까지 했다. 이처럼 90평생을 시로서 생활했다 할 수 있는 선생의 작품은 정치 풍속과 교화를 관찰하는 작품으로서 正義와 倫理의 측면에서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동방의 伯夷라 해도 부끄러움 없는 元天錫, 不義와 不倫에 시로서 저항한 원천석, 우리는 이 耘谷詩史에서 참다운 지성인의 고귀한 교훈을 본다.

<『典籍叢談』>

『華海師全』 解題

柳正基
(前忠南大學校大學院敎授)

< 目 次 >

一. 序 言 (本書의 問題點)
二. 本 書 의 由 來
三. 本 書 의 槪 要
四. 先 生 의 略 歷
五. 結 語 (本書의 價値性)

一. 序 言 (本書의 問題點)

本書는 다시 둘도 없는 珍貴한 書籍이다. 書題의 下에는 「耘谷 元天錫 總斷, 伏厓 范世東 編輯」이라고 쓰인 七卷三冊의 木活字本으로서 卷頭에는 原任奎章閣直提學 李明稙의 序文이 있는데 西紀 一九二O年 庚申 六月 二十七日 湖西 庇仁縣 栗里社에서 刊行된 것이다. 그런데 또 鉛印本도 하나 있으니 그것은 二十二年 뒤에 刊行된 것으로서 二十世孫에 世休 傍裔孫에 相敬, 桓등 三人의 跋文이 있는 것이다. 元天錫 范世東은 麗末에 雉嶽山 萬壽山에 各其隱遁한 節義의 士인데 그들의 손으로 編著된 本書가 李朝 五百年이나 되는 悠久한 年代를 다지나서 日政府時代에 비로소 出現되었으니 이 아니 珍貴한 書籍인가. 李明稙의 序文에 依하면 本書는 畿湖의 諸君子가 널리 公義를 모아 先生의 後孫에 必熙 世休께 請해 考訂해서 出版하게됐다는 것이니 그의 出處는 確實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先生」이란 누구인가. 그는 禹易東의 弟子로서 李牧隱등 당시에 名士들이 모두 師事했든 不諼齋申贊이라면 비록 老師宿儒라도 아는 이

가 거의 없는 生疎한 人物이다. 그러므로 或者는 本書를 僞作이라고도 한다. 中國에서는 「古文尙書」, 「孔子家語」등 或者가 僞書라고 하는 것이 數多하지마는 이땅에서는 아직 僞作한 書籍이라고는 없었는데 果然 本書만은 僞書일까.

本書에는 麗末에 人物이 數多하게 나오나 이것이 史實에 틀린 것도 없는데 僞造해서 編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僞造를 한다면 簡單하게 一篇一冊이나 하지 어찌 二十一篇三冊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가지 史籍에서 찾아보아도 아직껏 申贊이란 人物이나 本書에 對한 記事는 發見하지는 못했으나 이것을 單純히 元天錫 范世東의 名義를 假裝해서 或者가 僞造한 것이라고는 斷定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燃藜室記述」에 依하면 元耘谷은 數多한 野史를 썼는데 三重의 櫃에다가 深藏하고서 그의 表面에 「我子孫不如我者 則不可開見」이라고 써두고 그의 臨終 때 子孫에게 家廟에다가 秘藏해서 保管하라고 遺言을 하였는데 그 曾孫代에 와서 時祀에 宗族들이 모여서 이제는 歲月도 오래 지났으니 내보는 것도 無妨하다고 하고서 드디어 열어보니 麗末의 事變을 忌諱없이 直書해서 國史와 判異하니 모두들 놀라서 이것은 우리를 滅族시킬 書籍이다고 하고는 바로 燒却해 버렸다. 그랬으니 이것만 보아도 本書가 李朝時代에는 決코 出現될 수가 없었음을 可히 알 것이 아닌가. 先生은 三國의 王師로서 너무도 偉大하였고 그의 弟에 省齋와 그 孫에 矢直齋는 忠直한 上疏를 했다가 마침내 滅門의 禍를 당하였다. 그래서 先生과 省齋, 子에 簡齋 易隱, 孫에 矢直齋 理猷軒, 曾孫에 純斌齋 등의 名號만 써도 禍害를 입었든 것이다.

本書에는 先生의 四兄弟以下로 數十名의 事歷을 詳述한 「家學」과 先生의 上系로 數十代의 史蹟을 收錄한 「世獻」이 合해서 四十八張이 되는 한 卷인데 平山申氏 族譜를 차차 對照해 보니 系代는 모두 合致가 되나 先生 以下의 子孫과 省齋만은 除去된 것이다. 本書에서는 李太祖의 一派를 凶徒 虎群 群惡 莽操라는 등의 名詞로 指稱하고 禑王과 昌王을 恭愍王의 嫡子嫡孫이라고 하였으니 李朝의 世界에서는 도저히 容認될 수 없는 逆書인 것이다. 그러니 平山申氏 族譜에서부터 當時先輩文集에 이르기까지 그의 名號는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麗史에도 削除되었을 것은 事實이 아닌가. 더구나 官爵도 없이 王의 師傅로서 한때 問答만 한 것이 正史에 나올 理도 없는 것이니 元仁宗이나 明太祖가 最高 師傅도 모셨다고 元史 明史에 나올는지 모를 것이다. 그래서 가장 偉大한 名賢이 가장 無名한 人物이 되었으니 이 아니 痛恨한 일인가.

本書卷之五로 元天錫이 지은 「跋尾」에 依하면 鄭浦 柳淑 尹澤과 仲李氏에 譚諱 君平 등이 本國과 元나라에서 先生의 事蹟을 蒐集하여 十二卷으로 合成해서 여러 學徒에게 傳하였는데 普愚가 史官을 시켜 그 史蹟을 모두 燒却하고 또한 命令해서 諸家에 散在한 것까지 모두 搜索해서 燒却하였는데 間或 秘密로 해서 안내놓는 者가 있어서 發覺이 된다면 奴籍에 넣었으니 그의 文籍이 傳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後花山에서 金革과 그 子에 三近 申德隣 安魯生 李存吾 鄭樞之 등이 여러 書籍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收錄했다가 또 發覺되어 燒盡되기도 했다. 先生이 沒後에 鄭夢周 朴尙衷 安宗源 金주 金峙 李穡 崔元凱 禹玄寶 卓光茂 李崇仁 裵尙志 李公遂 宋因 金震陽 金英利 宋克己 등이 모두 合力해서 本國과 元明에서 남긴 事蹟을 搜輯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先生의 侄에 彛 晏 琿 璲 등과 李孝臣 그의 子匡, 李得邱 그의 子周 閔智生 成汝完 黃昌 兪承桂 李景茂 李蒔 河自宗 李種學 崔關 金瞻 李彬 金履 등이 또 搜輯해서 八卷으로 編成하여 書名을 『華海師全』이라고 하였으니 「中華와 東海에 師傅의 全集」이란 意味인 것이였다. 鄭圃隱 말하되 「우리 先生님의 嘉言 善行이 世敎에 有益한 것은 거의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은 오직 이것뿐이나 多幸히 또 發見되는대로 蒐集을 해서 그 없어진 것을 闡明하려는 바이다」고 하고서 또 二卷을 더 보태서 成思齋에게 付託하고 잘 保存하라고 하였다. 先生은 일찍부터 佛敎를 攻擊하고 또한 史官에 陳子誠과 權近의 缺點을 指摘하였으며 鄭道傳이 처음 出仕할 때 禑王에게 그 人物이 國勢를 그르칠 것이니 重任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朝廷에는 先生의 弟子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先生의 弟에 譚(省齋)와 長孫에 伯淸이 上疏를 한대서 그들에게 크게 거슬리어 先生家는 滅門의 禍를 當하는데 本書를 모두 찾아서 燒却하였다. 그래서 陳子誠배가 得意를 해서 史籍에 있는 것을 모조리 찾아가며 削除하니 圃隱 등 諸人은 그것을 救出하려 했으나 되지 않아서 記誦으로만 秘傳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申子의 重大한 道蹟이 다 없어져 傳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大綱만을 다시 編成해서 가만히 元天錫에게 保管시켜야 한다는 議論으로서 그날밤 文人들 中에 牛來隣 孔明亮 房海範 吉仁迪 方萬化 등 五人이 元天錫에

게 傳해주면서 「華海師全」 十卷은 이미 成思齋에게 주었으니 그 사람은 心力이 太剛하나 完全하게 保存할는지 걱정이다. 또한 禹玄寶 李春彦 成君補 李頌 卓愼 金三近 등 諸人이 編輯한 것도 있으나 이것을 잘 保存하라고 付托하였다.

그 後 얼마 안돼서 鄭圃隱이 變故를 當하고 杜門洞에는 火災를 當했는데 宋因과 權近은 舊義를 背叛하고 新利로 趣向하여 本是는 先生의 弟子로서 先生의 學說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怨恨을 갚으려고 宋因 權近 鄭道傳 등이 深山幽谷에 감췄던 書籍을 모두 모아서 불태우고 先生의 子孫은 奴籍에 넣고 殺害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李來 李宗茂 趙溫 등이 그것을 救하려다가 되지 않으니 黃善 許稠 孟思誠 成石璘 成石瑢 李詹 金自知 姜淮伯 鄭次吾 趙云仡 鄭俊 崔關 등과 더불어 자주 先生의 宗孫인 概의 집에 모여 勸해서 벼슬을 시키고 庚辰年에는 李來 등이 先生의 曾孫인 自獄과 自誠을 推薦해서 自誠은 舍人이 되었으나 權近 등이 圃隱의 贈職과 賜諡를 奏請하는데 反對하다가 더욱 그들의 憤怒를 사서 스스로 鄕里로 돌아와서 隱居했던 것이다.

나는 매양 先生의 家事를 생각하면 傷心이 되여서 伏厓 范世東 君과 더불어서 以上과 같이 事蹟을 略述해서 圃隱이 先生께 對해서 권권하든 遺志를 받고 또한 先生의 一門에 兄弟子孫 宗黨이 各各 先生의 風을 記錄한 若干篇을 合해서 나의 傷心한 바를 斟酌하여 後日에 發見되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近者에 들으니 伏厓 范君이 「話東記」를 著述하는데 多幸히 이 사람이 言及했다고 하니 千載의 後를 爲해서 甚히 多幸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本書는 先生의 言行한 事蹟 子孫과 門生의 語錄과 文籍이 收錄된 것이다.

三. 本書의 槪要

本書 第一冊의 卷之一에는 「本朝問答」 「元主問答」 「明主問答」이란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것은 忠惠王, 忠肅王과의 問答이니 王者의 治道, 唐代의 人君評 斥佛尊儒論 등을 收錄한 것이고 다음 것은 元 仁宗과의 問答이니 華夷의 區分 政本과 人道 先王의 大道, 老佛의 問題 등을 論辯한 것이다. 셋째는 明 太祖와의 問答이니 孟子의 民本思想을 反對하는 太祖에게 孟子를 極口로 擁護하였고 太祖는 先生의 先親 元비 生비 外祖 등에 까지 모두 贈職을 내리며 歸國할 때는 盛大한 宴會를 하고 重要한 禮物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卷之

二에는 「備耗」와 「出處」란 두가지니 備耗란 것은 禹易東이 老耗한데 對備해서 六經의 典籍과 宋代의 群書에서 要點만 추려서 만들라는 付託으로 된 것이고 出處란 것은 先輩의 出處한 것을 論評한 것이니 崔致遠은 批判하고 朴文良과 徐弼 徐熙 徐元肅 등 三代의 人物을 極口로 稱讚한 것이다.

第二冊의 卷之三에는 「諸子問答」과 「家範」이 있으니 諸子問答이란 것은 金得培의 門下에서 紹介된 鄭夢周를 비롯해서 安魯生 金峙 朴尙衷 金英利 宋明誼 金得雨 朱公遷 歐陽玄 朱懿 胡翰 桂彦良 金革 李蒔 鄭侑 李碩 金春彦 兪成福 李穡 閔정 姚連 唐仲實 宋因 李邱 李仁復 申德隣 尹澤 禹玄寶 李存吾 林始巢 李達衷 등과 問答한 것이고 家範이란 것은 先生과 兄弟間인 즙(休默子)과 君平(无悶子)이 先生의 子인 用義(簡齋)와 더부러의 家範箴을 지어 先生께 質正하니 先生은 宋代名賢의 說을 引用해서 理氣를 說明한 것이니 圃隱은 이것이 何必 家庭뿐아니라 天下에 規範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고 卷之四는 「簡齋先生箚書奏封」이란 一篇뿐이니 이것은 禑王九年 癸亥(明太祖 十六年 西紀 一三八三年) 譯官인 張伯이 明에 가서 조금 求해오고 다음 해 圃隱이 使臣가서 全部 求得해 와서 成思齋 趙思愼 范後春 등에게 傳한 것이니 亦是 太祖와의 問答에서 孟子의 民本思想을 辯談한 것이다.

卷之五에는 「師全繼辭」가 있으니 이것은 「先生의 略歷」으로 하고 또 「跋尾」가 있으니 이것은 「本書의 由來」에서 紹介한 것이다. 그리고 세째는 「諸子論贊」이니 이것은 成汝完 閔思平 崔淸 元松秀 宋明誼 林극 李陽昭 金若時 崔元道 趙承肅 李集 鄭仁彦 金峙 卓愼 崔灉 崔元凱 元天常 등이 拾遺해서 秘傳한 것이니 諸家가 모두 先生을 讚揚한 것이다 明나라에 宋濂 錢塘 劉基 등의 讚辭와 本國에는 李益齋 李稼亭 李牧隱 등이 讚揚했을 뿐만이라, 朴恥叟 李竹軒 閔草場 花山王 朴杏山 金快翁 崔拙叟 李百花 金竹軒 蔡弘哲 羅希齋 安謹齋 朱晦東 辛德齋 李石灘 金松齋 등 諸賢이 모두 極口로 稱讚한 記錄이다.

네째는 「諸子敍述」이니 諸賢들이 先生에 關해서 記述한 것이다. 蘭漢 金得培는 말하되 「白上黨의 門下에는 李益齋 그 자 雲窩 朴恥庵 閔草場 金筠軒 金隱齋 安謙齋 白默窩 吳戒齋 金鈍軒 金松堂 張冲庵 任虛齋 任和齋 등등 二十四人이고 權菊齋의 門人에로 白淡庵 韓栢堂 金迪齋 李稼亭 金悔窩 尹斌齋 兪迪庵 李直齋 崔拙齋 菊齋의 子 松齋 水軒 希堂(忠宣이 王氏로 賜姓해서 養子로 했음) 등등 十九人인데 이 兩先生은 모두 禹易東의 門下에서 나왔으니 모두 先生에게 尊丈 兄輩의 年齡이나 다 年齡은 不問하고 師事하니 先生도 또한 敬意를 다해서 酬應하였고 李百花軒 羅敬齋 金竹軒 李泰齋 李石村 韓文齋 李竹漢 鄭雪軒 李希學翁 朴杏山등 諸賢은 모두 白上堂 權菊齋 禹易東과 서로 年輩로서 같이 安文成公을 師事하였다」云云 하였고 다음으로 禹玄寶 成思齋 鄭圃

隱 金革 金潞 金係權등의 말을 記錄한 것도 있으며 또 金梧隱 金石樓 申醇翁 등은 簡齋에 對한 말을 하였고 또 牧隱 伏厓 金鼎 李得英 등은 先生과 簡齋를 兼해서 말한 記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第三冊의 卷之六에는 「家學」「歷代轉理歌」「世軒」 등 三篇이 있으니 家學은 元耘谷이 記述한 것인데 그의 緖頭에는 「鄭雪谷의 말에 父가 虎인데 子가 狗는 되지 않음을 先生의 子孫에서 보았으니 모두 文豹의 虎다. 지금에 先生의 家庭에는 群芳이 있는 바 榮華가 跋華함이 어찌도 그리 盛한가」고 感歎하면서 敍述하였는데 伏厓 范世東의 지은 簡齋行狀에 依據해서 東方道學의 淵源을 말하였으니 箕聖에서 비롯하여 薛弘儒 崔文憲이 中興해서 大創하고 金文安(良鑑)이 繼絶을 해서 禹易東 申文貞(先生) 申文暄(簡齋) 鄭圃隱 李牧隱으로 傳承했다는 것이다. 先生이 創起하고 胤子가 繼承해서 아직 華英이 滿發하는데 까지는 暇及하지 못했으나 나는 敢히 僭濫하게 이에 그의 梗概를 敍述하여 一部는 내 가지고 一部는 范友에게 주는 바이다」고 하였다.

先生은 二男을 生했으니 長子는 晃이고 次子는 商인데 晃은 國家에서 先生이 易理에 通達했다고 해서 用羲라고 改名을 해주고 明太祖는 또 簡齋라고 賜號하였다. 忠肅王 二年 乙卯(西紀 一三一五年) 二月 十三日에 生해서 禑王 七年 辛酉正月에 明나라에 갔다가 그 翌年 壬戌(一三八二年) 十一月八日 明나라에 卒하니 天子는 文暄이라고 賜諡하고 遼東文會山 老先生의 墓下에 禮葬하였다. 簡齋의 道德 文跡은 모두 燒盡되고 오직 이 「華海師全」에만 一篇이 收錄된 것이다. 次男에 商은 簡齋보다 三歲 적은데 일찍 易理에 通했기에 世稱 「易隱先生」이라고 하였으나 四一歲로서 早卒하니 諡가 文溫이다. 簡齋도 二男이 있으니 長子는 伯淸이니 號가 矢直齋이고 次子는 得淸이니 號가 理猷齋이다. 本書의 末尾에 上疏文은 伯淸의 지은 것이고 本書의 「家學」중에 든 歷代轉理歌는 得淸의 지은 것인데 范世東의 「話東記」 內에 있든 것을 成三問이 지은 諺文으로서 吐를 달고 伏厓의 曾孫인 范承洛이 跋文을 부친 것이다.

다음에 理猷軒은 三男이 있는데 長子는 自亨이니 賜號가 純斌齋고 次子는 自嶽이니 寧海로 隱退했으며 季子는 自誠이니 自號를 海隅遺士라고 하였다. 先生의 同母弟에 치는 號가 省齋고 또 아우 諱는 休墨齋며 다음에 君平은 无悶子니 兩人은 雙生하였다. 그런데 ( )의 長子는 翼之니 號가 漢川子로서 省齋에게 入后하였고 次子에 彝는 號가 愼歸齋며 季子에 晏은 弗尤山人이고 君平의 長子에 珪는 號가 學啞며 次子에 훈은 號가 尤齋고 三子에 璲는 號가 歸來窩며 四子에 瑀와 五子에 珣은 杜門洞으로 들어갔다. 以上에 數十名의 略傳이 三十八張이나 되니 家門에 人物이 輩出하였다. 그래서 金自粹 申德隣 金允堅 金仲男 金智允 柳從惠 許楷 金得雨 등이 서로 더불어 感歎하되 「達可는

일찌기 「文貞의 道는 天地에 萬物과 같고 簡齋의 學은 四時에 節序와 같으며 仲叔昆季는 四方에 正位와 같고 子孫從系는 化物의 變時와 같다」고 하더니 참으로 傳함이 廣大하였으나 窮通이 有數해서 桑海가 飜覆되고 日月이 晦明하니 다시는 그 光彩를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다음에 「世獻」은 先生의 先系다. 世傳에는 申氏가 神農의 後裔라고 하나 또는 周代에 申伯의 後로서 三韓의 末에 東國으로 나왔다고도 한다. 新羅奈勿王에 申氏에 自天이란 이가 裵仲良등 六人과 같이 實聖을 쳐서 國讐를 갚고 朴堤上을 薦擧해서 王의 兄弟情誼를 도우게 하였다. 그 후 麗末 景哀王때는 申守忠이 薛弘儒를 따라서 唐나라에 갔을때 孔聖 十哲 七十子의 眞像을 求得해와서 비로소 大學에 奉安하여 스승 薛弘儒의 所托을 承述하였으니 그는 壯節公 申崇謙의 遠祖다. 壯節公은 初名이 能山이고 字는 野叟인데 殉節할 때 平生 뜻을 풀지 못함을 恨歎한 同韻二首의 七言詩가 있으니 麗末에 文成公 安珦은 그에 追和해서 七言二絶을 지었든 것이다. 그후 肅宗 明孝大王 七年 壬午(西紀 一一〇二年)에 壁上功臣 兵部尙書 開國公 申弘尙은 先師 崔文獻公의 遺志를 받아서 箕子廟를 創建하였든 것이다.

睿宗 四年 己丑(西紀 一一〇九年)에는 右文直學 申晟은 國學에 養賢庫를 두자는 奏請을 했고 十四年 己亥에는 申勁이 太學에 들어가 工夫해서 太子太傅 兼寶文閣直提學까지 올라갔다가 隱退하여 號는 宜隱이라하고 諡는 文正이였다. 그의 孫에 命夫는 經書를 硏究하여 隱德으로서 有名하였다. 三子가 있는데 長은 應時고 次는 用極이며 季는 一源이고 用極의 一子는 思佺이니 蒙古兵을 친 武將이다. 三子가 있으니 長은 樑廈 次는 棟宇 季는 令材고 令材의 二子는 적과 항이며 적의 二子는 衍과 淑이고 항의 二子는 汝桂와 汝春이며 衍이 三子를 生하니 仲明 仲立 仲周이고 仲明의 長子가 先生이다. 그런데 또 淑이 二子가 있으니 益保와 益休고 益休가 三子를 生하니 孟明 自明 應明이며 自明의 子는 日成이고 그의 二子는 仲佺과 仲偕라고 하였다. 그러나 平山 申氏族譜에는 仲明의 伯氏가 盟明이고 季氏가 應明이라고 하였으니 크게 錯亂된 것이다.

다음에 「東方淵源錄」에는 薛聰 申守忠 崔沖 金良鑑 安珦 禹倬 申賢 鄭夢周 李穡 徐甄 등 諸賢의 事蹟을 記述하였고 다음에 「元耘谷居義」는 元天錫의 事蹟을 記述한 것이니 耘谷은 簡齋의 門人으로서 進士만 하고 雉嶽山에 隱居했는데 그때 金若時 李養中 崔淸夢 徐甄 卓愼 趙承肅 李集 金士謙 崔元道 趙瑜 金潞 陰仝陽 河自宗 成汝完 李瓊 李園 孔繼聖 牛星維 方直範 崔濩 夫宗義 薛持維 등과 우리들 二三十人이 每年 그 山頂에 모여서 巖을 壇으로 해서 檀君 箕子의 後에 薛聰 등이 殺身成仁한 有道의 士 百餘人을 祭祀하였는데 그

百餘人의 名號가 모두 다 記錄되여 있다. 그래서 李氏王朝에 不僕하는 諸公들이 種種 서로 往來하면서 麗末의 時事와 新國의 時輩를 談論했든 것이다. 위에 淵源錄과 耘谷居義는 范世東이 記述하고서 끝으로 耘谷과 같이 本書를 蒐集했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런데 卷尾에는 「後王誥忠情辭」 「後王泣變陳情文」「大提學申伯淸上訴文」「言志錄」 등 四篇이 附錄되였으니 첫째 것은 定昌君瑤(後에 恭讓王)가 禑王을 廢하고 그의 子 昌을 세울 때 忠情을 말한 誥辭고 다음 것은 禑王과 昌王의 父子를 弑害한 變故를 定昌君이 陳情한 것이니 이 두가지는 李氏一派에 對한 寃恨이 서린 글이고 세째 篇은 先生의 孫인 伯淸이 恭讓王에게 虎群(李氏)이 簒奪하려는 것을 말한 것이며 끝으로 言志錄이란 것은 觀德齋 邊胤宗이 記聞한 것인데 明太祖 二十五年 壬申 七月에 麗朝가 亡하니 忠臣들은 모두 松都의 南峴에 넘어가서 掛冠을 하고 不朝峴으로가서 各其 말한 뜻을 記錄한 것이다. 그때 悲壯한 뜻을 말한 志士는 禹賢寶 曺義生 林先味 高天祥 田貴生 李崇仁 李孟藝 柳洵 田祖生 沈元符 趙承肅 蔡貴河 元天錫 徐輔 邊肅 박심 申晏 朴寧 金沖漢 高天佑 徐仲輔 趙卿 등이니 그때 이미 圃隱은 殉國하였고 牧隱의 外에 六十餘名은 모두 隱遁하였는데 그의 場所도 다 記錄되여 있는 것이다.

四. 先生의 略傳

本書卷五에 收錄된 元天錫이 지은 「師全繼辭」에 依하면 先生은 平州人으로서 姓은 申氏니 太師壯節公 申崇謙의 後로서 忠烈王 二十四年 戊戌(西紀 一二九八年) 十月二十九日에 誕生하셨다. 先公이 十七歲에 工夫를 하려고 氷山(永同) 縣令으로 계시는 外祖에 洪裔의 官舍로 가는 길에 淸州를 지나다가 비를 만나서 그 고을에 軍尹戶長인 陳聖謙家에 들어서 留宿하는데 그날밤에 主人과 公이 꿈을 꾸니 어두운 하늘에서 望月이 솟아올라 天地가 光明한데 雲霧가 달을 둘러싸더니 月輪이 그집으로 들어와서 公의 품에 안겼다가 나와서 다시 內室에 陳娘子의 품에 안기는데 雲霧는 房門에 서렸다가 月輪이 나와서 天上으로 올라가니 다 흩어지고 달만 밝게 드러났다. 陳氏가에서는 꿈을 깨서 크게 異常히 여겨 公에게 말하고 請婚을 하니 公도 또한 夢兆가 같아서 許諾한 뒤에 擇日을 해서 成禮한 뒤에 先生을 胎生한 것이다.

그래서 先生의 兒名은 夢月이고 號는 賢아며 字는 信敬이라고 하였다. 忠肅王朝에서 世子侍講을 招聘할 때 先生은 易東先生을 師事하였는데 啓해서 名

이 그 學에 副하도록 請하여 賢을 臣忠貞의 三字의 合字로 賜名을 하였다. 그런데 晩年에 明太祖의 招請을 받고 가니 皇帝가 말하되 先生의 道는 忠信義貞인데 名은 忠臣의 下 貝字의 上에 卜字를 加해서 一字로 하였으니 名實이 相副하다고 하고 또 「朕은 微時부터서 그 道를 欽慕하였으나 字音이 不定하기에 字音을 定하노니 聖賢의 賢字와 同音으로 하라고 하고서 字는 浩仁으로 고치고 號는 不諼齋로 하라고 하였다. 忠肅王은 先生의 元母金氏는 樂浪郡夫人, 生母陳氏는 上黨府夫人으로 封하였는데 明太祖는 元비를 樂浪郡貞淑夫人, 生비는 上黨府淑烈夫人으로 封하였다. 그런데 先生은 易東先生보다 三十六歲가 年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十八歲때는 忠肅王乙卯年 進士試驗에 壯元하였고 二十二歲 때 己未年에는 朝廷에서 安文成公을 文廟에 從祀할 때 先生을 左僕射로 세번이나 招聘을해도 가지 아니하고 賓師로 나갔다가 未久에 辭退하였다. 辛酉年에는 賊臣에 曹頔이 國王을 元王에게 讒言을 해서 問題가 되여 元나라로 갈 때 같이 가서 尙書인 拜住의 家에 滯留하다가 丙寅年에 歸國하였다. 辛未年에 朱公遷 許濂 桂彦良 王褘 許允 黃天錫 葉瓚玉 胡翰 汪中山 葉儼 王宗顯 唐仲實 姚連 載良 吳沈 徐元 詹同 錢唐 陰光茂 등 三十二人이 元文宗 至順辛未年부터 種種 往來하면서 問學하고 討論하였다. 壬午年에는 易東先生의 喪을 當한 뒤에 安東禮安村으로 隱居하여 易東先生께 배우든 學生들을 敎導하였다. 乙酉年에는 稼亭 益齋등 四十餘人이 忠穆王께 勸해서 先生을 師事하도록 하였는데 辛旽와 田淑生을 六正卯라고 하다가 王이 怒하여 下獄된 일도 있었다.

庚寅年에 未公遷 등 四十六人이 東國으로 와서 受講을 하고 年末에는 先生이 元으로 가서 甲午年에 歸國하여 丙申年에 內難을 當하였다. 壬寅年에는 普雨가 謀害해서 丑山島로 退隱하였는데 乙巳年에는 普雨가 國師로 되어 先生의 文籍을 찾아가면서 燒却하였다. 庚戌年에는 元王이 北쪽으로 退敗해와서 우리 國土를 威脅해오니 弟子들은 事元派와 事明派로 兩分되였는데 先生은 事明하는 大義를 主唱하였다. 壬子年에는 明太祖가 詹同을 보내 招聘하니 明나라에 가서 孟子와 朱子의 說에 反對하는 太祖에 對해서 辯護하였으나 待遇는 甚厚하였다. 元仁宗에 對할 때도 臣字는 쓰지 않고 或은 僕, 或은 生, 文字上에는 海華(海東小中華) 僕生이라 하였고 明太祖에 對해서도 臣字는 쓰지 않고 箕國遺民이라고 쓰다가 考妣의 贈爵을 받은 뒤로는 臣字를 썼다. 그런데 丁巳年에 歸國하다가 三月十五日 道中에서 逝去하시니 享年이 八十歲 였다. 明皇이 遼東文會山에 禮葬하고 諡號는 文貞이라고 하였다.

五. 結語(本書의 價値性)

本書를 或者가 僞作이라고 한데 對해서 나는 아직껏 그렇지 않다는 考證을 할 만한 文籍은 發見하지 못했으니 비록 僞書로 斷定한다고 하더라도 本書의 內容에 價値性은 損傷할 수가 없을 것이다. 「古文尙書」나 「孔子家語」가 僞書라고 한다해서 人生의 福利에 有益한 그의 價値에는 조금도 損傷되지 않았던 것이다. 伏羲 神農 皇帝 堯舜이 神話에 不過한 假象人物이라고 해서 排棄한다면 社會를 平治하는 理想人物만 抹殺되고 말 것이다. 孔夫子께서는 「君子不以人廢言」이라고 하셨으니 또한 「君子不以人用言」이란 말도 成立될 것이다. 다같은 眞理를 말해도 權威 있는 名人이 했다면 重用하고 權威없는 庶民이 했다면 廢棄하는 것은 理性的으로 價値를 判斷할 能力이 없는 小人의 所爲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理性的으로 判斷해서 本書는 누가썼든지 間에 人生社會의 公共福利에 有益한 眞理가 있음을 이에서 證明하는 바이다.

첫째는 救世思想이니 本國王 元仁宗 明太祖 등 帝王에 對해서 治國 平天下하는 大經大法을 陳述한 것이다. 元仁宗이 中華와 夷賊의 差異에 對해서 質問하니 帝舜은 東夷之人이고 文王은 西夷之人이라도 中華의 道를 實行하니 夷賊人이 아니고 中華人이라고 說明하고 또 政治의 根本을 물으니 仁義를 施行하면 天下가 平治되나 仁義를 不行하면 百姓의 仇賊이 된다고 答辯하였으며 明太祖는 「君이 臣을 土芥처럼 보면 臣은 君을 仇讐처럼 본다」라는 등 孟子의 말을 臣子들의 師法이 될 수 없다고 해서 文廟에서 黜享하려하는데 刑部尙書에 錢塘이 抗疏해서 諫爭하다가 死刑을 받게 되였던 그때에 마침 先生이 當參이 되여서 皇帝에게 孟子의 그런 말씀이 바로 萬世의 君王에게 警告하는 誓言이라는 것을 力說해서 錢塘을 死刑하려든 것과 孟子를 黜享하려든 것이 모두 沮止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犧牲精神이니 官爵도 關心하지 않고 威力에도 屈하지 않고 帝王에게 能히 直言을 한 것이다. 忠惠王이 唐代人君을 물으니 唐王들은 弟妃를 取해서 生子도 하고 子妻를 뺏어서 貴妃도 만들며 武氏는 兩代의 皇后가 되였으니 禽獸의 道라고 하였다. 그때 忠惠王은 庶母 丈母 公主등과 淫行을 했기 때문에 自己를 侮辱하는 것이라고 해서 將次로 處罰하려다가 李稼亭이 그것을 알고서 王에게 「君上의 非行을 바루는 것이 참다운 事君하는 道理라고 力說해서 先生을 處罰하지 않고 도리어 그 自身이 울면서 悔改하였다. 그리고 또 忠肅王에 對해서는 「殷나라 明鑑은 夏나라에 있고 殷나라가 自照함은 아니니 箕子 微子 比干 呂尙이 어찌 古今에 다르겠읍니까」 云云 한 것을 小人輩百餘名이 그

에게 百計로 謀陷해서 結局은 投獄이 되었는데 그때 老退한지 오래된 易東先生이 그에게 長長數千言을 陳述해서 放免되였던 것이다.

셋째는 哲學理論이니 그는 大槪로 朱子說을 主로 한 것이라 이에서는 그것까지 長遑하게 說明할 暇及이 없으니 省略하고서 네째는 史實記錄이니 世人이 알지 못하는 史實을 發見할 수가 있는 것이다. 麗末에 禑王과 昌王이 抑鬱하게도 廢位되고 弑害됨에 對해서 定昌君인 瑤(恭讓王)와 先生 孫인 伯請이 訴寃한 글이 이에 收錄되였으니 이것은 麗末의 正史를 意味하는 것이다.참으로 禑王과 昌王이 辛旽의 子孫이라고 함이 史實이라고 한다면 王氏國朝를 爲해서 生命걸고 抗拒했던 數많은 名人達士의 節義가 意味를 喪失하는 것이 아닐까. 그때의 節義를 지킨 名人達士는 모두가 最高의 知性人이였다. 그것이 어찌 理由없이 生命을 걸고 李朝의 抗拒를 했을까. 權力이 亂舞하는데서 眞理는 躁되었던 것이니 執權을 爲해서 事實을 變造한 것은 永遠한 歷史의 審判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本書에서 또 하나 重要한 史論이 있으니 箕子가 東來한 것은 武王이 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自身이 避해서 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封土라는 것은 自國의 領土에서만 하는 것이고 外國에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重要한 史實은 百結先生에 對한 것이니 「三國史記」 列傳 第 五에는 朴堤上의 事傳이 있고, 第 八로 百結先生의 事傳에는 「不知何許人」이라고 했는데 本書의 「出處」에는 新羅人 朴文良은 節死人 朴堤上의 子로서 世稱 百結先生이라고 하고 極口로 稱讚하면서 그의 上疏文까지 紹介한 것이다. 그런데 本書에는 麗末에 모든 名人의 名號가 다나오니 至今에 大姓의 名祖始祖들이 거의 다 들어 있는 것이다. 至今 이 땅에 있는 無量數의 書籍에서도 發見할 수 없는 眞理가 도리어 이 僞書에 있으니 書籍의 價値는 決코 作者의 眞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眞理의 有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本書를 다시 둘도 없는 珍貴한 書籍이라고 한 것이다.

<「國學資料」 제35호 1980년4월>

나의 學問的立場과 華海師全의 解題

柳　正　基

(前忠南大學校大學院教授)

一. 序　　言

나는 五十年來로 眞理를 探究하고 論文을 發表해 왔는데, 언제나 나의 學說을 연마함에 必要한 批判을 希求하였던 것이다. 내가 三十歲때 東京에서 綜合誌「日本評論」과 學術誌「理想」에 發表된 論文에는 몇몇 名士들의 贊辭를 받았으나 事變後 邱大 在職時「大邱日報」「每日新聞」「嶺南日報」등에 發表한 論說에는 三四人이 反駁을 해와서 數十次의 論爭을 했던 것이다. 먼저 贊辭에는 나의 主唱이 正當함을 認定한 것이나 後의 反駁에는 나의 缺點을 연마해줄만한 理論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反駁은 오직 西洋思潮의 勢力에만 追從한 俗論에 不過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一九五六年 一月에는 朝鮮日報에서 東洋文化를 否定하는 서울大學教授인 某博士의 論文을 보고 바로 反駁을 해서 數次의 論爭 (「韓國論爭史」 轉載되었음)을 하고 보니 當初에 發表한 그의 論文은 그 博士의 스승이니, 나의 학문을 연마할만한 他人의 石이 될 理는 萬無하였다. 그런데 또 朝鮮日步에 八次運載한 한글 專用판 對論에는 한글派가「연세춘추」에서 反駁했으니, 論爭은 안됐으나, 그이 幼稚하고도 低級하며 非理하고 不當한 그의 所言에 對해서 攻한 나의 論文은 原稿紙로 二千餘 「國字問題論集」으로 刊行한 것이다.

그의 所謂 한글專用이란 것은 奇妙하게도 西洋勢力에 便乘해서 愛國思想을 假裝하고 東洋文化를 破壞하는 것이다. 그러니 西洋思潮의 勢力이 衝天한 이때를 當해서 東洋思潮의 眞理를 主唱하는 나는 實로 孤獨無援하였지마는 至今에 人類世界의 思想潮流는 確實히 西洋에서 東洋으로 移動하고 있으니 나의 主唱하는 眞理는 歷史가 實證해 가고 있는 것이다. 將來의 思想은 오직 東洋의 眞理에 있는 것이 實證되었다면, 그러한 東洋思想의 眞理는 實로 나의 學說에 있

는 것임을 自信하는 바이니, 天賦한 나의 使命은 오직 東洋思想의 眞理를 규명함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學說에 조금이라도 瑕疵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마함에 必要한 批判을 希求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近者에 平山申氏大宗中으로부터 내가 쓴 「華海師全解題」에 對한 抗議가 들어 왔다. 元을 연마하는 他山의 石이라. 나는 조금도 그것을 拒否하지 안하고, 欣快히 聽從해서 나의 不當했음을 悔改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의 問題點은 學問的인 理論上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系譜上의 差誤點에 있는 것이니 나는 그에 責任을 痛感해서 이에 그것을 解明하려는 바이다.

二. 나의 學問적 立場

나의 學問은 科學이 아니라, 哲學이니 客觀的인 對象보다는 立體的인 理念에다 置重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哲學은 理論을 爲한 理論아니라, 오직 人生을 爲한 思想인 것이며 나의 思想은 權威를 爲한 主義가 아니라, 오직 公益을 爲한 道理인 것이다. 이것이 『中庸』에서 「道也者는 不可須臾離也니 可離면 非道也라」하고 「道不遠人이니 人之爲道 而遠人이면 不可以爲道라」고 한 東洋哲學의 特徵인 것이다. 東洋哲學에서 道란 것은 오직 人生社會의 平和幸福만을 爲한 眞理를 규명하는 것이라. 나의 哲學은 어디까지나 人道的이고 平和的이며 公益的이고 實用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人生社會의 公共福利에 無益한 空理空論을 나는 하지 않는 것이다.

東洋哲學에서 道란 것은 現在에 實行해가는 길이니 그것이 바로 將來의 目的에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理想에로 實行하는 것이 東洋哲學이라, 理想이 없는 現實主義나 現實을 떠난 理想主義는 道가 아닌 것이다.

科學者는 그의 理論을 自己가 實踐하지 않아도 工業者에 依해서 實用이 되는 것이나 哲學者는 그의 이론을 自己부터 實踐하지 않으면 그것을 實行할 者가 없는 것이다. 작게는 自身의 日常生活에서 크게는 社會의 平和幸福에 實用하는 데만이 哲學의 眞理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私를 통해서 아무대도 實用的 價値가 없는 空虛한 理論은 哲學的 진리가 아닌 것이다.

要컨대 道란 것은 오직 人生社會의 公共福利를 圖成하는 길이라. 으로 나

아가는 길은 도가 아닌 것이다. 「生存競爭으로 弱肉强食하는」 따위의 法則이 動物界의 自然的인 眞理임에는 틀림이 없지마는 人間界의 理想的인 道理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人生의 道理는 오직 「相互協助해서 抑强扶弱하는 聖人의 敎訓에만 反對되는 것임을 可히 알것이 아닌가. 그러니 主體的인 理念에는 關係없고 客觀的인 對象만을 說明하는 形而上學이나 認識論같은 것이 人生社會의 公共福利에 有益한 道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무릇 宇宙人生의 森羅萬象은 모두다 太極 陰陽의 原理로서 形成되었는데 學問이 한 太極에서 科學과 같은 哲學은 陰陽의 관계로 합성된 것이다. 이에 科學과 哲學의 相對性을 比較한다면 科學은

(對象) 自然的, 物質的, 事實的, 客觀的, 存在의 學.

(方法) 實驗的, 經驗的, 歸納的, 分析的, 分科의 學.

(性格) 外向的, 遠心的, 多元的, 具象的, 形而下學.

(目的) 功利的, 私利的, 理知的, 機械的, 生産者學이니

이와는 正反對로 哲學은

(對象) 人間的, 精神的, 價値的, 主體的, 當爲의 學.

(方法) 直觀的, 推理的, 演　的, 綜合的, 全體의 學.

나의 學問的 立場과 華海師全의 解題

(性格) 內向的, 求心的, 一遠的, , 抽象的, 形而上學.

(目的) 道德的, 公益的, 實踐적, 有機的, 指導者學이다.

그러니 哲學的으로 硏究해서는 科學이 發達될 수가 없는 것이고, 科學的으로 硏究해서는 哲學을 否定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古代東洋에는 科學이 유치하였고 現代西洋에는 哲學이 衰亡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에 나의 學問은 東洋哲學이니 當爲의 學인 同時에 全體의 學이고 形而上學인 同時에 指導者學이다. 따라서 人間的 精神的 價値的 主體的인 對象을 갖고 直觀的 推理的 演繹的 綜合的인 方法으로서 內向的 求心的 一元的 抽象的인 性格을 가진 道德的 公益的 實踐的 有機的인 目的을 實現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학문은 自然科學이 아님은 勿論이고 歷史科學도 아니라, 오직 人生社會의 公共福利만을 爲하는 實用哲學인 것이다. 그러므로 西洋의 科學的 方法으로 東洋의 哲學的古典을 分析해서 自體矛盾을 가져온 淸代의 考證學을 나

는 反對하는 것이다.

三. 華海師全의 解題

나의 學問的 立場은 科學的 考證보다는 哲學的 理念을 重視함에 있기 때문에 「華海師全」을 解題하는대도 오직 哲學的인 理念으로서 活用하려고 하였지 科學的인 考證을 하는데는 暇及하지 못하였다. 考證學者들은 「古文尙書」「孔子家語」를 爲書라고 했지마는, 尙書에 金言名句는 今文보다고 古文에 있고 孔子의 名言要語는 論語에 없는 것이 家語에는 있느니 그의 考證學은 도리어 哲學的 眞理를 破壞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書籍의 眞爲는 問題로 하지 않고 오직 그 內容의 善惡을 評價해서 그것을 人生社會의 公共福利에 活用하는 것이니 書籍의 內容을 紹介하는데 解題에 그의 眞爲까지 考證할 必要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不諝齊申賢」에 關한 記錄을 史籍에서 찾아 보아도 發見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李太祖의 一黨을 極甚한 惡名으로 稱號하였으니, 萬能한 그의 王權으로서 모든 書籍에서 抹殺한 것으로만 認定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元仁宗과 明太祖와는 그의 相距가 五十年이나 遠隔 하였는데 그의 두 天子가 享年 八十歲로 마친 그를 國師로 모셨다는 데는 異常하게 生覺했던 것이나, 그것을 쓴 學者도 반드시 良心과 知性은 가졌을 것이니 설마 터무니없는 虛僞를 記錄했을 理야 있을까고 믿고서 그냥 넘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韓國史大辭典」「韓國人名辭典」 더구나 「平山申氏大同譜」이란 歷史的人物을 硏究한 論文을 쓴다면 반드시 그의 系譜와 年代를 徹底하게 考證해야만 하지마는 이에는 「華海師全」이라는 文獻的內容만 紹介한 解題를 썼으니, 그의 系譜와 年代에 錯誤가 있는 것이 결코 나의 責任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不審으로 因해서 그 錯誤된 內容을 世上에 紹介한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平山申氏大宗中에서 參考材料로 提示한 「華海師全辨誣錄」과 「平山申氏古族譜」를 對照해 보니 年代와 系譜가 틀린 곳이 不少한 것이다. 「華海師全辯誣錄」은 翠洲 申彦穆公이 考證한 것인데 이에 그것을 紹介하는 바이다.

① 師全에는 先生이 辛酉年에 忠肅王이 元仁宗의 召命을 받고 가는데 陪行해서 仁宗의 師傅가 되어 「申子」로 尊稱을 받았다고 한데 對해서, 辨誣에는 戊戌

生인 申賢이 當年에 二十四歲였는데 年高한 中國天子가 어찌해 年少한 高麗靑年을 師事했을 때 理가 있을까. 史實에 元仁宗은 庚申正月에 作故했는데 그 다음해 辛酉十月에 가서 만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고 하였고.

② 師全에서, 明太祖가 詹同으로 하여금 幣帛을 갖고 보내와서 先生을 招聘해가 病 하니 天子가 親히 問病하고 醫藥을 보내 治療하고 復常해서 宮殿에 가니, 太祖가 文廟에서 孟子를 黜享하려는데 反對한 錢塘을 處刑하는 활을 쏘니 그것을 구했다고 한데 對해서, 辨誣에는 明太祖는 錢塘에 활을 쏴도 屈服하지 않은 그의 至誠에 感動해서 赦免하고 그 傷處까지 治療해준 事件은 壬子年十二月에 있었는데 그 다음해 癸丑年十二月에 가서 어찌 그것을 救援했단 말이냐고 하였으며,

③ 師全에는 元文宗辛未年부터 許謙이 朱公遷 歐陽玄등 三四十名을 거느리곤 種種 바다를 건너와서 學問을 討論했다는데 對해서 辨誣에는 辛未年에 許謙은 六十二歲고 申賢은 三十四歲며 庚寅年에 朱公遷이 그의 門徒에 歐陽玄등을 거느리고 왔다는데 庚子年에 朱公遷에 問喪을 갔다가 歐陽玄도 그해에 卒했는데 享年이 八十五라고 하였으니 그때 申賢은 五十三歲였다면 그 三人이 모두 三四十歲의 年長인데 그들이 무엇때문에 머나먼 길을 와서 배웠다는 말이냐고 하였고

④ 師全에는 肅宗七年 任午에 兵部尙書를 申弘尙이 在朝했다는데 對해서, 辨誣에는 壯節公의 親孫인 弘尙이 壯節公의 沒後 一百七十六年이나 지난 麗태조의 後에 第十世王인 宗때까지 在職했다는 것은 可當치도 않는 것이다고 하고 ⑤ 師全에는 壯節公 以後 判書公 以前의 中間에 文元公·文正公·敬德公·文亨公·貞敏公·文安公등 號가 六位나 있으나 이것은 舊譜에 하나도 없는 것이다고 해서, 그이 虛僞性과 矛盾性을 指摘해서 攻 한 것이 小冊子에 總十四條나 되니 이에 그것을 다 列擧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中에 가장 重要한 五條만을 選拔해서 紹介하였다.

나는 當初에 「元仁宗의 師傳」라고 한데 對해서는 年代上으로 不當한듯한 感이 있었지마는 다시 더 考證은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私心없이 解題를 썼던 것이다. 적어도 글을 쓰는 學者라면 반드시 過去 한 事實에 虛僞함이 없는 良心과 將來 할 事勢를 豫見할 수 있는 知性은 있을 것이니, 설마 全然 根據없는 것을 造作했을 理야 있겠는가고나는 生覺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申彦稷公의 考證한「辨誣錄」을 보고 그의 虛僞性과 矛盾性이 너무도 많은데 놀랬다. 그러면 本書에 나오는 麗末의 人物들도 다 考證해 본다면 事實에 모두 틀리지 않을까. 나는 그를 盲信했음이 부끄럽기도 하다.

四. 結　　語

「華海師全」은 總二十一篇으로 된 것이니, 이것이 모두 一人의 所著는 아닐 것이다. 이 中에는 事實에 符合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도 無限한 虛僞가 있으니, 大 그의 著書는 抑何心事이었던가. 卽時로 사라지는 말은 비록 虛僞로 해도 通할 때가 있지마는 永遠히 傳해가는 글은 결코 虛僞로서는 通할수가 없는 것이다. 무릇 學者는 오직 良心과 理性에 生命이 있는 것이고, 무릇 書籍은 반드시 良心과 異性의 所産이기 때문에, 學者는 神聖한 것이고, 書籍은 尊貴한 것이다. 그런데 비록 良心이 없이 虛僞를 만든다고 해도 왜 理性도 없이 事實에 틀리게 하였는가. 그래서 著者는 良心도 理性도 없었다면 本書는 一顧 의 價値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解題의 結語로서「本書의 價値性」을 말하였으니, 그것은 ① 救世思想 ② 犧性精神 ③ 哲學理論 ④ 史實記錄등이었다. 그런데 至今에는「華海師全」의 虛僞性이 들어났으니, 그의 價値性은 따라서 不定이 되는가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價値性은 이미 虛僞性을 前提로 했기 때문이다. 비록 申賢이란 人物에는 虛僞性이 있다고 해도, 申賢의 思想에는 價値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本書의 價値性은 申賢의 人物에 있는 것이 아니라, 申賢의 思想에 있는 것이다. 이에「華海師全」을 하나의 小說, 하나의 神話로 본다면 申賢은 그의 主人公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가장 위대한 華夏의 世界에서 가장 崇高한 天子의 尊位에 있는 帝王이 무엇 때문에 東夷의 國에 寒微한 士를 스승으로 모시고 弟子가 될 理가 있을까. 俗世의 人間으로서는 到底히 想像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王道의 眞理에서는 그것도 可能한 것이다. 周나라 文王은 渭水의 濱에서 呂尙을 스승으로 모셨고, 殷나라 高宗은 傅岩의 野에서 막일을 하는 傅說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다. 그러나 俗世에 伯道의 帝王들은 權力으로만 自尊하니, 知道하는 賢士는 꿈에나마 그를 說服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帝王을 說服하려는 申賢의 꿈이「華海師全」으

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말한 本書의 價値性에 變함은 없는 것이다.

要컨대, 人間은 언제나 不幸한 現實에서 幸福한 理想만을 追求하는 것이다. 그런데 現實世界에는 언제나 權力이 亂舞하고 理想世界에는 반드시 眞理만 存在한 것이다. 그런데 現實의 世界만 記錄하는 것은 歷史科學인 것이니 또한 理想의 世界를 記述하는 人生哲學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道의 盛代에는 現實的인 事件을 記錄하는 左史와 理想的 哲言을 記錄하는 右史가 있었던 것이다. 現實的인 事件은 生存競爭으로 弱肉强食하는 것이나 理想的 哲言을 記錄하는 右史가 있었던 것이나 現實的인 哲言은 相互協力해서 抑强扶弱하는 것이니 動物的인 法則보다는 人間的인 原則이 더욱 重要한 것이라면 本書에 眞實한 理念은 能히 事實의 虛僞를 補償할 수도 있을 것이다.

<『國學資料』 제36호, 1984년 7월 10일>

耘谷元天錫

全石萬
(향토사학자)

(1) 耘谷의 生涯

운곡 원천석은 고구려 佐命功臣 金紫光祿大夫 門下侍中 平章事를 역임한 원주 元氏의 始祖 元鏡의 19세손이며, 고려 충숙왕 때에 宗簿寺監을 지낸 允迪의 둘째 아들로 1330년(忠肅王 17) 7월 8일에 태어났다. 자는 子正이요 호는 운곡이며, 簡齋 申用義의 문인으로 九齋 출신이고 原州 元氏의 中始祖이다.(原州元氏宗史 第1編 源流分派圖)

高祖인 寶齡과 曾祖父인 時俊은 倉正을 지냈으며, 祖父 悅은 精勇別將을 지냈다. 따라서 그 祖父代까지는 가문의 활동영역이 원주지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의 부친 允迪에 이르러서 비로소 從三品職인 宗簿寺監으로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운곡의 형 天常과 아우 天祐도 모두 松京에서 출생하여서 각각 進士, 縣令을 지낸것으로 보인다.

운곡은 3형제중 둘째로 태어나 어릴적부터 秀才로 이름이 났었는데 점차 성장하면서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世間에 알려졌다. 그러나 고려 말엽의 정치의 어지러움을 보고 마침내 原州 雉岳山에 은거하여 才智와 학문을 감추고 몸소 山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며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이때에 邑宰가 公이 어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운곡은 사양하고 가지 아니하였더니 邑宰가 역겨운 마음으로 공의 이름을 軍籍에 올렸는데도 운곡은 개의치 아니하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단지 세월의 어지러움을 탄식하였다. 운곡의 慈堂께서는 항상 집이 가난하여 세금을 직물로 바치기가 어려워서 운곡에게 진사가 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운곡은 부득이 開京으로 올라가 九齋籍을 갖고 國子監試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서 진사가 되었다. 이때가 운곡의 나이 26세

되던 해로 공민왕 4년(1355년)이다.

운곡이 그것을 계기로 官路에 진출하려고 하였다면 누구 못지 않은 출세의 길을 갈 수도 있었겠으나 운곡은 이 길을 단념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 왔다. 물론 운곡은 官界에 진출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으나 복잡한 시대적 환경이 그로 하여금 官界를 단념하고 草野에 돌아와서 은거케 하였고 조선왕조 건국후에는 不事二君의 충절로 일관하였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국왕이 된 태종은 일찌기 운곡에게 글을 배운 일이 있었으므로 그가 왕이 된 후에 운곡을 불러 벼슬을 주려고 하였으나 그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태종은 원주 치악산까지 찾아 왔으나 운곡은 태종이 찾아 오는 것을 미리 알고는 노상의 강변에서 老嫗가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탁하기를 이 뒤에 사람이 찾아 오거든 나는 왼쪽의 弁岩으로 가겠으니 그대는 내가 바른쪽의 치악산중으로 가더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과연 잠시후에 왕의 행렬이 당도하여 운곡의 행방을 묻자 老구는 놀라면서 운곡에 대한 신의를 지켜 그가 부탁한대로 말하였으니 결국 임금에 대해 거짓을 진술한 죄과를 범한 것이었다. 老嫗는 임금을 속인 죄를 생각하고 곧 깊은 강물에 투신하여 죽음으로 사죄하였으니 바로 그곳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嫗淵, 또는 老嫗沼라 이름지어 충절을 상징하는 곳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해방시까지만 해도 그 옆에는 祭幕으로 사용하는 자그마한 草屋이 있어 뜻있는 동리의 유지들이 그 충성심을 갸륵하게 여겨 제례를 지내고 있었으나 오늘에는 그것마저 헐어져서 빈터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老嫗가 향방을 잘못 가리킨 곳이라고 하여 橫指岩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태종은 운곡의 뜻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한 바위위에 앉아 쉬었는데 그곳이 바로 太宗臺라고 하는 곳이다. 이곳은 위를 바라보면 험준한 치악의 높은 산줄기가 펼쳐있고 아래로 내려다 보면 물길이 嫗淵을 에워싸고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후에 樓閣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駐蹕臺」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고, 아울러 태종대에 대한 사적이 적혀있는 현판이 걸려 있다. 또 태종이 그곳에서 3일간 머물렀는데 끝내 운곡을 만나지 못하고 치악산을 넘어 還行할 때에 뒤를 돌아보며 절을 하였다는 拜向山이 있다.

운곡은 태종을 피하여 치악산 고지(1,288m)의 비로봉 동편에 자리잡고 있는 弁岩으로 향하였다. 변암은 형상이 마치 고깔을 엎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의 처마밑 같기도 한데 수 명이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다. 운곡은 이곳의 굴에서 기거하였는데 그곳에는 지금은 마멸되어 거의 알아 볼 수 없으나 「암반에 우물을 파서 갈증을 면하시고 산채를 걷어 시장기를 달랬다(開穿石井常澆渴收拾山蔬具慰貧)」라는 글이 새겨져 내려오고 있다.

그 후 태종이 上王이 되어 특명으로 운곡을 부르니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흰옷을 입고 入闕拜謁하였는데 이때에 태종은 어린 손자들을 불러 운곡에게 보이면서 묻기를 "내 子孫들이 어떠하오" 하였더니 운곡이 首陽(후에 世祖)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는 祖父(太宗)를 몹시 닮았으니 모름지기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海東樂府) 이는 태종의 不義로 왕위에 오른 태종에 대한 운곡의 有感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뜻에서 祖父인 태종을 많이 닮은 首陽도 不義를 할 것이라고 豫言警戒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운곡은 才學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高麗朝에서는 일개 進士에 불과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仕宦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기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말의 충절로 三隱을 꼽고 있으나 운곡의 高節은 三隱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圃隱과 牧隱, 冶隱의 충절도 높이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포은과 목은은 고려조의 大官을 지냈으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冶隱 吉再도 門下省의 注書로 칠품직을 지냈으니 不事二君의 처신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운곡은 진사시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지만 고려조에서 벼슬을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선왕조 개창이후에 신왕조에 出仕하여 부귀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흠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운곡은 出仕하기는 커녕 태종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고, 직접 치악산 그의 은거지에 찾아온 태종을 피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淸節로 伯夷叔齊를 꼽는데 그들이 以臣伐君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자 首陽山에 들어가 숨어살다가 餓死하였으니 당연히 그 절개는 추앙하여야 하겠지만 엄연히 그들은 孤竹君의 왕자로서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측면에서는 當然之事로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운곡의 경우는 일개 布衣寒士로서 도무지 고려조에 의리를 다하여야 마땅하다는 처지도 아니었으므로 그런 면에서는 운곡의 충절은 백이숙제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운곡은 자기의 결백한 지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의감을 발휘하였다. 고려말기에 이성계를 비롯한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왕을 옹립하고 우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실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바로 우왕•창왕을 요승 辛旽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 권력에 아부하는 고려조의 관리는 물론이고 오랜동안 국록을 먹어온 史官들도 曲筆阿世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물론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당시의 상황하에서 공공연히 그러한 사실을 일일이 비판하고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不義의 현세를 탄식하며 누구도 적기를 꺼리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역사의 진실을 전한 것은 운곡의 정의감이 아니면 불가하였을 것이다.

운곡은 그 절의나 정의감으로서만 고매한 인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순후하고 인자하여 일찌기 36세 되던 해에 부인을 사별하였는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續絃을 하지 않았다. 후취가 들어오면 가정의 평화에 금이 갈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二十四孝의 한사람으로 유명한 閔子騫이 후모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는데 그에 분개한 아버지가 후모를 축출까지 하려고 했던 故事를 운곡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희생한 고귀한 부성애와 순수한 인간미는 다른데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고도의 용광로로도 녹일 수 없었던 그의 기백에 또한 이렇듯 절실한 인간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學行의 일치, 완전무결한 인간상을 우리는 운곡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金鍾武, 「耘谷先生 -그의 人物과 文學-」 參照, 『耘谷元天錫詩史』, 原州元氏譜所, 1984 參照)

또한 운곡은 金若時, 李養中, 范世東, 李千善, 金三近 등 삼십여인과 더불어 해마다 春秋로 치악산 마루의 바위에 祭壇을 만들고 列聖祖와 우왕, 창왕, 공양왕 등과 道德으로 추앙되거나 절의를 지킨 선비들을 배향하여 제사하였다.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杜門洞 72賢들로서 새로 개창된 조선왕조

에서 臣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절개를 지키며 무너져 가는 天地의 綱常을 바로 세우고 떳떳한 人倫을 밝히기로 뜻을 같이 한 선비들이었다. 이 雉岳壇에서의 春秋祭享은 약 30여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운곡이 死去한 후에는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운곡의 歿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조선 태종이 上王이 되어 재차 특명을 받고 가서 만나 보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90여세를 壽한 것으로 보인다.

(2) 耘谷의 學問과 思想

운곡은 당대의 신진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 도입된 성리학을 수용한 유학자로서 「程朱와 말고삐를 나란히 한다」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대유학자였다. 그러나 운곡은 유학자일 뿐만 아니라 불교학과 도학에도 정통한 폭넓은 학자였다. 그는 당시 李穡, 鄭道傳, 李崇仁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이색과는 나이가 불과 두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같은 연배로서 친밀한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고, 정도전과는 동년의 관계로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왕래하는 등 친교가 있었다. 이숭인 또한 운곡과는 동년으로 친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당대에 유학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후에 정도전과 이색은 정치적 입장에서 그 의견을 달리하여 정도전은 조선왕조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급진개혁파의 선봉으로서 역성혁명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색은 고려의 지배체제를 전제로 하는 守成의 논리를 펼치면서 고려조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

운곡은 고려시대의 유학자들이 대부분 그러하였던 것처럼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승려들과의 교분도 두터워서 道境大禪師•白雲淵長老•曺溪參學 允珠禪師 등 여러 禪師 들과 시와 서신을 주고 받았다.

그가 스스로 평하여 "한편으로는 유교의 六門에 얽매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의 三界를 왕래하여 유교와 불교에 대해 얕은 지식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

지만 유학에 대한 것은 물론 佛學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그의 『耘谷詩史』에 수록된 詩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불교와 관계된 것이라는 점과 그의 은거생활이 居士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운곡의 불교관은 당대의 다른 신진사대부들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三敎一理라는 논리에서 잘 나타난다. 즉 운곡이 우왕 13년(1387)에 지은 시를 보면 "유교의 가르침은 窮理盡性이요, 불교의 가르침은 明心見性이요, 도교의 가르침은 修眞鍊性"이라고 하여 "齊家治身 致君澤民은 유교의 餘事요, 嚼精養神 飛仙上昇은 도교의 祖跡이요, 越死超生 自利利人은 불교의 筌蹄"라고 하고, 결국 그 極處에 이르면 같지 않은 것이 없다는 如如居士의 三敎一理論을 인용하고는 儒·佛·道 모두 治性하라는 가르침인데 다만 盡之, 見之, 鍊之하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그 귀일하는 곳은 동일한 하나의 性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운곡의 주장은 당대 신진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배불론적인 태도와는 명백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柳桂姬, 「元天錫研究」, 『수촌 박영석교수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參照)

또한 운곡은 문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을 그가 남긴 1144首의 詩文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운곡의 이 시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많은 사람들에게 膾炙되고 있는 바이지만 운곡의 고려조에 대한 悲嘆에 찬 마음이 실려 있는 대표적인 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耘谷詩史』는 운곡이 22세이던 충정왕 3년(1351)부터 65세되는 태조 3년(1394)까지 장장 44년간 지은 시 1,144수를 연대순으로 엮어 1603년에 江原觀察使 朴東亮이 序文을 써서 3권 2책으로 만든 것이다. 비록 이 詩史에는 고려말 조선초의 많은 史實과 관련된 시가 실려 있지만 운곡의 행적으로 볼 때, 이성계의

역성혁명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趙英珪의 鄭圃隱 椎殺, 李芳遠이 형제들을 살륙하고 왕위에 오른 것과 친분이 있던 鄭道傳의 득세와 慘死 등 여말선초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과 처참한 장면에 대해 운곡이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즉 다시 말해서 『耘谷詩史』에 실려 있는 시는 운곡이 지은 시의 전부가 아니라 상당부분은 산실되었을 것이고, 특히 후손들이 우곡 저술의 野史를 소각할 때 詩 가운데에서도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타격을 줄만한 것은 가려서 함께 소각해 버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耘谷詩史』의 권두에 朴東亮(강원도 관찰사)이 서문에서 우왕 부자의 伸寃에 관한 것만을 대서 특필하고, 鄭莊敬이 文集序에서 伯夷의 노래가 周邦에서 忌諱되지 않았은 즉 선생의 시가 조선에서 기휘될 것이 무엇이냐 하였고, 丁範祖(형조판서)의 서문에 선생의 시가 "완연히 麥秀의 採薇의 유음이 있다"하고, 또 원씨의 跋文에 盧水鼓琴과 西山採薇를 말하였고, 또 務光의 곡과 백이의 노래가 殷周대에 忌諱를 당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노라」고 한 것은 모두 의미가 있어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박동량이 운곡의 '野史' 중에 설사 조선왕조에 忌諱될 만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론하거나 아는체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정장경과 정범조의 서문에서 이르는 것은 어쩌면 이미 없앨 것은 없어진 상태에서 편집한 것이니 이 정도야 伯夷의 採薇歌나 무광·기자의 麥秀之嘆의 예도 있으니 허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설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씨의 발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만곡의 구슬알이 어찌 흩어져 없어진 것이 없겠으며 石室에 보관하였으나 종이는 떨어지고 책벌레가 먹은 것이 때로 펴 볼적마다 눈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耘谷詩史』에 실려있는 것은 운곡 작품의 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운곡은 作詩에 있어서 唐의 杜甫의 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운곡이 타인의 시문집을 읽은 감상을 적은 것으로 陶淵明의 歸去來辭와 柳宗元文集외에는 讀杜集이 있을 뿐인데 특별히 두보에 대하여 「재조는 비할데 없고 성화는 아직도 파다하다」고 극찬하고, 이어 자신이 엉터리로 시 짓는 꼴이 우습다고 한 것이며, 「次金敎授口號詩」에 「일생동안 의미조차 분명치 않은 시를 짓노라 너무나

도 수척했다」고 한 것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근심하는 시를 적은 것이나 편년체로 적어 내려간 것, 또 운율에 무척이나 노력한 흔적이라든가 시를 짓는데 온 정력을 다 기울인 점도 두보와 서로 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두보외에도 도연명의 초연한 태도와 그의 문장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운곡의 시는 우국충정 뿐만 아니라 사물을 묘사하는데도 뛰어난 수법을 보였으니 가히 려말선초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가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후에는 政局에 관한 시는 겨우 「朝鮮」이라는 국호에 유래가 있다는 것과 태조 3년에 가서 「新國」이라는 시가 있을 뿐 거의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말년에 그의 작품이 거의 없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耘谷은 일찌기 당시의 정세로 보아 후대에 알려지지 않을 고려말기의 여러 사실을 直書한 野史 6卷(혹은 臧書 7卷이라 하기도 함)을 저술하여 비장하였다고 한다. 운곡은 그 책을 櫃속에 넣고 자물쇠로 꼭 봉해 두었다가 임종시에 유언하기를 "家廟에 감추어 두되 조심해서 지켜라" 하고 당부하고 상자 겉에다가 「내 자손들이 만일 나와 같지 않으면 열어보지 말라」고 글을 써서 붙였다.(어떤 기록에는 聖人이 아니면 열어 보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아들과 손자대까지는 열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후손들이 열어 보니 조선왕조의 忌諱에 저촉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은 우리 종족을 멸망시킬 물건" 이라고 하여 그 史書를 불살라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 사서에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는 전하지 않는 려말선초의 혼란과 격동기에 벌어진 많은 사연과 史實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나 제 세상을 만나지 못하여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비록 그 사서가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서가 운곡에 의하여 저술되었다는 사실은 당대의 양식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운곡의 학문적 태도와 인품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운곡은 세상의 名利를 사양하고 隱遁의 길을 택하였지만 미수 허목이 그의 詩史를 보고는 "군자는 숨어 살아도 세상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선생은 비록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지만 세상을 잊은 분이 아니었다. 변함없이

道를 지켜 그 몸을 깨끗이 하였다"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운곡은 늘 세상이 바로 다스려져서 국가가 융성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융성과 왕권의 안정은 임금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로지 현명한 신하들의 忠良한 보필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운곡은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德行으로서 "義•智•勇•忠"을 강조하였으며, 이외에도 "淸廉" "正直" "公平" "謹" "勤"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운곡은 民心을 수습하고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政事를 펴 나가야 나라의 기틀이 견고해지고 盛業이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항상 赤子처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낄것을 강조하였다.

(3) 耘谷의 現實認識

고려왕조와 元과의 오랜 전쟁은 백성들의 유망, 농토의 황폐화 및 典籍 소실 등을 가져왔고, 그 이후의 계속된 정치적, 사회•경제적 혼란은 권세가들에게 토지겸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제공되었다. 당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附元輩들을 중심으로 한 權門勢族들로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私的인 大土地兼併을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토지겸병에 따른 農莊의 확대, 인구집중에 의한 토지지배질서의 문란과 사회적 혼란은 경제개혁에서 최대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적 대토지겸병의 진행에 따른 농장제의 성행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혼란은 고려왕조의 몰락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원천석은 공민왕 3년에 楊口郡에 이르러서는, 권문세족들이 백성의 田土를 占奪하여 人民을 소란케 하고 조세는 과중하여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이라도 空閑地가 없고, 또 겨울이 되면 조세를 징수하는 무리들이 들이닥쳐 능히 조세를 내지 못하면 몸을 묶어 매달아 놓고는 笞刑을 가해 肌骨이 벗겨지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결국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流離하는 실정을 직접 목도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어 대토지겸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生業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을 탄식했다.

破屋에는 새들만 지저귀고　　백성은 도망가고 吏 역시 없네
매년 폐단만 더하니　　어느날에 즐거움을 누릴꼬
논밭은 權豪들에게 귀속되고 말았는데　　문에는 포악한 이들이 연달으네
자식을 버림은 특히 애석하나　　辛苦로 인한 것이니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이러한 인식은 원천석 개인만의 우려는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공민왕 5년에 이루어지는 개혁도 부원배를 중심으로 하는 권문세족들의 반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백성들은 여전히 대토지겸병에 따른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공민왕대에 백성의 삶은 권문세족의 횡포에 의해서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통치력이 무력해진 데서 파생된 홍건적의 잦은 약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紅巾賊의 세력은 매우 강성하여서 공민왕 10년에는 고려의 수도인 開城에 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홍건적의 침입은 공민왕 즉위 이래 적극 추진되어 오던 개혁정치를 크게 퇴색케 하는 등 고려의 대내외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데에서 원천석은 공민왕 3년에 홍건적의 세력이 강성해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홍건적의 세력이 강성해지면 고려에 대한 약탈•침략이 일어날 것과 그에 따른 民生의 파탄 및 공민왕대에 추진되는 개혁정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예기한 것이다.

공민왕 14년부터는 재차 개혁이 시도되는데, 이 시기에 있은 원천석의 求官意慾은 원천석의 생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그의 求官詩 중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비추어 원천석 자신도 정치일선에 나가 자신의 포부를 펼치고자 했던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신진사대부들은 대체로 공민왕 즉위를 전후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고 그후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出仕한 신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의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공민왕대에 이루어지는 개혁정치도 실패로 돌아가고 공민왕이 암살당한 후, 고려의 정국은 우왕의 즉위에 공을 세운 李仁任•林堅味•廉興邦 일파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으로 대토지겸병을 자행하였는데, 『高麗史』에서는 이들의 횡포에 대해 물푸레 채찍을 휘두르며 남의 땅을 마구 빼앗아 당시 이것을 가르켜 '水精木公文'이라고 까지 일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곧 우왕대의 사회경제적 모순은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賦額을 충당할 걱정을 하고 있을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하였다. 즉 그 당시 백성들은 조세와 부액에 시달리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원천석은 이인임 일파에 의해 자행되는 田民兼倂을 비난하는 시를 읊고는, 이러한 토지 지배질서의 붕괴가 고려왕조의 멸망을 초래하리라고 예견하였다. 곧 자리(席) 말아가듯 토지 겸병을 일삼고, 주머니속을 훑듯 良人을 奴婢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는, 이러한 이인임 일파에 의해 자행되는 횡포를 '닭이 벌레잡듯 한다'고 비유하였다. 그리고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고려 멸망을 예견하고 있다.

산천을 奮占함은 자리 말아가듯 하고　　노비를 窮搜함은 주머니속을 훑듯 하네
닭이 벌레잡듯 하는 것은 언제나 없어질까　　하늘가를 바라보니 이미 석양일세.

이때는 우왕 13년(1387)으로 아직 고려왕조의 국운이 쇠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았으며, 고려의 멸망이 확실해지는 때는 우왕 14년 위화도 회군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때 원천석은 그의 학문적 안목에 의해서 고려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왕 14년 李仁任 일파의 제거 이후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崔瑩을 대표로 하는(권문세족을 포함한) 온건개선파와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급진개혁파였다. 온건개선파는 급진개혁파보다는 대체로 정치적 연륜이 오래고 따라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의 지배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현실대응 논리를 펼쳤다. 이와 달리 급진개

혁파는 고려말기에 빚어진 사회 경제적모순을 武臣亂 이후의 제도문란으로만 보지 않았다. 즉, 이들은 고려왕조의 지배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체제를 수립하자는 易姓革命의 논리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원천석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가 대토지사유에 반대의 입장을 취했음은 앞의 글들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당시 급진개혁파에 의해 주장되고 있던 사전•농장의 전면적인 혁파안에 대해 찬성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급진개혁파의 견해에 동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시에서 고려왕조의 안정을 희구하고 고려왕조의 국가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 즉 그는 왕조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려왕실을 인정하고 왕실의 온존을 통해 국가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온건개선파와 그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 멸망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우왕 14년에 일어난 위화도 회군이다. 곧 고려의 왕실 및 지배세력이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온 元의 쇠퇴와 明의 새로운 등장이라는 대륙의 정세변화와 그에 따라 利害와 政見을 달리하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두 정치세력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 할 수 있다. 우왕 14년 이인임 등의 일당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우고 정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성계와 최영은 그 정치적 입지•성향 등의 차이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崔瑩은 권문세족 혹은 온건개선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이성계는 급진개혁파들과 힘을 합친 新興武人勢力이었다. 이때에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가하여 고려를 자극하던 명나라가 다시 鐵嶺 以北의 땅을 회수하겠다는 鐵嶺衛 설치요구를 들고 나왔다.

원천석은 일찌기 崔瑩에 대해서 그의 명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지극히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는 崔瑩이 비록 권문세족가문 출신으로서 이인임 정권에서 최고 실력자중 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청렴강직하고 오직 나라에 충성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고려왕조의 국가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토지겸병을 자행하던 이인임 일파를 제거한 데에서 원천석은 崔瑩을 나라의 주춧돌로서 사직을 안정케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긴것 같다.

崔瑩과 李成桂가 우왕 14년 명의 철령위 설치요구를 놓고 의견대립을 벌이다가 마침내 위화도에 까지 진군한 이성계가 회군을 단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원천석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어 崔瑩의 遼東征伐論과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한 그의 입장 및 최영에 대한 그의 인식태도를 보여준다.

용감한 군대 십여만이　　압록강을 건너려 하여
바야흐로 요해의 길에 있는데　　씩씩한 기운이 깃발 위에 떠 있네.
武威를 中原에 떨치면　　누가 감히 畏伏치 않으리오.
응당 개선하는 날　　四夷가 모두 附屬하리라.
임금의 수명은 무강하여　　周武王의 발꿈치를 이어 밟으리.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더불어 태평곡을 부르리라.
어찌 강은 건너지 않고　　분연히 말고삐를 돌리는가.
가련한 都統公은　　홀로 원함을 사고 있네.
주춧돌이 이미 위태로우니　　장차 큰 집을 어찌 지탱할까.

위의 시에서 원천석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비난하고 崔瑩의 요동정벌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천석의 태도는 당시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들 특히 온건개선파들과도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鄭夢周•李穡 등의 요동정벌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당대 지식인들의 역사관은 性理學的 歷史觀인 正統思想과 華夷思想을 받아 들이고 있었으며, 이에 異民族인 元의 중국지배는 정통이 될 수 없으며 漢民族인 明의 국가건국은 곧 당연한 역사적 순리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對明征伐인 요동정벌은 곧 정통사상이나 화이사상에 그릇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고려의 운명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정벌은 곧 고려의 멸망을 초래하리라는 데까지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원천석이 요동정벌 계획에 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대 지식인들의 정통사상이나 화이사상과는 달리, 원천석이 요동정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마도 그의 애국적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崔瑩과 마찬가지로 원천석은 明이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의 야욕을 민족의 자존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으며, 이에 崔瑩의 요동정

벌 계획에 찬성의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위화도 회군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고려왕조의 몰락을 예견하였다. 즉 자신이 나라의 주춧돌로 여겼던 崔瑩이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빼앗기고는 유배를 당하자, "주춧돌이 위태로우니 장차 큰 집을 어떻게 지탱할까"하며 그가 없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천석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혁파들의 역성혁명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崔瑩을 개인의 인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서라기 보다는 고려왕실을 지탱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당시 최영과 이성계로 대표되는 세력간의 다툼에서 최영의 입장에 찬성하고 그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최영은 바로 권문세족 및 온건개선파들과 그 입장을 같이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고려왕조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려왕실의 온존하에 국가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영의 몰락으로서 이들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에게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주도권의 상실은 곧 온건개선파들이 추구하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원천석이 역성혁명을 예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뒤이어 이성계를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에 의해서 추진된 일련의 움직임 즉, 우왕의 廢位 및 창왕의 즉위, 최영의 죽음, 우왕과 창왕의 廢出 및 공양왕의 즉위, 우왕과 창왕에 대한 賜死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反高麗王室的 행위를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울분을 느끼고 비통해 하고 있다. 이에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즉위시킨데 대해서는 어찌 신하가 국왕을 存廢시킬 수 있는가 반문하면서 언젠가는 명명한 거울 앞에 그 罪過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후 최영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는 이성계를 '얼굴이 두껍다'고 극력 비난하고 당시 부세축리하여 이성계를 추종하던 무리들도 더불어 비난하고 있다. 그는 고려왕조에 절의를 맹세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당시 시류에 편승하여 날뛰던 무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성계가 다시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창왕을 廢出시키고 왕으로는 무능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듣던 定昌君 瑤를 공양왕으로 즉위시켜 고려왕실의 힘을 무능력하게 만들자, 원천석은 이성계를 비롯한 역성혁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내세운 명분은 그릇되며, 만일

우왕과 창왕이 王氏의 자손이 아닌 신돈의 자손이라면 왜 일찍 假•眞을 분간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힐문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고 있다.

前王 父子의 名分이 갈라지니　　만리의 東西에 하늘의 낭떠러지
한몸을 庶人으로 삼았다 해도　　正名은 千古에 바뀌지 않으리
태조대왕의 맹세가 하늘에 응하여　　餘澤에 흘러 정해진지 수백년
假眞의 분간이 어찌 늦었겠는가　　저 하늘의 거울은 밝게 비추이네.

그는 이성계 일파가 내세운 명분을 과감히 그릇되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 당시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으며, 반이성계파 특히 당대의 巨儒인 李穡조차 그 시비를 분명히 하지 않았던 문제였다. 그러나 원천석은 푸른 하늘이 있어 언젠가는 그 枉正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성계파에 의해 자행된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어서 원천석은 이성계파의 배척을 받게 되는것 같다. 즉, 李穡•李崇仁 등 반이성계파의 제거를 단행하여 이들을 유배시키면서 정계에 참여하지 않은 원천석 또한 반이성계파로 주목, 정계처분을 당한 후 공양왕 2년(1390)에 赦免令을 받고 있다. 이는 비록 원천석이 중앙의 정치와 직접적인 연계는 안가졌지만, 그의 태도가 이성계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이에 이성계파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듯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가 확고한 원천석이었지만, 우왕•창왕의 賜死 소식을 듣고 지은 시에서 그의 다른 모습이 보인다. 곧 그는 우왕과 창왕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겨 슬퍼하고, 이성계 일파에 대해서는 임금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때는 오히려 태평하며 新法으로 淸平케 하면 道는 더욱 높으리라"고 하여 그 상황을 불가피한 현실로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는 원천석 또한 당대의 역사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인식인 듯하다. 즉, 당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흐름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일어나는 고려왕조의 몰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건국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二元的 갈등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로서의 갈등이며 또 한편으로는 역성혁명

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서의 갈등이었다. 원천석 또한 이러한 갈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 건국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 급진개혁파들은 정계의 중추세력으로서 조선왕조의 기초가 되는 경제·법률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갔다. 이때에 이르러 온건개선파에 속했던 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가. 이들 은 앞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고려왕조에 대한 忠節이라는 면에서의 갈등과 한편으로는 조선왕조의 개국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 면에서의 이원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면은 冶隱 吉再에게서도 나타나며 야은 길재의 행적은 원천석의 행적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길재는 고려말 유학계의 巨匠으로서 고려가 망한 후, 이에 대한 절의를 지켜 조선에서는 仕宦하지 않음으로써 절의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또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일대 변혁기를 거치면서 원천석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왕조의 건국을 천명의식에 입각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조선왕조 성립과정에서 보이는 그의 태도, 晩年에 그의 아들에게 조선 정계로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조선왕조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그 자신은 곧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義理와 名分의 실천으로서 절의를 지키고 있지만, 조선왕조에 仕宦한 자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新王朝에 대해 忠과 節義로서 섬길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길재의 이러한 행적으로 보아 길재의 인식은 길재 혼자만이 아니라 당대 모든 지식인들에게 수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고려의 멸망에 즈음하여 적극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점, 조선왕조 건국에 적극적인 협조 내지 간접적 지원을 보낸 점, 고려왕조 멸망 후 절의를 지켜 조선정계에 진출하지 않거나 은둔해 버린 점 등은 모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천석 또한 고려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箕子의 遺風이 다시 펼쳐질 것이라고 하여 조선건국의 이념을 칭송하고 있는 이원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또한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고수하여 조선왕조에 仕宦하지 않았지만 조선왕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후 태조 3년(1394)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하여 海東의 天地

에 鴻基가 열렸으며 綱常을 정돈한다고 하고, 王氏의 뒤를 이어 太祖가 왕위에 오르니 三韓의 國土는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일컬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원천석이 자신이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易姓革命조차도 인정한 듯하다.

천명과 인심은 덕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새 왕조의 공은 하루아침 사이에 있었네.

위의 시에서 살필 수 있듯이 원천석은 天命과 人心은 德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므로 혁명의 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天命과 人心(民心)의 귀결로서 역성혁명(조선왕조의 건국)을 받아 들이고 있다. 이는 君主는 천명의 대행자이지만 天命·人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군주가 인정을 베풀지 않아 민심을 잃게 되면 천명·천심이 바뀌고 천명·천심이 바뀌면 군주도 바뀔수 있다고 하는 역성혁명의 이론과 그 틀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석은 이성계 일파가 역성혁명을 도모하면서 우왕과 창왕·최영·이색·정몽주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대해서는 그 명분의 그릇됨을 들어 극력 비난하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고려왕조의 몰락을 비통해 하였지만 조선왕조 건국이 확실시 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자 그 상황에 순응하고 더 나아가 역성혁명의 이론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석은 고려말 조선초의 역성혁명기를 산 지식인로서 현실에 직면하여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 만은 없었던 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주체성만은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와 충성은 끝까지 지키자 하였으며, 이에 '臣不事二君'이라 하여 조선왕조에서의 仕宦을 끝까지 거절하고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耘谷詩史』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왕 이전의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國家'로, 공양왕대까지는 '國'으로, 그 이후 조선왕조에 들어 와서는 새로운 나라라는 뜻의 '新國'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조선왕조에

대한 태도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4) 耘谷과 華海師全

『華海師全』은 고려말의 학자 申賢의 학문과 언행을 모아 엮은 책으로 "華海師"란 곧 중국의 원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東海 즉 고려의 스승이라는 의미로써 "華海師全"이란 華海師라고 할 수 있는 申賢과 관계된 모든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화해사전은 고려말의 학자로 原州 雉岳山에 은거한 耘谷 元天錫이 總斷하고 역시 고려 말기의 학자로 諫議大夫를 지냈으나 고려가 망함을 보고 萬壽山에 들어가 은거하였다고 하는 伏厓 范世東이 편집한 책이다. 이 화해사전은 혹 流說에 의하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고 필자가 알기로는 현재 두 종류(1920년도 목판본, 1931년도 활자본)가 있다. 화해사전은 목판본은 7권 3책으로 되어 있고, 활자본은 4권 2책으로 되어 있어 있으며, 내용상에 있어서도 목차가 다르고 먼저 간행된 목판본의 내용이 활자본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추가된 부분도 있다.

화해사전이 알려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원)에서는 조선시대 동안 秘藏되어 오다가 1931년 姜永直이 군산에서 발견하여 원본의 誤字, 落書를 바로잡아 편집하여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화해사전이 1931년도에 처음으로 간행된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아마 1920년도에 간행된 목판인쇄본을 보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화해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출처 경위를 상고하여 보건대, 華海師全은 1852년(철종 3) 湖西의 孔氏家에서 『話東人物叢記』(元耘谷이 總斷하고 范伏厓가 編輯함)가 나왔는데 이 文籍내에 華海師全이 실려 있었다고 하며, 또 華海師全(활자본) 後學撰述에 의하면 고종 4년(1867년)에 湖西 槐山에 거주하는 申秉玉(字는 聖範)이 關西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 투숙하였는데 그 집이 孔氏였다. 이튿날 비가와서 하루를 더 그집에서 留宿하게 되었는데 문득 그집의 시렁

위를 보니 먼지에 쌓인 책이 몇권 있어 이를 살펴보니 이것이 곧 화해사전이었다고 한다. 성범이 놀라며 주인에게 그 책을 빌려가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간청하였으나 孔氏는 "나는 이 책이 누구 집안의 기록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家門에서 累代를 내려오면서 지켜온 책이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그 후손이라고 하나 허락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성범이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서 그 댓가를 좀 준비하여 와서 필사한다면 허락하겠는냐"고 하니 그제사 주인은 그러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후 聖範이 집으로 돌아와 약간의 금전을 준비하여 다시 그곳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연이어 兩親의 喪을 당하여 집을 뜨지 못하다가 고종 9년(1872년)이 되어서야 공씨집을 찾았으나 공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다. 그 후 성범이 유생들이 連名으로 올리는 上疏에 참여하려고 서울에 올라 왔는데 하루는 우연히 鐘路거리에 나갔다가 문득 공씨를 만나게 되었다. 성범이 지난번의 부탁을 다시하니 공씨는 가는 길도 멀고 집도 좁으니 내가 대신 필사하여 가지고 내년 오늘 이곳에서 만나 책을 주겠노라고 하였다. 이에 성범이 돈 열꾸러미를 건네주면서 추후에 조금더 답례하겠노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이듬해에 과연 공씨가 필사한 책을 성범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

성범이 이 책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와서 자손들에게 각각 한질씩 필사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선조의 위협이 아직도 거두지 못한것이 있을까 두려워서 깊이 간직하고 내놓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 수백년 후에 화해사전이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화해사전은 申必熙•李恒稙이 1920년 6월에 忠南 舒川郡 庇仁面 栗里祠에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는 목판인쇄본(耘谷 元天錫 總斷, 伏匡 范世東 編輯으로 되어 있음)과 1931년 발간된 활자본이 있다. 그런데 前者는 序文 작성자가 李明稙, 後者는 姜永直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편제(전자는 7권 3책, 후자는 4권 2책)나 목차 등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두 종류의 화해사전은 처음에 보면 활자본이 목판본을 母本으로 하여 새로 간행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활자본 서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1920년도에 간행된 목판본을 가지고 새로 편집하

여 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활자본에서는 신현을 중심으로 그와 가까운 항목을 차례로 목차의 앞쪽에 놓고, 관련이 적은 것이나 부록은 임의로 개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목판본은 간행하게 된 경위가 자세하지 않고 단지 畿湖의 諸君子들이 널리 公議를 모아 선생의 후손인 必熙, 世休에게 청해 考訂을 얻어 출판하였다고 하였고, 활자본 서문에서 姜永直은 辛未年(1931년) 봄에 자신이 군산에 갔다가 우연히 시골집 부서진 상자속에서 화해사전을 얻게 되었다고 하여 화해사전이 알려지게 된 경위는 자세하지 않고 단지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元·范氏가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孔氏家에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화해사전이 편집되기전 포은 정몽주가 여러 제자들을 시켜 화해사전의 草稿들을 모아 耘谷에게 전하도록 하였는데 그중의 한사람이었던 孔明亮이 몰래 필사하여 두었던 것이 代代로 전해져 온 것이거나, 아니면 成思齊와 元耘谷, 范伏匡 집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 轉轉하여 孔氏家에 소장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耘谷이 서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華海師全(목판본) 跋尾에 의하면 처음에 신현선생의 본국(고려)과 元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 제자들이 수집하여 12권으로 합성·편집하여 문도들에게 전파하였는데 普雨와 遍照(辛旽)가 史官을 시켜 그 事蹟을 찾아내어 모두 소각하고, 또 명을 내려 여러 가정에 산재되어 있는 것까지 수색하여 모두 소각해 버렸는데 간혹 깊이 숨겨두어서 내놓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그 家率들을 모두 奴婢로 만드는 까닭에 신현선생의 文籍이 전할 수가 없게 되었었다. 그 후에 花山 땅에 살던 金革과 그의 아들 三近(號는 謝隱)과 醇隱 申德隣, 春谷 安魯生, 石灘 李存吾, 圓齋 鄭樞 등의 문도들이 여러가지 서적에서 확인하고, 또 얻어들은 것들을 대강 수록해 두었던 것이 발각되어 문서가 소각된 것은 물론이고 石灘 李存吾와 圓齋 鄭樞의 집안이 모두 노비로 入籍되는 등 화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신현선생이 沒한(明나라에서) 후에 圃隱 鄭夢周, 潘南 朴尙衷, 籠庵 金澍, 牧隱 李穡 등이 선생의 事蹟들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하여 8권으로 수록하여 책이름을 『華海師全』이라 하고 포은 정몽주에게 考訂토록 하였었다고 한다. 일찌기 포은이 이르기를 "우리 선생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적들이 世敎에

유익함이 될만한 것들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뿐이지만 다행히 또 발견되는 대로 찾아 모아서 작은 정성이라도 나타낼까 한다" 하고 뒤에 마침내 2卷을 더 보태서 편집을 成思齋에게 맡기면서 말하기를 "잘 保全하라"고 들려 보냈다고 한다.

신현이 일찌기 史官이었던 진자성의 조부가 그 아비를 위협하여 계모를 내몰아 刑曹로 하여금 처형토록 하였고, 권근의 아비 僖는 短喪으로 3개월만 복을 입었기 때문에 臺臣으로 하여금 탄핵하도록 주청하였고, 鄭道傳(九齋出身)이 처음 벼슬에 천거될 때 禑王에게 말하기를 "그 인물 됨됨이를 살펴 보건대 고려의 국세를 그르칠 인물이니 重任을 맡겨서는 안된다"라고 고한적이 있었다. 이때로부터 대대로 원수됨이 점차 심해져서 마침내 신현의 아우 치와 장손인 백청이 올린 상소가 문제화되면서 그들에게 신현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되어 일부 家族이 주살되거나, 入籍奴婢, 文書燒却 등 대대적인 보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때 포은을 비롯한 뜻있는 여러 사람들은 힘써 구원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장차 신현에 관한 몇가지 기록만이라도 암송하였다가 비밀리에 전할 계획을 세웠다. 그 때 마침 집권자들이 임금을 江陵으로 추방하는 등 國事가 어지러워지면서 신현에 대한 조처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신현의 큰 道蹟이 이 때문에 다 없어져 전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그 대강만이라도 다시 엮어서 몰래 원천석에게 부탁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하고 즉시 그날 밤으로 문인들 중에 생원인 牛來麟, 孔明亮, 房海範, 吉仁迪, 方萬化 등을 원천석에게 보내어 포은의 뜻을 전하였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이 수장하고 있던 자료도 운곡에게 보내어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안되어서 정몽주가 변을 당하게 되고, 두문동이 불타는 화를 입게 되었다. 宋因과 權近은 舊義를 배반하고 新利를 쫓았으니 본래는 신현의 제자들로서 그의 학통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터라 이에 권근은 그의 아비 원한을 갚으려고 송인을 불러 계책을 내고 정도전 등과 더불어 계유년(조선 개국 2년: 1393년)부터 심산유곡에 숨겨졌던 서적들도 일일이 찾아내어 불태워 버리고, 신현의 자손들의 집은 모두 몰수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노비의 籍에 넣었고 禍가 장차 주살 당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李來, 李宗茂, 趙溫 등이 나서서 애

써 구원하려 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황희, 허조, 맹사성, 성석린, 정이오, 최관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신현의 종손인 概가 벼슬에 나가도록 설득하여 겨우 滅誅의 禍를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려말 조선초기의 격변기에 耘谷은 복애 범세동과 더불어 圃隱 등이 보낸 자료와 기타 수집한 申賢의 事蹟을 편집하여 『華海師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화해사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것 그대로를 원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여러 차례 再編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목판본(1920년판)은 7권 3책으로 되어 있으나 활자본(1931년판)은 4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8권의 규모였으나 중간에 유실되어 4권으로 엮었다고 하여 화해사전이 한차례의 편집으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준다.

화해사전은 목판본의 경우 1卷에는 本朝問對, 元主問答, 明朝問對, 2卷에 備耗, 出處, 3卷에 諸子問答, 家範, 4卷 簡齋先生笏書奏對, 5권 師全繼辭, 跋尾, 諸子論贊, 諸子敍述, 6卷 家學, 歷代轉理歌, 世獻, 7卷 東方淵源錄, 元耘谷居義, 後王誥忠情辭, 後王泣奬陳情文, 大提學申伯淸上疏, 附言志錄으로 되어 있고, 1931년도의 활자본은 1卷 備耗, 箴家範, 簡齋笏書, 2卷은 本朝奏對, 元主問答, 明朝聘問, 3卷은 出處大略, 跋尾, 師全繼辭, 諸子贊辭, 諸子敍述, 東方斯文淵源錄, 4卷은 부록으로 後學贊辭·後學撰述로 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간략히 내용을 보면(목판본) 卷1의 「本朝問對」에서는 고려 忠惠王·忠肅王과 王道政治, 唐代의 人君評, 斥佛尊儒論 등에 관하여 문답한 것이며, 「元主問答」은 元나라의 仁宗과 華夷의 구분, 政本과 人道, 先王의 大道, 老·佛學의 문제점을 문답한 것이고, 「明朝問對」에는 맹자의 民本思想을 반대하는 明太祖에게 맹자를 極口擁護하고 태조가 신현의 先親 등에게 贈職한 것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卷2의 「備耗」는 禹易東의 부탁에 따라 신현이 六經典籍과 宋代의 群書에서 요점만을 추려서 기록한 것이며, 「出處」에서는 문인들이 신현 선생의 출처·행적 가운데 앞선 글에서 누락된 것과 기타 여러 古事에 관한 내용이다.

卷3의 「諸子問答」은 제자·문인들과 학문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이고, 「家範」은 신현의 아우인 즙과 아들 用義 등이 성리학의 여러 문제에 대한 선인의 말을 엮어 편집·교정하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신현에게 질정한 내용이다.

卷4의 「簡齋先生笏書奏對」는 우왕 7년(1381년) 용회가 명나라 태조와 신현이 학문 및 도학, 의리명분 등의 내용을 가지고 문답한 내용을 적은 것이며, 卷5의 「師全繼辭」는 元天錫의 생애에 관한 사실 중 누락된 것을 모아 정리한 것이며, 「跋尾」는 耘谷 元天錫이 이 책을 印刊하게 된 경위를 적은 것이다. 또 「諸子論贊」은 명나라의 대학자 宋濂을 비롯한 고려말 조선초의 여러 인사들의 신현에 대한 찬사를 모은 것이고, 「諸子敍述」은 정몽주와 원천석 등 문인 및 후학들이 스승의 학행에 대하여 추술한 글을 모은 것이다.

卷6의 「家學」, 「歷代轉理歌」, 「世獻」 簡齋 申用義를 비롯한 先祖 및 累代 후손의 간략한 행적 혹은 그와 관련되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卷7의 「東方淵源錄」에서는 유학의 道統에 속하는 薛聰, 申守忠, 崔沖, 金良鑑, 安珦, 禹倬, 申賢, 鄭夢周, 李穡, 徐甄 등 諸賢의 思想과 事蹟을 기술하였고, 「元耘谷居義」에는 元天錫의 節槪와 事蹟이 기술되어 있으며, 「後王誥忠情辭」는 定昌君 瑤(후에 恭讓王)가 우왕을 폐하고 창왕이 즉위할 때 그 忠情을 적은 것이며, 「後王泣變陳情文」은 우왕과 창왕이 시해당한 변고를 定昌君이 陳情한 것으로 이 두가지 글은 이성계일파에 대한 원한에 찬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大提學申伯淸上疏」는 신현의 손자인 伯淸이 공양왕에게 이성계일파가 簒位하려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上疏한 것이며, 「言志錄」은 觀德齋 邊胤宗이 杜門洞 72賢에 관한 견문을 기술한 것이다.

화해사전은 고려말의 유학계통과 당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수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귀중한 문헌이 조선왕조 오백여년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 또 『高麗史』나 그밖의 관련서적에서 신현이나 화해사전에 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목판본 이전에 존재하였던 화해사전의 원본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이 책이 후인의 杜撰이거나 僞書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화해사전은 앞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原州地方書院學術調査報告書』 1992年, 原州君〉

元天錫 硏究

- 그의 現實認識을 중심으로 -

柳 柱 姬

I. 머리말
II. 元天錫의 生涯와 『耘谷詩史』
1. 元天錫의 生涯
2. 『耘谷詩史』
III. 元天錫의 現實認識
1. 社會·經濟의 認識
2. 易姓革命에 대한 認識
3. 朝鮮王朝에 대한 認識
IV. 맺음말

I. 머 리 말

본고에서 중심인물로 다루고자 하는 耘谷 元天錫은 조선왕조 창업시 고려왕조에 대한 節義를 지킨 인물로서 알려져 있다. 그는 圃隱 鄭夢周, 冶隱 吉再와 더불어 殷의 三仁에 비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그의 淸白한 절개가 가장 高潔하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1]

元天錫은 고려말 조선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관직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時事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였고 그러한 관심의 표출로 『耘谷詩史』라는 책을 남겼다. 『耘谷詩史』에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정치적 변동기, 곧 역성혁명에 대한 인식, 조선왕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많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곧 원천석의 현실인식이 詩라는 형식을 통하여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退溪 李滉이 『耘谷詩史』를 읽고 나서 "이는 歷史이다. 역사가 詩에 담겨 있으니 시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없어지지 않았다. 어찌 野史가 소실된 것을 애석히 여기겠는가"[2]라고 그의 시를 역사라고 평가한

* 中央大 大學院 史學科

1) 『耘谷詩史』「文集序」(『高麗名賢集』 5책,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所, 1987).

것은 그의 시를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朴東 은 원천석의 詩史를 사실에 의거하여 直書한 것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하고 있다.[3] 따라서 『耘谷詩史』를 통하여 우리는 고려말 조선초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원천석이 그 시대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4] 이는 원천석이 당대 정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자료의 부족에서 말미암는다고 보여진다.

본고는 고려말의 정치적 변동기에 있어서 儒敎的 소양을 토대로 중앙관계에 진출하는 新官人層의 동향과 관련하여 원천석의 현실인식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우선 원천석의 생애와 그의 교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시집 『耘谷詩史』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후에 그의 詩에 나타난 고려말의 시대상을 社會·經濟의 인식, 易姓革命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려말 조선초의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서의 유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의 역할과 그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위의 책, 권5, 「耘谷先生事蹟錄後語」.
3) 위의 책, 「耘谷詩史序」.
4) 원천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李佑成,「高麗李朝의易姓革命과元天錫」(『月刊中央』 1973. 1월호 ;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池敎憲, 「麗末鮮初의 政治的變革과 耘谷의 道學精神」(『淸州敎育大學論文集』 17, 1980).
梁銀容, 「元天錫의 三敎一理論에 대하여」(『韓國宗敎』 11·12, 1987).
이우성의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고려말 조선초의 역성혁명기에 있어서의 원천석의 행적 및 역성혁명에 대한 그의 태도를 간략하게 살핀 것이다. 지교헌의 연구는 『耘谷詩史』를 토대로 하여 정치 · 역사 · 사회 · 종교 등 제 영역에 걸친 원천석의 道學精神 즉 정치철학과 吏道精神, 역사인식과 憂國精神, 사회의식과 愛民精神, 사회의식과 愛民精神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양은용의 연구는 고려말 排佛思想이 팽배한 가운데 원천석이 주장한 三敎一理論이 당시의 사회에 어떠한 윤리를 제시하였는가를 살피고 있다.

Ⅱ. 元天錫의 生涯와 『耘谷詩史』

1. 元天錫의 生涯

원천석의 字는 子正이며, 호는 耘谷으로, 1330년(충숙왕 17) 7월 8일 開城에서 출생하여[5] 90여년간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의 본관 및 거주지는 모두 原州이다.

그의 세보는 『耘谷詩史』「石頹墓所事蹟」에 의하면 始祖인 克富로부터 원천석 대까지 7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原州元氏族譜』에 따르면 始祖 克富는 13세가 되며, 元天錫은 7세가 아닌 19세가 된다. 始祖 克富는 原州의 戶長이었고, 고조와 증조는 倉王이었다. 戶長과 會正은 모두 지방향리직으로 호장은 향리의 首長이었고, 창정은 징수된 조세를 보관·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조부는 精勇別將을 했는데 精勇이란 保勝과 함께 京軍과 주력을 이룬 부대로서 別將은 그 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그 조부대까지는 아직 그 활동영역이 原州지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부 允迪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3품직인 宗簿寺令으로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고 있다. 원천석의 형 天常과 아우 天佑는 각각 進士, 縣令職을 취득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있어 향리층은 그 신분의 세습, 과거에의 응시 등을 통하여 중앙의 귀족보다는 낮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지배층에 속하고 있었으며, 고려후기에 접어들면서는 能文能吏의 新官人層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원천석의 가문 또한 이러한 儒敎的 소양을 토대로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신관인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석의 가문은 그의 父 允迪에 이르러 중앙관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가문들보다는 중앙관계로의 진출이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元天錫은 3형제 중의 둘째로서 어릴적부터 才名이 대단하였는데 차차 장성하면서는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문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초기에는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관직에 진출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8] 그 후 중앙정계에는 계속

---

5) 『耘谷詩史』, 권5, 「跋」.

6) 그의 歿年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太宗 李芳遠이 세종에게 讓位한 뒤 上王으로 있으면서 원천석을 부르니, 이에 응하여 白衣를 입고 서울에 와서 태종을 만났다는 일화가 있다. 그러나 그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7) 李基白, 『高麗兵制史』(일조각, 1968) pp.208~220.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의 나이 26세 되던 해인 공민왕 4년 (1355)에 國子監試에 응시하여 합격, 國子進士가 되는데,[9] 이는 軍籍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고자 한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0] 그 이후에도 進士의 신분을 획득한 것으로서 끝날 뿐 중앙관계에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정치에 대한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즉 求官意慾을 밝히는 시를 읊고 있는데, 그러한 시들은 대체로 고려후기에 빚어진 대내외적 제모순을 제거하여 국가질서를 회복코자 하는 개혁정치가 시도되는 시기에 원천석이 구관의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11] 특히 그는 공민왕대에 정계진출의 꿈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그가 국내정치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며 정치기강의 개혁 등 개혁정치가 시도되는 시기에는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천석을 평하여 "君子는 숨어 살더라도 세상을 버리지 않으니 선생은 비록 세상을 피해 스스로 은둔하였으나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니요 道를 지켜 변하지 않음으로서 그 몸을 깨끗이 한 것이다"[12]라고 한 許穆의 말

---

8) 『耘谷詩史』, 권3, 『丙寅冬至感懷示元都領』.

9) 『高麗史』 권74, 志28, 選擧 2, 國子監試에 의하면 " 恭民王四年正月古代言柳淑金翊等九十五人"이라 되어 있다. 원천석과 同年으로서 『耘谷詩史』에 보이는 이로는 鄭道傳 · 李崇仁 · 李汝忠 · 安仲溫 · 許仲遠 · 權從義 · 金偶 ·沈方哲 · 崔允河등이 있다.

10) 『耘谷詩史』, 권1, 『余自少有志於儒名者久矣今按部公幷錄於軍籍作詩以自寬』.

11) 그것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51년 (충정왕 3) : 林下豈無士 夢尋銀闕深(위의 책, 권1, 「次李尙書所示詩韻」)

1360년 (공민왕 9) : 願向公車煩 一薦 山林赤有濟時才(위의 책, 권1, 「次安向年仲溫見贈詩韻」)

1370년 (공민왕 19) : 曾蒙薦拔之恩 實達疎狂之志 以所爲求所欲 猶緣木而求魚 望其待其言 若守 株而待 (위의 책, 권2, 「康戌春旌善刺史安吉常寄詩于牧伯云」)

1370년 (공민왕 19) : 我欲躡雲登月殿 就先投杖作銀橋위의 책, 권2, 「次趙待郎所寄詩韻」)

1370년 (공민왕 19) : 斷斷無良才 未可臂膊選(위의 책, 권2, 「次崔安乙所贈詩韻」)

1376년 (우 왕 2) : 我亦慕班行 棲身故園梓十載臥芽堂 靑雲心萬里(위의 책, 권2, 「次春洲辛大學所寄五言雙韻三十韻奉寄(又)」)

1385년 (우 왕 11) : 悵我身年已晩年 窈然雲路未追 (위의 책, 권2, 「書金相公時後(又)」)

1390년 (공양왕 2) : 辛逢招代搜賢日 莫傲公名臥一盧(위의 책, 권4, 「次韻邊竹岡利名詩書于卷後)復次)」)

이 매우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고 그 백성이 아니면 시키지 아니하여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우면 물러갔다고 하여 성인의 맑은(淸)자라는 칭호를 얻은 伯夷와 마찬가지로 운곡 원천석도 정계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

그러나 원천석의 정계진출 의욕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14] 도리어 고려왕조의 개혁정치는 실패로 돌아가고 고려왕조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가 중앙관계로의 진출을 단념한 시기는 고려왕조가 종언을 고하는 공양왕 4년 (1392)이다.[15] 이후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정계진출을 단념하고[16] 단지 唐虞의 시대와 같이 태평성대가 펼쳐져 巢父 許由와 같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 것을 바란다.[17]

그는 당대의 선진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도입된 성리학을 수용하여 유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고자 하였으며[18] 또 程朱와 말고비를 나란히 한다는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19] 특히 그는 조선 태종 李芳遠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이방원은 그의 스승에 대해 항상 존경하였고 이에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원천석을 大官으로서 소환한다. 그러나 원천석이 이에 불응하자 태종은 직접 원천석을 찾아 치악산중을 방문하지만, 원천석이 피하여 만나주지 않자 원천석의 아들 洞에게 基川縣監을 제수하는 것으로서 스승에게 보답하고 있다.[20]

또한 원천석은 당대의 신진사대부 李穡 ·鄭道傳 · 李崇仁등을 비롯한 많은 이들과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색과는 나이가 불과 두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같은 연배로서 친밀한 교유관계를 맺은 것 같다.[21] 정도전과도 同年의 관계로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왕래하는 등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

12) 『耘谷詩史』, 권5, 「石頸墓所事蹟」.
13) 위의 책, 권5, 「石頸墓所事蹟」.
14) 위의 책, 권4, 「次半刺先生所示進陽府使李但詩韻(其九)」.
15) 위의 책,권5, 「次半刺先生韻(其五)」.
16) 위의 책, 권5, 「卽事」.
17) 위의 책, 권4, 「鳳寄趙中書璞」 및 권5, 「次半리 先生所奇詩韻(其三)」.
18) 위의 책, 권1, 「余自所有志於儒名者久矣今按部公幷 錄於軍籍作詩以自寬」.
19) 위의 책, 권4, 「次山人角之詩韻」.
20) 위의 책, 「耘谷先生文集序」.
21) 위의 책, 권3에서 원천석이 우왕 13년(1387) 9월 驪洲 神勒寺로 李穡을 방문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이미 두 사람이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으며[22] 이숭인 또한 원천석과 同年의 관계였다.[23] 이색 · 정도전 · 이숭인등은 당대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후에 정도전과 李穡은 정치적 입장에서 그 의견을 달리하여 서로 갈등을 벌이게 된다. 곧 정도전은 조선왕조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급진개혁파의 선봉으로서 역성혁명을 이루는데 핵심역할을 하고 李穡은 고려의 지배체제를 전제로 하는 守成의 논리를 펼치면서 고려왕조에 대한 결의를 지키고 있다.

원천석은 고려시대 유학자들이 대부분 그러했던 것처럼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승려들과의 교분도 상당히 두터워서 道境大神師 · 白雲 淵長老 · 曺溪參學 · 允珠大師 · 雲遊子 覺宏 · 信圓 · 角之 · 天台宗의 禪者 · 竹溪 信廻 등 여러 禪師들과 시와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이러한 교분을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 들였다.[24]

그가 스스로 평하여 한편으로는 유교의 六門에 얽매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의 三界를 왕래하여 유교와 불교에 대해 얕은 지식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25] 유교에 대해 학문적 조예가 깊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불교의 이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26]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원천석의 불교에 관계된 시가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의 생활 특히 은거생활이 居士的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의 사상이 불교에 기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특히 그의 불교관은 당대 신진사대부들과는 또 다른 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三敎一理라는 논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곧 우왕 13년 (1387)에 지은 그의 시를 살펴보면 유교의 가르침은 窮理盡性이요, 불교의 가르침은 明心見性이요, 도교의 가르침은 修眞鍊性이라고 하여 齊家治身 致君澤民은 유교의 餘事요, 嗇精養神 飛仙上昇은 도교의 祖跡이요, 越死超生 自利利人은 불교의 筌蹄라 하고

22) 위의 책, 권1, 「十二月十七日同年鄭道傳到比贈子詩韻」.
23) 『耘谷詩史』, 권4, 「同年李令公崇仁被讒在忠洲寄詩云」.
24) 위의 책, 권4, 「次山人角之詩韻」.
25) 위의 책, 권1, 「次白雲淵長老詩韻」.
26) 위의 책, 권1, 「送曺溪參學允珠遊嶺南詩」에 의하면 그는 불교의 본질을 孝敬이라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살피고 있으며, 불교의 孝敬에 근본한 道의 隨機應變의 妙用이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불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7) 梁銀容, 앞의 글, p.271.

결국 그 極處에 이르면 같지 않음이 없다는 如如居士의 삼교일리론을 인용하고는 儒·佛·道 모두 治性하라는 가르침인데 다만 盡之, 見之, 鍊之하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그 귀일하는 곳은 동일한 하나의 性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 이러한 원천석의 주장은 당대 신진사대부들의 배불론적 태도와는 명백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 『耘谷詩史』

『耘谷詩史』는 원천석의 自作詩를 제작연도별로 분류 편집한 시문집이다. 원천석은 원래 『耘谷詩史』와 더불어 만년에는 고려말기의 상황을 보고 들은대로 직시하여 野史 6편을 저술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 조선왕조의 건국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해 고려말의 사실이 왜곡되어 잘못 전해질 것을 염려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조선왕조를 건국해가는 과정에서 내세운 廢假立眞 등의 명분을 대부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멸족의 화를 두려워 한 후손들에 의해 불살라져 버렸다고 한다. 『耘谷詩史』 또한 소실되는 것은 면하였지만 조선왕조에서 꺼리는 바가 되어 숨겨져 400여년간 은밀히 전해지다가 그의 13대손 孝達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에 간행되게 되었으며[29] 고려왕조 오백년의 統緖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30] 그러나 이 또한 후손들에 의해서 措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1]

『耘谷詩史』는 그의 나이 22세(1351년, 충정왕 3)부터 65세(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이르는 44년간에 걸쳐 쓰여진 1,144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는 40여년에 걸쳐 기행하면서 혹은 칩거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시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 內題로 卷首에 『耘谷行錄』이라 하여 이러한 편년시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耘谷詩史』는 그의 개인적 감상이나 생활상, 산수의 풍경을 읊고 있는 것도

---

28) 『耘谷詩史』, 권3, 「三敎一理」.
29) 이 『耘谷詩史』의 원형은 3권 2책이었으나, 뒤에 膽本에서 1部를 拾補하여 5권 3책으로 재편되어 이때에 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 후 철종 9년(1858) 5월 16대손 元 이 쓴 跋이 붙어 있는 石齋開刊의 印書體活字版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30) 『耘谷詩史』, 『耘谷詩史文集序』.
31) 千惠鳳, 「耘谷詩史解題」.

많지만, 고려말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살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곧 여말선초 역성혁명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특히 우왕과 창왕을 王氏의 자손이 아닌 신돈의 자손이라 하여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賜死한데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시들이 수록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耘谷詩史』에 수록된 시를 권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1351~1369 (충정왕 3 ~공민왕 18) 19년간에 걸쳐 쓰여진 총 24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권1의 중심내용은 그가 기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북쪽 오랑캐(紅巾賊)에 대한 내용 즉, 공민왕 11년 11월에 있었던 홍건적의 침입을 겪고 나서 읊은 시가 보이고 있다.

권2는 1370~1385년(공민왕 19년~우왕 11년) 16년간에 걸친 기간을 포괄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연도는 5년에 불과하며 총 15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 1,144수 중 14%를 차지한다. 권2에서는 자신의 생활상과 기행하면서 읊은 시가 대부분이며 당대의 시대상을 읊은 시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권3에는 1386~1388년(우왕 12 ~ 우왕 14) 3년간에 쓰여진 총 22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의 약 19%이다. 비록 연도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수록된 시의 양은 권 1·2에 비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도 우왕 말년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 읊은 것이 많다. 즉 明나라의 衣服制度를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우왕대에 권력을 남용하여 田民을 겸병하는 등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잇던 李仁任 일파에 대해 비난과 그를 제거한데 대한 慶賀, 威化島 回軍, 우왕의 廢出 및 창왕의 즉위 등 고려말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읊은 시가 많이 보이고 있다.

권4에는 1389~1390년(창왕 1 ~ 공양왕 2) 2년간에 쓰여진 총 173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의 15%이다. 권4도 권3과 마찬가지로 연도는 비록 짧지만 많은 양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기에도 창왕대 및 공양왕대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詩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시에는 특히 역성혁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崔瑩의 죽음, 우왕·창왕의 廢位庶人 및 공양왕의 즉위, 우왕 · 창왕에 대한 賜死, 李嗇의 유배 등을 지

켜보면서 그 사실들을 直書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元天錫도 공양왕 2년에 免되고 있는 점이다. 즉 원천석이 중앙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그가 사면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의 현실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政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권5에는 1391~1394년(공양왕 3 ~ 조선태조 3) 4년간에 걸쳐 쓰여진 총 343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 가운데 30%이다. 권5에 수록된 시기가 권3이나 권4보다는 1~2년 길지만 수록된 시의 양은 매우 많다. 고려왕조가 몰락하고 조선왕조가 새로이 건국, 정비 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이렇듯 많은 시가 나타나게 된 것 같다.

退溪 李滉은 일찍이 이 詩史를 읽고 歷史라고 평가를 내리고는 "역사가 시에 담겨 있으니 시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없어지지 않았다. 어찌 역사가 소실된 것을 애석해 하겠는가"[32] 하였으며, 朴東亮은 원천석의 詩史를 사실에 의거하여 直書한 것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하고 있다.[33]

이상으로 『耘谷詩史』에는 그 당시의 세태에 대한 원천석의 현실인식이 시라는 형식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耘谷詩史』를 통하여 우리는 고려말 조선초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원천석이 그 시대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

III. 元天錫의 現實認識

1. 社會 · 經濟의 認識

고려왕조와 元과의 오랜 전쟁은 백성들의 유망, 농토의 황폐화 및 田籍 소실 등을 가져왔고[34] 그 이후의 계속된 정치적 사회경제적 혼란은 권세가들에게 토지겸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제공되었다. 당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附元輩들을 중심으로 한 權門世族들로서,[35] 이들은 경제적으로 私的

32) 『耘谷詩史』, 권5, 「耘谷先生事蹟錄後語」.
33) 위의 책, 「耘谷詩史序」.
34) 梁元錫, 「麗末의 流民問題 : 特히 對蒙關係를 中心으로」(『李丙燾華甲紀念史學論』, 일조각, 1956) pp.277~322.
35) 閔賢九, 「高麗後期의 權門世族」(『한국사』 8, 1974), pp. 13~59.

인 大土地兼倂을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토지겸병에 따른 農莊의 확대, 인구집중에 의한 토지지배질서의 문란과 사회적 혼란은 경제개혁에서 최대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적 대토지겸병의 진행에 따른 농장제의 성행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혼란은 고려왕조의 몰락을 초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36]

원천석은 공민왕 3년에 楊口郡에 이르러서는, 권문세족들이 백성의 田土를 占奪하여 人民을 소란케 하고 조세는 甚多하여 비록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이라도 空閑地가 없고, 또 겨울이 되면 收租徵 하는 무리들이 들이닥쳐 능히 조세를 내지 못하면 몸을 묶어 매달아 놓고는 笞刑을 가해 骨이 벗겨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결국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流離하는 실정을 직접 목도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어 대토지겸병으로 인한백성들의 유리를 탄식했다.

破屋에는 새들만 지저귀고
매년 폐단만 더하니
논밭은 權豪들에게 귀속되고 말았는데
자식을 버림은 특히 애석하나
백성은 도망가고 吏 역시 없네.
어느날에 즐거움을 누릴꼬.
문에는 포악한 이들이 연달으네.
辛苦로 인한 것이니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37]

이러한 인식은 원천석 개인만의 우려는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공민왕 5년에 이루어지는 개혁도 부원배를 중심으로 하는 권문세족들의 반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백성들은 여전히 대토지겸병에 따른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공민왕대에 백성의 삶은 권문세족의 횡포에 의해서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통치력이 무력해진 데서 파생된 홍건적의 잦은 약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紅巾賊의 세력은 매우 강성하여서 공민왕 10년에는 고려의 수도인 開城에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38] 이러한 홍건적의 침입은 공민왕 즉위 이래 적극 추진되어 오던 개혁정치를 크게 퇴색케 하는 등

36) 韓永愚, 『朝鮮王朝의 政治 · 經濟基盤」(『한국사,』 9, 1973) pp.19~20.
37) 『耘谷詩史』, 권1, 『十五日發方山到楊口 郡吏民家戶欹斜倒地 寒無煙火」.
38) 『耘谷詩史』, 권1, 「辛丑十一月紅巾賊兵突入王京國家播遷大駕南巡留住福洲」.

고려의 대내외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39] 이러한데에서 원천석은 공민왕 3년에 홍건적의 세력이 강성해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40] 그는 곧 홍건적의 세력이 강성해지면 고려에대한 약탈·침략이 일어날 것과 그에 따른 民生의 파탄 및 공민왕대에 추진되는 개혁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

공민왕 14년부터는 재차 개혁이 시도되는데, 이 시기에 있은 元天錫의 求官意慾은 원천석의생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1] 곧 그의 求官詩 중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비추어 원천석 자신도 정치일선에 나가 자신의 포부를 펼치고자 했던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신진사대부들은 대체로 공민왕 즉위를 전후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고 그 후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出仕한 신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의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공민왕대에 이루어지는 개혁정치도 실패로 돌아가고 공민왕이 암살당한 후 고려의 정국은 우왕의 즉위에 공을 세운 李仁任·林堅味·廉興邦 일파가 장악하게 된다. 이들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으로 대토지 겸병을 자행하였는데, 『高麗傑』에서는 이들의 횡포에 대해 물푸레 채찍을 휘두르며 남의 땅을 마구 빼앗아 당시 이것을 가리켜 '水精木公文'이라고까지 일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42] 곧 우왕대의 사회경제적 모순은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賦額을 충당할 걱정을 하고 있을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하였다.[43] 즉 그 당시 백성들은 조세와 부액에 시달리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원천석은 이인임 일파에 의해 자행되는 田民兼倂을 비난하는 시를 읊고는, 이러한 토지지배질서의 붕괴가 고려왕조의 멸망을 초래하리라고 예견하였다. 곧 자리(席) 말아가듯 토지 겸병을 일삼고, 주머니속을 훑듯 良人을 奴婢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는, 이러한 이인임 일파에 의해 자행되는 횡포를 닭이 벌레잡듯 하는데 비유하였다. 그리고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고려멸망을 예견하

39)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 上(『歷史學報』 38, 1968) pp. 54~59.
40) 『耘谷詩史』, 권1, 「甲午十月向 陽到橫川次板上韻」.
41) 앞의 주 12) 참조.
42) 『高麗史』 권126, 列傳 林堅味傳.
43) 『耘谷詩史』, 권1, 「若旱」.

고 있다.

산천을 奮占함은 자리 말아가듯 하고 / 노비를 窮搜함은 주머니속을 훑듯하네.

닭이 벌레잡듯 하는 것은 언제나 없어질까. / 하늘가를 바라보니 이미 석양일세.[44]

이때는 우왕 13년(1387)으로 아직 고려왕조의 국운이 쇠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았으며, 고려의 멸망이 확실해지는 때는 우왕 14년 위화도 회군 이후로 보아야 한다.[45] 그런데 바로 이때 원천석은 그의 학문적 안목에 의해서 고려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들을 통하여 우리는 원천석이 대토지 겸병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2. 易姓革命에 대한 認識

우왕 14년 李仁任 일파의 제거 이후[46]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崔瑩을 대표로 하는(권문세족을 포함한) 온건개선파와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급진개혁파였다. 온건개선파는 급진개혁파보다는 대체로 정치적 연륜이 오래고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려의 지배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현실대응논리를 펼쳤다. 이와 달리 급진개혁파는 고려말기에 빚어진 사회 경제적 모순을 武臣亂 이후의 제도문란으로만 보지 않았다. 즉, 이들은 고려왕조의 지배체제 자체를 문제시하여 기존질서를 부정하고 그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왕조의 지배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체제를 수립하자는 易姓革命의 논리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원천석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가 대토지사유에 반대의 입장을 취했음은 앞의 글들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당시 급진개혁파에 의해 주장되고 있던 사전·농장의 전면적인 혁파안에 대해 찬성하였는지는 사료상의 제약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급진개혁파의 견해에 동조

---

44) 위의 책, 권3, 「有感」.
45) 李相佰, 「李朝 建國의 硏究」 2(『震壇學報』 5, 1936) p.61.
46) 『耘谷詩史』, 권3, 『伏聞主上殿下奮義掃盡兼倂暴虐之徒 四方晏然 詩以賀之」.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시에서 고려왕조의 안정을 희구하고 고려왕조의 국가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47] 즉 그는 왕조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려왕실을 인정하고 왕실의 온존을 통해 국가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온건개선파의 그 입장을 같이 하는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의 안정이나 국가의 번영은 임금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며, 신하의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보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48] 이에 그는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義[49]·智와 勇[50]·忠[51]등을 강조하고 그외에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淸廉[52]·正直과 公平[53]·謹과 勤[54]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서 백성의 삶을 편안케 하여야 국가의 기틀이 견고해져 盛業이 영원해진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사랑할 것과[55]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56]

그런데 고려멸망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우왕 14년에 일어난 위화도 회군이다. 곧 고려의 왕실 및 지배세력이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온 元의 쇠퇴와 明의 새로운 등장이라는 대륙의 정세변화와 그에 따라 利害와 定見을 달리하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두 정치 세력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 할 수 있다. 우왕 14년 이인임 등의 일당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우고 정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성계와 최영은 그 정치적 입지·성향등의 차이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崔瑩은 권문세족 혹은 온건개선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이성계는 급진개혁파들과 힘을 합친 新興武人勢力이었다. 이때에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가하여 고려를 자극하던 명나라가 다시 鐵嶺 以北의 땅을 회수하겠다는 鐵嶺衛 설치요구를 들

47) 위의 책, 권3,「眞感」.
48) 위의 책, 권2,「送趙待郎如京」.
49) 위의 책, 권3,『送趙奉善贍李栢堂詩韻(又)」.
50) 위의 책, 권3,「海東二賢讚 判三司事」.
51) 위의 책, 권4,「聞都統使崔公被刑寓」.
52)『耘谷詩史』, 권2,「上河刺史允源詩」.
53) 위의 책, 권2,「送子誠弟赴金城令」.
54) 위의 책, 권5,「寄赴欲令」.
55) 위의 책, 권2,「次春洲辛大學所寄五言雙韻三十韻奉寄(又)」.
56) 위의 책, 권1,「次姪浣所寄詩韻」.

고 나왔다.[57]

원천석은 일찍이 崔瑩에 대해서 그의 명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지극히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58] 이는 崔瑩이 비록 권문세족가문 출신으로서[59] 이인임 정권에서 최고 실력자중 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청렴강직하고 오직 나라에 충성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고려왕조의 국가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토지겸병을 자행하던 이인임 일파를 제거한 데에서 원천석은 崔瑩을 나라의 주춧돌로서 사직을 인정케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긴 것 같다.[60]

崔瑩과 李成桂가 우왕 14년 명의 철령위 설치요구를 놓고 의견대립을 벌이다가 마침내 위화도에까지 진군한 이성계가 회군을 단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원천석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어 崔瑩의 遼東征伐論과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한 그의 입장 및 최영에 대한 그의 인식태도를 보여준다.

용맹한 군대 십여만이　　압록강을 건너려 하여
바야흐로 요해의 길에 있는데　　씩씩한 기운이 깃발위에 떠 있네.
武威를 中原에 떨치면　　누가 감히 畏伏치 않으리오.
응당 개선하는 날　　四夷가 모두 附屬하리라.
임금의 수명은 무강하여　　周武王의 발꿈치를 이어 밟으리.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더불어 태평곡을 부르리라.
어찌 강은 건너지 않고　　분연히 말고삐를 돌리는가.
가련한 都統公은　　홀로 원함을 사고 있네.
주춧돌이 이미 위태로우니　　장차 큰 집은 어찌 지탱할까.[61]

위의 시에서 원천석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비난하고 崔瑩의 요동정벌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천석의 태도는 당시 대부분의

57) 金成俊, 「高麗와 元 · 明關係」(『한국사』 8, 1977) pp.199~203.
58) 『耘谷詩史』, 권 3, 『海東二賢贊 前家宰六道都統使崔瑩』.
59) 朴龍雲, 「高麗時代의 安定任氏 · 鐵原崔氏 · 孔巖許氏 家門分析 : 高麗遺族家門分析 (2)」(『韓叢國史論叢』 3, 1978) pp.54~67.
60) 朴天植, 「高麗 禑王代의 政治勢力의 性格과 그 推移」(『全北史學』 4, 1980) pp. 38 ~ 48.
61) 『耘谷詩史』, 권3, 「病中記聞」.

신진사대부들 특히 온건개선파들과도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鄭夢周·李嵩등의 요동정벌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당대 지식인들의 역사관은 性理學的 歷史觀인 正統思想과 華夷思想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에 理民族인 元의 중국지배는 정통이 될 수 없으며 韓民族인 明의 국가건국은 곧 당연한 역사적 순리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對明征伐인 요동정벌을 곧 정통사상이나 화이사상에 그릇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고려의 운명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정벌은 곧 고려의 멸망을 초래하리라는 데까지 인식하게 된 것이다.[62]그러나 이 시에서는 원천석이 요동정벌 계획에 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대 지식인들의 정통사상이나 화이사상과는 달리, 원천석이 요동정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마도 그의 애국적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崔瑩과 마찬가지로 원천석은 명이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의 야욕을 민족의 자존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으며, 이에 崔瑩의 요동정벌 계획에 찬성의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63] 그리고 그는 위화도 회군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고려왕조의 몰락을 예견하였다. 즉 자신이 나라의 주춧돌로 여겼던 崔瑩이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빼앗기고 유배를 당하자, '주춧돌이 이미 위태로우니 장차 큰 집은 어떻게 지탱할까" 하며 그가 없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천석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혁파들의 역성혁명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崔瑩을 개인의 인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서라기 보다는 고려왕실을 지탱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당시 崔瑩과 이성계로 대표되는 세력간의 다툼에서 崔瑩의 입장에 찬성하고 그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崔瑩은 바로 권문세족 및 온건개선파들과 그 입장을 같이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고려왕조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려왕실의 온존하에 국가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崔瑩의 몰락으로서 이들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에게 그 주도권을상실하게 되었고, 그 주도권의 상실은 곧 온건개선파들이 추구하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원천석이 역성혁명을 예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뒤이어 이성계를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에 의해서 추진된 일련의 움직임

62) 申千湜, 「吉再 敎育思想 硏究」(『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p.584.
63) 李相佰, 앞의 글, p.67.

즉, 우왕의 廢位 및 창왕의 즉위, 崔瑩의 죽음, 우왕과 창왕의 廢出 및 공양왕의 즉위, 우왕과 창왕에 대한 賜死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反高麗王室的 행위를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울분을 느끼고 비통해하고 있다. 이에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즉위시킨데 대해서는 어찌 신하가 국왕을 存廢시킬 수 있는가 반문하면서 언젠가는 명명한 거울 앞에 그 罪過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64) 그 후 崔瑩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는 이성계를 '얼굴이 두껍다'고 극력 비난하고 당시 부세축리하여 이성계를 추종하던 무리들도 더불어 비난하고 있다.65) 그는 고려왕조에 절의를 맹세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당시 시류에 편승하여 날뛰던 무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성계가 다시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창왕을 廢出시키고 왕으로는 무능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듣던 定昌君瑤를 공양왕으로 즉위시켜 고려왕실의 힘을 무능력하게 만들자, 원천석은 이성계를 비롯한 역성혁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내세운 명분은 그릇되며, 만일 우왕과 창왕이 王氏의 자손이 아닌 신돈의 자손이라면 왜 일찍 假·眞을 분간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힐문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고 있다.

前王 父子의 名分이 갈라지니　　만리의 東西에 하늘의 낭떠러지.
한몸을 庶人으로 삼았다 해도　　正名은 千古에 바뀌지 않으리.
태조대왕의 맹세가 하늘에 응하여　　餘澤이 흘러 정해진지 수백년.
假眞의 분간이 어찌 늦었겠는가.　　저 하늘의 거울은 맑게 비추이네.66)

그는 이성계 일파가 내세운 명분을 과감히 그릇되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 당시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으며, 반이성계파 특히 당대의 巨儒인 李嗇조차 그 시비를 분명히 하지 않았던 문제였다.67) 그러나 원천석은 푸른 하늘이 있어 언젠가는 그 枉正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성계파에 의해 자행된 廢假立眞이라는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64) 『耘谷詩史』, 권3,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卽位有感」.
65) 위의 책, 권4,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
66) 위의 책, 권4, 「聞今月十五日國家以定昌君立王位前父子以爲辛旽子孫廢位庶人」.
67) 『高麗史』 권115, 列傳 李穡傳.

나선 데에서 원천석은 이성계파의 배척을 받게 되는 것 같다. 즉, 李穡·이숭인 등 반이성계파의 제거를 단행하여 이들을 유배시키면서 정계에 참여하지 않은 원천석 또한 반이성계파로 주목, 징계처분을 당한 후 공양왕 2년(1390)에 赦免令를 받고 있다.[68] 이는 비록 원천석이 중앙의 정치와 직접적인 연계는 안가졌지만, 그의 태도가 이성계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이에 이성계파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듯 고려왕조에 대한 결의가 확고한 원천석이었지만, 우왕·창왕의 賜死소식을 듣고 지은 시에서는 그의 다른 모습이 보인다. 곧 그는 우왕과 창왕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겨 슬퍼하고, 이성계 일파에 대해서는 임금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때는 오히려 태평하며 新法으로 淸平케 하면 道는 더욱 높으리라"고 하여 그 상황을 불가피한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69] 이는 원천석 또한 당대의 역사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인식인 듯하다. 즉, 당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흐름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일어나는 고려왕조의 몰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건국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二元的 갈등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로서의 갈등이며 또 한편으로는 역성혁명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서의 갈등이었다. 원천석 또한 이러한 갈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3. 朝鮮王朝에 대한 認識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 급진개혁파들은 정계의 중추세력으로서 조선왕조의 기초가 되는 경제·법률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갔다. 이때에 이르러 온건개선파에 속했던 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가. 이들은 앞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고려왕조에 대한 忠節이라는 면에서의 갈등과 한편으로는 조선왕조의 개국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 면에서의 이원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면은 冶隱 吉再에게서도 나타나며 야은 길재의 행적은 원천석의 행적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길재는 고려말 유학계의 巨匠으로서 고려가

68) 『耘谷詩史』, 권4, 「讀宥旨」.
69) 『耘谷詩史』, 권4, 「國家令以前王父子賜死」.

망한 후 이에 대한 결의를 지켜 조선에서는 仕宦하지 않음으로써 절의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왕조의 건국을 천명의식에 입각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조선왕조 성립과정에서 보이는 그의 태도, 晩年에 그의 아들에게 조선 정계로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조선왕조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70] 그 자신은 곧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義理와 名分의 실천으로서 절의를 지키고 있지만, 조선왕조에 사환한 자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新王朝에 대해 忠과 절의로서 섬길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길재의 이러한 행적으로 보아 길재의 인식은 길재 혼자만이 아니라 당대 모든 지식인들에게 수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고려의 멸망에 즈음하여 적극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점, 조선왕조 건국에 적극적인 협조 내지 간접적 지원을 보낸 점, 고려왕조 멸망 후 절의를 지켜 조선정계에 진출하지 않거나 은둔해버린 점 등은 모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71]

元天錫 또한 고려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箕字의 遺風이 다시 펼쳐질 것이라고 하여 조선건국의 이념을 칭송하고 있는 이원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72] 그 또한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고수하여 조선왕조에 사환하지 않았지만 조선왕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 태조 3년(1934)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하여 海東의 天地에 鴻基가 열렸으며 網常을 정돈한다고 하고, 王氏의 뒤를 이어 太祖가 왕위에 오르니 三韓의 國土는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일컬었다.[73]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원천석이 자신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易姓革命조차도 인정한 듯하다.

천명과 인심은 덕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새 왕조의 공은 하루아침 사이에 있었네.[74]

---

70) 『冶隱先生言行拾遺』 上, 行狀.
71) 申千湜, 앞의 글, p.584.
72) 『耘谷詩史』, 권5, 「改新國號爲朝鮮」.
73) 위의 책, 권5, 「新國」.
74) 위의 책, 권5, 「伏覩奉今尺詞受寶籙 致語慶而贊之」

위의 시에서 살필 수 있듯이 원천석은 天命과 人心은 德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므로 혁명의 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天命과 人心(民心)의 귀결로서 역성혁명(조선왕조 건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君主는 천명의 대행자이지만 天命·人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의하여 바뀌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군주가 인정을 베풀지 않아 민심을 잃게 되면 천명·천심이 바뀌고 천명·천심이 바뀌면 군주도 바뀔수 있다고 하는 역성혁명의 이론과 그 틀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석은 이성계 일파가 역성혁명을 도모하면서 우왕과 창왕·崔瑩·李嗇·鄭夢周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대해서는 그 명분의 그릇됨을 들어 극력 비난하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고려왕조의 몰락을 비통해 하였지만 조선왕조건국이 확실시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자 그 상황에 순응하고 더 나아가 역성혁명의 이론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석은 고려말 조선초의 역성혁명기를 산 지식인으로서 현실에 직면하여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주체성만은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와 충성은 끝까지 지키자 하였으며 이에 '臣不事二君'이라 하여 조선왕조에서의 仕宦을 끝까지 거절하고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耘谷詩史』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왕이전의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國家'로, 공양왕대까지는 '國'으로, 그 이후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나라라는 뜻의 '新國'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조선왕조에 대한 태도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맺 음 말

耘谷 元天錫은 原州의 土着鄕吏 계급 출신이다. 무신란 이후 향리계급의 중앙정계로의 진출시에 그의 父 允迪도 宗簿寺令으로서 중앙관계로 진출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지방의 중소지주로서 경제력과 能文能史의 자질을 토대로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하고 있는 新進士大夫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원천석은 李穡 · 李崇仁 · 鄭道傳 등과 같은 신진사대부의 범주에 속하면서 이숭인 · 정도전과는 同年의 관계였다. 그는 온건개혁사상을 정치에 실현시키지는 못하였지만 『耘谷詩史』에서 그의 사상을 詩로서 서술하고 있다. 이 『耘谷詩史』는 李滉 朴東亮등이 지적한 것처럼 고려말의 歷史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安鼎福의 『東史綱目』에서는 우왕·창왕의 廢位 · 賜死사건을 다루면서 원천석의 『耘谷詩史』를 그 반증자료로 삼고 있다.

원천석의 私田兼倂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생각은 고려말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大土地兼倂에 의한 고려의 사회경제적 모순은 이후 고려멸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사전겸병에 대한 인식은 고려왕조의 질서회복이라는 면에서의 그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왕 · 창왕시의 정치적 격동기에 있어서 급진개혁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그의 비판은 신진사대부와 함께 등장한 新興武人勢力에 의한 고려왕조의 쇠퇴기에 儒者로서의 節義정신으로 사직을 구하려는 충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조선왕조 개창후의 인식은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와 함께 易姓革命의 성공의 현실속에서 내재된 갈등을 天命과 人心의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곧 역사의 발전적 법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고려말의 유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인 耘谷 元天錫은 비록 野人이었지만 私田革罷에 대한 인식, 倭寇와 紅巾賊등의 외부침략에 대한 인식 및 遼東征伐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중세봉건제 사회이 儒家的 인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진보적 지식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고려왕조이 대한 온건개혁정신의 실현기도와 충절은 儒者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고려말의 지식인의 현실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천석을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의 연계적인 관련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水村朴永錫敎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2년 >

元天錫의 三教一理論에 대하여

梁 銀 容
圓光大學校敎授)

I

耘谷元天錫(1330～1401～?)은 高麗末의 혼란한 社會相을 개탄한 나머지 은둔해 버린 文人이다. 李成桂(朝鮮太祖, 재위 1392～1398)를 중심한 개혁파, 즉 朝鮮建國勢力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高麗朝廷은 政爭이 계속되며 거기에서 많은 文人이 殉節하거나 隱士가 된다. 이 高麗守節臣의 은사들을 가리켜 소위 杜門洞 七十二人이라 부르거니와 耘谷은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마침내 易姓革命이 일어나 高麗가 망하고 朝鮮이 建國(1392)되자 그는 原州 雉岳山에 숨어 「耘谷」이라 號하고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은사가 된 후에도 그는 時事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李穡(1328～1396) 등 당세의 文士들과 交遊를 계속하며 學問에 精勵하였다.

太宗(在位 1400～1418)이 즉위하고 그를 기용하였으나 固辭하였다. 耘谷은 太祖와 同學이며 太宗과는 일찌기 師弟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듬해 다시 太宗은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訪問하였으나 자리를 피하여 만나주지 아니하였다. 그는 한사코 高麗의 舊臣으로 남아 있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는 時事에 대하여 매우 예리한 안목을 가졌던 모양이다. 그에게는 『野史』 6권이 있었다고 전한다. 高麗末期의 상황을 見聞

直筆한 實錄으로 子孫들에게 함부로 閱覽하지 말도록 일렀으나 이를 본 曾孫이 國史에 저촉되는 바 많은 것을 알고, 滅族을 두려워한 나머지 焚書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외의 耘谷의 著述로는 『耘谷詩史』 5권이 유일하다. 그의 三教一理論이 이 『詩史』에 나타나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本稿에서는 이 論(詩)을 중심으로 耘谷思想의 一端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新進文士들 사이에 排佛崇儒思想이 팽배한 가운데 佛教思想에 입각하여 제시된 三教一理論이 三教가 共存한 당시 社會에 어떠한 倫理를 제시하고 있는가 밝혀보려는 것이다.

Ⅱ

『詩史』 5권은 自作詩를 製作年度別로 편집한 耘谷의 詩文集이다. 內題에 「耘谷行錄」이라 記하여 이러한 編年詩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는 耘谷이 20세 된 忠定王 3년(1351)부터 64세 되던 朝鮮太祖 3년(1394)까지의 44년간 쓰여진 것이다.

收錄된 詩는 총 1,058首이다. 이들 중에는 佛教에 관한 것이 많다. 主題가 명확한 것을 중심으로 헤아려보면 그 구성은 〈表〉와 같다.

〈表〉『耘谷詩史』의 構成

卷 別	卷一	卷二	卷三	卷四	卷五	計
總 詩 數	252首	155	216	196	239	1,058
佛 教 關 係	28首	30	62	29	37	186

『詩史』가 行錄인 것처럼 이들 詩는 그의 生活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중에 佛教關係詩가 186수로 전체의 17%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耘谷을 儒學者로 본 견해가 있었으나 이에 의해서 보면 그 설에 再考가 요망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찌기 國子進士에 及第한 바 있던 그가 士大夫가 닦던 儒學의 教養을 갖추지 않았을 리 없으며 이들 詩 가운데는 당대의 名儒인 李崇仁(1349～1392)이나, 排佛學者인 鄭道傳(? ～ 1398)과 和答한 것도 들어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한결같이 佛教的環境속에서 영위되었으며 『詩史』各卷에 고루 나타난 佛教關係詩가 이를 증명해준다.

佛教關係詩는 대부분이 僧侶와의 和答이며 나머지는 寺菴에 遊宿하면서 감상을 읊은 것들이다. 다른 文集이 없어서 분명히는 밝힐 수 없으나, 이 『詩史』를 통해 보는 한, 그의 생활 특히 隱居生活은 居士的인 모습이며 그의 사상은 佛教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佛教思想은 다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성격으로 나타난다.

첫째, 禪的인 경향이다. 僧侶들과의 和答詩를 보면 小數의 天台僧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禪僧들이다. 이중에는 重光·鋒光 등 3名의 日本禪僧의 詩도 들어 있고, 道境·允珠大禪師等의 이름이 가장 빈번하다. 그에게는 1360년에 지은 「題懶翁和尙雲山圖」가 있어서 麗末曹溪宗의 巨匠 懶翁慧勤(1320～1376)과 교섭이 있었음이 증명된다. 따라서 그는 太古普愚(1301～1382)·懶翁慧勤으로 대표되는 高麗末期의 實修的 性格이 강한 曹溪禪宗의 흐름을 수용했으리라 보인다.

둘째, 이러한 그의 詩 가운데는 佛教의 圓融會通性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普照知訥(1158～1210)의 出世이후 禪宗이 高麗佛教의 主流를 占하게 되면서 禪教對立의 양상은 禪教和會의 방향으로 바뀌고 禪은 華嚴등 教學思想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耘谷의 사상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詩에 나타나는 「法性圓融」의 華嚴思想이나 「願成西方」의 淨土思想이 그 例

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三教一理論도 禪教會通思想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할 것이다. 『詩史』에 수록된 連詩는 다음과 같다.

「三教一理幷序

如如居士三教一理論云 三聖人同生有周 主盟正教 儒教 教以窮理盡性 釋教 教以明心見性 道教 教以修眞鍊性 若曰 齊家治身 致君澤民 此特儒者之餘事 若曰 齋精養神 飛仙上昇 此特道家之祖迹 若曰 越死超生 自利利人 此特釋家氏之筌蹄矣 要其極處 未始不一 由此觀之 三聖人之設教 專以治性 所謂盡之見之鍊之之道 雖有小異 歸其至極 廓然瑩徹之處 皆同一性 何有所窒 礙哉 但以三聖人各有門戶 門之後徒 各據宗旨 皆以是已非 人心互相 訾謷 殊不知各人胸中 三教之性 明然具在也 騎驢者笑他 騎驢良可惜哉.

因寫四絕 以繼居士之志云

儒

格物修身窮理玄 盡心知性又知天
從玆可贊乾坤化 觀月光風共酒然

道

衆妙之門玄又玄 眞機神化應乎天
精修直到希夷地 水色山光共寂然

釋

一性圓融具千玄 法周沙界氣衝天
只這眞體如何說 碧海水輪共湛然

會三歸一

三教宗風本不差 較非爭是亂如蛙
一般是性俱無礙 何釋何儒何道耶」 (『耘谷詩史』卷 3)

1387年에 지은 이 詩를 통해 三教의 원리가 하나임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를 전후한 몇 편의 詩가 儒佛關係를 다루어 같은 思想을 전한다. 『三教一理論』을 撰한 如如居士가 누구인지는 不明하지만 耘谷이 그 思想에 共感하고 그 趣意에 입각하여 자신의 論을 전개하고 있다.

Ⅲ

문제는 耘谷이 당시 왜 이와같은 三教一理를 강조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新儒學의 전래이후 고려사회에 노정된 儒佛對立을 원리적인 면에서 극복하려는 사상으로 해석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朱子(1130～1200)에 의하여 集大成된 性理學으로서의 新儒學은 본질적으로 宋의 佛教나 道教가 지니고 있던 實修的인 이념을 수렴한 체계이다. 즉 新儒學은 종래의 經世的인 禮教學에 思辨的 內省的인 性理學을 아울러 居敬窮理의 學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新儒學의 전래에 따라 高麗儒學은 새로운 場을 맞이한다. 종래의 儒學思想에서 한걸음 진전을 보이며 시대적 임무를 자각하게 되고, 동시에 점차 排佛이라는 社會的 性格을 띠게 된다.

新儒學傳來 이전의 상황은 崔承老(927～989)의 「時務二十八條」에서,

> 「且三教各有所業 而行之著 不可混而一之也 行釋教者 修身之本 行儒教者 理國之源 修身 是來生之資 理國 乃今日之務……」(『高麗史』列傳 6)

라 말한 바와같이 三教의 業을 각기 별도로 보는 것이었다. 崔承老의 說이 佛教를 批判하는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긴 하지만 이처럼 「三教鼎足의 治世觀」이 근간이 되어 있으므로 治國은 儒教의 業이요, 修身은 佛教의 業으로 相互共存이 가능했다. 그러나 人性修養의

면이 강화된 新儒學에 있어서는 佛教의 역할이 필요없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麗末의 佛教界는 王室의 護國信仰을 중심으로 한 析福化, 佛事를 중심한 國庫의 낭비, 寺院經濟力의 擴大에 따른 각종 부작용, 社會混亂과 함께 야기된 僧侶의 資質低下 등으로 인해 國家의 興亡에 관건으로 부각되어 왔다. 新進士林의 排佛움직임은 性理學에 입각한 시대상황에 대한 반성이라 할 것이다.

특히 恭愍王(在位 1352 ~ 1374)때부터 論議되어 高麗가 滅亡하기까지 國力을 기울여 重建한 演福寺塔은 排佛움직임의 쟁점이 되었다. 수많은 士林이 斥佛疏를 올려 佛教를 「無父無君의 敗倫之道」라 공격하고, 이에 대해 圖讖原理를 응용한 護國護佛疏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혼란과 함께 기존 價値觀에 커다란 변질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危機狀況이 高麗社稷을 염려하는 耘谷의 詩想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된다.

일찌기 高麗太祖(在位 918 ~ 943)時의 行軍福田能兢法師等은 天台의 會三歸一原理를 三韓統一의 이념으로 부각시킨 바가 있었거니와 耘谷에 있어서도 이는 같은 성격을 띤다. 儒教는 窮理盡性으로 가르치고, 道教는 修眞鍊成으로 가르치며, 佛教는 明心見性으로 가르쳐 각기 맡은 바 業이 있다. 그러므로 三教宗風에는 본래 차별이 없으며 그들의 優劣을 論하는 것은 우물안의 개구리에 불과하다고 耘谷은 본다.

耘谷은 三教를 근원적으로 會通시킴으로써 治世澤民에 한가지 역할하는 것을 會三歸一로 본 것이다. 이후 朝鮮朝에 있어서 儒教는 治國理民의 원리가 되고, 道教는 科儀에서 鍊丹的인 성격을 갖게되며, 佛教는 山中에 은둔하여 實修的인 경향을 짙게 해간다. 그러나 古來의 三教等位의 관념은 朝野에 흥롱하며, 특히 儒臣들의 斥佛에 대한 護佛論은 한결같이 耘谷과 같은 三教一理論으로 전개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涵虛己和(1376 ~ 1433) 撰으로 알려진 『顯正論』이나

西山休靜(1520 ~ 1604)의 『三家龜鑑』이다. 다시말하면 耘谷은 僧侶들이 함구하는 高麗末期의 混亂한 社會狀況속에 三教一理論을 展開하여 三教가 會通하는 邂逅의 倫理를 제시한 것이다.

<『韓國宗教』제11.12집, 圓光大宗教問題研究所, 1987년 12월>

耘谷先生의 生涯와 現實思想

林 英 根
(半江古典硏究所 硏究委員)

1. 耘谷의 生涯
2. 耘谷의 忠節과 現實思想
   1) 耘谷의 忠節
   2) 耘谷의 現實思想

1. 耘谷의 生涯

耘谷의 姓은 元氏요 諱는 天錫으로, 고려 佐命功臣 金紫光祿大夫 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한 原州 元氏의 始祖 元鏡의 19대손이며, 고려 충숙왕 때에 宗簿寺監을 지낸 允迪의 둘째아들로 태어난 원주 원씨 중시조로써, 때는 고려 忠肅王 17년 庚午(1330)년으로 고려말기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原州元氏宗史 第1編 源分派圖)

耘谷은 어려서부터 秀才로 이름이 났었는데 成長하면서 文章과 學文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고려 말엽의 政治的 어려움을 개탄하면서 원주 雉岳山에 隱居하여 才智와 학문을 감추고 農事를 지어 어버이를 奉養하였다.

당시 耘谷의 慈堂께서는 항상 집이 가난하여 稅金을 織物로 바치기가 어려워서 耘谷에게 進士가 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耘谷은 부득이 開京으로 올라가 九齋籍을 갖고 國子監試에 응시하여 進士가 되었다. 이때 耘谷의 나이 26세 되던 해로 恭愍王[1] 4年(1355)년이다.

이것을 계기로 관로에 進出하려고 했다면 出世의 길을 갈 수도 있었겠으나 당시의 여러 시대상황이 耘谷으로 하여금 草野에 隱遁하게 하였고, 이는 朝鮮王朝 건립 후에도 不事二君의 忠節로 志操를 지키는 것으로 일관하게 된다. 더구나 耘谷은 朝鮮王朝 太宗의 어린시절에 師弟의 학연이 있었는데, 태종이 왕이된 후에 운곡을 불러 벼슬를 주려고 하였으나 치악산에 隱居해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耘谷의 志操는 가정에서도 이어져 36세되던 해에 부인과 死別하였는데 子女들의

주1) 恭愍王은 (1330년(忠肅王)~1374年(恭愍王23))
高麗 31代王으로 在位 기간은 24年(1351~1374年)이다.
號는 怡齋, 益堂, 忠肅王의 子, 妃는 元의 魏王의 딸 魯國大長公主이다.

養育을 위해 續絃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후취가 들어오면 가정의 平和에 금이 갈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二十四孝의 한사람으로 유명한 민자건이 후모로 부터 심한 差別을 받았는데 그에 憤慨한 아버지가 후모를 逐出까지 하려고 했던 옛일을 耘谷은 생각했던 것이다. 子息을 위해서 자기의 感情을 희생한 高貴한 父性愛와 純粹한 人間味를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農夫가 보리 몇섬만 타작해도 소실를 둘 생각을 한다는데 스스로 혼자 생활하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지켜보며 人生의 孤獨을 달래는 그의 人品, 용광로로도 녹일 수 없었던 그의 氣魄에 또한 이렇듯 절실한 인간상을 우리는 耘谷에서 발견 할수 있다.(金鍾武, '耘谷先生－그의 人物과 文學' 參照,『耘谷元天錫詩史』原州元氏譜所. 1984, 參照)

이러한 가운데 易東 禹倬[2]의 弟子로 鄭夢周을 비롯한 李穡 등 高麗末의 여러 儒學者의 스승인 申賢[3]의 文籍이 強制로 燒却당하는 화을 당하자 포은 정몽주는 신현의 사적을 收集하여 밤중에 雉岳山에 隱居하는 耘谷에게 보내 秘藏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에 耘谷이 所重한 事蹟을 後世에 전할 莫重한 任務을 갖고 高麗末 朝鮮朝 격변기에 伏涯范世東과 더불어 포은 등에 보낸 資料와 기타 收集한 신현의 事蹟을 편집하여 『華海師全』[4]을 著述하여 한질씩 所藏하게 된다.

耘谷의 著書로는 野史 6권과 詩集 5권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野史 6권은 後孫이 멸문을 두려워하여 燒却하여 전하지않고 詩集은 그가 20세 되던 해인 충숙왕 3년부터 朝鮮太祖 3년까지 약 44년간 읊었던 시를 編年으로 配列하여 3권 2책으로 만든것이 原形인데 후에 耘谷의 後孫이 다시 5권 3책으로 再編하여 總數 1140수에 이른다.

그의 몰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朝鮮太宗이 上王이 되어서 만나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90여세를 壽한 것으로 보인다.

2. 耘谷의 忠節과 現實思想

1)耘谷의 忠節

耘谷이 태어나던 時期는 高麗末의 혼란스러운 시기로 元나라에 의해 王朝가 좌지우지 되

주2) 禹倬은 1263年(元宗4)~1342年(忠惠王 復位3) 高麗學者, 字는 天章, 卓甫, 號는 易東

주3) 申賢은 1298年(忠烈王24)~1377年(우왕3) 高麗學者, 字는 信敬 平山人, 고려 개국공신 申崇謙의 後孫

주4) 현재 화해사전은 1920년 6월 발행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목판인쇄본과 1931년 발간된 활자본이 있는데 각기 序文 작성자가 다르고(전자는 李明植, 후자는 黃永直), 책의 편제(전자는 7권 3책, 후자는 4권 2책)나 목차등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점에서 이 책이 후인의 杜撰이거나 僞書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던 시기였다. 한때 元의 기반에서 벗어나 다시금 國運을 上昇 시킬수도 있었으나 恭愍王이 즉위 13년만에 弑害를 당하는 바람에 霧散되고 우왕 14년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은 후 창왕·공양왕을 거쳐 고려말이 끝나게 되자, 이해가 耘谷의 回甲 다음 해로서 결국 운곡은 고려말기에 육십평생을 보내고 조선조에서 나머지를 보내게 된다.

王朝의 變革이라는 歷史的 重大한 轉換幾의 混亂스러운 狀況에서 處身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써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기 쉽상이고 잘하면 開國功臣의 榮華를 누릴수 있는 시기였다.

더위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耘谷은 太宗과의 밀접한 관계로 官職을 내리려는 태종의 뜻을 여러번 거절하며 피하여 만나지 않는다. 이는 고려조에서 三隱으로 歷史에 남은 圃隱과 牧隱은 대관을 지냈으니 말할것도 없거니와 冶隱 吉再도 門下省의 注書로 七品職을 지냈으니 不事二君의 처사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고려조에서 일개 進士 정도로 벼슬이라고 볼 수 없던 운곡의 志操와 높은 절개는 三隱에 비해 훨씬 고고하겠다 하겠다.

中國의 忠節로 소문난 이로 伯夷叔齊를 꼽는데 이들 역시 二臣我君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무왕이 天下을 평정하자 首陽山에 들어가 숨어살다가 餓死하였으니 당연히 그 절개는 推仰해야 하지만 그들은 孤竹君의 王子로써 지배층의 사람으로 당연한 면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耘谷의 고려조에 대한 志操와 衷情은 그가 남긴 여러 시문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그의 時調중에,

興亡이 流水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부쳤으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라는, 「懷古歌」는 고려조에 대한 비한에 찬 마음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수있다.

이러한 耘谷은 金若時·李養中·范世東·李千善·金三近 등 30여명과 더불어 해마다 春秋로 치악산 마루의 바위에 祭壇을 만들고 列聖祖와 우왕·창왕·공양왕 등과 道德으로 推仰되거나 절개를 지킨 선비들을 配享하여 祭祀하였다.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杜門洞 72賢들로써 새로 개창된 조선왕조에서 臣僕이 되기를 거절하고 절개을 지키며 무너져가는 天地의 氣象을 바로 세우고 떳떳한 人倫을 밝히기로 뜻을 같이한 선비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耘谷의 忠節은 三隱이나 伯夷叔齊 이상으로 潔白하고 玲瓏하게 일생을 마친 耘谷만의 魂이라 하겠다.

2)耘谷의 現實思想

耘谷은 세상을 등지고 隱居하는 길을 택하였지만 미수 허목은 '君子은 숨어살아도 세상을 저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先生은 비록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지만 세상을 잊은분이 아니었다. 변함없이 道을 지켜 그몸을 깨끗이 하였다.' 라고, 운곡을 이야기 하였다.

耘谷은 臣下로써 갖추어야 할 德行으로 義·智·勇·忠을 強調하였으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의 德目으로 淸廉·正直·公平·謹勤 등을 強調하였다.

이러한 耘谷의 여러 思想과 現實을 바라보는 觀點은 그가 남긴 훌륭한 文學作品에 나타나 있는데 몇가지 작품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高麗王朝의 沒落을 초래하는 主要原因중에 大土地兼秉으로 사회경제적 혼란을 들수 있는데, 『耘谷詩史』를 보면 당시 耘谷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너진 집에 새들만 지저귀니
백성은 도망가고 아전도 보이지 않네
해마다 민폐만 더했거늘
어느날 어느때 즐겁게 지냈으랴
토지란 토지 권문가에 빼앗겼는데도
포악한 무리들은 문앞에 연이었네
묻노니 이 고생 누구의 허물인고
남아 있는 주민들 더욱 가엽어라

이와같이 當時의 狀況을 읊어 대토지겸병으로 인해 生活의 安定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歎息하고 그러한 事態을 매우 深刻히 認識하고 있었다.

내적인 대토지겸병과 외적으로 또한 紅巾賊에 의해 공민왕 10년에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까지 침입당하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 高麗에 대한 掠奪과 侵入으로 백성은 더욱 피폐해지고 經濟는 破綻에 이르는 등 공민왕대에 추진되는 改革政治에 대해 부정적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당시의 紅巾賊에 의한 狀況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온 땅에 돌린 풍진이 작년보다 거세니
사방 어디엔들 시끄럽지 않으랴
우리나라 터전이 반석처럼 견고하다면
하느님이 이백성들을 편히 잠들게 하실텐데

사람들 저마다 새해 온 줄도 모르니
일에 미쳐 고생하는것 얼마나 애처럽나
세상 따라 살아감이 남아의 일이라면
편히 잠들곳 없을까 봐 걱정하지 않겠건만

이와같은 耘谷의 作品으로 볼때 그는 대토지사유제를 反對하는 立場을 취하는 한편 高麗의 어지러움이 하루빨리 回復되어 國家秩序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즉 王朝自體의 變化보다는 高麗王朝를 인정하면서 그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崔瑩 등과 같은 온건 改革主義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王朝 自體의 變化을 바라는 이성계 등의 급진개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왕 14년 위화도回軍을 두고 耘谷이 읊은 詩에 나타나는데 回軍에 대한 그의 입장, 崔瑩에 대한 認識 및 요동정벌론에 대한 그의 認識態度를 알려준다.

용감한 군대 십여만이
압록강을 건너려 하여
바야흐로 요해의 길에 있는데
씩씩한 기운이 깃발 위에 떠있네
우위을 중원에 떨치면
누가 감히 외복치 않으리오
응당 개선하는날
사이가 모두 부속하리라
임금의 수명은 무강하여
주무왕의 발굼치를 이어 밟으리
내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더불어 태평곡을 부르리라
어찌 강을 건너지 않고
분연히 말고삐를 돌리는가
가련한 도롱곡은 홀로 원함을 사고 있네
주춧돌이 이미 위태로우니
장차 큰집을 어찌 지탱할까

이 시에서 耘谷은 요동정벌 計劃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당대 知識人들의 正統思想이나 華夷思想과는 달리 그가 최영의 요동정벌론을 찬성한것은 최영이 매우 淸廉剛直하고

오직 나라에 忠誠한다는 確固한 信念을 가진 人物로 널리 알려졌고 高麗王朝의 國家秩序를 回復시키기 위하여 최영을 나라의 주춧돌로 社稷을 안정케 할수있는 人物로 여기고 있었던 점과 崔瑩과 마찬가지인 남의 領土을 빼앗으려는 侵略의 野慾을 民族의 自尊心으로 도저히 容納할수 없었던 것으로 요동정벌론을 찬성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렇듯 高麗王朝에 대한 절의가 확고한 耘谷이었으나 朝鮮王朝成立過程에서 보이는 그의 態度, 太宗과의 관계, 만년에 太宗에 의한 그의 아들의 조선정계로의 進出 등은 耘谷이 朝鮮王朝 自體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자신은 高麗王朝와 함께 절의을 지켜 隱遁해 버렸으나 大勢의 論理에 따르는 불가피한 現實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천명과 인심은 덕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새 왕조의 공은 하루 아침 사이에 있었네

라는, 시에서 살필 수 있듯이, 君主가 정을 베풀지 않아 民心을 잃게되면 天命과 人心은 바뀌어 君主도 바뀔수 있다는 易姓革命의 理論에 同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急變하는 狀況은 耘谷으로 하여금 많은 葛藤을 겪게끔 하지만 그 자신은 高麗王朝에 대한 절의를 지켰는데 『耘谷詩史』에서 보면, 高麗王朝 우왕 이전의 高麗王朝에 대해서는 國으로 그 이후 朝鮮王朝에 들어서는 新國으로 表現하고 있는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朝鮮王朝에 대한 確實한 態度는 明白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耘谷은 現實에 急激한 變化보다는 온건적인 改革를 바라는 온건改革主義者로 볼 수 있으며 보다 重要한 것은 人心, 즉 民心을 상당히 重視하여 民心을 根本으로 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稚岳金石文集』 第三輯, 半江古典研究所, 1994년2월>

參考文獻

原州元氏 中央宗親會, 『耘谷元天錫詩史』 1984

李恒植, 『華海師全』 栗里祠, 1920

原州郡, 『原州地方書院學術調査報告書』, 1992

原州文化院鄕土誌編纂委員會, 『原州·原城鄕土誌』, 1976

原州文化院, 『元耘谷居義』 1990

金鍾武, 「耘谷先生 — 그의 人物과 文學 —」 『耘谷元天錫時史』, 1984

柳桂姬, 「元天錫研究」 『수촌 박영석교수 회갑기념 韓國史學論叢』, 1992

高麗·李朝의 易姓革命과 元天錫

歷史에 있어서의 선비정신과 知性의 역할

李 佑 成
(성균관대 교수)

고려와 이조의 역성 혁명기(易姓革命期)에 있어서 힘과 책략으로 피비린내를 풍긴 역사 현상과는 달리 현실에서 오솔진 임번(林樊) 기슭에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온 예지(叡知)들이 있었다. 여기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을 더듬어가면서 민족의 이성과 시대의 양심을 발견하려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原州 元氏

원천석(元天錫)은 자가 자정(子正), 호가 운곡(耘谷), 본관 및 거주지가 다 원주(原州)였다. 원래 원주에는 두 갈래의 원씨(元氏)가 살고 있었는데 모두 지방 토착씨족으로 당시에는 서로 혼인을 하기도 했다. 원천석의 부인 역시 원주 원씨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말해 준다. 후세의 안목으로 본다면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혼인이라 해괴한 일이 되겠지만 고려 때에는 그것이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원천석의 가계(家系)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시조 克富(戶長)—宗儒—寶齡(倉正)—時俊(倉正)—悅(精勇別將)—┐

└允迪(宗簿寺令)—┬—天常(進士)
　　　　　　　　├—天錫(進士)
　　　　　　　　└—天祐(縣令)

그의 세보(世譜)는 6대조까지 소급해 올라갈 수 있는데, 6대조이자 시조 격인 극부(克富)는 원주의 호장(戶長)이었고 고조·증조는 창정(倉正)이었다. 호장이니 창정이니 하는 것은 모두 지방 향리직(鄕吏職)이었다. 달하자면 원천석은 원주 아전의 후손이었다. 그의 조부는 정용별장(精勇別將)을 했는데, '정용(精勇)'이란 '보승(保勝)'과 함께 고려 때의 주현군(州縣軍)의 부대의 명칭이었으며 별장은 그 부대장이었다. 그러나 주현군의 부대장이었던만큼 그의 활동은 아직 원주 지방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부친 윤적(允迪)에 이르러 비로소 미관말직(微官末職)이나마 중앙관서에 진출하였다. 종부시령(宗簿寺令)이 그것이다.

고려 때의 향리는 이조 때와 달라서 사회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별로 신분상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양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지방사회에 있어서 향리층은 그 대표적 토착 세력이었다. 특히 고려 후기에서 말기(13세기)로 접어들면서 향리층의 자제들은 과거(科擧) 기타의 방법으로 대거(大擧) 중앙에 진출하였다. 당시 중앙 권력층이었던 소위 '세신거실(世臣巨室)'들은 정치적 기복이 무상하여 주다 등처럼 전변과 교체를 거듭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 향리층은 대개 중소 지주로서 경제적으로 착실한 성장을 보인데다가 지방 행정의 실무를 통한 능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아울러 문학적 교양을 쌓아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중앙의 관료로 등장했던 것이다.

고려 말기의 신흥 관인군——사대부(士大夫)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 향리의 씨족들이었다.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 등 고려왕조의 후광을 빛낸 석학(碩學)들이 그러하였고, 정도전(鄭道傳)·윤소종(尹紹宗) 등 이조 건국의 공신들이 모두 그러한 계열이었다. 이성계(李成桂)도 모계로 볼 때에 마찬가지였다.

원주 원씨도 위와 같은 역사의 추세 속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 당시 다른 지방의 향리의 씨족들이 이미 중앙에서 혁혁한 명문(名門)으로 영예를 누리고 있는 데 비해, 원천석의 집안은 그 부친의 지위로 보아 출세가 아주 느린 편이었다. 그러나 원천석의 3형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로 나아갈 때 원씨 가문의 앞날은 희망에 차 있는 듯하였다.

원천석은 3형제 중의 둘째로서 어릴 적부터 재명(才名)이 대단하

였다. 차차 성장하면서 그는 문장의 섬부(贍富)와 학문의 해박으로 경향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청운의 굼은 손쉽게 달성될 것 같았다.

그런데 젊은 원천석의 눈에 비친 당시의 세태는 부조리하기 그지없었다. 정치·법제·사회 어느 면을 보거나 난마(亂麻)와 같았고 부정부패가 상하를 막론하고 만연한 가운데 고려왕조는 각각으로 역사적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원천석은 드디어 출세를 단념했다. 고향에 눌러앉아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었다. 그는 되도록 자기의 성예(聲譽)를 감추기로 하였다. 그런데 병무를 담당한 안부(按簿)가 그를 군적에 등록시키려 했다. 그는 벼슬과 관계 없는 백신(白身)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득이 서울(開城)로 올라가 진사에 응시하여 일거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계기로 사환(仕宦)에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진사의 신분을 획득하여 병역의 면제를 받음으로 그의 목적은 끝났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사는 그에게 있어서 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호신부(護身符)일 뿐,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이다.

2. 中央政界의 激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 말기의 중앙 정계는 중앙 권력층——세신거실(世臣巨室)들과 지방에서 신진(新進)한 관료——사대부(士大夫)들과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져 있었다. 세신거실(世臣巨室)들이 왕실과의 혼인 관계 내지 근친적(近親的) 유대를 가진 집단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수탈과 침점(侵占)으로 광대한 장원(莊園)을 영유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사대부들은 재지적(在地的) 토지 소유자로서 개간과 경영에 힘써 온 나머지 중소 지주로 성장한 것이었으므로, 저러한 장원 영유의 확대는 중소 지주의 발전에 커다란 제약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이 신진 관료로서 중앙에 진출했을 때 역시 세신거실들의 지배체제가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양자 사이에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세신거실들이 불교에 심취

하여 사원(寺院)의 영건(營建), 승니(僧尼)의 시사(施捨) 등 막대한 비비(糜費)를 일삼으면서 내세의 천당을 바라고 있는 데 대하여, 사대부들은 유학(儒學), 특히 새로 수입된 주자학(朱子學)을 받아들여 현실사회의 윤리도덕 즉 인륜(人倫)을 강조하고 있었다.

당시 대륙의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고려의 역대 왕실과 국구(國舅)의 의를 맺어 오던 원(蒙古)이 북쪽 사막으로 쫓겨가고 한민족(漢民族) 왕조——즉 명(明)이 다시 중화제국(中華帝國)으로 군림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미묘한 처지에 놓였다. 원나라가 비록 몰락은 했으나 아직 여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명은 새로 일어난 세력이긴 했으나, 원과 같이 우리와 오랜 친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아직 그 태도를 알 수 없는 사이였다.

이에 대하여 세신거실들은 친원(親元)을 내세우고 북쪽으로 사절의 왕래를 지속하려 했으나 신진 사대부들은 친명(親明)을 표방하여 강력히 맞서는 동시에 북원(北元)의 사절을 우리 국경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이와 같은 외교 문제의 대치는 또한 그들의 입장의 표명이었다.

세신거실들이 왕실과 일체가 되어 오랫동안 원과의 밀접했던 관계를 저버릴 수 없었음에 대하여 신진 사대부들은 주자학적 이념에서 중화제국에 친근감을 가질 뿐 아니라 몰락한 원을 버리고 새로 일어난 명과 손을 잡는 것이 국가 장래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신진 사대부들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정세 파악에 있어서 분명히 한걸음 앞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다른 복선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세신거실들과 원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그네들의 정치적 고립을 획책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겠기 때문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신진 사대부들은 토지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전 혁파(私田革罷)'를 소리소리 외쳤다.

이 '사전 혁파(私田革罷)'는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 국계(國計)와 민생(民生)을 위한 절실하고도 정당한 주장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 이면에는 장원 영유를 해체시켜 세신거실들의 물질적 기반을 빼앗아 버리는 한편, 자기들의 지주적(地主的) 토지 소유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하려는 고차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고려 정부 안의 두 개의 대립 세력을 점차 첨예화시켜 두 사람의 중추적 인물의 대결로 그 양상이 압축되었다. 최형(崔瑩)과 이성계(李成桂)의 관계가 그것이다. 최형은 중명(重名)을 지닌 국가의 원훈(元勳)이며 세신거실의 대표적 인물임에 대하여 이성계는 변방 출신으로 훌륭하고 성실한 무인이며 신진 사대부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인물이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은 필경 1388년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이라는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결말을 보았다. 그것은 최형이 친원 반명(親元反明)의 국책을 새삼 다짐하고 명의 요동(遼東)을 정벌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압록강을 건너게 하는 한편 우왕(禑王)과 함께 자신이 직접 평양으로 가서 전쟁을 지휘하려 했는데,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있었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전진하지 않고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리어 달머리를 돌려 최형을 역습한 것이다.

최형은 우왕과 함께 급히 개성으로 달려갔으나 사태는 이미 늦었다. 이성계는 최형을 고양(高陽) 쪽으로 귀양보내 결국 죽여 없애고 우왕의 왕위를 박탈하여 강화로 추방한 뒤에 겨우 9세밖에 안 되는 우왕의 아들 창(昌)을 왕위에 앉혔다. 그러나 겨우 1년 만에 창왕도 폐출을 당하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恭讓王)이 서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이성계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신진 사대부들이 주창했던 사전 혁파(私田革罷)는 곧 실행되어 전적문서(田籍文書)를 거리에 내어다가 3일 동안 불태워 버렸다. 세신거실들은 완전히 패망하였다.

이제 신진 사대부들의 정치적 이념은 유감없이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중대 문제가 있었다. 고려 왕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같은 사대부들 중에서 다시 의견의 분열이 심각하였다. 정몽주(鄭夢周) 일파와 같이 전통적 왕실을 추대하자는 충성파가 있는가 하면 정도전 일파와 같이 낡은 왕실을 뒤엎고 신왕조를 건설하자는 현실파가 있었다.

신왕조(李朝)의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뒤에 이조의 제3대 왕이 된 이방원(李芳遠 : 太宗)은 아버지 이성계의 정치 활동의 최고 참모였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파 쪽으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다. 정몽주를 초대해 놓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만수산(萬壽山) 드렁칡이 얽어진들 기 어떠하리/우리도 저같이

얽어져서 백년까지 누리과저"라는 노래를 불러, 신왕조 건설의 포부를 시사하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고 하여 현실주의적 인생관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정몽주의 화답이 유명한 단심가(丹心歌)이다. 정몽주는 백골(白骨)이 진토(塵土)가 되더라도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변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정몽주는 선죽교(善竹橋)에서 피를 흘렸고 고려의 국조(國祚)는 종막을 고했다. 충성과에 대한 현실과의 승리로 낙착되었다.

원천석(元天錫)은 그 출신으로 보아 신진 사대부 계열에 속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중앙 권력층에 동조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어지러운 현실에 몸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 중앙 권력층——세신거실(世臣巨室)과의 정치 투쟁에 깊이 발을 빠드린 적이 없었거니와, 뒤에 이성계의 쿠데타에 몹시 비판적이기도 했다. 더구나 신왕조의 정치적 정통성은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3. 雉岳山의 史詩

원천석은 어느 한때에 이방원(太宗)에게 스승 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당시의 이방원은 불과 한 장군 이성계의 아들로서 글공부를 통하여 과거(科擧)로 발신(發身)할 뜻을 가졌던 것이다. 이성계는 원래 무인의 가계로서 자기 집에 글하는 선비가 없음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방원에게 명하여 스승을 좇아 학업에 힘쓰게 하였다. 그러다가 우왕 때에 방원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이성계는 감격하여 궁정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였고 뒤에 방원이 제학(提學)에 임명됐을 때 이성계는 기쁨에 넘쳐 사람을 시켜 그 사령장(辭令狀)을 재차 삼차 읽어보게 했다고 한다. 이방원은 원천석에 대하여 항상 스승으로 존경하였다. 아마 이성계도 원천석을 잘 알고 있었음이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원천석은 이성계 부자에게 정치적 결탁을 의도하지 않았음은 물론 평소에 남달리 접촉조차 가지기를 싫어했던 것 같다. 원천석은 고향에 돌아와 현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시국을 개탄하고 정의를 밝히려는 데 있어서는 그 자세가 의연하였다. 위화도 회군과 더불어 우왕의 하야와 최형의 죽음을 듣고 그는 이 커

다란 변고가 곧 고려왕조의 운명에 직결되는 것임을 의식하였다. 원천석은 고려왕조의 은택을 별로 받은 바 없는 암혈(巖穴)의 처사였다. 그러나 고려의 성균진사(成均進士)인 그는 고려왕조에 대한 의리를 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원천석에게 있어서 증오로왔던 것은 정치 투쟁에 있어서의 힘과 책략의 발호였다. 정적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날조하여 상대편을 죄인으로 만들고 정권을 앗아내기 위해서는 의리(義理)를 가장하여 온 세상을 겸제(箝制)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권력에 추부(趨附)하는 자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는 말할 것도 없고 한술 더 떠서 앞잡이 노릇에 감심(甘心)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은 자기의 주체를 지키기도 힘드는 일이었다.

원천석은 그 당시에 있어서 역사가 크게 왜곡되어 가고 있음을 주시하였다. 그는 치악산(雉岳山) 속에서 계절의 변천을 알려주는 풀잎을 어루만지며 사필(史筆)을 대신하여 시를 썼다.

주상(主上) 전하께서 강화로 옮겨지고 원자(元子)가 즉위하셨다는 소식에 접하여

1

성(聖)과 현(賢) 서로 만나 교대하는 이 시기
하늘의 운수 돌고 돎을 이로부터 알겠네.
초야의 백성인들 나라 걱정하는 마음 어찌 없으랴.
다시 간절한 충심으로 나라의 안위(安危) 염려한다오.

2

새 임금 등극하고 옛 임금 옮겨가니
쓸쓸한 바닷고을에 바람과 연기뿐이로세.
하늘 문(門) 올바른 길은 그 누가 여달을 건고.
밝고 밝은 비추심 눈앞에 있는 것, 곧 브게 되리라.

伏聞主上殿下 遷于江華 元子卽位 有感二首

其一

聖賢相遇逐當時　天運循環自此知
耿耿豈無憂國意　更殫忠懇念安危

其二

新主臨朝舊主遷　蕭條海郡但風烟
天關正路誰開閉　要見明明鑒在前

이 시는 우왕(禑王)이 강화(江華)로 천류(遷流)되고 창왕(昌王)이 즉위한 것을 읊은 것으로, 자기가 비록 전야에 묻혀 있으나 우국의 충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과 신·구왕의 교대라는 합리화된 정변이 명명(明明)한 거울 앞에 언젠가는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도통사(都統使) 최공(崔公)이 사형당했다는 말을 듣고

2

조정에 홀로 섰을 때 감히 덤빌 자 없고
오직 그 충의로 갖은 어려움 이겨냈으니
온 나라 백성들의 소망 따르고
삼한(三韓)의 사직을 안정되게 하였네.
동렬(同列)의 영웅들 낯짝이 새삼 두껍고
죽지 못한 간사한 무리들 뼈골이 오히려 서늘하리.
어지러운 때를 다시 만나면 누가 계책을 낼 것인고
가소롭도다, 오늘 사람들의 간교한 장난질이.

3

나 이제 부음(訃音) 듣고 애도의 시를 짓지만
공(公)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나라 위한 슬픔이라오.
하늘의 운수 막히고 터짐 그 누가 알겠는가
나라 터전의 안정과 위태로움 아직 미정이온데
날카로운 칼날 이미 꺾이었으니 탄식한들 어찌하랴.
왼르운 충성 오래도록 지탱할 수 없음이 한이어라.
산하(山河)를 향해 앉아 홀로 이 노래 읊으니
흰구름 흐르는 물 모두 함께 슬퍼하네.

都統使崔公被刑三首

其二

獨立朝端無敢干　直將忠義試諸難

爲從六道黔黎望　能致三韓社稷安
同列英雄顔更厚　未亡邪佞骨猶寒
更逢亂日誰爲計　可笑時人用事奸

其三

我今聞訃作哀詩　不爲公悲爲國悲
天運誰能知否泰　邦基未了定安危
銘鋒已折嗟何及　忠膽常孤恨不支
獨對山河歌此曲　白雲流水總噫噫

이 시는 최형(崔瑩)이 생시에 전국민의 여망 위에 삼한(三韓)의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크나큰 공적을 찬양하고 그를 해친 동렬(同列)의 영웅(李成桂를 가리킴)이 낯이 두껍다고 대담한 비난을 가한 뒤에 원천석 자신이 혼자 조국의 산하를 대해 이 슬픈 곡조를 노래하는데, 무정한 백운(白雲)과 유수(流水)도 함께 조의(弔意)를 표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당시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최형을 '온 천하의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 두번 다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없게 해놓고 있는데 원천석은 그것을 아랑곳없이 자기의 양식(良識)으로 솔직이 말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큰 쟁점을 남겨 둔 것은 우왕·창왕 부자의 혈통 문제였다. 이성계를 추종하는 자들은 우·창 부자를 왕씨(王氏)가 아니고 요승(妖僧) 신돈(辛旽)의 자·손이라고 규정하여 폐위와 더불어 죽여 없앴다. 그리고 우·창의 재위 기간을 '신조(辛朝)'라고 불렀고 뒤에 『고려사(高麗史)』 편찬 때에 우·창을 반역전(叛逆傳)에 넣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창의 추방을 정당화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대(一代)의 명유(名儒)로 추앙받던 학자 중에도 애매한 태도를 보인 자가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원천석의 시를 음미해 보자.

이달 15일에 나라에서는 이미 정창군(定昌君)을 왕위에 앉히고 전왕(前王) 부자는 신돈(辛旽)의 자손이라 하여 폐위시켜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爲從六道黔黎望　能致三韓社稷安
同列英雄顔更厚　未亡邪佞骨猶寒
更逢亂日誰爲計　可笑時人用事奸

其三

我今聞訃作哀詩　不爲公悲爲國悲
天運誰能知否泰　邦基未了定安危
銘鋒已折嗟何及　忠膽常孤恨不支
獨對山河歌此曲　白雲流水總噫噫

이 시는 최형(崔瑩)이 생시에 전국민의 여망 위에 삼한(三韓)의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크나큰 공적을 찬양하고 그를 해친 동렬(同列)의 영웅(李成桂를 가리킴)이 낯이 두껍다고 대담한 비난을 가한 뒤에 원천석 자신이 혼자 조국의 산하를 대해 이 슬픈 곡조를 노래하는데, 무정한 백운(白雲)과 유수(流水)도 함께 조의(弔意)를 표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당시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최형을 '온 천하의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 두번 다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없게 해놓고 있는데 원천석은 그것을 아랑곳없이 자기의 양식(良識)으로 솔직이 말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큰 쟁점을 남겨 둔 것은 우왕·창왕 부자의 혈통 문제였다. 이성계를 추종하는 자들은 우·창 부자를 왕씨(王氏)가 아니고 요승(妖僧) 신돈(辛旽)의 자·손이라고 규정하여 폐위와 더불어 죽여 없앴다. 그리고 우·창의 재위 기간을 '신조(辛朝)'라고 불렀고 뒤에 『고려사(高麗史)』 편찬 때에 우·창을 반역전(叛逆傳)에 넣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창의 추방을 정당화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대(一代)의 명유(名儒)로 추앙받던 학자 중에도 애매한 태도를 보인 자가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원천석의 시를 음미해 보자.

이달 15일에 나라에서는 이미 정창군(定昌君)을 왕위에 앉히고 전왕(前王) 부자는 신돈(辛旽)의 자손이라 하여 폐위시켜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1

전왕(前王) 부자가 각기 서로 헤어졌다니
만리 밖 동쪽 서쪽 하늘의 한 끝이라네.
가령 몸 하나야 서민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올바른 마음이야 천고에 바꾸지 못하리라.

2

조왕(祖王)의 진실한 맹세 하늘에 감응했기에
끼친 은택이 수백 년을 흘러 전했거늘
어찌하여 일찌기 거짓과 참을 분간치 않았단 말인가.
저 푸른 하늘의 거울만은 밝게 비춰주리라.

聞今月十五日 國家已以定昌君立王位 前王父子 以爲辛旽子孫 廢爲庶人

其一

前王父子各分離　萬里東西天一涯
可使一身爲庶類　寸心千古不遷移

其二

祖王信誓應乎天　餘澤流傳數百年
分揀假眞何不早　彼蒼之鑑昭明然

이 시는 우왕·창왕에 관한 원천석 자신의 촌심(寸心)의 심증(心證)이 천고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왕씨(王氏) 혈통으로 진(眞)·가(假)가 문제된다면 왜 일찍부터 분간하지 않았던가고 힐문하면서 저 하늘의 하감(下鑑)이 밝게 비춰주리라고 말하였다.

권력의 통제하에 역사가 왜곡되는 당시의 엄연한 사실을 이 치악산의 사시(史詩)가 훌륭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4. 遺　　言

신왕조의 제 3 대왕으로서 왕좌에 앉게 된 이방원(李芳遠)——즉 태종(太宗)은 옛스승을 생각하여 여러 번 징소(徵召)를 내렸으나 원천

석이 응할 리 없었다. 태종은 동도(東道)의 순행(巡幸)길에 치악산에 들러 일부러 어필(御蹕)을 멈추고 원천석을 정중히 예방하였다. 그러나 원천석은 미리 선성(先聲)을 듣고 어디론지 피신해 버리고 말았다. 태종은 무척 서운하였다. 그야말로 "이 산속에 있기는 한데 구름이 깊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태종은 앞 시냇물 바윗돌 위에 앉아서 원천석의 집을 지키고 있던 노파를 불러 어찬(御饌)을 나누어 주었다. 이 노파는 태종이 그 옛날 스승의 집에 다니면서 공부할 당시의 주인이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 바윗돌을 태종대(太宗臺)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 위치는 치악산 각림사(覺林寺) 곁에 있다고 한다.

세월은 흘러 태종은 왕위를 그의 아들 세종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으로 한가로운 생애를 보냈다. 이때 태종은 옛 스승을 다시 초청하였다. 원천석은 이때 백의(白衣)를 입고 서울로 왔다. 원천석이 전과 달리 초청에 응한 것은 태종이 현직의 왕이 아니므로 단순히 옛날의 정의를 위하여 만나본다는 것이며, 그러나 백의를 입은 것은 그가 어디까지나 전조의 유민(遺民)임을 표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태종은 궐내에서 옛 스승을 모셔놓고 은갖 옛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왕손을 불러 인사를 시켰다. 태종은 여러 손자를 가리키며 어떠한가를 물었다. 원천석은 세조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내조(乃祖 : 제 할아버지—太宗)와 비슷하니 슬프다, 형제를 사랑할지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태종이 자기 형제들을 희생시키고 왕위를 차지한 것을 전례로 들면서 세조의 장래가 또한 그러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거니와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원천석은 일차 태종과 만난 일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방외인(方外人)의 자격으로였을 뿐이다.

원천석은 만년에 야사(野史)를 저술하여 궤짝 속에 넣은 뒤에 세 개의 열쇠를 채우고 일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비밀의 기록'으로 후세의 역사를 위한 증언으로 남기려는 것이었다. 그는 임종 때 자손을 불러놓고 "이 책을 가묘(家廟)에 감추어 두고 잘 지키도록 하라"고 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 책의 표지에 쓰기를 "내 자손 중에 나와 같은 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책을 펼쳐 볼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그 자손들은 대대로 조심스럽게 그 유언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증손의 시대에 와서 사당에 시사(時祀)를 지내고 종족(宗

族)이 한 자리에 모여 "선조께서 비록 유언이 계셨지만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별다른 혐기(嫌忌)가 없을 듯하니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여 드디어 그 궤의 열쇠를 열었다. 책을 펼쳐든 자손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하였다. 고려말의 역사를 모두 사실 그대로 직서하여 이조의 내력을 송두리째 혼들어놓은 것이다. 자손들은 이것이 멸족(滅族)의 화를 가져올 것이라 하여 드디어 불살라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5. 맺 음

애석하게도 그 '비밀의 기록'은 사라져 없어졌지만 원천석의 사시(史詩)는 길이 남아 역사의 증언이 되어 준다. 이것은 곧 민족의 이성(理性)이며 시대의 양심이다. 후세의 공론들은 모두 원천석의 증언을 따랐다. 퇴계(退溪)는 우·창의 문제에 관해서 "국가 만세 후(이조가 끝난 뒤)에 나는 운곡(耘谷)의 의리(義理)를 쫓겠노라"고 했고, 상촌(象村) 신흠(申欽)은 원천석의 시(詩)를 소개하면서, 이 시가 정도전(鄭道傳)·정인지(鄭麟趾) 등의 곡필(曲筆)로 된 사서(史書)보다 훨씬 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뒤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에 이르러 그의 편사(編史)에서 정식으로 원천석의 견해를 채입(採入)하였다. 한 선비의 주체적 자세가 역사의 왜곡을 막는 것이다.

<月刊中央 1973. 1.>

麗末鮮初의 政治的 變革과 耘谷의 道學精神

〈「耘谷元天錫詩史」를 中心으로〉

池 敎 憲

(청주교육대 교수)

〈目 次〉

Ⅰ. 序 言
Ⅱ. 麗末鮮初의 政治的 變革
Ⅲ. 耘谷道学精神의 性理学的 宗教的背景
1. 麗末鮮初의 性理学派의 両大潮流
2. 耘谷의 宗教観
Ⅳ. 耘谷의 道学精神
1. 政治哲学과 吏道精神
2. 歷史意識과 憂国精神
3. 社会意識과 愛民精神
Ⅴ. 結 言

Ⅰ. 序 言

耘谷元天錫은 1330年(高麗忠肅王 17年) 7月8日 原州에서 出生하여 90餘歲의 平生을 주로 雉岳山에 隱居하였다고 한다.

朝鮮王朝 第3代 太宗은 即位하기 전 일찌기 耘谷에게 글을 배운 일이 있고 매우 尊敬하였기 때문에 即位한 후에는 그에게 여러 차례 벼슬을 주려하였고 몸소 雉岳山까지 枉顧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耘谷은 太宗을 만나지 않고 피하였다고 하며 覺林田園을 下賜해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伝한다. 이러한 事実들은 弁岩 嫗淵(老嫗沼) 横指岩 駐蹕臺(太宗臺) 拜向山 冤峴재 大王재等 原州地方 一帯에 散在한 遺蹟들이 傍証하고 있다.[1]

耘谷이 이와 같이 權力과 등지고 深山에 隱居하게 된 까닭은 麗末鮮初의 政界를 悲觀

註 1) 耘谷元天錫詩史 刊行辭 및 写真資料 참조.

한데 있었다. 그의 詩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当時의 世態는 固有한 制度와 綱常이 頽廃하고[2] 王位継承이 紊乱하며 易姓革命이라는 극단적인 事態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貪官汚吏로 인하여 民生은 塗炭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특수한 狀況性을 지니고 있었다.

耘谷은 이러한 時代的 背景을 지니고 野史 6卷을 著述했다고 하는데 別世하기 전에 손수 石函을 만들어 그 안에 넣고 子孫들에게 「賢子가 아니면 망영되이 열지 말라」고 遺言했으나[3] 그 曽孫代에 이르러 開函하여 野史를 읽어 보니 麗末鮮初의 政治的 變革에 얽힌 不義를 事実대로 開陳하였으므로 子孫에 대한 後患이 두려워 史書를 모두 焼却해 버렸다고 한다.

耘谷의 思想은 6卷이나 되는 그의 史書 속에 잘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랜 옛날에 湮滅되고 말았으니 부득이 「耘谷元天錫詩史(耘谷行録詩史)」에서 断片的으로 알아 볼 道理 밖에 없다.

耘谷元天錫詩史의 原本 「耘谷行録詩史」는 그의 나이 22歳(1351 高麗忠正王 3年)부터 65歳(1394 朝鮮 太祖 3年)에 이르는 44年間에 쓰여진 1144편이나 되는 尨大한 詩集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量의 詩 가운데는 麗末鮮初의 王朝鼎革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얽힌 여러가지 作品들이 相当히 있었을 것으로 推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 것은 野史를 焼却할 때에 함께 滅失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5]

耘谷元天錫詩史는 1975年 元永道로 부터 入手한 原典 「耘谷行録詩史」 3冊 5卷을 李鎭泳이 번역하고 閔泰植 金鍾武의 監修를 거쳐 1977年에 發行되었다.

耘谷에 대하여는 이미 部分的으로나마 研究되고 評価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의 詩史만을 資料로 하여 政治 歷史 社会 宗教등 諸領域에 걸친 耘谷의 道学精神을 考察하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第二章에서는 그가 平生을 살아 온 時代的 社会的 背景이라고 할 수 있는 麗末鮮初에 일어났던 政治的 変革을 考察하고 第三章에서는 그의 学問的 思想的 背景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麗末鮮初의 性理学派의 両大潮流와 그의 宗教観을 살핀 다음에 第Ⅳ章에서는 그의 具体的인 道学精神을 이루고 있는 政治哲学과 吏道精神, 歷史意識과 憂国精神, 社会意識과 愛民精神을 차례로 論하고 第Ⅴ章에서는 그의 道学精神에 立脚한

註 2) 制度綱常在海東 狂瀾既到没遺風(op. cit. p.386, p.424)

3) 初先生有蔵書 六巻 言亡国故事 戒子孫勿妄開(op. cit. p.571, p.587 石逕墓所事蹟 참조)

4) 金鍾武: 耘谷先生 〈그의 人物과 文学〉 (op. cit. p.30)

5) op. cit. p.31

人生觀을 言及함으로써 結言을 삼고자 한다.

Ⅱ. 麗末鮮初의 政治的 変革

14世紀 後半의 高麗王朝는 政治的으로 커다란 変革을 이르킨 大転換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 期間은 바로 高麗王室이 滅亡하고 朝鮮王朝가 創業되는 時期인 까닭에 朝廷과 重臣들을 둘러 싸고 重要한 事件들이 잇달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우선 1374年 9月에는 宦官 崔萬生등이 恭愍王을 弑害한 事件이 일어났다. 崔萬生은 益妃가 子弟衛 洪倫과 內通하여 孕胎하였음을 王에게 密告한 緣由로 오히려 處刑을 당하게 되자 洪倫 韓安 權瑨 洪寬 盧瑄등 子弟衛와 謀議하여 夜半에 寢殿을 侵犯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江寧大君 禑가 即位하게 되었다.

1388年 5月에는 本意아닌 遼東征伐에 나서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右軍都統使 李成桂가 威化島에서 開京으로 回軍하여 禑王을 廢하여 江華로 追放하고 王子 昌을 擁立하였고 12月에는 高峰縣에 流配中이었던 親元派이자 保守勢力의 政治的 主軸이었던 崔瑩을 殺害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나 頂上의 実權者로 登場한 李成桂는 1389年 11月에 昌王을 王氏의 血統이 아니라는 口実로 廢位해 버리고 定昌君 瑤(恭讓王)를 迎立하였으며 12月에는 廢王父子(禑 昌)를 殺害하였다. 다음 해 2月에는 李穡을 拷訊하고 4月에는 流配하였으며 5月에는 下獄하였다.

1392年 4月에는 高麗王室의 賢臣 鄭夢周를 撃殺하므로써 李成桂는 高麗王朝의 忠臣들과 反対勢力을 거의 모두 除去한 結果가 되었고, 創業의 기틀이 完全히 確保되었기 때문에 7月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中軍總制使守門下侍中의 자리에 있던 裵克廉등에 의하여 王으로 推戴되었다. 이 때 恭讓王은 廢位되고 原州에 放置되었으며 李成桂는 壽昌宮에서 即位하므로써 易姓革命이 成就되었다.

그 이듬 해인 1393年 2月에는 国号를 朝鮮으로 고치고 1394年 4月에는 恭讓王 父子를 비롯한 많은 王氏族을 殺害하였으며 10月에는 都邑을 漢陽으로 옮기었다.[1]

그런데 이로부터 4年後인 1398年 8月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戊寅靖社라고 불리우는 王子의 乱이 일어남으로써 自中之乱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王位継承権을 에워싸고 일어난 王子간의 싸움으로 芳碩의 乱 또는 鄭道伝의 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李太祖는 即位후 前王妃 韓氏所生의 여섯 王子를 모두 제쳐 놓고 継妃 康氏所生의 芳碩을 世子로 책봉하였는데 이것은 韓氏所生 王子들의 不平을 사게 되었고 특히 芳遠은 父王의 創業

註 1) 震檀学会; 韓国史年表 참조. 千寬宇監修 韓国史大系 朝鮮前期편 pp. 23~29 참조

을 도와 功芳가 를 뿐만 아니라 芳碩을 支持하는 鄭道伝등이 強力한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하여도 대단한 不滿을 품고 있었던지라 鄭道傳등의 陰謀를 事前에 防止한다는 名分을 造作하여 鄭道伝一派를 죽이고 世子 芳碩도 廢位하여 殺害하고 芳蕃도 함께 죽여버렸다. 이로 인하여 芳果가 世子로 책봉되고 李太祖는 芳碩의 죽음에 心惱하여 政事에 뜻을 잃어 다음 달 9月에는 世子에게 王位를 물려주고 말았다.[2]

그러나 戊寅靖社의 피비린 내가 미쳐 가시기도 전인 그로부터 2年後가 되는 1400年에는 또다시 世称 芳幹의 乱이라고 부르는 第2의 王子의 乱이 일어났던 것이다. 李太祖의 第四男 芳幹은 王位継承에 대한 野心과 豪気도 있었으나 人格이나 威勢가 芳遠에게 미치지 못하여 항상 猜疑와 不安 속에 있었다. 그런데 마침 戊寅靖社 때에 적지 아니 功을 세웠던 朴苞가 満足한 賞爵을 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어 오다가 芳遠이 芳幹을 害하려 한다고 誣告하므로써 芳幹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르키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芳幹은 芳遠의 反撃으로 敗走하다가 生捕되어 鬼山에 流配되었고 朴苞는 處刑되었다. 定宗은 河崙등의 奏請으로 上王(太祖)의 許諾을 얻어 同年 2月에 芳遠으로 世弟를 삼고 11月에는 드디어 伝位하므로써 太宗이 即位하게 되었다.[3]

Ⅲ. 耘谷道學精神의 性理學的 宗教的背景

1. 麗末鮮初의 性理学派의 両大潮流

高麗末의 性理学者들은 朱子学을 背景으로 新儒教를 崇尚한 점은 공통되지만 現実問題에 대한 解釋과 評価는 각각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여 주었으니 이것은 두 말할 必要조차 없이 이 時代의 政治的 社会的 大変革에 起因된다고 할 수 있다.

즉 当時의 性理学者들은 高麗末의 政治的 混乱과 社会紀綱의 紊乱, 国民経済의 피폐와 같은 深刻한 現実에 대하여 対立된 立場을 취하였던 것이다. 高麗朱子学의 鼻祖 安珦以来로 白頤正에 이르기까지는 佛教와의 対立을 보였을 뿐이었으나 鄭夢周 鄭道伝以後부터는 高麗王朝를 支持하는 革新勢力으로 両立하였음을 볼 수 있다.[1]

朝鮮朝의 道学者로 至極히 推尊되고 있는 趙光祖가 있다. 그의 道学思想의 淵源은 金宏弼 金宗直 金叔滋 吉再 鄭夢周로 遡及된다. 鄭夢周는 安珦과 함께 高麗朝 500年間의 代表的 儒賢으로 추존되고 있거니와 그의 位置는 韓国儒学思想史에 있어서 그 正脈을 이루고 있다.

註 2) 震檀学会; 韓国史 近世前期편 pp. 72～74 참조. 千寬宇 op. cit. pp. 30～31 참조.
3) ibid
1) 柳承國 : 韓国의 儒教 pp. 177～178 참조

그러나 이와 対立한 鄭道伝의 学問과 思想은 權近에게서 더욱 補強되고 朝鮮의 勳舊派 政治人들에게 많은 影響을 주었다. 이들은 鄭夢周와는 달리 義理思想을 根本으로 하지 않고 現実的 政治的 狀況과 社会的 変動을 감안하여 새롭고 合理的인 価値判断에 의하여 問題를 打開하려는 立場에 섰던 것이다.[2]

다시 말하면 鄭夢周系列은 人間의 内面的 本性을 강조하며 万古不変의 道德意識을 개발하는데 그 主眼目이 있는데 반하여 鄭道伝系列은 不変하는 人間性의 啓発보다는 狀況에 대응하는 創意的 変革을 강조하는만큼 観念的 義理 道德보다는 人間의 意志的 練磨와 知識의 開発과 文化意識을 鼓吹하는데 그 焦点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鄭夢周系列은 理想的인 人間像으로 伯夷와 같은 人物을 높이는데 反하여 鄭道伝系列은 武王과 같은 人物을 높인다.[3] 이것은 前者가 綱常을 尊重하는데 반하여 後者는 天命과 權変을 尊重함을 말하는 것이다.[4]

孟子는 斉宣王과의 対話 가운데서 湯이 放桀하고 武王이 伐紂했다고 하는데 臣下로서 그 君主를 弑逆함이 可하냐는 斉宣王의 質問을 받고 対答하되 「仁을 害하는 者를 賊이라 이르고 義를 害하는 者를 残이라 이르며 残賊之人을 一夫라 이르니 一夫로서의 紂를 殺害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君主를 弑逆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5]

여기서 桀紂는 凶暴淫虐하여 天理를 絶滅한 害仁者요 顚倒錯乱하여 彝倫을 傷敗한 害義者이다. 본디 四海의 百姓들이 帰属하면 天子가 되지만 天下가 離脫하면 一夫에 지나지 않는 法이기 때문에 桀紂는 일개의 지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6] 이러한 暴君들은 아무리 諫争을 해도 所用이 없고 그대로 두면 百姓들만 塗炭에서 呻吟하기 때문에 放伐하여 除去하는 것이 天命을 받드는 것이며 따라서 暴君을 放伐하는 것은 결코 弑逆이 아니고 仁義의 実践인 것이다.

臣下된 道理로서는 忠誠으로써 王을 섬김이 이른바 綱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臣下로서 할 수 있는 忠誠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고 天下의 百姓을 위하여 不得已한 특

註 2) op. cit. pp. 178~180 참조.

3) 伯夷는 孤竹国의 王子로서 그의 아우 叔斉와 더불어 王位를 서로 辞譲한 나머지 国外로 나와 西伯(文王)에게 帰属하려 하였으나 西伯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武王이 先王의 木主를 받들고 紂를 放伐하기 위하여 動兵하자 伯夷는 叔斉와 함께 武王의 말고삐를 잡고 動兵을 中止하라고 諫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로 延命하다가 餓死했다고 한다. (司馬遷 史記列伝 伯夷伝 참조)

4) 柳承國 : op. cit. pp. 180~181 참조

5)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有諸 孟子対 曰於伝有之 曰臣弑其君可乎 曰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残 残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孟子集註 梁惠王章句下)

6) ibid 朱子註 참조

수한 狀況에서 君主를 放伐하는 것은 이른바 權変인 것이다.

孟子는 淳于髡과의 対話에서 「男女가 몸소 授受하지 않는 것은 禮이오 兄嫂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져주는 것은 權」이라고 하였다.[7]

權이란 저울질을 뜻하는 말이며 저울질이란 衡平(中)을 求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物件의 軽重을 저울질하듯이 주어진 現実을 正確히 洞察하여 中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禮의 根本原理를 実践하는 手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禮(綱常)는 万世之常이라 할 수 있는데 反하여 權(權変)은 一時之用이다. 따라서 綱常의 道를 온전히 体得하지 못하고는 權変을 行使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앞서 紹介한 孟子와 斉宣王의 対話에 대한 註에서 朱子는 王勉의 말을 引用하여 오직 在下者는 湯武의 仁義를 가지고 있고 在上者는 桀紂의 暴虐을 가졌을 때만 放伐이라는 權変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篡弑의 罪를 免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8]

綱常이 規範的 普遍性을 根本으로 한다면 權変은 狀況的 妥当性을 根本으로 한다고 하겠다.

朝鮮時代의 儒学者 張維는 이러한 權変에 대하여 時義라는 말로 表現하여 사람이 處世하는데는 각각 時義가 있다고 指摘하고 周易의 卦爻도 또한 時義아님이 없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時代에 順應하고 義理에 合当하게 하면 吉하고 이에 反하면 凶하다고 하였다.[9]

2. 耘谷의 宗教観

麗末鮮初의 性理学者들이 綱常과 權変 또는 保守와 革新의 両大潮流를 形成한 것은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儒家의 立場에서 佛家와 道家에 대하여는 어떠한 見解를 取하였는지를 살피므로써 耘谷의 宗教観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高麗儒学의 泰斗로 알려진 安珦은 国子生徒들을 諭示하는 글에서 「저 佛教는 親族을 버리고 집을 떠나 人倫을 멸시하며 義에 거역하니 夷狄의 무리라」[1] 하였고 李穡은 「다만 佛教信者만이 아니라 그 卑陋한 데 물든 百姓중에는 놀고 먹는 者들이 많다」[2] 고 하

註 7) 男女授受不親禮也 嫂溺援之以手者權也 (孟子集註 離婁章句上)

8) 王勉 曰斯言也 惟在下者 有湯武之仁 而在上者 有桀紂之暴 則可 不然 是未免於篡弑之罪也 (孟子集註 梁惠王章句下)

9) 人之處世 各有時義 而易中卦爻 亦無非時義 人之行也 順易合義則吉 反易則凶 (耘谷漫筆巻之一 참조)

1) 閔賢國 op. cit. p.171, 安珦의 諭國子諸生文 참조

2) 閔賢國 op. cit. p.171, 高麗史列伝 李穡條 참조

였으며 鄭夢周는 「儒教의 道는 平常의 道이다. 飮食을 먹고 男女가 生活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共通된 일인데 그 가운데 至極한 理致가 內在해 있는 것이다.……그런데 佛教는 親屬을 버리고 男女가 떨어져 있으며 홀로 山 속에서 나물을 먹으며 空을 생각하니 어찌 平常의 道라 하겠는가」 「可笑롭다 분분히 道를 깨치려는 者들이여, 声色을 떠나 眞如를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4] 라고 하였다.

이들의 共通된 見解는 儒学이 現実 속에서 真理를 追求하는데 反하여 佛教는 超現実 또는 非現実 속에서 真理를 追求한다고 보는 点이다. 이러한 儒学者들의 排佛은 鄭道伝의 佛氏雜辨과 心気理篇, 權近의 入学図説과 五経浅見録등에 의하여 理論的으로 体系化되었다.[5]

鄭道伝은 佛氏雜辨에서 輪廻説 因果説을 비롯하여 慈悲 真假 地獄 禍福……등 佛家의 모든 教説을 批判하였고 또한 心気理篇에서는 心難気 気難心 理論心気등 三章으로 区分하여 佛家(心)와 道家(気)를 批判하였다.

그는 理論心気章에서 「聖人이 千年이나 멀어져 道学이 흐려지고 말만이 커져서 気로써 道를 삼고 心으로 宗主를 삼는다」[6] 「老佛二家에서는 스스로 無上高妙의 境地에 이르렀다고 하나 形而上者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침내 形而下者만을 가리켜 말하였으니 浅近하고 迂闊하며 편벽된 가운데 빠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옳지 않고 長壽하는 것은 거북과 뱀일 따름이오 巋然히 앉아 있는 것은 허수아비 같은 形骸일 뿐이라」고 하였다.[7]

이와같이 麗末鮮初의 많은 儒学者들이 佛家와 道家를 理論的으로 또는 行動的으로 非難하고 排斥하면서 그들을 異端으로 보고 白眼視한 것이 一般的인 現象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雰圍気 속에서도 耘谷은 儒佛仙 三教가 根本的으로는 하나로 歸一할 수 있는 同質的 要素가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佛教나 道教를 排斥하거나 敬遠하지 않고 특히 僧侶들과는 매우 親近히 交遊하였던 것이다.

耘谷의 宗教観은 如如居士의 三教一理論과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如如居士는 그의 三教一理論에서 「세 聖人이 같은 時代에 앞 뒤로 태어나서 각각 正教를 부르 짖었으니 儒教는 窮理盡性으로써 그 教理를 삼았고 佛教는 明心見性으로써 그 教理를 삼았으며

註 3) 柳承國 op. cit. p.172. 圃隱集 経筵啓事 참조

4) ibid p.173

5) ibid pp.173~177 참조

6) ……聖遠千載 学誣言厖 気以為道 心以為宗

7) ……此二家 自以為無上高妙 而不知形而上者 為何物 卒指形而下者 而為陷於浅近迂僻之中 而不自知也 不義而壽龜蛇矣 巋然而坐土木形骸 (三峰集 心気理篇)

道教는 修真鍊性으로써 그 教理를 삼았다. 말하자면 齊家 修身 致君 澤民은 儒教의 일이며 養精養神 飛仙上昇하는 것은 특히 道教의 根本論理이며 超死超生 自利利人은 佛教의 真理이다. 그러나 그 極處는 하나에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세 聖人의 가르침이 모두 性品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른 바 盡性이라던가 鍊性이라던가 見性이란 그 道가 비록 다소의 差異가 있긴 하지만 그 極致에 이르러서는 환히 통하는 곳이 다 하나의 性品이거늘 무슨 窒礙가 있겠는가. 다만 세 聖人이 각각 그 門戸를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門戸의 後進들은 각각 宗旨를 내세워 是己非人之心 으로서로가 헐뜯고 排斥하니 이것은 各人의 胸中에 三教之性을 明然히 갖추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당나귀를 탄 者가 남의 당나귀 탄 것을 비웃는 格이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8] 고 叙述하였음을 紹介하고 耘谷은 이에 느낀 바 있어 儒教 道教 佛教에 대하여 각각 絶句를 짓고 또한 三教歸合에 대하여도 하나의 絶句를 지었다.

먼저 儒教에 대하여는 「格物하고 修身하고 마음을 다해 性品을 알고는 또 하늘을 아나니 이로부터 天地의 化育을 돕는데는 霽月과 風光이 함께 洒然하다」[9] 고 하였고,

道教에 대하여는 「衆妙의 門이 깊고도 깊어 真機와 神化가 하늘에 應하나니 그 精気를 닦아 바로 希夷의 경지에 이르면 水色과 山光이 모두 함께 寂然하도다」[10] 하였으며,

佛教에 대하여는 「圓融한 하나의 性品이 열 가지 妙理를 갖췄으니 十方世界에 두루한 法이고 하늘에 通하는 気運이라 저 참다운 本體를 어떻게 말하랴. 푸른 바다 달바퀴가 함께 湛然토다」[11] 라 하였다.

耘谷이 儒教에 学問的 造詣가 깊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는 특히 佛教에 있어서도 一家見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嶺南地方으로 遊覧가는 曺溪参学允珠를 餞送하는 詩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著述한 것이 経이오, 그것을 論理的으로 補強하여 이루어진 것이 論이다. 그 道는 대개 孝敬에 根本을 두고 衆徳을 쌓아서 無為의 境地에 歸結시킨 것이다. 그 가르치고 경계한 内容을 世上에 펴서 伝한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禪

註 8) 如如居士 三教一理論之 三聖人同生 有周主盟正教 儒教教以窮理盡性 釈教教以明心見性 道教教以修真鍊性 若曰斉家治身 致君澤民 此特儒者之餘事 若曰養精神飛仙上昇 此特道家之祖述 若曰超死超生自利利人 此特釋氏之筌蹄矣 要其極處未始不一 由此観之 三聖人之設教 專以治性 所謂盡之鍊之見之之道 雖有小異歸其至極 廓然瑩澈之處 皆同一性何有所窒礙哉 但以三聖人各有門戸 門之後徒各據宗旨 皆以是己非人之心互相謬誉殊不知各人胸中 三教之性明然具在也 騎驢者笑他騎驢良可惜哉 (耘谷元天錫詩史 p. 344)

9) 格物修身窮理立 盡心知性又知天 従慈可賛乾坤化 霽月風光共洒然 (ibid)

10) 衆妙之門立又立 真機神化應乎尺 精修直到希夷地 水色山光共寂然 (ibid)

11) 一性圓融具十立 法周沙界気衝天 只這真体如何説 碧海氷輪共湛然 (ibid)

이오 다른 하나는 教이다. 教란 것은 앞서 말한 経과 論이오 禪이란 것은 49年間에 걸쳐 三百이 넘는 法会를 가졌다가 最後의 靈山法会에서 꽃을 들어 보이시는데 迦葉이란 弟子가 微笑를 지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로부터 西乾(印度)의 47祖師와 東震(中国) 23祖師가 서로 계승하여 아무리 使用해도 끝이 없었으며 機会를 따라 應変하는 그 微妙한 用度가 縱横으로 自他를 다 利益되게 한 것이 곧 佛道인 것이다.」[12]

「(지금 允珠大師는)……서울의 普済寺에 가 澹禪會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慈堂께 問安드리기 위해 千里길을 멀다 하지 않고 이 곳을 찾아왔으니 이것이 어찌 孝敬에 根本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장차 전일한 마음으로 닦고 닦아서 無為의 境地에 到達할 것은 틀림없는 事実이라 하겠다」[13]고.

耘谷은 여기서 佛教의 本質이 孝敬에 根本을 두고 衆德을 쌓아서 無為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随機應変의 妙用이 縱横으로 自他를 有益하게 한다고 論한 것이다.

또한 道境禪師의 詩韻에 次韻해서 이르되 「禪師께서는 曹溪의 老將. 法食자시기를 즐겨하시네. 고칠 것도 닦을 것도 없어 善因을 일찌기 심으셨고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正念이 잠시도 쉬지 않고 端正히 앉아 真如를 깨달으니 六識이 모두 비어버렸네. 아아 나는 무엇을 하느라고 이 理致에 純熟하지 못했던가. 괴로움 바다(苦河)속에 돌아다니면서 기나 긴 生活을 계속해 왔고 眼根과 耳根을 따라 언제나 聲色에 얽매어 왔네……」[14] 라고 하였다.

여기서 耘谷은 道境禪師의 佛教修業에 대하여 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 意根을 모두 超克하고 真如에 到達하였다고 極讃하였고 自身은 苦海속에서 방황하면서 声色에 이끌리어 世俗的 醉生夢死를 일삼고 있다고 謙遜하게 表現하고 있다.

佛教에 대한 耘谷의 学問的 深度와 범위는 資料의 制約으로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道境禪師를 비롯하여 宏大師 允珠大師등 數十名에 달하는 많은 僧侶들과 詩를 함께 읊조리고 交遊하면서 佛教에 대한 理解가 더욱 깊어졌으리라는 蓋然性을 보여 준다.

儒教에서는 霽月風光이 함께 洒然한 경지를, 道教에서는 水色山光이 함께 寂然한 경지를, 佛教에서는 碧海氷輪이 함께 湛然한 경지를 体得한 耘谷인지라 이러한 儒佛仙의 宗旨를 한데 묶어 「会三歸一」이라 題하고 다음과 같이 읊었던 것이다.

「三教의 宗風이 본래 그릇되지 않았거늘 부질없는 是非의 소리 개구리처럼 시끄럽네. 하나의 性品이라 모두 거리낌이 없을진대 佛教는 무엇이고 儒教는 무엇이며 道教는 또

註 12) op. cit. pp. 123~124 p. 165 참조

13) op. cit. p. 124 p. 165 참조

14) 師本曹溪翁好禮法喜食 無訂亦無修善因曾所植 於四威儀中正念不消息 端坐悟真如虛閑是六識 嗟予欲何為此理未純熟 役役苦河中瀾漫組狼籍 常随眼耳根局於與聲色…… (op. cit. p. 154)

한 무엇인가」[15]

三国史記에 의하면 崔致遠은 鸞郎碑序文에서 「나라에는 玄妙한 道가 있으니 가로되 風流라 한다. 設教의 淵源은 仙史에 상세히 記録되어 있다. 실상인즉 三教를 包含하여 群生을 接化한다. 들어와서는 집에서 孝道하고 나가서 나라에 忠誠하는 것은 魯나라 司寇의 가르침이오 無為之事에 處하고 不言之教를 行하는 것은 周나라 柱史의 가르침이오 모든 悪을 짓지 말고 모든 善을 奉行하는 것은 竺乾(印度)太子의 가르침」이라고 하였고[16] 또한 真鑑禪師碑에서는 「무릇 道란 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지 않으며 사람은 自国과 異国이 따로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東人之子는 佛教도 믿고 儒教도 믿고…… 하는 것이 必然이라」[17] 고 하였다.

위에서 紹介한 鸞郎碑序文에서 보건대 新羅에는 이미 儒佛仙 三教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三教의 本旨를 包含하는 風流道가 設教되어 이를 信仰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儒佛仙 三教는 그 形式的인 面에서 볼 때는 相異한 様相을 띄울 수 있으나 本質的인 面에서 볼 때는 결코 異質的이라고만 할 수 없는 同質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宗教로 妙合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真鑑禪師碑에서는 真理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부터 멀지 않으며 自国이나 異国이 따로 없이 真理라면 国境을 超越하여 받아들일 수 있음을 披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祖上들은 제각기 다른 歴史的 社会的 背景을 가지고 発生한 宗教들을 民族과 領土를 超越하여 受容하였던 것이며 真理라는 本質에 立脚하여 融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儒家나 佛家나 道家가 서로 葛藤한다기 보다는 調和를 이룰 수 있어서 相輔的인 機能을 發揮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認識 속에서 耘谷은 數많은 寺刹과 庵子에서 數많은 僧侶들과 또는 居士로 더불어 交遊하고 修行한 것으로 보인다.

註 15) 三教宗風本不差 較非爭是乱如蛙 一般量性俱無礙 何釈何儒何道耶 (op. cit. p. 289)

16) 国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教之源備詳仙史 実内包含三教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国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 諸悪莫作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三国史記 新羅本紀 真興王 37年條)

17) 夫道不遠人 人無異国 是以東人之子 爲釈爲儒○○必也 (新羅国故康州智異山双渓寺教諡真鑑禪師大空塔碑銘並序)

Ⅳ. 耘谷의 道學精神

1. 政治哲學과 吏道精神

耘谷의 政治哲学은 刺史 河允源에게 올린 「上河刺史詩」의 序文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어진 선비 大夫들은 때를 맞추어 世上에 나와 百姓들에게 德을 입히고 나라에 功을 세운다」 「옛날엔 남의 臣下가 된 者로서 여러 고을을 겪으면서 政治와 教化를 널리 베푸는 이가 많았는데 魯恭은 中牟令이 되어 오로지 德化에 힘써 刑罰을 일삼지 않았고 及黯은 東海守가 되어 그 다스림이 관대하여 세밀하고 까다롭지 않았으며 劉寵은 會稽守가 되어 번거롭고 까다로움을 除去함으로써 온 고을이 크게 教化되었고 龔遂는 渤海守가 되어 오로지 文学과 禮法을 써서 일체를 便宜케 했으며 崔景鎭은 平章守가 되어 罪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다만 부들채찍(蒲鞭)만을 썼으니」 이것이 이른바 너그러운 政治이다.

또 「黃霸는 潁川守가 되어 教化를 힘써 행하면서 그 재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능하였고 魏颯은 桂陽守가 되어 그 베푸는 바 法令이 모두 事理에 마땅하였으며 韓延壽는 東都守가 되어 온 天下에 뛰어났고 梁彦光은 鄱陽守가 되어 가장 잘 다스렸다는 칭찬을 받았으며 劉廣은 莒州의 刺使가 되어 그 政治가 第一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善政이란 것이다.

또 「鄭弘이 淮陽守가 되자 수레따라 비를 이루었고 孟常이 合浦守가 되자 버린 구슬이 되돌아 왔으며 戴封이 西華令이 되자 蝗虫이 그 경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劉混이 弘農守가 되자 사나운 호랑이가 새끼를 업고 江을 건너 갔으며 王彪가 重泉令이 되자 난새(鸞)가 뜰에 날아 들었으니 이것이 政治의 三異라는 것」이며 이른 바 感政이라는 것이다.

또 「唐彬은 鄴縣令이 되어 礼로써 引導하고 風俗을 바로 잡았는데 1年만에 成功하였고 第五訪은 新都令이 되어 손만 흔들어도 教化가 行해져 이웃 고을까지 다 돌아 왔으며 宓子賤은 単父令이 되어 거문고만 타고 마루에 내려가지 않았으나 고을이 잘 다스려졌고 顧凱之는 山陰令이 되어 晝夜로 발(簾)만 드리우고 있었으나 事務가 간편하고 政事가 다스려졌으니」 이것이 이른바 報政인 것이다.

또 「胡威는 徐州刺使로 옮겨 늘 清潔함을 崇尚하여 政治 教化에 힘썼고 劉虞는 幽州牧이 되어 해어진 옷에 미투리를 신고 食卓에는 魚肉이 없었으며 羊續은 南陽守가 되어 生鮮을 뜰에 매달아 두고서 賂物을 거절하였고 時苗는 壽春令이 되어 송아지를 두고 떠났으니」 이것이 이른바 廉政인 것이다.

또 「張甚은 漁陽守가 되자 뽕나무에 결가지가 없고 보리는 밭마다 두 갈래로 무성했으며 召信臣은 南陽守가 되자 몸소 밭을 갈아 百姓들에게 勸하고 도랑을 파기도 했으며 趙軌는 峽州刺使가 되자 5천이나 되는 이랑의 밭에 물을 대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 바 農桑을 권장한 例이다.

또 「王渙은 洛陽令이 되어 모든 것을 法理에 따라 곡진히 判斷하였고 周處는 廣漢守가 되어 고을에 누적된 訴訟事件을 하루 아침에 모두 判決하였으니」 이것은 곧 止法이라 한다.

이 밖에도 郭賀 龐范 岑熙 朱季 朱暉 召公 陸雲 羊枯 荀勗 第五倫 姚元崇 留後霸등과 같은 사람들이 각각 남긴 훌륭한 治績을 일일이 紹介하고 있다[1]」

이와 같이 理想的인 政治를 紹介한데 이어 現職 河刺史에 대하여는 「百姓들을 撫摩함에 있어서 옛날의 훌륭한 政治를 참작하여 지금에 알맞는 일을 施行하고 理国之說을 상고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받들어 지키며 民間일을 정리함에 있어서 過去에 不便했던 것을 모두 革新했다」[2] 고 하였으며 또한 「道理에 맞지 않으면 털끝만한 物件도 百姓들에게서 取하지 않고 혹시 나라를 위해 부득이 稅金을 賦課하거나 役事할 일이 있으면 미리 時日을 定하고는 고을 안에 榜을 붙이고 고을 밖에 글을 보내 모두 듣고 알게 하므로써 百姓들이 다 기꺼이 따른다」[3] 고 하였고 이어서 「赴任하던 첫날부터 먼저 公廨에 供給하는 일을 制限하여 酒肴와 其他 宴會의 娛樂을 금하는 한편 重要하지 않은 些少한 일은 낱낱이 없애고 賂物은 물론 일체의 嫌疑되는 物件을 받지 않는가 하면 비록 다른 고을의 守令들로 부터 보내 온 것일지라도 官用에 補充하여 朝夕으로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으로 부엌이 閑散하고 밥상이 쓸쓸하였으니 이것이 그 清白한 政治이다.」

또 「法 아닌 것을 살펴 禁하므로써 奸邪하거나 아첨하던 者가 忠直으로 化하고 頑凶한 무리들을 懲戒함으로써 狡猾하던 者가 淳良으로 변하고 罪人을 다스림에 있어선 寬容의 德을 베풂으로써 神明이 보호하고 訴訟을 判決함에 있어서는 公正을 다함으로써 百姓들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4] 고 하였고 따라서 「너그러운 政治, 착한 政治, 清白한 政治, 効果의 政治, 感化의 政治등을 이미 한몸에 다 갖추었다」[5] 고 하였다.

転谷의 吏道精神은 그의 조카 元湜의 詩에 次韻하여 「百姓은 하늘의 所生이니 함부로 対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라는 바를 주어야 하고 艱難辛苦를 주어서는 안 된다.

註 1) 転谷元天錫詩史 pp. 179~182 pp. 244~246 참조

2) 撫吾民 酌古良牧之政 宜于今者 宗而奉之 考諸理國之說 稱于人者 承而守之 民間旧有不便事理 一改革去 (op. cit. p. 245)

3) 如其非道 一毫之物 不取於民 或有邦国之須 不得已斂役 則計定日時 榜示于内 牒伝于外 惣使聞知 民皆悦従事 (ibid)

그들에게 恩惠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한갓 行人으로 밖에는 보지 않으니 官吏는 父母가 子息을 保護하듯 百姓을 保護해야 한다.……너그러운 容恕와 公道에 합쳐진 人事라야 德望이 뛰어난다. 임금이나 百姓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6] 고 한 詩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為民思想에 立脚한 牧民의 基本的 要諦가 잘 叙述되었음을 본다.

또한 許仲遠의 詩를 分字하여 韻을 붙인 詩에서 「詩礼에 敎厚하여 여유가 있으니 반드시 곧은 사람을 쓰고 굽은 사람을 버릴지라」[7] 고 하였다.

여기서 곧은 사람을 쓰고 굽은 사람을 버린다는 말은 論語 爲政편에 나오는 말이다. 魯나라 임금 哀公이 어떻게 하면 百姓이 服從하는가를 묻자 「直者를 이르키고 모든 枉者를 버리면 百姓이 服從하고 枉者를 이르키고 모든 直者를 버리면 百姓이 服從하지 않는다」[8] 고 孔子는 対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朱子도 곧은 사람을 좋아하고 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天下의 至極한 人情이니 이를 좇으면 百姓이 服從하고 거역하면 좇지 않는 것은 必然之理라고 하였다.[9]

政治의 成敗는 百姓이 服從하느냐 服從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고 百姓의 服從與否로 人材를 잘 物色하여 登用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또한 人材의 物色에는 무엇보다도 곧고 곧지 못함을 기본적인 基準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才能이 훌륭하더라도 사람이 곧지 않으면 그 才能은 百害無益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直者를 쓰고 枉者를 버리는 것은 国家社会의 紀綱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麗末의 社会相에 비추어 社会紀綱의 確立은 무엇보다도 切実한 当面課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耘谷은 金進士가 보낸 詩에 次韻한 가운데서 「頽廃한 紀綱을 바로잡는 것이 当面한 일이니 孔子의 遺風을 떨치라」[10] 고 強調하였던 것이다.

또한 耘谷은 伊川監務로 赴任하는 元承奉을 보내면서 쓴 詩에서 「그대의 펴는 敎化에 偏黨이 없고……民衆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면 옛날의 龔黃이 될 수 있다」[11] 고

註 4) 到任初日 先制公衙供給之事 禁断酒肴 凡百雜冗一一益蠲免 不納包苴身遠嫌疑 雖他郡守令所寄之物 終不容私以補官用 朝早夕 惟一飯一羹 廚火蕭疏 机案凄凉 此其政之庶也 禁察非法邪佞 仕厚忠直 懲言被頑凶 姦猾変為循良 体獄有陰功 神明扶佑 決訟至公正 民庶得宜 (op. cit. pp. 245~246)

5) 所謂 寬政 善政 廉政 報政 感政 公於一己 俱己 備焉 (op. cit. p. 246)

6) 臨民豈易忽 民是天生民 要須與所欲 無便多艱辛 若不施惠愛 視如行路人 爾今為父母 保之如子……宜放以循循 公道合人事 德望出于倫 以此致君民 (op. cit. p. 156)

7) 敎詩厚礼有餘裕 必須擧直措諸枉 (op. cit. p. 158)

8) 擧直錯諸枉則民服 擧枉錯諸直則民不服 (論語為政편)

9) 好直而悪枉 天下之至情也 順之則服 逆之則去 必然之理也 (同註)

10) 整頓頽綱当是日 請君須振素王風 (耘谷元天錫詩史 pp. 339~340)

하였고 詩의 序文에서는 「그대의 道德이 안에 行해지고 밖에까지 퍼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바라는 바」[12] 라고 하였다.

耘谷은 孔子의 正名思想에 立脚한 名實論을 重視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馬奴駅에서 읊은 詩로 「人間万事에 어찌 떳떳함이 없으랴. 名實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世上이 憎惡하는 바」[13] 라고 하였다.

正名思想은 論語 子路篇에서 그 淵源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子路가 孔子에게 「衛나라 君主가 선생님을 招聘하여 政治를 해나가고자 하는데 先生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읍니까」하고 물었더니 「반드시 먼저 名을 바르게 하겠다」고 孔子는 対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孔子의 対答은 子路가 쉽사리 納得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名을 바르게 한다는 것, 즉 正名이란 것이 現実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急務는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孔子는 다시 敷衍하여 말하기를 「名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不順하고 말이 不順하면 일이 成就되지 못하고 일이 成就되지 못하면 礼楽이 不興하고 礼楽이 不興하면 刑罰이 適中하지 못하고 刑罰이 適中하지 못하면 百姓이 手足을 둘 바가 없다」[14] 고 하였다.

子路의 생각처럼 正名이 결코 迂遠한 걱정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孔子는 力説한 것이다. 名이 不正한 結果는 行為의 尺度를 客観的으로 百姓들에게 提示하지 못하게 되므로 政治가 제대로 될 理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正名이야 말로 政治의 基本이며 第一歩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孔子가 말하는 正名은 正名自体로서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고 政治的 社会的 現実問題를 해결하는 手段으로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名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名과 物이 바르게 対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王은 王대로 그 名에 適合한 徳望과 行実이 要請되는 것이며 臣下는 臣下대로 그 名에 적합한 徳望과 行実이 要請되는 것이다. 따라서 王이던 臣下던 간에, 王으로 또는 臣下로 命名되고 또한 呼称되는 이상, 그에 적합한 徳望을 갖추고 所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비록 形式論理的으로는 正名이 概念의 定義로만 보이기 쉬우나 단순한 概念의 定義에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行為의 規範이기도 한 것이다.

註 11) 使君宣化無偏黨…若以衆心為己用 即今元子古龔黃 (op. cit. p. 422) 앞서 指摘된 바 漢나라의 龔遂와 黃覇를 말함. 龔遂는 明経으로 벼슬하여 宣帝時에 渤海太守로 倹約한 生活과 勧農桑으로 百姓을 잘 다스리었으며 黃覇는 律令을 공부하여 벼슬하고 潁川太守와 丞相을 지낸 으뜸가는 漢代의 牧民官임.

12) 君之道徳行乎中而薄於外衆所望也 (op. cit. p. 421)

13) 人間万事豈無恒 名実相違世所憎 (op. cit. p. 150)

14)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 子将奚先 子曰必也正名乎……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礼楽不興 礼楽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論語 子路편)

이와 같이 論理의 根本操作이라고 할 수 있는 定義와 道德的 規範으로서의 実践倫理가 不可分의 관계로 結合된 것이 바로 正名思想이며 名実論인 것이다.[15]

耘谷이 「人間万事에 어찌 떳떳함이 없으랴」고 한 글에서 떳떳함(恒)이란 바로 名과 実이 相符하는 正名思想의 哲学이 内包된 既念인 同時에 人間社会에 있어서 表面的이고 従属的인 変因과는 달리 深層的이고 独立的인 変因의 世界를 肯定하는 것이며, 事実의 世界와는 다른, 価値의 世界, 当為의 世界를 강조한다고 생각 된다.

耘谷은 前按部豊儲倉使 李公의 詩에 次韻한 詩에서 「붉은 티끌이 사람을 굽게할가 두려워 홀로 구름과 달을 벗하여 天真대로 산다. 한 보습 有莘의 들에 남은 일은 없고 다만 堯舜의 百姓 되기를 바랄 뿐, 平生에 남을 모를가 걱정하여 골짜기 어귀에 김을 매면서 漢나라 鄭子真(樸)을 본 받는다」[16] 고 하였다.

그는 世俗的인 富貴榮華로 인하여 自身의 純潔無垢한 天性을 더럽힐가 두려워한 것이다. 다만 雲月을 벗하여 存心養性하면서 옛날에伊尹이 湯에게 세번씩이나 招聘되어 마지 못해 世上에 나가기까지 논밭을 갈던 有莘과 같은 草野에서 스스로 満足하니 남은 욕심이라곤 唐虞時代와 같은 太平盛代의 百姓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平生을 통해 남이 自己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기 보다는 오히려 自身이 남을 알아주지 못할 것을 걱정하면서 漢나라 鄭樸이 成帝때에 大将軍王鳳에게 礼聘을 받아도 굳이 나아가지 않고 沈黙을 지킨 清雅한 高節을 본 받는다고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詩를 통하여 自身의 隠遁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人生観을 잘 나타내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堯舜과 같은 聖人의 政治를 理想으로 그리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는 真感이라는 詩題로도 「어진 聖人이 統治하는 唐虞時代와 같은 太平盛代를 만나서 한 平生 太平歌를 불러 보기를 願한다」[17] 고 하였다.

이러한 耘谷의 政治哲学은 論語為政편에서 이른 바 「法制禁令으로써 이끌어 나가고 刑罰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百姓이 그것을 免할만하고 부끄러워함이 없으며, 德으로써 이끌어 나가고 禮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바르게 된다」[18] 는 原理와 一致하는 것으로 이것은 春秋時代의 孔子와 戦国時代의 孟子 以来로 論理化한 儒家의 德治主義에 立脚한 德主刑輔思想이며 唐虞의 治世를 理想으로 삼는 政治哲学인 것이다.

註 15) 末木剛博 東洋の合理思想 pp. 228~232 참조.

16) 却恐紅塵汨活人 独将雲月養天真 一犂莘野無餘事 但願身為堯舜民 平生只恵不知人 谷口躬耕效子真 (耘谷元天錫詩史 pp. 340~341)

17) 願逢仁聖唐虞世 民変時雍詠太平 (op. cit. p. 346)

18) 道之以政 斉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徳 斉之以礼 有恥且格 (論語 為政편) 「道之以徳 斉之以礼 有恥且格」에 대하여 朱子는 「実践躬行으로 거느리면 百姓들이 그것을 보는 바가 있어서 感発하여 興起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解釈한다 (同註 참조)

2. 歷史意識과 憂國精神

耘谷은 病中記聞에서 「近來 듣건대 朝廷의 命令으로 年號를 없애고 衣服을 고치며 壯丁의 數대로 軍士를 뽑아 上下가 모두 準備에 바쁜가하면 장차 十萬大軍을 이끌고 鴨綠江을 건너려 한다니 곧 遼海의 길에 오르면 그 씩씩한 氣運이 깃발을 날리고 무서운 威嚴이 中國에 떨치므로써 감히 畏服하지 않을 者 없어 응당 凱旋의 날이 닥아올세라. 그 때엔 四夷가 다 歸屬되고 聖主께선 無窮한 壽命을 누려 周武의 발자취를 이어 받으시리니 비록 이 늙고 病든 몸이나마 기꺼이 太平노래를 함께 부르겠거늘 어찌타 鴨綠江을 건너지 않고 돌연히 말고삐를 빨리 돌리며 西都에 계시는 大駕도 돌아오는 擧動이 왜 그리 急迫하신고. 가엾도다 都統公만이 홀로 서서 원망을 듣게 되었도다. 기둥과 주추가 이미 危殆로운데 크나 큰 집을 그 누가 支撐할건가」[19] 라 하였다.

이것은 이른 바 威化島回軍을 批判한 것이다. 1388年(禑王 14) 5月 遼東征伐次 군사를 이끌고 鴨綠江 下流의 威化島까지 進軍한 右軍都統使 李成桂는 小國으로써 大國을 拒逆함이 不可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夏季發兵의 不利로 倭寇侵入의 憂慮등을 理由로 내세워 遼東征伐이 不可能함을 主張하였으나 당시 西都(平壤)에 있던 八道都統使 崔瑩과 禑王은 오히려 進軍命令만을 거듭하였으므로 李成桂는 回軍을 斷行하여 崔瑩을 잡아 高峰縣(高陽)으로 流配하고 王은 江華島로 追放하였던 것이다.[20]

이 事件에서 耘谷은 遼東征伐 計劃을 支持하고 讚揚하면서 이것이 中斷되고 挫折됨을 哀惜하게 보는 것 같다.

이어서 禑王을 廢位하고 王子 昌을 即位시킨데 대하여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即位有感二首」에서 「君臣도 適當한 時期에 서로 만나는 法, 돌고 도는 天運을 이제부터 알겠네. 草野의 百姓인들 나라 걱정 없으랴. 다시 忠誠을 다해 便코 危殆로움을 念慮한다오. 새 임금이 即位하고 옛 임금이 옮기니 쓸쓸한 바닷 고을에 바람과 연기뿐이로세. 하늘 門의 바른 길을 그 누가 열고 닫을 것인가. 곧 밝고 밝은 거울이 눈앞에 있을 것을 보게 되리」[21] 라고 읊었다.

1389年(恭讓王 元年) 昌王을 廢位하고 定昌君 瑤를 即位시키고 나서 前王父子 禑王과 昌王을 辛旽의 子孫이라 하여 庶人으로 格下시킨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詩를 읊었

註 19) 近聞有朝旨除年號改服 抽兵盡丁數 上下事馳逐 貔貅十餘萬 欲渡鴨綠江 方期遼海路壯氣浮旌旄 虎威振中原 誰敢不畏伏 応当凱旋日 四夷皆附属 聖主寿無疆継践周武踵 我雖老且病與 唱太平曲 乃何不渡江奮然回轡速 翠華在西都反駕何踽踽 可憐都統公独立招怨讟 柱石既傾危将何支厦屋(耘谷元天錫詩史 pp. 353~354)

20) 韓国史大系 5 朝鮮前期편 p. 25

21) 聖賢相遇適当時 天運循環自此知 默畝豈無憂国意 更殫忠懇念安危 新主臨朝奮所遷 嘉嶼海郡但風烟 天関正路誰開閉 要見明明鑑在前(耘谷元天錫詩史 p. 354)

다.

「前王父子가 각기 헤어졌다니 万里나 멀어진 東쪽 西쪽 하늘의 끝이다. 몸 하나는 庶民으로 만들수 있을망정 正当한 名分은 千古에 바꾸지 못하리라. 祖王의 真実한 盟誓가 하늘에 感応했기에 그 끼친 恩沢이 数百年을 흘러 伝했거늘 어찌하여 거짓과 참을 일찌기 가리지 않았던가. 저 푸른 하늘의 거울만은 밝게 비추시리라」[22]

여기서 「可使一身為庶類 正名千古不遷移」라 한 것은 正名의 恒久性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礼記 儒行篇에는 「偏党을 만들어 危殆하는 者가 있어서 몸은 비록 危殆 로울 수가 있으나 뜻은 가히 빼앗기지 않는다」[23]고 하였거니와 禑王 昌王을 아무리 庶人으로 格下한다 하더라도 王氏族의 正統性은 否認될 수 없는 事実이라고 力説한 것이다. 이때 禑王은 江陵에 있었고 昌王은 江華에 廃黜되었었다.

같은 해 12月에 禑王과 昌王이 賜死당한데 대하여 「地位가 鍾鼎에 높은 것이 王의 恩恵이거늘 도리어 怨讐가 되어 一門을 滅亡시켰네」[24]라고 읊었다. 여기서도 耘谷은 李成桂가 恩恵를 恩恵로 갚지 못할 망정 오히려 怨讐로 갚는 背恩忘徳과 悖倫을 신랄히 批判한 것으로 解釈된다.

耘谷은 崔瑩의 処刑에 대하여 「聞都統使崔公被刑寓歎」이라 題하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水鍾의 빛이 묻히고 기둥과 주추가 무너졌으니 四方의 民物들이 모두 슬피 울부짖네. 빛나는 功業은 마침내 썩고 말았지만 確固한 忠誠이야 죽어선들 어찌 사라지랴. 紀事青篇이 일찌기 帙에 가득한데 가엾어라 누런 흙은 이미 무덤을 이룩했네(中略) 나 이제 訃音듣고 哀悼의 詩를 짓는것은 公을 위한 슬픔이 아니고 나라 위한 슬픔이라오」[25]

이 詩에서는 일개 将帥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고 国家의 運命과 綱常이 무너짐을 悲歎하였다고 볼 수 있다.

国号를 朝鮮으로 改定한데 대하여는 「王氏家의 事業이 티끌이 되자 山河는 依舊하되 国号는 바뀌네. 그래도 風物만은 世上일 따라 変하지 않아 일없는 閑客을 마음 상하게 하네. 아마도 天子가 東方을 所重히 여겨 朝鮮이라는 国号를 理致에 合当하다고 한듯. 箕子의 끼친 바람이 장차 일어난다 면 반드시 中夏 사람들과 그 観光을 다투리라」[26]

註 22) 前王父子各分離 万里東西天一涯 可使一身為庶類 正名千古不遷移 祖王信誓応乎天 余沢流伝数百年 分攸假真何不早 被蒼之鑑照明然(op. cit. p. 422)

23) 儒有有比党而危之者 身可危也 而不可奪也(礼記儒行篇)

24) 位高鍾鼎是君恩 反自含讐己滅門(耘谷元天錫詩史 p. 422)

25) 水鏡埋光柱石頽 四方民物盡悲哀 赫然功業終帰朽 確爾忠誠死不灰 紀事青篇 曽満帙 可憐黄壌已成堆(中略) 我今聞訃作哀詩 不為公悲為国悲(op. cit. p. 416)

고 하였다.

여기서 耘谷은 箕子의 遺風을 매우 崇尙하고 있음을 본다. 箕子는 礼義와 田蚕織作으로 教化하고 犯禁八條로 犯罪를 規制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百姓들이 서로 훔치지 아니하고 門戶를 닫지 아니하며 婦人은 貞信하고 淫辟하지 아니하였다고 伝한다.[27] 箕子는 殷나라 紂王의 太師로서 孔子는 그를 殷나라 三仁의 한 사람으로 稱頌하였다.[28]

新国이라는 詩에서는 「海東天地에 큰 터전을 마련하고 綱常을 整頓해 마침 때를 만났어라. 四代의 그 王係이 지금의 太祖이고 三韓의 国土 뒤가 바로 高麗이네. 陵寢을 깨끗이 쓸고는 새 命令 내리고 朝班을 바로 定해 옛 制度를 고쳤는데 그로부터 다른 나라도 큰 教化에 돌아오기에 산에 오르고 바다를 건너면서 疲労함을 몰랐었네」[29] 라고 하였다.

이러한 詩를 통해 볼 때 耘谷은 高麗朝의 社稷을 重視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이 浮上한 朝鮮王朝의 革新도 支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綱常만을 絶対視하지 않고 状況에 따른 権変을 同時에 認定하면서 義理를 重視하는 것으로 보인다.[30]

또한 「用畏興詩韻」에서는 「朝廷의 紀綱을 고치고 号令이 새로우니 우리 임금의 그 功徳 거룩하고도 神奇로와라. 바다나라에서 朝覲하기 위해 方物을 실어오고 国境엔 편안하여 賊의 티끌이란 다 쓸어버렸네. 새방 북쪽 十年에 누가 書信을 부쳤던가. 江 남쪽 万里에 스스로 이웃을 통하니 가련하여라. 예와 이제의 興하고 亡한 일들이 얼마나 뒷 사람으로 하여금 또 뒷 사람을 슬프게 하는고[31] 라고 읊었다.

---

26) 王家事業便成塵 依旧山河国号新 雲物不殷人事変 尚令閑客暗傷神 恭惟天子重東方 命号 朝鮮理適当 箕子遺風将復振 必応諸夏観観光(op. cit. p. 549)

註 27)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目 礼義 田蚕織作 楽浪朝鮮民 犯禁八條……是以其民終不相盜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漢書地理志) 箕子의 東来説에 대하여는 몇가지 엇갈리는 学説이 있으나 本論에서는 論外로 한다.

28) 微子去之 箕子為之奴 比干諫而死 孔子曰殷有三仁焉(論語微子편)

29) 海東天地啓鴻基 整頓綱常適値期 四代王係 今太祖 三韓国土後高麗 掃清陵寢敷新命 刪定朝班改舊儀 従此異邦投盛化 梯山航海不知疲(耘谷元天錫詩史 p. 560)

30) 麗末鮮初의 状況에 대하여 創業의 時期인지, 守成의 時期인지, 更張의 時期인지는 理論的으로 儒学思想에서 判断되는 것이 아니라 当時의 社会, 経済, 政治, 外交, 軍事, 文化的인 側面에서 綜合的으로 判断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妥当하다고 생각된다. (柳承国 op. cit. pp. 181~182 참조)

31) 革整朝綱号令新 我君功徳聖之神 海邦朝覲輸方物 辺境安寧掃賊塵 塞北十年誰寄信 江南万里自通隣 可憐今古興亡事 幾使後人哀後人(ibid)

3. 社会意識과 愛民精神

耘谷은 賦役, 兵役, 重税, 権勢家의 収奪과 私刑, 旱魃과 水災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疲弊한 農村社会相을 紹介하고 그 밖에도 楽府의 妓生召還, 量田官制度등을 描写하고있다.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麗末의 農民社会에 있어서는 田制가 深刻한 問題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農民을 위한 合理的인 田制下에서만 農民生活이 維持되고 農村社会가 安定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高麗社会의 田制는 貴族官僚本位의 田制이었기 때문에 王室에까지도 영향을 받을 정도였던 것이다.

高麗의 貴族官僚들은 国家로부터 받은 科田과 世襲이 허락되는 功蔭田이나 賜田 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남의 土地를 購得하여 兼併하거나 投托을 받기도 하고 개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土地는 初期의 私田과는 달리 収租権과 管理権을 行使할 수 있는 農荘으로 変質하였다. 그들은 農荘管理人을 파견하기도 하고 所有土地 안에다 荘舎를 짓고 居住하며 허다한 奴婢와 佃戸를 모아서 경작케 하였다. 이것은 보통 私田이라 불렀으나 종전처럼 国家에서 佃戸를 결정해 주고 国家에서 租를 받아서 収租権者에게 넘겨주던 初期의 私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農荘의 拡大化 過程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農民들은 国家의 직접적인 支配下에서 国家에서 할당한 公私田의 耕作에 従事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가혹한 條件 밑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그 生活은 비참하였고 따라서 한 곳에 오랜 동안 定着하지 못하고 四方으로 떠돌아다니는 流民이 되는 수가 많았고 새로이 拡大化한 農荘으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農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佃戸와 奴婢이었는데 奴婢는 国家로부터의 課役을 免除받을 수 있는 일종의 特殊한 恵沢이 있었던 까닭에 佃戸에 비하여 増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 大農荘所有主인 権門世族에 대하여 不満을 가졌던 勢力은 農民들 自身뿐만 아니라 農荘을 所有하지 못하였던 新進貴族官僚層과 国王이었다. 왜냐하며 国家財政의 貧困으로 禄俸이 폐지되므로써 新進官僚는 生活을 위협 당하게 되고 既成官僚의 農荘은 国王의 直接 管轄下에 있는 荘 處까지도 침식하기에 이르렀던 까닭이다.[32]

이와 같이 社会的 衡平을 교란하고 非合理的인 方向으로 変貌한 田制는 恭愍王 代에 이르러 그 改革이 크게 推進되지만 辛旽이 失政과 弑逆陰謀로 被殺되고 恭愍王마저 宦官에게 弑害 당하므로써 失敗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은 후에 이르러 李成桂가 政権을 掌握한 후 新進性理学者들의 改革論을 받아들이므로써 改革의 成功을 보게 된다.

이러한 高麗의 田制를 보더라도 当時의 農民社会相이 과연 어떠하였는가를 능히

註 32) 李基白 国史新論 pp. 188～194 참조

짐작할 수 있다. 農村은 극도로 피폐하여 갖가지 참혹한 모습을 들어내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百姓의 고통을 自身의 고통으로 알고 그 속에서 함께 苦樂을 나누는 耘谷으로서는 農民社会相을 題材로 붓을 들지 않을 수 없는 必然的인 状況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代民吟에서 「生涯는 물과 같이 차갑고 賦役은 구름처럼 어지러워라. 갑자기 城을 쌓는 軍士가 되었다가 또 쇠 다루는 일군을 겸하기도 하네. 바람서리에 農事까지 그르치고 누더기 옷으로 밤낮 妻子걱정을 잊을 수 없어 마음이 들끓어 타오르듯하네」[33]라 하였다.

또 耘谷이 楊口郡에 이르러 「住宅들이 비스듬히 땅으로 쓸어지고 온 마을이 텅 비어 煙気나는 데가 없음을 보고 行人에게 물으니 옛부터 땅이 좁고 토박하여 民物이 衰残했는데 近来에 와서는 土地마저 権勢家들이 빼앗고 百姓을 못살게 하며 税金도 많이 받아 발 붙일만한 땅이 없게 되었고 겨울만 되면 税金 독촉하는 무리들이 날마다 門이 터지도록 연이어 만일 命令을 어기면 손발을 높이 매달고 심지어는 棍杖까지 때려 살과 뼈가 해어지니 죽지 못해 百姓들이 四方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34] 이 말을 들고 지은 方山路上五言詩八句에서도 「무너진 집에 새들만 지저귀니 百姓은 도망가고 衙前도 보이지 않네. 해마다 民弊만 더 했거늘 어느 날 어느 때 즐겁게 지냈으랴. 土地란 土地는 権勢家에 빼앗겼는데도 暴悪한 무리들은 門앞에 연이었네. 묻노니 이 苦生 누구의 허물인고 남은 住民 더욱 더 가엾어라」고 읊었다.[35]

또한 苦旱이라고 題한 詩에서는 「몇달 동안 山城에 비라고는 오지 않아 풀없는 큰 들판 千里가 빨갛게 되었네. 사람들은 가뭄病에 걸리어 서로 지껄이면서 몇번이나 구름 무지개를 바라보고 애태웠던가. 商羊은 춤추지 않고 旱魃은 자학하여 때아닌 西쪽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대네. 오래 마른 논에는 누런 먼지가 일어나고 곳곳의 샘물에는 물줄기가 끊겼어라. 1年내내 農事지은 것 다시 말해 무엇하나 피와 조 다마르고 콩보리는 전혀 없네. …이제는 生命마저 이미 끝장났거니 다시 무슨 物件으로 税金에 충당할 건가. 옛부터 저 城東에 神霊스런 祠堂 있어 날마다 巫堂들 모여 福을 빌어 주느라 북소리 나팔소리가 雨雷처럼 시끄럽고 머리에 火盆 이고 줄을 지어 다니며 지껄이고 뛸 때엔 땀이 옷을 적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 푸르기만 해라. 또 절을 찾아

註 33) 生涯寒似水 賦役乱如雲 急抄築城卒 兼抽鍛鉄軍 風霜損禾稼 襤褸弊衣裙 未忘妻孥養心煎火欲焚(耘谷元天錫 詩史 p. 539)

34) 吏民家戸欹斜倒 地寂無煙火問諸行路 答曰 自古地窄田磽 民物凋残 比来権勢之家 奪有其田土 侵乱 其人民 租税至多 雖容足立錐之地 無有空閑 毎当冬月 収租徵斂之聲 填門不已 一有不能則 高県手足 加之以杖 剝及肌骨 居民不堪 流移失所 故如斯也(op. cit.p. 541)

35) 破屋鳥相呼 民逃吏亦無 毎年加弊瘼 何日得歓娯 田属権豪宅 門連暴虐徒 子遺殊不惜 辛苦竟何図(op. cit. p. 151)

갈때면 스님들이 모두 모여 真経을 읽으면서 法席을 베푸는데 精誠이 이러하지만 비는 아주 오지 않으니 저 造物主도 몹시 警責해야 하겠네」[36] 라고 읊었다.

이러한 詩를 통하여 丙辰年 当時의 旱魃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능히 짐작할만 하다. 「大野不毛千里赤」이라고 表現할만큼 심한 旱魃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해진 民間의 각종 祈雨祭와 佛家의 祈雨讀経과 国令으로 내려진 雲雨経讀経등은 注目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또 耘谷은 麟蹄縣에서 「田畓에 水災를 겪었다더니 나무 끝 군데 군데 뗏목 가지 걸려 있네. 사람이 드무니 도망간 집 많은 줄 알겠고 땅이 좁으니 盛名 얻기 어려워라」[37] 고 읊었다.

그리고 耘谷의 이웃에 病들고 나이 많은 한 老婆가 있었는데 娼妓가 된 외딸에 의지하여 求乞로 扶養을 받아 오던 중 그 딸이 楽府에 召還되어 곧 길을 떠나게 되자 老婆가 슬피 울었다고 한다. 이런 光景을 보고 耘谷은 「우는 소리 슬프고 슬퍼 天門에 들리니 母女의 離別하는 情 밝은 날도 어두워지네. 聲色이란 옛부터 하나의 즐거움을 이바지할 뿐이라 太平時代의 気象이야 이 속에 있을건가」[38] 라고 읊었다. 이 詩를 통하여 事後의 保障도 없이 子息과 生離別하여 餘生이 암담한 老婆의 形便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声色이란 것이 古来로 視覺과 聽覺만을 一時的으로 즐겁게 해주는데 지나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V. 結　　言

耘谷元天錫詩史를 통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耘谷은 九十餘平生을 雉岳山 기슭의 耘谷에 묻혀 隠居하는 동안에 李穡 鄭道傳을 비롯한 有名 無名의 官吏와 선비들의 来訪을 받기도 하고 郷学의 書生들과 詩로써 交遊하였으며 契内人士들과도 때때로 사귀어 가며 때로는 술을 즐기고 밭도 갈고 芝草도 캐며[1] 喪妻후로는 줄곧 홀아비로生活을 支

註 36) 山城數月霖雨絶　大野不毛千里赤　人罹旱暵相嗷嗷　幾望雲霓頻労劇　商羊不舞旱魃虐　律外西風吹不隔　永田久涸起黄埃　處處靈泉俱絶脉　一年農事更何論　稗粟焦乾無菽麥……到今生命已焉哉　更将何物充賦額　城東自古有靈祠　日聚巫覡祈恩澤　喧闐鼓吹殷如雷　首戴火盆行終繹　曉曉踊躍汗流裘　仰視天宇深紺碧……又尋佛宇集緇流　披讀真経開法席　虔誠如此長不雨　造物亦当深警責 (op. cit. p. 252)

37) 聞道水災田畝盪　行看樹抄海査横　人稀始覺多逋戸　地窄終難得盛名 (op. cit. p. 150)

38) 哭声哀怨至天門　母女分離白日昏　声色古来供一豫　昇平気像此中存 (op. cit. p. 339)

1) 그는 「七日即事」에서 「採芝耘谷無公廩　為対雲煙放浩歌」라고 읊었다. (耘谷元天錫詩史 p. 548)

撑해 나갔다.[2]

그는 歷史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歷史를 記述하고 詩를 쓰며 学問하고 思索하고 修行하였다.

그는 스스로 「동산집(廬)을 사랑한 陶淵明을 본받노라」 「義路를 어찌 버리겠는가. 名利의 마당에서 일찍 逃亡쳤노라. 山川과 함께 蕭灑하게 살아가고 雲月과 함께 孤高하게 지내리라. 어찌 감히 窮約함을 辭讓하랴」[3] 고 외쳤다.

또 한편 그는 「妄尊自己한들 끝내는 無益하고 無謀히 他人을 誹毁하면 오히려 不幸하다. 福善禍淫이 天道이거늘 世上사람은 왜 信邪疑正하는가」[4] 하고 世上을 歎息하기도 하고 「世上과 등진 나를 그 누가 알아주리」[5] 「몇달이나 病든 몸으로 지내고 보니 차가운 자라처럼 오그라드는 身勢라오. 숱한 辛苦를 풀 길이 없고 萬가지 憂愁를 잠시도 버리지 못한다」[6] 고 自歎하기도 하였다.

耘谷은, 언제나 어리석게만 보이고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陋巷에서 그 樂을 고치지 아니하였던 顔回를 매우 尊敬하고 私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懷抱를 적어 趙牧監에게 부치는 글에서 「……顔回의 어리석어 보임이 곧 나의 스승 일레……」[7] 라 읊었고 「顔回의 陋巷에서 즐기는 즐거움이여. 사람들은 그 근심을 못견디리만 나는 이제 즐거워해야만 할뿐. 봄에도 해어진 무명옷을 입었다오」[8] 라고 하였다.

또한 邊竹岡의 傲利名이란 詩를 次韻하여 쓴 詩에서 「君子는 원래 貧窮함을 잘 지켜 名譽와 利益을 업신여기고 神仙을 짝하나니 才略으로써 빛나는 벼슬에 오르지 않고 다만 文章에 힘써 깨끗한 바람을 떨칠 뿐이네. ……道가 아닌 이름을 求하는 것 부질없는 일이라 이제 나도 내 초막을 사랑하기로 한다」[9] 고 읊었다.

그는 또한 「栽松」이라는 詩에서 「……大夫란 称号는 応当 부끄러워 하지만 君子의 마음만은 굳게 지닐지라」[10] 고 하였다.

註 2) 그는 홀아비생활 21年째가 되는 해에 「先母児童在眼前 固窮知分廿餘年……残生空憶舊因緣 已経婚嫁無遺恨 方得安然向九泉」이라고 읊었다. (op. cit. p. 337~338)

3) ……我效愛廬陶 義路何曾舍 名場早己逃 山川共蕭灑 雲月伴孤高 豈敢辞窮約…… (op. cit. p. 553)

4) ……妄尊自己約無益 謀毁他人甚不休 福善禍淫天道近 信邪疑正世情悠 (op. cit. p. 541 嘆世三首 참조)

5) ……誰識吾行與世違 (op. cit. p. 153)

6) ……忽作病夫経数月 有如寒亀縮多時 百般辛苦難能釈 萬種憂愁不暫離……(op. cit. p. 154)

7) ……回也女愚是我師 (op. cit. pp. 152~153)

8) ……回之陋巷楽人不堪斯憂 我今聊楽耳 衣弊木綿裘……(op. cit. p. 429)

9) 君子由来自古窮 傲於名利伴仙翁 不将才略登華阪 但把文章振素風……非道求名是閑事 即今吾亦愛吾廬 (op. cit. p. 427)

論語 里仁편에는「君子는 義에 밝고 小人은 利에 밝다」[11] 고 하였다. 義란 天理의 마땅한 바를 말하며 利란 人情이 欲求하는 바를 가리킨다. 君子는 生을 버리고 義를 取한다. 그런데 利로 말한다면, 사람이 욕구하는 바로는 生보다 더 함이 없고 사람이 싫어하는 바로는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누가 生을 버리고 義를 取하기를 즐겨 하겠는가.[12]

耘谷은 人情이 욕구하는 바 出世慾이나 財物慾을 버리고 오직 道를 求하고 淸風을 떨치는 것으로 真正한 利를 삼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스스로 읊은 것처럼……「山林속에도 濟世의 선비가 있고…… 가시숲에도 芝蘭의 香気가 있음」[13]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孟子는 聖人의 類型으로 넷을 들어 말하되「伯夷는 聖之淸者요 伊尹은 聖之任者요 柳下惠는 聖之和者요 孔子는 聖之時者」[14] 라 하고 또한「君다운 君이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며 百姓다운 百姓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며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우면 물러나는 이는 伯夷오, 누구를 섬긴들 君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百姓이 아니냐하여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어지러워도 또한 나아가는 이는 伊尹이오, 가히 벼슬할만 하면 벼슬하고 가히 떠날만하면 떠나며 가히 더 머물만하면 더 머물고 가히 재빨리 떠날만하면 재빨리 떠나는 이는 孔子」[15] 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부연하되「伯夷는 君다운 君이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며 벗다운 벗이 아니면 벗하지 아니하며 惡人의 朝廷에 서지 아니하여 惡人으로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더니 惡人의 朝廷에 서서 惡人으로 더불어 말하되 朝衣와 朝冠으로써 진흙과 숯덩이에 앉듯하며 惡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 생각하되 鄕人으로 더불어 섬에 그 鄕人의 冠이 바르지 아니하면 황겁히 떠나기를, 장차 더럽혀질듯이 하니, 이런고로 諸侯가 비록 辭令을 잘 만들어 다달을 者가 있어도 받지 아니하니 (그 辭令을) 받지 아니함은 就任을 반갑게 여기지 아니함」[16] 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伯夷는 눈으로는 惡色을 보지 아니하며 귀로는 惡声을 듣지 아니하고

註 11) 子曰 君子喩於義小人喩於利 (論語 里仁편)

12) 同註 참조

13) 山林亦有濟時才……棘林豈欠芝蘭馥…… (耘谷元天錫詩史 p. 155)

14) 孟子曰 伯夷聖之淸者也 伊尹聖之任者也 柳下惠聖之和者也 孔子聖之時者也 (孟子 万章章句下)

15)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乱則退 伯夷也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乱亦進 伊尹也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op. cit. 公孫丑上)

16) 伯夷非其君不事 非其友不友 不立於 惡人之朝 不與惡人言 立於惡人之朝與惡人言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 推惡惡之心 思與鄕人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若将浼焉 是故諸侯雖有善其辭命而至者 不受也 不受也者 是亦不屑就己 (孟子 公孫丑章句上)

……橫政의 나오는 바와 橫民의 머무는 바에 참아 居하지 아니하며 鄕人으로 더불어 處함을 생각하되 朝衣와 朝冠으로 진흙과 숯덩이에 앉듯 하더니 紂의 統治時代를 당하여는 北海濱에 居處하면서 天下가 맑아지기를 기다리었으므로 伯夷의 風을 들은 者로 頑惡한 지아비는 分辨함이 있고 柔弱한 지아비는 立志하게 되었다」[17] 고 하였다.

許穆이 耘谷의 墓碣에서 「伯夷는 聖之淸者이다. 先生은 伯夷의 짝」[18] 이라고 述懷한 것은 매우 合当한 表現이라고 생각된다. 伯夷가 紂와 같은 暴君治下에서는 北海濱에 살면서 天下가 맑아지기를 기다린 것과 같이 耘谷은 原州의 耘谷골자기에 묻혀 世上이 맑아지기를 기다린 것이다.

「君子는 숨어 살아도 世上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데 先生도 世上을 避해 스스로 숨어 살았으나 世上을 잊는 것은 아니오 道를 지켜 變하지 않음으로써 그 몸을 깨끗이 한 것이다」[19]

그는 도도한 名利의 물결을 抵抗하는 砥柱와 같이 磊磊落落한 高節을 간직 하므로써 松栢의 後凋[20] 와도 같은 百世淸風의 龜鑑을 보이는 同時에 銳利한 筆鋒으로 大転換期의 野史를 記述하여 孔子의 春秋義理精神을 發揮하므로써 乱臣賊子를 두렵게 하고 仁義를 守護하려 애썼던 것이다.

哀惜하게도 그 史書가 滅失되고 말아 커다란 文獻的 遺産을 損失하였으나 그가 잡았던 正義의 直筆은 詩史를 通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굳이 孟子의 表現을 빌지 않더라도 耘谷의 歷史意識은 知覺없는 이로 하여금 分辨을 갖게하고 柔弱한 이로 하여금 立志케 하는데 不足함이 없을 것으로 안다.

과연 耘谷은 沈東龜의 礼讚과도 같이 圃隱 牧隱 (冶隱)등 麗末三賢과 忠貞을 나란히 한 高潔한 선비라 하겠다.[21]

<『淸州敎育大學論文集』17, 1980>

註 17) 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声……橫政之所出 橫政之所止 不忍居也 思與鄕人處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也 当紂之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淸也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孟子 万章章句下)

18) 伯夷聖人之淸者也先生 蓋伯夷之倫也 (石逕墓所事蹟 高麗国進士 耘谷先生墓碑 耘谷元天錫詩史 p. 587)

19) 君子隱 不遺世 先生雖逃世自隱 非忘世者也 守道不貳 以潔其身者也 (ibid)

20) 許穆은 耘谷先生 墓碣에서 季節이 추워진 후에야 松栢이 뒤늦게 파리해짐을 안다.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也. 論語子罕편)고 한 孔子의 말을 引用하여 礼讚하고 있다. (耘谷元天錫詩史 p. 587)

21) ……可與夷齊相上下 遂從圃牧並忠貞…… (op. cit. p. 589)

主要参考文献

耘谷元天錫詩史(耘谷行録詩史)
禮記注疏(十三経注疏 5)
論語注疏(十三経注疏 8)
論語集註
孟子注疏(十三経注疏 8)
孟子集註
三国史記
漢書地理志
史記列傳
高麗史
孤雲集
三峰集
陽村集
谿谷漫筆
柳承國：韓國의 儒教
震檀学会：韓國史(近世前期編)
千寬宇：韓國史大系(朝鮮前期編)
李基白：國史新論
末木剛博：東洋の合理思想

無爲 自然처럼 사셨던 耘谷 元天錫先生

李 弘 宰
(강원도 횡성군 서원중 교사)

(I)

耘谷 元天錫 先生은 어지러운 고려말에서 격동기의 조선 초까지 살다간 고려의 隱士이다. 30여 년을 松都에서 무너져 가는 고려 왕조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 보며 살아왔고 그후 60여 년간을 亡國의 한을 달래며 세상을 피해 치악산 자락에 숨어 살면서 자연과 詩를 벗삼아 고결하게 살다 간 당대의 丈士요 詩人이었다. 여러 學者, 文人, 僧侶들과 交流하면서 숱한 詩를 쓰며 많은 여행을 하는 속에 그의 思想은 文學의 境地를 넘어 儒敎, 佛敎, 道敎를 융합시키는 三敎一理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다.

"君子는 숨어 살아도 世上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데 先生은 世上을 피해 스스로 숨어 살았으나 世上을 잊은것이 아니요, 道를 지켜 변하지 않음으로써 그 몸을 깨끗이 한 것이다.

伯夷의 말에 "선비가 治世를 만나면 그 소임을 피하지 않고 亂世를 만나면 구차히 살지 않는다"라고 許穆은 운곡 선생 墓碣에서 세상의 名利를 사양하고 은둔의 길을 택해야 했던 선생의 立場을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역사속에 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이 구차한 現實을 피해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詩를 읊고 혹은 思想을 갈파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개탄하면서도 虛無主義에 빠져 생을 마친 인사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에 비하면 운곡선생은 "돌샘을 뚫어 늘 갈증을 풀고, 산나물을 캐어 가난을 위로하네"라는 弁岩에 새겨진 싯구와 "집이 누추하고 옹졸함이 주인의 누추하고 옹졸함과 걸맞는다" 나는 陋拙齋의 유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꾸밈없는 自然 그대로 삶에 늘 만족하며 끝내 자신을 비관하는 虛無主義로 빠지지 않고 그때 그때의 어지러운 社會를 늘 비판하고 不義를 고발하면서도 大勢의 흐름을 認定하는 그

야말로 큰 숲을 내다보며 道에 살다간 고결한 선비였다. 이에 많은 同好人과 學者들이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硏究한것을 기초로 하여 본인은 선생의 思想 즉 三敎一理의 思想속에서 특히 無爲自然의 道敎的 삶에 대해서 耘谷文學硏究會에 관여하는 동안에 느낀 바를 적어 보기로 한다.

(II)

운곡 선생은 우왕 13년에 지은 그이 詩속에서 "유교의 가르침은 窮理盡性이요, 불교의 가르침은 明心見性이요, 도교의 가르침은 修眞鍊性이라고 如如居士의 三敎一理論을 인용하여 儒, 佛, 道의 盡之, 見之, 鍊之는 그 方法이 다를 뿐 모두 하나로 통한다는 統合元理를 주장하였다(유주희, 원천석 연구)

선생은 고려의 崇佛論者들이나 조선의 排佛論者들의 사상을 고루 인정하면서도 어쩌면 그들의 思想을 超越하여 三敎를 모두 수용하는 大人의 자세로 일관된 삶을 산 분이었다. 자연과 가난과 시를 즐기며 살면서도 不義를 告發하며, 도탄에 빠진 민초들의 삶을 늘 걱정했으며 세상이 바뀐 때는 大勢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렇듯 선생의 사상은 유교에 뿌리를 두고 불교의 심오한 진리까지도 터득했지만 그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無爲 自然의 道에 따른 생활로 일관되어있음을 역역히 짐작할 수 있다. 잠시 道敎의 생활태도를 살펴보자. 道敎는 중국의 春秋戰國시대의 "老子에 의해서 종교체계로 만들어진 것을 후에 '壯子'에 의해서 集大成한 것으로 이는 어느 하나의 원리나 사상보다는 학술, 천문, 의술, 유교, 불교등과 陰陽說, 神仙說까지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된 광범한 내용을 가진 종교이다. 道敎에서는 모든 것의 원인은 한가지 道에 있다고 하였으며 道는 영원한 질서로써 인간 역시 그 道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無爲와 自然을 존중하고 우주의 근본적인 道에 合一하여 온갖 人爲的인 것을 배격하여 世俗으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自然의 大道에 悠悠自適하는 虛無主義로 빠지기 쉬운 면도 없지 않은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운곡 선생은 자연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걱정하고 정의주의자이면서도 대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니 "人爲的인 것보다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道敎的 삶에 더욱 充實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 교의 宗風이 본래 그릇되지 않았거늘

부질없는 시비의 소리 개구리처럼 시끄럽네. 하나의 성품이라 모두 거리낌이 없을진 대 불교는 무엇이고, 유교는 무엇이고, 도교는 무엇인가?" (세교를 모아 하나에 귀결시킴)라는 詩를 통하여 유교니 불교니 도교니 서로 자기의 교리와 사상을 고집하여 他敎를 적대시하고 자기의 敎理를 나라의 통치이념으로 삼고자 억측을 일삼던 당시의 사회상을 선생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생은 평생 儒, 佛, 道의 종교인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당대의 巨儒인 李穡, 鄭道傳, 李崇仁등과 왕래하며 서신을 주고 받았으며 또한 道境大禪師, 允珠禪師등 많은 승려들과도 교분이 두터워 많은 詩와 書信이 오갔다. 여기에서 선생은 유학과 불교의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여 유불의 사상을 섭렵하면서도 그 生活은 도교적 生活 속에 安住하여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불교는 무엇이고, 유교는 무엇이고, 도교는 무엇인가"라는 싯구에서 당시의 종교와 학문이 曲學阿世의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三敎一理論을 통하여 사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안정 번영하여 가기를 늘 갈망하였던 것이다.

(III)

다음은 운곡 선생이 無爲 自然에 산 삶의 모습을 선생의 生活들을 통하여 살펴보자.

첫째, 치악산 자락에 묻혀 火田을 일구어 農事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기르던 선생은 36세에 아내를 잃고 90평생을 독신으로 지낸다. 치악산 속 첩첩 산중에 陋拙齋와 弁岩(해발 1300mm)에 은거하면서 산채로 시장기를 달래고 샘물로 갈증을 풀며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북으로 깊은 시내를 향해 띠집을 세우고 나의 여생 여기서 보내려 하니 처세하는 지모도 과연 옹졸하거니와 수신하는 사업이 옳은 것 없이 부끄러워라 창문 열고 마주 대하면 푸른 솔 빛이고 땅을 쓸어 사르다 보면 白朮 향기가 풍기네 이 경계 이 사람이라 향배를 어겼으니 길가는 사람도 아마 방향 모른다고 비웃으리.

두번째로 선생은 世波에 흔들리지 않은 崇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고려조가 무너지고 세상이 뒤바뀌어 太宗이 된 방원이 스승의 행방을 찾아 치악사

으로 행차하였으나 끝내 고려조의 舊臣으로 남아 不事二君의 충절로 머물렀다. 우왕 창왕의 폐위와 賜死, 존경하던 崔瑩과 鄭夢周의 죽음, 왕자들의 骨肉相爭 등 숱한 세상의 풍파를 지켜 보면서 선생은 권력이란 무엇인가? 부귀는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잠시 머물렀다가 自然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저리 發狂을 하는 世人들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괴로워 했을까?

"강물은 흐르는데
언제나 그칠건가
청춘세월은 누구도 만류하기 어려운 지라
옳고 그름과 명예 이익이 다 어디에 있나"

(강물 깊음을 원도령에게 부침)

세번째로 선생은 언제나 자연에 道를 지키며 大勢에 順應하는 生活을 살아왔다. 급진개혁파인 이성계 일파가 세상이 존경하던 최영의 요동 정벌론을 반대하여 위화도에서 回軍을 하고 入城하려 할 때 선생은 비통한 어조로 이성계를 질책했다.

"어찌 강은 건너지 않고 분연히 말고삐를 돌리는가 가련한 都統公은 홀로 원함을 사고 있어 주춧돌이 이미 위태로우니 장차 큰짐을 어찌 지탱할까"

최영의 유배와 더불어 고려 왕조의 몰락을 개탄했고 이성계를 비롯한 易姓革命의 무리들의 우왕과 창왕이 왕손이 아니고 신돈의 자손이라 하여 賜死시키지 아에 불복 항거하다가 선생은 배척되고 이색 이승인등이 유배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民心이 수습되고 王朝의 기틀이 잡히게 되자 선생은 대세의 흐름을 인정하게 되며 易姓革命까지도 어쩔 수 없는 現實로 받아 들인다.

"天命과 人心은 德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새 왕조의 공은 하루 아침 4시에 있었네 海東의 天地가 다시 맑고 편안하며 백성들은 착하고 시절이 좋아 泰平을 즐기나니 箕子의 순수한 바람은 더욱 떨치고 朝鮮의 고상한 이름은 다시 펼쳐지네 산과 물의 웅장한 기운은 王氣를 붙들고 해와 달의 광명은 聖明에 합치니 德을 기리는 많은 사람이 이 곡을 노래하니 너무나 높고 넓어 무어라 말하기 어렵네" (정이상이 지은 네 곡조를 찬함)

이 詩는 德이 있는 곳으로 天命과 人心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연의 이치를 선생 자신도 따라 된다는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날 치악산까지 스승을 모시러 왔던 어가를 따돌려 보낸 바 있지만 선생

의 나이 70이 넘어 태종이 특명으로 불렀을 때는 다시 거부할 수가 없어 한양길에 오른다.

"상왕께 아뢰기를 스승의 예로써 맞겠거든 나와서 맞아들일 일이요 신하로써 만나고 싶거든 나를 불러들이라"는 운곡 선생의 전갈에 태종이 버선발로 달려와 선생을 맞이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여기에서도 大勢의 흐름에 따른 운곡 선생의 無爲 自然的인 삶의 모습을 역력히 읽을 수 있다.

III

이처럼 치악산 자락에 묻혀 鶴처럼 崇高하게 90평생을 살다간 운곡선생은 "耘谷元天錫詩史"에 歷史와 思想을 기록한 1144首의 漢詩를 남기고 있다. 선생의 시는 곧 선생의 순수하고 고결한 人格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天理를 거역하지 않고 진정 인간답고 道에 살다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굽을 節이면 눈속에 굽을 소냐 아마도 歲寒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선생은 눈처럼 희게, 대처럼 꼿꼿하게 살다간 稚岳山의 巨人이었다.

참 고 자 료

° 운곡 원천석시사

° 원천석 연구 : 유주희

° 운곡 원천석 선생과 치악산 : 박경용

° 원천석의 3교일리론에 대하여 : 양은용

° 칠봉서원의 배향인물 운곡 원천석 : 원주 군청

° 운곡문학이 갖는 향토 교재로서의 효용성 : 양근열

〈大東金石書 解題〉 중에서

公子の東國名筆帖の成りし戊申四月に、(書)

眉叟許穆が書きし朗善君書畫帖跋に曰く、

王孫朗善君嗜書。求觀歷代書。其絕藝如古人。於東方古今書。蓋亦盡矣。頃年奉使如燕京。得衡山神禹碑。觀龍蛇草木形。王孫於書可謂博矣。以老人頗好書。不鄙夷之。辱示東方諸名人親墨帖。命一言識之。其在帖者。新羅有金生。高麗有李君侅、元天錫二人、本朝安平公子、安琛、李塏、至金玄成、三十二人。特以筆妙名後代者。亦多有之。此何可得見也。(下略)

〈 今西龍 『 大東金石書』, 아세아문화사 〉

〈原州邑誌〉 중에서

元天錫
字子正，號耘谷，初舉進士，及麗亡
隱居雉岳山，窮耕隴畝，不出山外，
太宗大王潜邸時，嘗受學于天錫，及 登寶位屢召，
不至 上幸其家，宿東溪 親臨其廬，天錫避不
見，上坐溪石上，召守廬嫗，厚賜之，官其子洞
為基川縣監，天錫有藏書六卷，義麗國古事，戒子
孫勿使妄開，待之累世，一人當開之大懼，舉而燒
之，其書遂不傳，中家村欲以為麗朝古事，嘗以天
錫書為信史云

〈『關東邑誌』2, p. 193, 아세아문화사〉

※.

---------- 参考資料

※ 參 考 資 料

° 耘谷元天錫詩史 : 元晶吉 寫 元寅植 所藏 筆寫本, 1965. 3.

° 耘谷元天錫詩史 : 原洲元氏中央宗親會, 1977. 1.

° 耘谷元天錫詩史 : 原州元氏譜所, 1984. 12.

° 華海師全 : 李 植, 栗里祠, 1920.

° 華海師全 : 全石萬 註譯, 原州文化院, 1991. 12.

° 元耘谷居義 全石萬 譯, 原州文化院, 1990. 12.

° 국역연려실기술, 권1 : 이긍익, 민족문화추진회편

° 국역대동야승, 권25, 56, 71 : 민족문화추진회편

° 耘谷詩史 : (「高麗名賢集」 5책,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7).

° 原州原城鄕土誌 原州文化院, 1976. 10.

° 橫城郡誌 횡성군 1986. 6. 20.

° 정선의 鄕史 - 내고장 傳統가꾸기 정선군 1981. 12. 20

° 아동문예 - 운곡 원천석선생과 치악산, 월간 아동문예 1984. 4. 1

° 韓國觀光資源總覽

韓國觀光公社, 1985. 12.

° 東國地理誌(影印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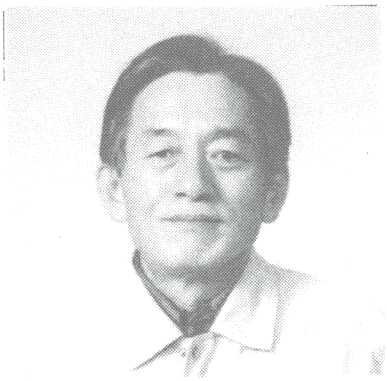
구암 韓百謙저 一 潮閣, 1982. 8. 10

° 新增 東國輿地勝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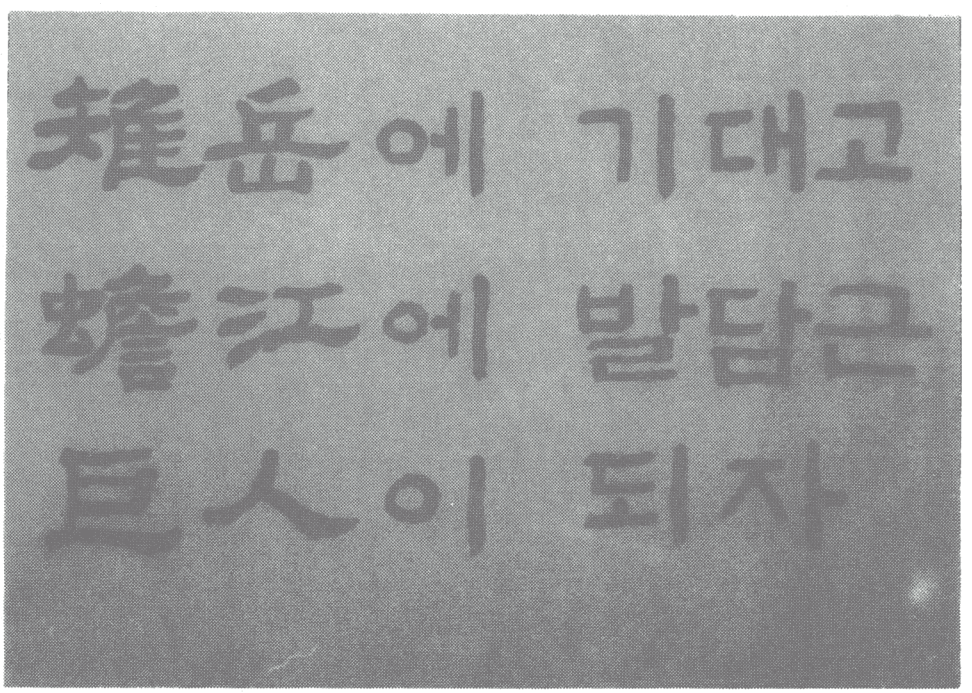
古典刊行會 1958. 7.

° 韓國地名沿革考 <地名變遷辭典>

權相老 편 東國文化社. 196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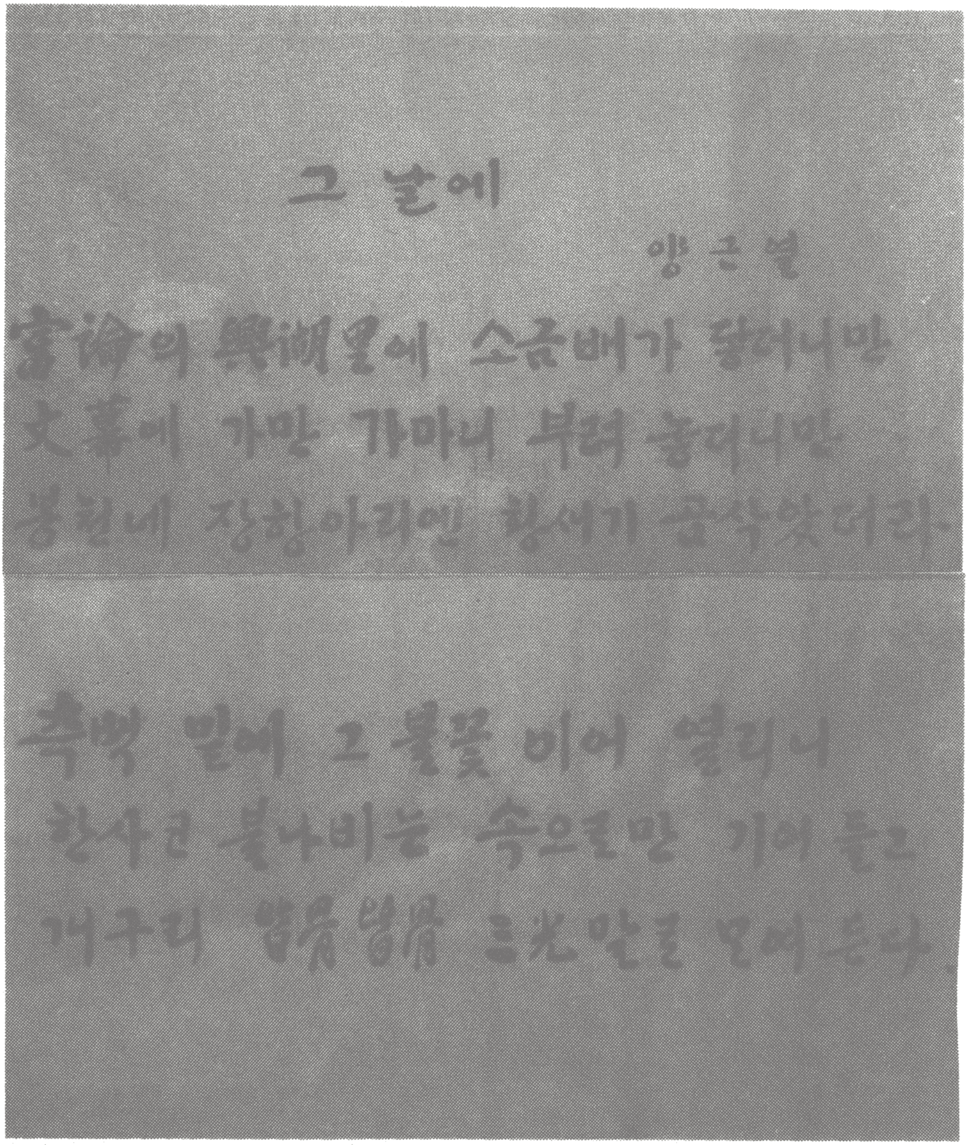


故 无爲堂 張壹淳 先生 影幀
(耘谷 元天錫先生追慕
揮毫大會長 1회, 2회)



(제1회 휘호대회 개회사에서 1991.1.26)

글씨 : 七齊 姜 榮 求


그 날에
양근열
富論의 興湖벌에 소금배가 닿더니만
文幕에 가만 가마니 부려 놓더니만
봉천네 장항아리엔 함새기 곰삭았더라.
흑백 밭에 그 불꽃 비어 열리니
한사코 불나비는 속으로만 기어 들고
개구리 맹문 벌骨 三光 안골 모여 든다.

글씨 ; 七齊　姜榮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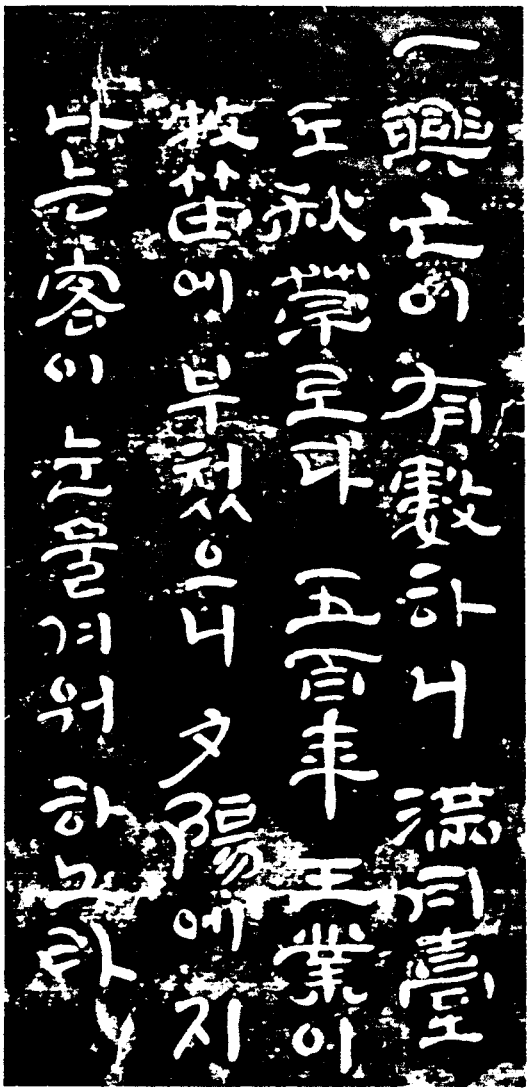
IV.

운곡문학연구회활동

운곡문학연구회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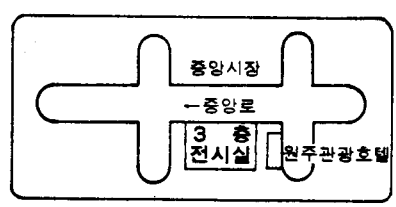
° 1982년 여름 : 원길순(원주여고 1학년 5반 학생)으로부터
'운곡원천석시사' (1977. 1. 5. 발행)를 빌리어 봄.
° 1982. 10. 29~30 : 원주여고 교내 시화전에 운곡 원천석 선생지음.
'추만(秋晩) 2 수' (늦가을 두 수)를 전시함.
° 1983. 봄 : 노강 박노춘교수(경희대 국문학과 교수)와 함께 원천석 선생
유적 현지답사. 동참 : 이영주, 김지형 외 3명(경희대 학생)
° 1985. 2. 3 : '둥잔(제2호)지' (원주고 부설 방송통신고교 교지)에 '운곡
원천석선생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기행문을 발표함.
° 1985. 여름 : 원주시 횡성군에 소재한 유적을 탁본함.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김성찬연구사와 함께)
° 1985. 10. 11~15 : 운곡 원천석서생 유적탁본전 (제 1 회)을 원주신용협동
조합 3층 전시실에서 가짐.(전국체전기간중)
° 1985. 10. : '시인 원천석선생'라는 향토인물소개의 글을 「원주신협」지
(1985. 10월호)에 발표함.
° 1989. 9. 22 ~ 23 : 제 2 회 운곡 원천석선생 유적 탁본전
① 장소 : 횡성군청 대회의실
② 후원 : 태풍문화위원회 (전시 : 태풍제 기간 중)
° 1990. 2. 24. : 운곡문학연구회를 원천석선생 묘소 (석경사)에서 결성함.
회원 10명
° 1990. 8. 16. : 제 1회 연구발표회
① 주제 : 운곡문학이 갖는 향토 교재로서의 효율성
② 장소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136 강의실
③ 발표자 : 양근열
° 1991. 1. 26 : 제 2 회 연구발표회
① 명제 : 운곡 원천석선생의 생애와 선비사상
② 장소 : 원주문화원
③ 발표자 : 김호길
° 1993. 7. 28. : 제 1 회 운곡 원천석선생 추모 시조백일장 및 제 2 회
휘호대회
① 대상 : 원주시, 군과 횡성군 초, 중, 고 학생
② 장소 : 원주여자중학교 음악실 및 교실
③ 후원 : 강원도 문예진흥원, 원주원씨종친회
° 1994. 7. 26 : 제 2 회 운곡 원천석선생 추모 시조 백일장 및 제3회 휘호대회
① 대상 : 원주시.군 횡성군 초. 중. 고 학생
② 장소 : 원주교육청 3층 대회의실
③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1회 탁본전-



耘谷元天錫先生 遺蹟拓本展

때 : 1985. 10. 10 ~ 10. 15
곳 : 원주신용협동조합 (3층전시실)
하는이 : 梁 槿 烈



부질없는 말 한마디

〈原州〉하면 雉岳山을 聯想하고 〈雉岳山〉하면 耘谷 元天錫先生을 聯想하게 된다.

原州高校 梁權烈教師는 元耘谷先生의 生涯와 文學을 研究할 것에 着目하여 그동안 数次에 걸쳐서 雉岳山의 耘谷先生 遺跡을 踏査하고 遺跡地에 있는 岩石文을 學生들과 더불어 죄다 拓本하여서 江原道에서 開催하는 全國体育大會 期間에 展示한다고 한다.

耘谷 元天錫先生을 『耘谷元天錫詩史』의 出現으로 詩人으로 再評價하여야 하겠고, 『華海師全』의 發見으로 生涯와 業蹟을 再發見하여야 할 機運이 무르익어 가려는 이 때에 拓本展을 가진다는 것은 여간 意義가 큰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拓本이란 것은 아주 生疎하고, 또 한편 여간 어려운 趣向이 아닐 수 없다. 드물고도 어려운 일인 拓本展을 연다고 하기에 同好者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움을 禁치 못하여 몇마디 致賀의 말을 적는다.

1985. 9. 25

慶熙大學校 文理大 教授

첫 拓本展을 열면서

가을로 접어드니
치악산이 가까이 뵈고
그 능선에는 흰구름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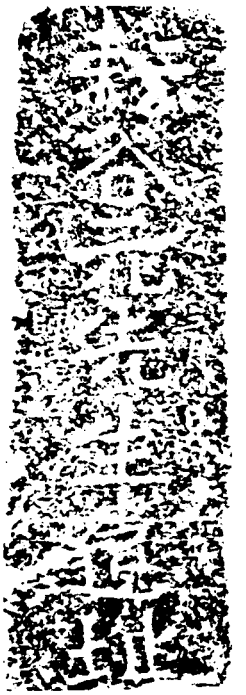
맑은 물소리와 같은 생활을
漢詩(1144首)에 실었던 耘谷先生!
잠시 치악산을 바라보며
古人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동안 原州를 찾아 주신 여러분과 이 고장 어르신께 思索의 空間이 되어 주소서.
젊은 학생들에게 温故知新의 場이 되소서.
저를 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梁 權 烈

⇧태종이 스승인 운곡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쉬어 갔다는 곳. 1723년 여름에 새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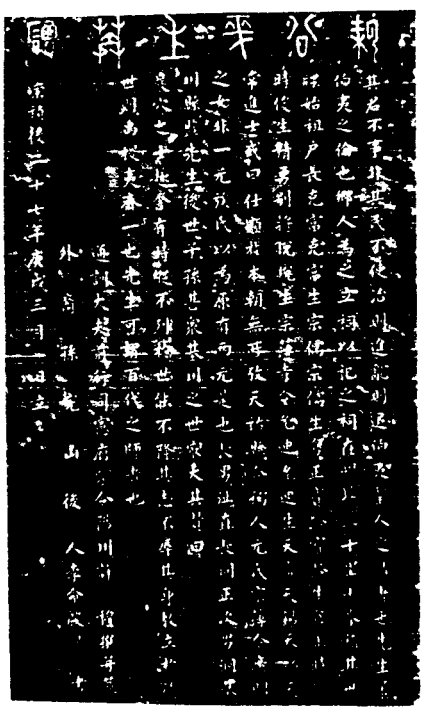
⇧노구(老嫗)가 임금을 속였다 해서 투신 자살한곳. 일명 노구소(老嫗沼)라 하며, 예나 지금이나 깊이가 같다고 한다.



⇧누졸재(陋拙齋) 집터 - 누추하고 옹졸함이 집과 그 주인이 걸맞다하여 이름. 이곳에서 시작(詩作)이 많이 이루어졌다.

⇧세칭 고깔바위. 시루봉에서 동편으로 300m밑에 자리하고, 측면에 율시(律詩) 2구가 새겨져 있다.

⇒묘갈(墓碣) - 원주에서 4 km 떨어진 석경(石逕, 세칭 돌경이)에 선생의 묘, 시비(詩碑), 운곡재실, 석경사가 있으며 묘갈을 보면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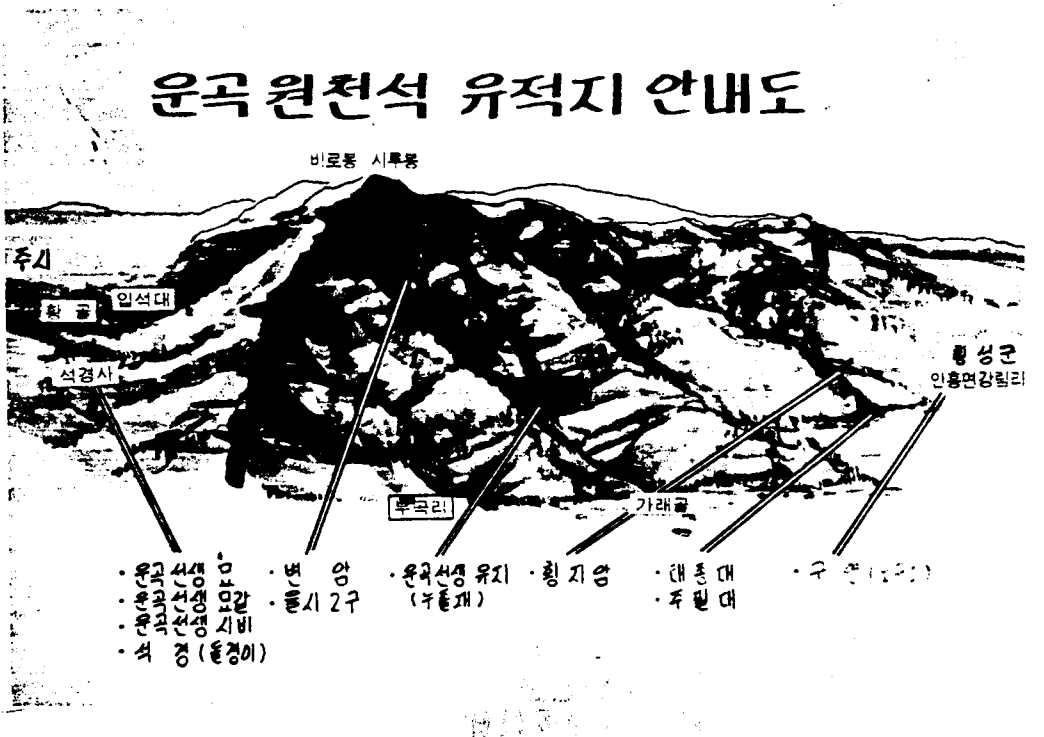
作 品 目 錄

○「太宗臺」
○「嫗 淵」
○「駐蹕臺」
○〈陋拙齋〉址 表石
「耘谷 元先生遺址」
○「弁岩」(일명 : 고깔바위)
○弁岩側面 耘谷先生
行蹟記錄
○弁岩側面
〈陋拙齋〉律詩二句
「開穿石井常澆湯
收拾山蔬且慰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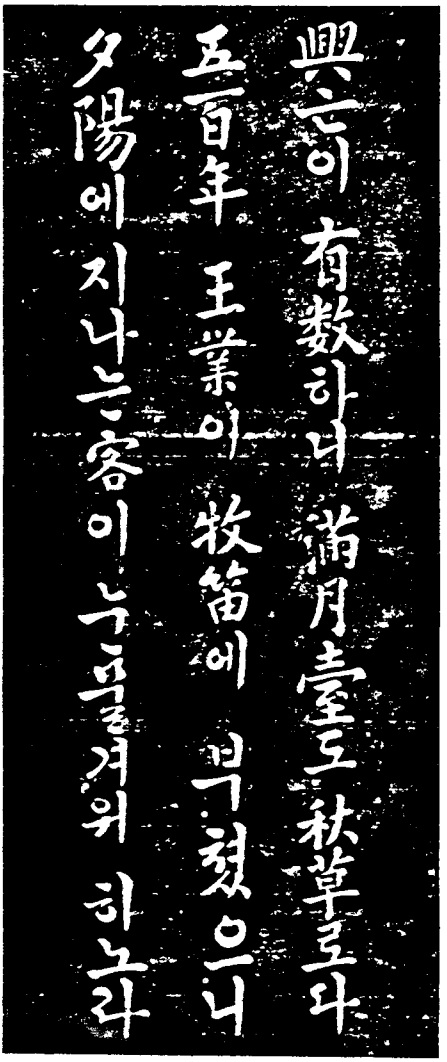
○「石逕」
○墓碑
○耘谷 元天錫先生 墓碣(二幅)
○許 穆(허미수)의 篆書
○耘 谷 元天錫先生 詩碑
○時調三首 (懷古歌)
○詩碑의 趣旨文

拓한 이

양근열 (원주고교 교사)
☎(직장) 42-2962 (자) 43-5210
이영주 (경희대 국문학과 4년)
김성찬 (단국대 사학과 4년)



-제2회 탁본전-



耘谷元天錫先生 遺蹟拓本展

때 : 1989.9.22 ~ 23 (OPEN : 22일 13 : 00)
곳 : 횡성군청 대회의실

하는이 : 梁 槿 烈
후 원 : 泰豊文化祭委員會

鄕土史 再照明의 機會

橫城郡校育長 梁 暢 洙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이즈음 民俗傳承과 郡民의 단합을 위한 第9回 泰豊文化祭에서 耘谷 元天錫 선생의 유적에 대한 拓本展示會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耘谷 元天錫선생과 橫城과의 인연은 朝鮮 초기부터라고 합니다.

耘谷은 고려말의 隱士로서 문장과 학식이 뛰어났으며 耘谷集과 耘谷 元天錫詩史 等이 있습니다.

耘谷은 朝鮮 3代王인 太宗(李芳遠)의 王子시절 師傅였으며 조선 개국 이후 왕위 쟁탈을 위한 兄弟間의 싸움을 보면서 痛嘆한 나머지 開城을 떠나 산간 奧地인 이곳 講林에隱居하게 되었는데 太宗이 즉위하자 耘谷을 찾아 이곳 냇가 바위에 앉아 빨래하는 노파를 불러 耘谷의 居處를 물었으나 노파는 耘谷이 말한 대로 겨짓으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太宗은 스승인 耘谷선생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음을 알고 돌아 갔는데 그 바위를 駐蹕臺라고 부르다가 후에 碑閣을 짓고 太宗臺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번 拓本展을 通하여 耘谷先生의 遺跡地를 再發見해 봄으로써 愛國의 고장인 우리 橫城을 아끼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梁權烈先生은 耘谷先生의 생애와 文學을 研究하시면서 學生들과 함께 數次에 걸쳐 유적을 踏査하여 拓本한 熱意에 감사드리며 鄕土史 再照明에 크게 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9 . 9 . 1

〈耘谷先生 遺蹟 拓本展〉을 기리는 글

蘆江 朴 魯 春

〈原州〉하면 雉岳山을 聯想하고 〈雉岳山〉하면 耘谷 元天錫先生을 聯想하게 됩니다.

古汗女高 梁權烈敎師는 元耘谷先生의 生涯와 文學을 研究하는 한편 數次 耘谷先生의 遺跡地를 踏査하여 최다 拓하여 이번에 두 번째 遺蹟拓本展을 열게 되었습니다.

耘谷 元天錫先生은 「耘谷元天錫詩史」의 出現으로 詩人으로서 再評價하게 되었고「華海師全」의 發見으로 生涯와 業蹟을 再發見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즈음에 遺蹟招本展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價値가 있고, 여간 意義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拓本이란 것은 아주 生疏하고 또 여간 어려운 作業의 趣味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인 拓本을 하여서, 드문 일인 拓本展을 이번에 橫城에서 연다고 하기에 同好者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나머지 拙詩調 한 首를 寄呈합니다.

耘谷의 生活·思想 弁岩에 새겨 있어,
千秋에 빛내면서 남을 것을 기리면서,
後人이 되새기도록 찍어낸 일 갸륵하네

1989. 9. 1.

우리 文學의 뿌리 耘谷文學

古汗女高敎師 梁 槿 烈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게 하는 이 가을에 泰豊文化祭委員會의 후원으로 耘谷元天錫先生遺蹟拓本展을 갖게 되었습니다.

耘谷 元天錫先生이 詩作을 가장 많이 한 곳이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치악산기슭이요, 耘谷은 횡성을 오가며 횡성읍내에서 묵으면서 漢詩를 읊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원면에 耘谷先生의 位版을 봉안한 七峰書院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耘谷과 인연이 깊은 횡성에서 그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思索의 空間을 마련함은 횡성군민에게 의미 있는 행사라고 자부합니다.

耘谷先生은 항상 읊음을 추구했고, 치악산의 맑은 물소리와 같은 생활을 漢詩(1144首)에 실었습니다. 이 耘谷文學이야말로 이 고장의 精神的 寶庫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學生들의 정신적 支柱가 되리라 믿습니다. 작품이 하나같이 모두 순수문학이며 작품 속에 東洋思想이 溶解되어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여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을,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별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耘谷元天錫詩史를 재편집해서 향토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뿌리를 찾고 그 기반 위에 보다 나은 우리 문학을 건설하는 것이 국어교사로서의소망입니다.이와 같은 노력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이 고장은 정신적으로 보다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耘谷의 作品世界를 硏究하는 데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蘆江 朴魯春 교수님, 탁본전을 열도록 후원해 주신 泰豊文化祭委員會 鄭桂亢회장님, 학생을 위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해 주신 횡성교육청 梁暢洙교육장님, 그외 저를 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89. 9. 1

作 品 目 錄

○ 耘谷 元天錫 先生 遺蹟地 案內圖
○「太宗臺」
○「嫗 淵」
○「駐蹕臺」
○〈陋拙齋〉址 表石
「耘谷 元先生遺址」
○「弁岩」(일명 : 고깔바위)
○ 弁岩側面 耘谷先生
行蹟記錄
○ 弁岩側面
〈陋拙齋〉律詩二句
○「石逕」
○ 墓碑
○ 耘谷 元天錫先生 墓碣(二幅)
○ 許穆(허미수)의 篆書
○ 耘谷 元天錫先生 詩碑
○詩調四首(懷古歌)
○ 덧붙임 : 漢詩
· 말(斗)
· 上院寺 幽谷 굉스님과의 사귐
· 橫城과 관련된 作品 세 수

태종대 : 조선조 3대 태종(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 선생을 찾아 7일간 머무르던 곳으로 운곡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1723년 여름에 석벽에 새김

소재(所在) :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구 연 : 운곡 선생이 태종의 행차를 미리 알고 강가에서 빨래하던 할머니에게 「손님이 나의 간 곳을 묻거든 이 강물을 따라 갔다」 고 대답하기를 당부하고 사실은 시루봉 300m 아래 변암으로 올라 갔다.

할머니는 백성으로서 임금님께 거짓말을 한 자책감으로 투신자살 한 듯. 일명 노구소(老嫗沼)라 하며 예나 지금이나 물의 깊이가 같다고들 한다.

소재(所在) :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주필대 : 태종대라는 누각 안에 있는 비석이며 태종대에 대한 사적이 적힌 현판이 있다. 태종대 각자(刻字) 석벽 위에 있고, 태종이 7일간 머무르던 높직한 곳에 세웠다.

소재(所在) :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 **누졸재 집터** : 「집이 누추하고 옹졸함이 주인의 누추하고 옹졸함과 걸맞다」 하여 운곡선생이 명명한 것이며 이 곳에서 운곡선생이 시(詩)를 가장 많이 지었다고 한다. 「陋拙齋」(글씨 : 原堂 柳炳哲)라는 당호는 격조(格調)가 높다는 평이다.

소재(所在) :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가래골 안에 자리함

변 암 : 치악산 시루봉 등편 300m아래 있으며 형상이 마치 고깔 같다 하여 세칭 '고깔바위' '갓바위'라 한다. 그 바위에서 앞을 내려다보면 산 접접 — 그야말로 속리(俗離) — 속세를 산으로 담 쌓은 느낌이 든다. 내설악의 오세암과 꼭 같은 지형이다. 운곡선생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한시 (漢詩) 2 구 : 변암 석벽에 새긴 율시(律詩) 6수 중 다섯째 수 중 전구(轉句)

「開穿石井常澆渴
收拾山蔬且慰貧」
「右先生居」
「此所詠」

「돌샘을 뚫어 늘 갈증을 풀고
산나물을 캐 가난을 위로하네」
「오른 쪽에서 선생이 거처하며
여기서 이 시를 읊다」

이 시귀(詩句)야말로 운곡선생 생활의 단면이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도(道)라 하겠다.

운곡선생의 행적 : 변암 석벽에 다음과 같이 새겨 있다.

〈弁岩 석벽에 刻字한 耘谷 行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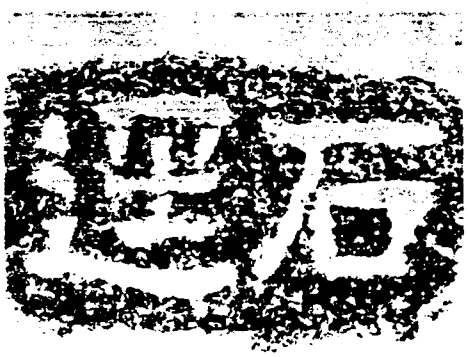
「耘谷元先生 諱天錫 麗末隱居此山下
我太宗以甘盤舊恩累召不至幸其廬
先生避入于此
崇禎後八十癸卯後孫尙中識
不起上高其義」

〈해석〉

운곡 원선생 휘는 전석 고려 말엽에 이 산 아래에 은거하셨다. 우리 태종께서 감반구은(甘盤舊恩 : 殷나라 때 武丁이 스승 甘盤을 發起重用하듯이)처럼 여러 번 부르셨으나 이르지 않으므로, 그의 오두막집에 擧動(行次) 하셨다. 先生은 逃避하셔서 여기에 들어 오셨다.

일어나 나오(벼슬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님께서 그 義理를 높이 여기셨다.

1708년 계묘년에 후손인 상중이 적는다.



석경(石鏡) : 일명 돌경이 원주시 행구동 석경마을 자연석에 새김. 운곡선생 묘소 잠배자를 위한 각자(刻字)인 듯하다. 이로 말미암아 마을 이름과 석경사라는 사찰 이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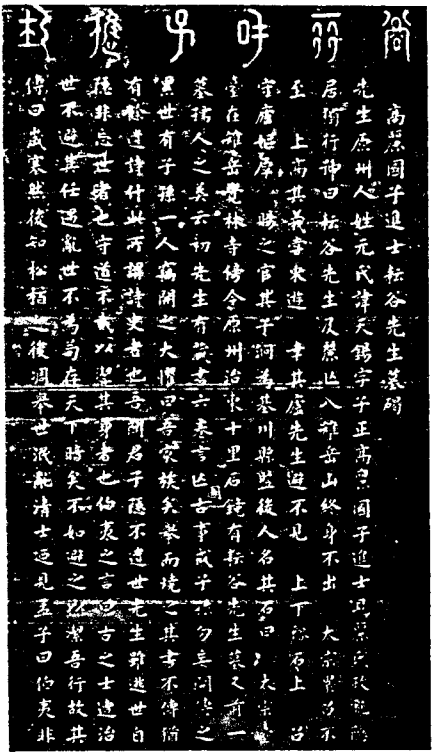
㉠ ㉡

운곡 묘소 참도(參道)의 표석 : 본시 ㉠과 같은 표시가 암석에 있었으나 원인식(元寅植) 주선으로 원치형(元致馨)의 글씨로 ㉡과 같이 새로 세웠다.

소재(所在) : 원주시 행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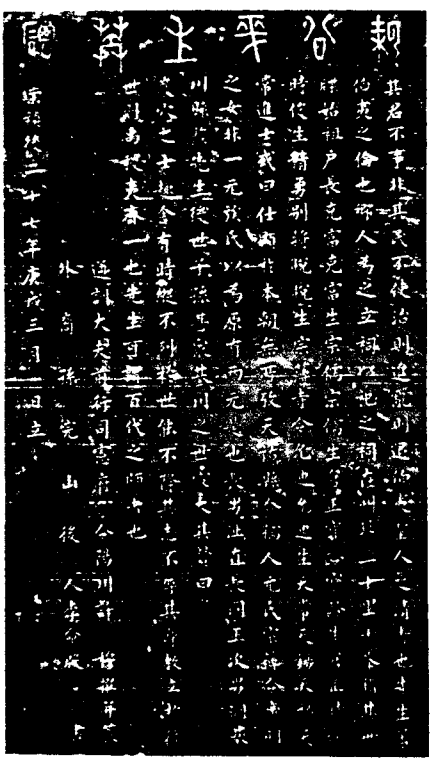
묘 비 : 운곡선생은 고려 국자감(國子監) 진사 벼슬을 지냈다. 국자감은 고려시대 유학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은 관청으로 성균관(成均館)의 딴 이름임

소재(所在) : 원주시 행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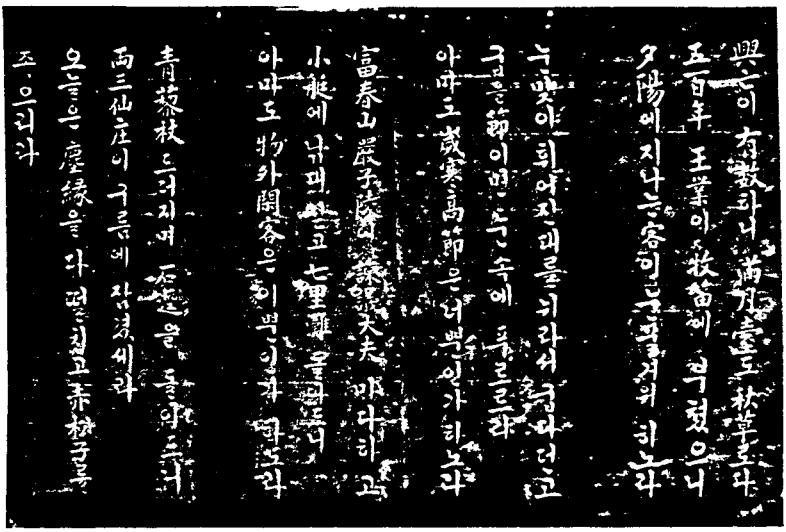


묘갈(墓碣) 선생의 묘 바로 아래 있으며 이묘갈을 보면 운곡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 선생의 장서(藏書) 여섯 권이 있었는데 그 장서는 망국(亡國)의 고사를 기록한 것이라 선생이 자손들에게 경계하여 함부로 열어 세상에 전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 해를 지난 뒤에 어떤 자손 한 사람이 몰래 열어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여 온 문중이 화를 입겠다」고 하고 모두 불살라 버렸으므로 그 책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도 남은 시집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른바 시사(詩史)이다…」 묘갈 머리에 가로 씌어 있는 글씨는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전서(篆書)이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하여 그의 그 전서를 충전(虫篆)이라 하고 이 서체를 서예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소재(所在) : 원주시 행구동



시비(詩碑) : 운곡선생의 묘 옆 모운재(慕耘齋) 앞
앞에 자리하고 있다. 1984년에 세움,
글씨 : 정강 장일순



興亡이 有數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부쳤으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누엣이 되어 잔 디를 이라서 울다니고
그믈을 깁이면 도로 숙에 들으라라
아마도 歲寒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富春山 嚴子陵과 首陽山 夷齊가
小樓에 낚대 씻고 七里灘 물과 같다니
아마도 物外閑客은 이뿐인가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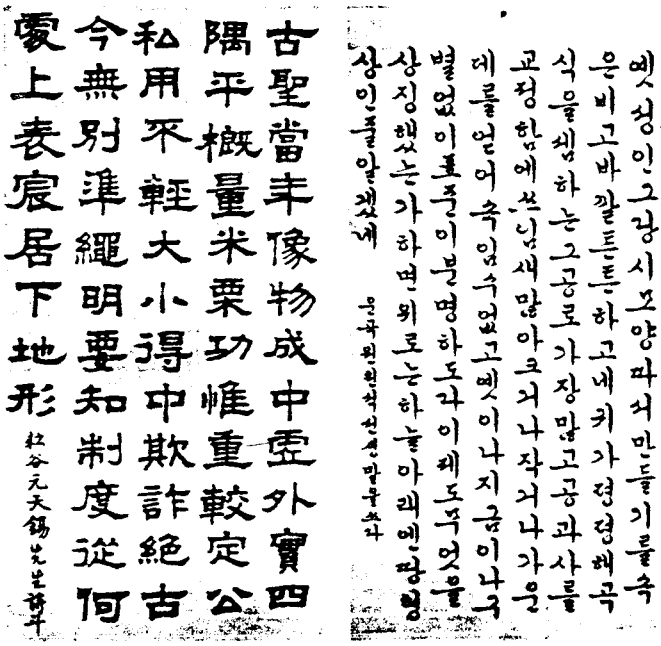
靑藜杖 드리지며 草鞋를 들어 신고
兩三仙友 다 버리고 어듸로 가시는고
오는 이 塵緣을 다 떨치고 赤松子를 좇으리라

시조(時調) 수(四首) : 시비(詩碑) 바로 옆에 있으며 시조 네 수 중 첫째 수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임.
시인 박경용은 연시조의 효시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아니고, 이 네 수라고 주장한 글을 발표한 바 있음.

덧붙임

- 말(斗)—원전석 지음
- 율시(律詩)한 수 운곡(耘谷)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 외에 활(弓), 솥(鼎), 장(窓), 칼(鈎), 기와(瓦), 벼루(硯), 가을비(秋雨) 등의 심라만상이 모두 시(詩)의 소재(素材)였다.

'耘谷元天錫詩史'에서
글씨 : 原堂 柳河哲



古聖當年像物成 中盌外實四
隅平 概量米粟 功帷重 較定公
私用不輕 大小得中 欺詐絶 古
今無別 準繩明要 知制度從 何
處上表 宸居下地形

耘谷元天錫先生詩帖

옛 성인 그 당시 모양 따서 만들기를 숙
은비고 바깥 튼튼하고 네 귀가 정정해 곡
식을 셈하는 그 공로 가장 많고 공과 사를
교정함에 쓰임새 많아 크거나 작거나 가운
데를 얻어 숙임수 없고 옛이나 지금이나 구
별 없이 똑같이 분명하도다 이제 도덕 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위로는 하늘 아래에 땅 형
상인 줄 알겠네

운곡 원천석 선생 말씀 속자

幽谷宏師於上院寺朱砂窟之西峯新搆一菴名之日無住嘉其高絶物一首呈于宏上人

締搆新菴養道情
俯看來往白雲行
眠通上下虛空遠
心豁三千世界平
風定茶軒煙自鎖
夜深禪榻月長明
上人燕坐觀無住
無住心從甚處生

유곡(幽谷) 굉(宏) 대사가 상원사(上院寺)의 주사굴(朱砂窟) 서쪽 봉우리에 암자를 새로 짓고 암자의 이름을 「무주암(無住庵)」이라고 하였는데, 그 높고 뛰어난 경치를 아름답게 여겨 시 한수를 지어서 굉(宏) 대사에게 올림

새 암자 지어 두고 도 닦는 대사
오가는 흰구름 내려보며 다니니
눈은 위 아래의 머나먼 허공을 통하고
마음엔 삼천 대천 세계가 활짝 트이었다.
바람 고요한 다헌(茶軒)엔 연기만 자욱하고
밤 깊은 선탑(禪榻)엔 달이 길이 밝아 오네.
말없이 앉아 무주(無住)를 관하는 대사여
그 무주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 上院寺 幽谷 宏스님과의 사귐 : 운곡의 작품에는 유불선(儒佛仙) 3교(三敎) 一三敎一理一와 노장(老莊) 철학이 용해(溶解)되어 있다. 사귐의 상대 역시 유림(儒林), 고승(高僧)이었고, 서신의 주고 받음이 많았다.

又謝沈瓜

無人見訪簞瓢巷
有物來從松桂門
甘脆數枚曾細嚼
甜酸一榼又全呑
已痊渴病兼飢病
深感天恩與法恩
擬欲共師同飽炙
宜須淨備掃茶軒

또 유곡(幽谷) 스님으로부터 보내 온 침과(沈瓜)에 대해 사례함

단표(簞瓢)의 이 거리를 찾는 이가 없는데
물건이 송계(松桂)의 문에서 보내 왔네.
달고 연한 것 몇 개를 잘게 씹어 보다가
달콤하고 시큼한 맛 한상자를 또 모두 먹었네.
목마름 병 주림 병이 이미 다 제거됐으니
하늘 은혜와 법의 은혜 길이 감사해.
스님과 함께 그 적(炙)을 한껏 먹으려 하오니
깨끗이 준비해 두고 다헌(茶軒)을 소제하시길.

○ 감사(感謝)하는 삶 : 술, 적, 약, 잠외, 오이, 오얏, 밤, 홍시, 살구, 복숭아, 미나리…등의 선물을 받고 사례의 시를 썼다. 누구가 방문함에 대한 고마움도 시화 했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와 맥을 같이 한다.

횡성(橫城)에 관련된 작품(作品) 세 수

辛卯三月向金剛山到橫川

草軟花紅千里春
垂鞭信馬出城闉
行行漸近花田境
頻向樵蘇問友人

신묘(辛卯)년 3월에 금강산(金剛山)으로 가는 도중 횡천(橫川)에 이르다

연한 풀 붉은 꽃 봄 길 천리에
이내 몸 말에 실려 성문을 떠났네.
가고 또 가다가 화전(花田)땅에 다가서선
나무군 만날 적마다 벗 소식을 물었다오.

○ 橫城과 관련된 作品 3편 : 耘谷 元天錫 詩史, 耘谷行錄 卷之一에서 橫川은 橫城의 삼국시대, 고려때의 郡名

宿橫川

旅舘寥寥一夜遥
夢尋蓬島渡雲橋
覺來忽見東窓白
半破氷輪掛樹梢

횡천(橫川)에서 묵다

고요한 여관 방에 하룻밤이 지루해
꿈길에 봉래섬(蓬島)찾아 구름다리 건넜다오.
깜짝 깨어보니 동창(東窓)이 밝았는데
반쯤 깨진 어름 바퀴가 나무가지에 매달렸네.

七月 橫川途中

山霧霏微晴未晴
草深溪路絶人行
就中何物撩詩思
隔岸一鳩呼雨鳴

七월에 횡천(橫川)을 지나면서

희미한 산안개는 개려다 안 개려다 하는데
풀이 깊은 시내길에 사람 발길 끊어졌네
그 가운데 어떤것이 시 생각을 돋우는가
언덕 너머 비둘기 비를 부르며 우네

운곡 원천석 선생을 기리며

날이 차다.

추위를 모르는 소나무, 잣나무들만이 치악산 기슭에 무늬져 우리들의 눈길을 끈다.

서릿발 같은 기개를 펴신 운곡 원천석 선생을 기려 초.중.고학생 휘호대회를 이 한겨울에 갖게 됨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요, 어이새키 여물쑤는 사랑방처럼 훈훈하구나!

산나물과 석간수로 재 채우고 목 추긴 서민의 삶을, 곧고 맑은 정신을 운곡 원천석 선생에게서 찾자는 것은 이 고장에 은거하셨던 조상의 얼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이니 붓으로 밭을 갈듯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동양사상이 운곡의 한시 (한시) 1144수에 용해되어 있으므로 이제까지 묻혀 있었던 이 값진 순수문학에 학생들이 깊이 접함으로써 이 고장 우리네 삶이 보다 윤택해질 것이리라. 치악에 기대고 섬강에 발담근 거인(거인)이 되자꾸나.

운곡선생 추모 휘호대회에 성원해 주신 학생, 선생님, 지역사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1991. 1. 26.

운곡 원천석선생 추모 휘호대회

대 회 장 장 일 순

.....

휘호대회 일정

- 접 수	09:40 - 10:00
- 인 사 말	10:00 - 10:05
- 심사기준 및 유의사항	10:05 - 10:15
- 명제 배부 및 좌석 배열	10:15 - 10:20
- 휘 호	10:20 - 12:20
- 심사 및 시상	12:20 - 13:00

운곡 원천석선생을 기리며

몹시 더울 때를 삼복 더위라고 합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무더위를 무릅쓰고 참가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습작 과정에서부터 애써 지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학생들을 인솔하신 선생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1 회 휘호대회 때 '萬古淸風'을 한문으로, '치악산 운곡 맑은 물소리'를 한글로 국민학교 학생들의 고사리 손으로 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왔는지 모릅니다. 학생 제군에게 묻습니다. 1등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까? 올바로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문이라고 하지요. 운곡선생께서는 평생동안 옳게 사신 훌륭한 스승입니다. 운곡선생의 삶과 문학, 그리고 사상을 본받읍시다.

오늘은 시조 백일장을 겸했습니다. 어떤 시조시인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연시조의 첫 작품이 아니라, 운곡선생의 시조 세 수가 연시조의 첫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시조의 첫 작품이 아니라, 운곡선생의 시조 세 수가 연시조의 첫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조들의 표현 기교는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문학이 읽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한문으로 된 문학은 한국 문학이 아니라는 식민사관 곧, 전통단절론이 어용 학자에 의해 오래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곡선생에 대한 연구가 각계 각층에서 활발할 뿐만 아니라, '운곡원천석서사'가 종친회에 의해 벙역되었으므로 학생들이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 고장은 정신적으로 윤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시교육청 청사 앞을 지나 오면서 '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신한국인 육성' 이라는 슬로건을 보셨지요? 여러분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함은 이 슬로건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아낍시다. 우리 모두 큰 그릇이 됩시다.

" 치악에 기대고 섬강에 발 담근 거인(巨人)이 됩시다. "

운곡 선생 추모 시조 배일장, 휘호대회에 성원해 주신 학생, 선생님, 원주시교육청여러분, 원주여자중학교 여러분, 지역사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7월 28일

제 2 회 운곡 원천석선생 추모

휘호대회 대회장 장 일 순

운 곡 문 학 회 회 장 양 근 열

운곡 원천석 선생 추모 휘호대회

- 제 1 회 (1991년 1월 26일) -

◇ 대 상 : 초. 중 고등학생

◇ 장 소 : 카톨릭 센타

◇ 대회장 : 장 일 순

수상자 현황

훈 격	등 위	학 교 명	학년	성 명
대회장상	장 원	복원 국교	3	김 원 석
	차 상	단계 국교	1	현 석 윤
	차 하	복원 국교	4	김 정 은
	가 작	매지 국교		윤 미 옥
교육장상	장 원	문막 국교	6	조 덕 현
	차 상	명륜 국교	6	한 정 미
	차 하	명륜 국교	4	정 진 국
	가 작	중앙 국교	5	김 범 중
시장상	장 원	원주 여중	2	이 나 영
	차 상	대성 중	2	조 근 일
	차 하	원주 여중	2	장 기 은
	가 작	원주 여중	2	오 지 연
	가 작	원주 여중	1	엄 미 라
상지대총장상	장 원	육민관 고	2	조 재 경
	차 상	원주 여고	1	고 은 경
	차 하	육민관 고	2	서 창 원

구 분	등 위	학 교	학 년	성 명
국민학교	금 상	북 원 국	6학년	김 원 석
	은 상	원 주 국	6학년	박율리아
	은 상	문 막 국	6학년	구 본 정
	은 상	북 원 국	5학년	임 종 현
	동 상	고 산 국	5학년	권 미 현
	동 상	단 구 국	6학년	전 두 희
	동 상	북 원 국	6학년	김 보 현
	동 상	북 원 국	5학년	김 재 성
	동 상	흥 업 국	6학년	조 효 준
	장 려 상	교 동 국	6학년	신 승 현
	장 려 상	고 산 국	5학년	최 유 리
	장 려 상	명 륜 국	6학년	전 상 미
	장 려 상	교 학 국	6학년	어 선 동
	장 려 상	단 계 국	5학년	신 현 희
	장 려 상	북 원 국	5학년	최 윤 조
	장 려 상	문 막 국	5학년	이 밝 음
중학교	금 상	횡 성 중	3학년	임 종 수
	은 상	문 막 중	3학년	조 덕 현
	은 상	원 여 중	1학년	김 정 은
	은 상	원 주 중	2학년	원 남 연
	동 상	원 여 중	2학년	백 효 정
	동 상	원 여 중	2학년	최 정 임
	동 상	원 여 중	2학년	전 찬 희
	장 려 상	원 주 중	3학년	김 종 현
	장 려 상	육민관중	1학년	윤 미 옥
	장 려 상	육민관중	2학년	함 효 전
	장 려 상	횡 성 중	3학년	문 상 건
	장 려 상	횡 성 중	2학년	우 종 석
	장 려 상	진 광 중	3학년	최 태 문
고등	금 상	원주고등	2학년	조 근 일
	은 상	상지여중고	1학년	김 지 연
	동 상	원주고등	1학년	정 민 수

- 제3회 (1994년 7월 26일) -

구 분	등 위	학 교	학 년	성 명
국민학교	금 상	일산국교	6-4	김 주 경
	은 상	명륜국교	5	김꽃보라
		교동국교	6-2	윤 희 정
	동 상	횡성국교	6-1	신 원 경
		태장국교	6	손 은 정
		고산국교	6	최 유 리
		서원국교	6-1	지 길 환
		성북국교	5-3	원 동 재
		북원국교	6-1	김 재 성
		북원국교	6-4	신 혜 선
중학교	금 상	원 여 중	3-8	최 정 임
	은 상	육민관중	1-1	김 미 현
		원 여 중	1-4	박율리아
	동 상	원 중	3-4	원 남 면
		육민관중	2-2	윤 미 옥
		학 성 중	1-1	권 성 근
	가 작	원 여 중	3-8	전 찬 희
		원 여 중	1-5	신 서 영
		치 악 중	3-3	정 중 원
		치 악 중	2-3	박 상 민
고등학교	금 상	원 주 고	1-8	박 일 준
	은 상	상지여고	2-3	길 경 미
	동 상	원 고	1-3	김 종 현
	장 려	원 고	1-8	이 수
		원 고	3	조 근 일

제 2 회 운곡 원천석선생 추모 학생 휘호대회 명제

▣ 일 시 : 1993. 7. 28. 10:00 ~ 13:00

▣ 장 소 : 원주여자중학교 1학년 6-10반 교실

부 별	한 문	한 글
국민학교	物外閒客	돌샘을 뚫어 갈증을 풀고 산나물을 캐 가난을 위로하네
중학교	陋拙齋 弁岩草	운곡의 한평생 가엾어라. 겉치레 꾸밈없는 그 마음 얼근히 취해 시나 읊으니 먼 산과 시내가 동정의 빛이네.
煙嵐旦今古日月自東西 所欲樂天耳庭柯已午鷄		흥망이 유수하니 만얼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돌샘을 뚫어 갈증을 풀고 산
나물을 캐가 난을 위로 하네

- 북원국교 5학년
임 종 현
은 상

開穿石井常澆渴
收拾山蔬且慰貧

- 육민관고 제2학년
서 창 원

눈마자 휘어진대를 뉘라서 굽다턴
고구블절이면 눈속에 프를소냐아
마도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주여중 제1학년

엄 미 라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왕업이 목적에부쳤으니 석양
에지나는객이 눈물겨워하노라

– 상지여종고 제1학년

김 지 연

陋拙齋 弁岩草

은상
원주군 문막중학교 3학년
조 덕 현

운곡원천석선생 추모 시조 백일장

- 제 1 회(1991년 1월 26일) -

구 분	등 위	학 교	학 년	성 명
국민학교	금 상	교 동 국	6학년	김 지 희
	은 상	해 장 국	5학년	윤 예 슬
	동 상	교 동 국	6학년	채 정 환
	동 상	교 동 국	6학년	전 하 늘
	장려상	교 동 국	6학년	백 민 경
	장려상	치 악 국	6학년	김 영 란
중학교	금 상	원 여 중	3학년	김 상 미
	은 상	육민관중	3학년	이 연 주
	동 상	원 여 중	3학년	전 찬 주
	동 상	육민관중	3학년	한 종 인
	장려상	치 악 중	1학년	구 선 영
	장려상	상지여중	2학년	조 연 화
	장려상	평 원 중	1학년	김 경 옥
고등학교	금 상	원주고등	2학년	이 태 우
	은 상	원주여고	2학년	김 덕 연
	은 상	연주여고	2학년	박 정 인
	동 상	원주고등	2학년	박 병 호
	동 상	대선고등	2학년	최 승 혁
	장려상	원주고등	2학년	변 해 운

구 분	등 위	학 교	학 년	성 명
국민학교	장 원	치 악 국 교	6학년	염 혜 리
	차 상	치 악 국 교	6학년	이 은 경
	차 하	치 악 국 교	6학년	이 현 경
	가 작	교 동 국 교	6학년	정 하 나
중학교	장 원	육민관중학교	3학년	김 소 연
	차 상	치악중학교		김 연 옥
	차 상	진광중학교		주 명 옥
	차 하	원 주 여 중	3학년	고 나 영
	차 하	치악중학교		최 효 영
	차 하	평원중학교	2학년	김 경 옥
	가 작	진 광 중		안 태 일
	가 작	원 주 여 중	3학년	이 주 란
	가 작	육 민 관 중	2학년	강 종 원
고등학교	장 원	원 주 고 교		박 상 준
	차 상	원 주 고 교	1학년	이 준 복
		원 주 고 교	1학년	최 돈 호
	차 하	대 성 고 교		김 기 년
		원 주 고 교	2학년	임 의 진
		원 주 고 교		고 한 주
	가 작	원 주 고 교		성 효 제
		원 주 고 교	2학년	이 원 택
		원주여자고교	2학년	엄 미 숙
	장 려	원 주 고 교	1학년	임 일 형

시조(時調) 백일장 제목

부 별	제 목 (택일할 것)
국민학교	산. 숲. 엄마손. 도시락. 김매는 늙은이
중 학 교	복(伏) 달임 (=복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민속). 치악산. 쌀. 그네. 수박
고등학교	시인 원천석선생. 여름밤. 칠석(七夕). 우후개화(雨後開花). 갈등(葛藤). 핵(核).

- 제 1 회

<금상>

그 네

원주여자중학교 3학년
김 상 미

발굴러 도약하는 아낙스런 다홍치마
쪽빛 댕기 흩날리는 저 달빛 향기 어려
하늘을 품은 옷자락 바람 결에 일렁인다.

구름을 유희하는 힘이 선 몸짓으로
어우러진 자연 소에 웃음을 뿌리우고
흩어진 머리칼 속에 땀은 홀러 어린다.

노을빛 하늘녘엔 황혼이 춤을 추고
화려한 다홍치마 사뿐히 내려 앉아
총총히 걸음걸음을 즈려 밟고 떠나간다.

<금상>

갈 등

원주고등학교 2학년
이 태 우

인생의 머나먼 길 어지럽고 험한 길에
험준한 계곡계곡 잃기 쉬운 그 길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그 길 가면 아니 어려우리니
가리라, 나의 길을 부딪는 일 잦다해도
그래야 나의 길을 아니 잃고 가리니

산

교 동 국 교 6학년
김 지 희

이리 와 안아 주고 울지 마라 품어 주고
이리 봐도 엄마손 저리 봐도 아빠 얼굴
그래서 오늘도 산새들이 모여 든다.

이리 와 엎어 주고 울지 마라 재워 주고
이리 봐도 엄마품 저리 봐도 아빠 마음
그래서 오늘도 산새들이 지저귄다.

<은상>

치 악 산

육민관 중학교 3학년
이 연 주

맑은물 노래하는
치악산 정상에서

지난일 생각하며
회상에 빠져든다.

아픔의 쓰라린 고통
누구에게 주었나.

영롱한 이슬 맺힌
풀들을 만나보며

뜻없이 살아가는
나무들 사이에서

지내온 수 많은 날을
말없이 바라본다.

기나긴 세월속에
물들여진 초록 내음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아래

인내의 진실한 삶을
푸르르게 꿈꾼다.

<은상>

김매는 늙은이

원주태장국민학교 5학년
윤 예 슬

오늘도 자라나는 마음속의 잡초를
논이랑 갈고매며 오늘도 김올맨다
뽑아도 뽑아내도 무심한 잡초들아

여 름 밤

원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 덕 영

잠 아니 오기에 배 깔고 누웠어도
모아드는 달빛엔 희미한 추억뿐,
내마음 아는지 밤새 우는 소쩍새.

가득한 달빛에 가쁜 숨으로
별빛보다 고운 누이를 그리는 밤
백일홍 작은 잎에 감아도는 이슬이여.

<은상>

여 름 밤

원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 정 인

하늘 찌를 무더위 빌딩 숲에 비길까
달빛에 삭히는 건 땀에 지친 껍데기 뿐
오늘도 바람 따라 고향길로 나설까나.

<동상>

치 악 산

육민관 중학교 3학년
한 종 인

청명한 하늘아래
끝없이 펼쳐져

낮이면 산새와
밤이면 샛별과

정다운 친구 되어
신록을 자랑한다.

한낮의 불볕더위
소리없이 내려도

뫼 끝에 오르면
더위도 달아나고

언제나 드높은 기상
자아내는 치악산

긴역사 오랜 세월
수 많은 삶의 고통

말없이 참아온
인내의 숨소리

원주의 기상과 절개
치악에 담으리라

<동상>

쌀

원주여자중학교 3학년
윤 찬 주

밤나무 걸터앉은 가는 해 붉은 노을
할베의 공(空)한 은발 황혼빛에 출렁이고
힘줄 선 고목 손등에 팽이를 쥐노라니.

누런 한복 걷어 올려 한웅큼 씨를 박고
맴도는 시골아이 커단 웃음 속삭이여
땡볕이 부서져 내려 바람결에 묻힌다.

마침내 자라난 그네들의 작은 결실
땀방울 비춰지고 웃음꽃 함박피어
익어난 쌀 한톨만이 할베냄새 훔친다.

<시조>

치 악 산

원주여자중학교 2학년
정 하 나

창공을 찌를듯이 퍼지는 웅장함에
대지를 적셔주는 부드런 그 푸른빛
숙연히 느껴지는 그 기상 그 절개.

폭포수 낙하하는 계곡의 우렁참과
사계절 색동을 바꾸어 차려입고
겨울날 눈보라는 꿈꿔본들 뭐하랴.

백범이 뛰어놀고 신선이 쉬어가던
넓푸른 산림초목 드높은 금수강산
지금의 그곳위에 이내몸 다바치리.

<장원>

어 머 니

육민관 중학교 3학년
김 손 연

너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마
고통만은 낭게, 나에게 주려므라
삶에서 건너는 길은 네 것을 보호하마

그렇듯 보호하고 나에게 길이 되신
어머니의 넓으신 희생과 정신력은
인생의 보호막같은 역할을 하곤하죠.

진주보다 아름답고 눈부신 어머니
어머니의 숨결은 인생의 방패이고
당신의 마음 속만은 저에게 힘이 되죠.

<장원>

바 다

치악국민학교
6학년 1반
염 혜 리

조개 껍질 주워다 바다에 담가 보고
넓고 넓은 바다에 펼쳐보는 내 꿈들
수평선 저 노을 넘어 바다끝까지 돌고 돈다.

바다에 밤이오면 달빛이 꿈 뿌리지만
등대에 할아버지 불을 키면 사라진다
바다는 감싸안는다. 녹아 버린 내 꿈들을

통일의 노래

원주고등학교
박 상 준

한반도 끊어진 지 어느 덧 반여세기
언제나 마음 속에 맺혀진 민족의 한
이제야 가슴속에서 하나하나 꺼내네.

강산이 생멸하고 시대가 변화해도
언제나 불변한 것. 그것은 통일염원
통일의 오랜 바램이 사라질 수 있으랴.

이제야 이뤄질까 한민족 민족의 혈
새로이 생겨 나는 민족의 우호 다짐
비로소 오랜 한들을 하늘 멀리 보내네.

<차상>

시인 원천석선생

원주고 1학년
최 돈 호

치악의 정기 받아 이 땅에 태어났네
비단길 마다하고 수풀에 가리우니
나라의 흥망성쇠가 안개에 휩싸이네.

흥망의 갈림길이 수풀에 있었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수풀을 못 보는가.
하물며 이 어찌 국운이 기울지 않을소냐.

<차하>

부 채

대성고등학교
김 기 년

섬강이 아래 쪽에 위쪽엔 치악산이
내게 있는 부채엔 치악산과 섬강있다
부채를 부칠 때마다 편안함을 느낀다.

치악의 까치소리 내 정신 일깨우고
섬강의 물소리는 내 땀방울 씻어 준다.
이 부챈 나에게 있어 心身의 고향이다.

<차하>

통 일 의 노 래

원주고 2학년
임 의 진

꽃향기 풍요롭고 아침 햇살 따스한
고향의 오솔길을 거닐던 그 옛날을
세월이 잊게 하려오 우리네의 그 때를

차가운 강물 위에 종이배 띄어 놓고
너와 나 알몸으로 물장난하던 그 옛날을
세월이 잊게 하려고 우리네의 그 때를

황금빛 들판 위로 바람이 춤을 출때
너와 나 장구치며 춤추던 그 옛날을
세월이 잊게 하려오 우리네의 그 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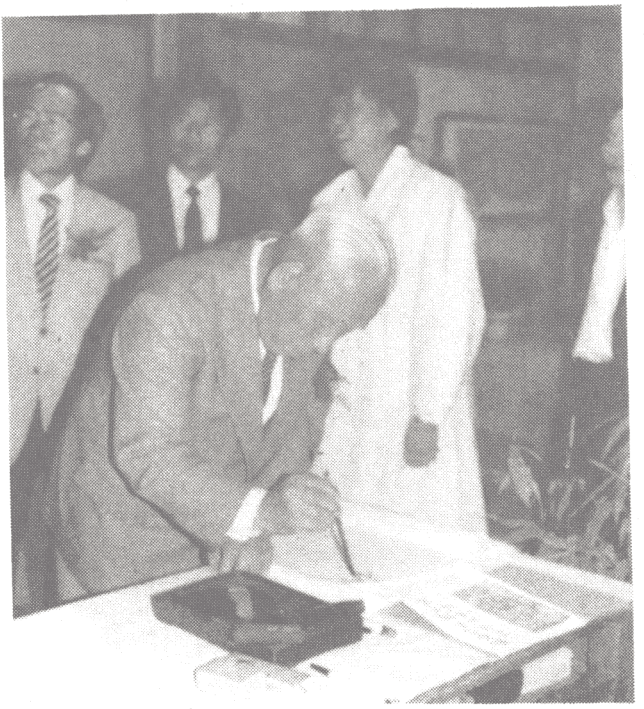
천사의 날개짓에 어둔 하늘 밝아질 때
너와 나 호호 불며 고구마 먹던 그 옛날을
세월이 잊게 하려오 우리네의 그 때를

구비구비 강물이 네 소식을 알려 주니
지금은 멀리 있는 너를 위해 달려가오
너와의 이별 뒤에 소중함을 느꼈기에

고난과 배고픔이 끝없이 위협해도
조금만 기다리오 당신을 찾아가니
너와의 이별 두에 소중함을 느꼈기에

차가운 내 마음에 남아 있는 네 자리
다시금 채우려고 더 이상은 참아서
너와의 이별 두에 소중함을 느꼈기에.

1983년 박노춘교수와 변암 현지 답사하다.
[우로부터 양근열, 이영주, 박노춘 교수님]



1985년 10월 11일 1회 운곡 원천석 선생
유적 탁본전
[원인식 종친회장(앞), 정환목교장선생(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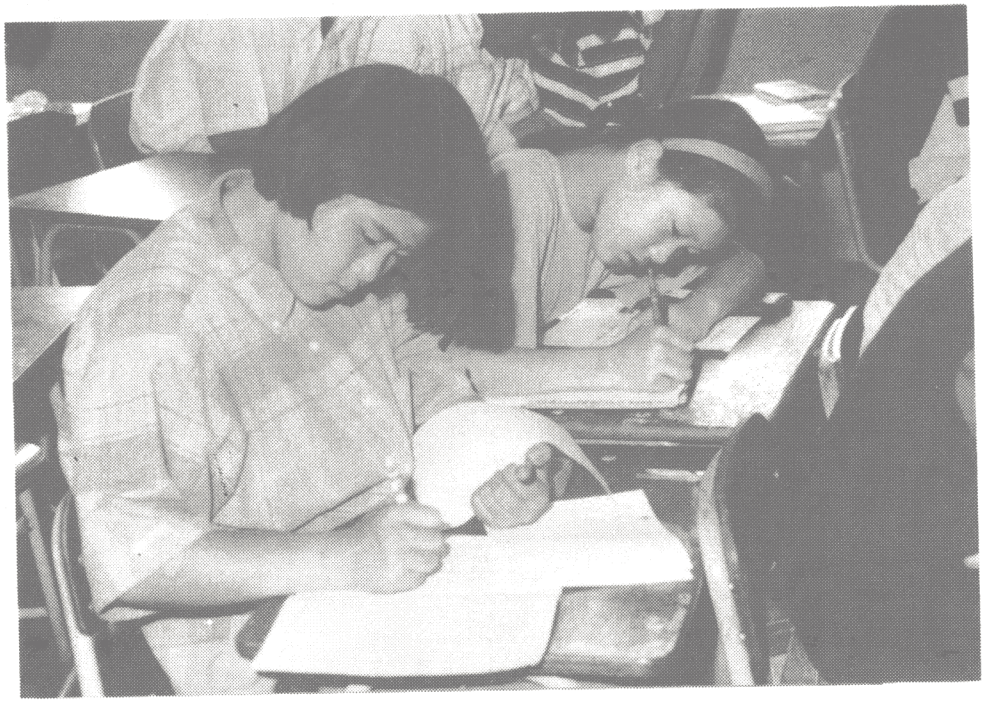
1985년 10월 11일 1회 운곡 원천석 선생
유적 탁본전
[원인식 종친회장(앞), 정환목교장선생(중앙)]

1989년 9월 23일 2회 운곡 원천석선생
유적 탁본전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좌로부터 정계항, 권혁신 군수, 경찰서장등 실에서
횡성군청대회의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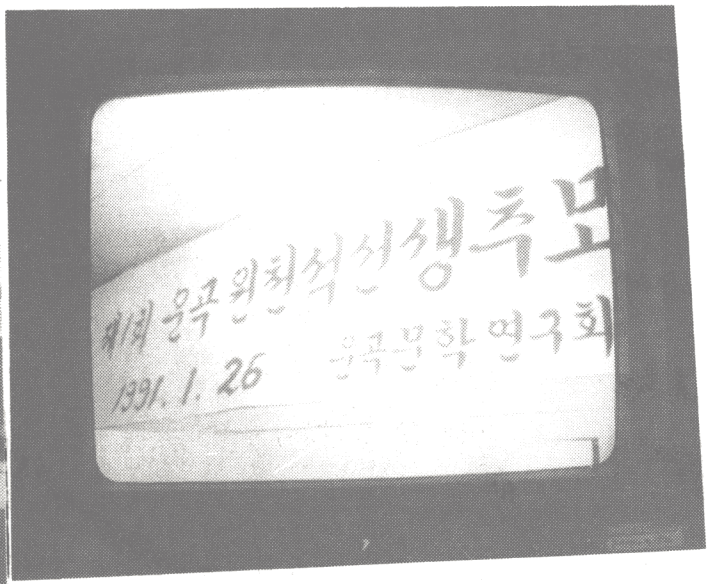
제 2 회 휘호대회에서 필력을 겨루는 학생들의 모습
(1993. 7. 28 원주여중에서)

개 회 식 광 경

개회식을 마치고 장일순선생이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 2 회 시조 백일장
시작(詩作)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제37회 개교기념
1982. 9. 29 운곡원천석 추모시화전
(원주여고)

회 원 명 부

운곡문학연구회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박 노 춘	(422-040)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418-27	(032) 654-6314	경희대국문과 명예교수
박 태 기 호 : 春坡	(133-192) 서울 성동구 자양2동 648-32 철원고등학교 근무 성균관대졸업	(02) 201-2107 (0353)55-6323	강원도 철원 고교감
이 홍 재 호 : 南川	(220-13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동보렉스 201동 303호 동국대 법과 졸업	(0371) 43-8635 (0372) 42-8014-5	강원도 횡성 군 서원중 교 사
홍 성 준	(230-80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단계아파트 7동 401호 원주여자고등학교 근무 강원사대 한문교육과 졸업	(0371) 44-7323 48-2562	강원도 원주여고 교 사
이 영 주	(120-094)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104-58 인왕아파트 1동 101호 (157-032) 서울 강서구 등촌동 525 영일고등학교	(02) 736-2646 651-3586	서울 영일고 교사
김 호 길 호 : 半江	(220-180)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56-18 성대법과 졸업 고대 대학원 한문교육과 졸업	(0371) 44-2509	원주 대성고 교사
양 시 영	(152-010) 서울 구로구 독산3동 896-7 5통 5반 (156-030)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9-75 중원빌딩 1층 현대자동차 낙성대영업소 대리	(02) 883-3678 597-5037-9	현대자동차(주) 회사원
양 근 열 호 : 德岩	(220-040)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세경아파트 7동 301호	(0371) 43-5210 (0371)763-0322~6	강원도 원주고 교사
김 성 찬 호 : 禮齊	(220-122)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380-20 6/3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수료	(0371) 42-5896	서울시사편찬 사료조사원
강 영 구 호 : 七齊	(200-082)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854-3 4통 2반	46-1400	설촌서예학원 원장 서예가